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 박주화 · 홍석훈 · 송영훈 · 이상신 · 조원빈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 박주화 · 홍석훈 · 송영훈 · 이상신 · 조원빈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KINU 연구총서 15-04)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소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앤피(02-2277-4718)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02-517-5043)

ISBN 978-89-8479-832-8 93340
남북통합, 국민의식조사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02451
가 격 16,500원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 요약	xiii
-----------	------------	------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조사 내용	5
	3. 조사의 기본설계	9

II	한국사회의 통합인식	13
	1. 한국사회의 정체성	15
	2. 이슈별 인식	31
	3. 수용성과 포용성	41
	4. 북한인식	52
	5. 남북관계와 통일	60

III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의식 비교	83
	1. 통일의 필요성	85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87
	3. 통합의 장애요소	88
	4. 정부에 대한 신뢰도	90
	5.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및 관계맺기	91
	6. 남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95
	7. 정책적 시사점	98



IV	심층분석: 통합의 요인, 범주, 유형	101
	1. 통합의 필요성 및 북한인식의 요인	103
	2. 남북통합의 세 가지 범주: 가치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수용	144
	3. 북한인식의 네 가지 유형과 대북정책	181

V	결론	219
---	----	-----

• 참고문헌	225
• 부록 1.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29
1. 조사설계	229
2. 결과 집계표	232
3. 설문지	355
• 부록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인식조사 설문지	36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369



표 차례

〈표 IV- 1〉 북한에 대한 네 가지 인식 상관관계 분석	108
〈표 IV- 2〉 북한에 대한 인식 합산척도 기술통계	109
〈표 IV- 3〉 정책적 측면 세 가지 요인 기술통계	112
〈표 IV- 4〉 정책적 요인 분석	113
〈표 IV- 5〉 정치적 요인 분석	117
〈표 IV- 6〉 경제적 요인 분석	122
〈표 IV- 7〉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요인 기술통계	126
〈표 IV- 8〉 사회적 요인 분석	127
〈표 IV- 9〉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기술통계	130
〈표 IV-10〉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분석	131
〈표 IV-11〉 다섯 가지 요인 종합 분석	136
〈표 IV-12〉 한국사회가 향후 10년, 통일 후 지향해야할 목표: 1순위	155
〈표 IV-13〉 통일한국의 가치지향 1순위 2순위 응답 조합표	156
〈표 IV-14〉 통일한국의 우선시 목표 1순위/2순위(2015)	157
〈표 IV-15〉 한국사회, 통일한국의 갈등수준 인식(2015)	160
〈표 IV-16〉 한국사회 발전방향성, 주관적 경제만족도 교차표	162
〈표 IV-17〉 다문화 수용과 국가결속력에 대한 인식(빈도)	167
〈표 IV-18〉 관계맺기 유형별 ‘꺼리지 않는다’ 응답	170
〈표 IV-19〉 집단별 사회적 거리감 기술통계	171
〈표 IV-20〉 북한 이미지별 평균값	190
〈표 IV-21〉 북한인식 요인분석 요인적재값(2014/2015)	192
〈표 IV-22〉 협력요인-대결요인 변수의 내적타당도	193

〈표 IV-23〉 군집별 분포	198
〈표 IV-24〉 군집별 북한인식 비교	199
〈표 IV-25〉 연령대별 군집분포	200
〈표 IV-26〉 성별 군집분포	202
〈표 IV-27〉 지역별 군집분포	203
〈표 IV-28〉 학력별 군집분포(2014년)	206
〈표 IV-29〉 학력별 군집분포(2015년)	206
〈표 IV-30〉 정당지지와 군집분포(2014년)	207
〈표 IV-31〉 정당지지와 군집분포(2015년)	209
〈표 IV-32〉 북한인식 군집과 정치이념	210
〈표 IV-33〉 대북정책 여섯 유형 문항의 내용과 평균값	212
〈표 IV-34〉 군집별 대북정책 선호 평균값	213





그림 차례

〈그림 Ⅰ- 1〉 남북 통합의식의 구성요소	9
〈그림 Ⅱ- 1〉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15
〈그림 Ⅱ- 2〉 영역별 자긍심	17
〈그림 Ⅱ- 3〉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	19
〈그림 Ⅱ- 4〉 기관별 신뢰도	20
〈그림 Ⅱ- 5〉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1	22
〈그림 Ⅱ- 6〉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2	24
〈그림 Ⅱ- 7〉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3	25
〈그림 Ⅱ- 8〉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26
〈그림 Ⅱ- 9〉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28
〈그림 Ⅱ-10〉 항목별 사회갈등 수준	33
〈그림 Ⅱ-11〉 사회갈등 발생원인	34
〈그림 Ⅱ-12〉 사회갈등의 사회발전 영향	35
〈그림 Ⅱ-13〉 항목별 통일 이후 사회갈등 변화	37
〈그림 Ⅱ-14〉 주장별 공감도	38
〈그림 Ⅱ-15〉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공존 찬반	42
〈그림 Ⅱ-16〉 다민족 국가의 결속력	43
〈그림 Ⅱ-17〉 계층별 인구수 증가에 대한 의견	44
〈그림 Ⅱ-18〉 계층별 친근함에 대한 의견	46
〈그림 Ⅱ-19〉 계층별 동네이웃에 대한 의견	47
〈그림 Ⅱ-20〉 계층별 직장동료에 대한 의견	48
〈그림 Ⅱ-21〉 계층별 결혼 상대자에 대한 의견	50

〈그림 II-22〉 북한에 대한 관심도	52
〈그림 II-23〉 북한정보 획득 경로	54
〈그림 II-24〉 북한에 대한 인식	55
〈그림 II-25〉 북한주민에 대한 항목별 이미지	56
〈그림 II-26〉 북한정권에 대한 항목별 이미지	57
〈그림 II-27〉 통일의 필요성	60
〈그림 II-28〉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62
〈그림 II-29〉 국가의 통일효용성 인식	64
〈그림 II-30〉 자신의 통일효용성 인식	66
〈그림 II-31〉 통일문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주요 사안	67
〈그림 II-32〉 통일한국의 우선시 목표	68
〈그림 II-33〉 정책별 남북통합 기여도	70
〈그림 II-34〉 정책별 정부의 대처능력 평가	71
〈그림 II-35〉 대북정책별 찬반	73
〈그림 II-36〉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필요 사안	76
〈그림 II-37〉 항목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저해요소	76
〈그림 II-38〉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이주에 대한 의견	78
〈그림 III- 1〉 통일의 필요성-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86
〈그림 III- 2〉 통일의 개인적 이익-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87
〈그림 III- 3〉 통합의 장애요소-북한이탈주민	89
〈그림 III- 4〉 통합의 장애요소-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89
〈그림 III- 5〉 정부에 대한 신뢰도-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90

〈그림 Ⅲ- 6〉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각 계층별 친근함	92
〈그림 Ⅲ- 7〉 계층별 친근함-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93
〈그림 Ⅲ- 8〉 결혼 상대자로서 각 계층에 대한 호감-북한이탈주민	94
〈그림 Ⅲ- 9〉 결혼 상대자로서 각 계층에 대한 호감 -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95
〈그림 Ⅲ-10〉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96
〈그림 Ⅲ-1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이미지(2015)	97
〈그림 Ⅳ-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107
〈그림 Ⅳ- 2〉 남북한 사회통합 인식의 세 가지 범주	152
〈그림 Ⅳ- 3〉 주관적 경제만족도, 사회 발전방향성과 통일 후 갈등의 심각성 인식	163
〈그림 Ⅳ-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방향성, 경제만족도	173
〈그림 Ⅳ- 5〉 민주주의 수준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74
〈그림 Ⅳ- 6〉 국민적 자긍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75
〈그림 Ⅳ- 7〉 한국사회 신뢰수준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77
〈그림 Ⅳ- 8〉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	184
〈그림 Ⅳ- 9〉 북한인식 4군집 모형	186
〈그림 Ⅳ-10〉 북한인식 군집과 대북정책 선호 모형	188

〈그림 IV-11〉 2014년 데이터의 평행성 분석	191
〈그림 IV-12〉 2015년 데이터의 평행성 분석	191
〈그림 IV-13〉 2014년 북한인식 산포도(도수 가중치)	195
〈그림 IV-14〉 2015년 북한인식 산포도(도수 가중치)	195
〈그림 IV-15〉 2014년 북한인식 산포도(4군집 표기)	197
〈그림 IV-16〉 2015년 북한인식 산포도(4군집 표기)	197
〈그림 IV-17〉 군집별 대북정책 선호 방사그래프	214

요약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남북통합에 대한 호감도 및 준비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제도적 통합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여섯 개의 분야에 대해 인식조사를 하였다. 첫 번째 분야인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기관별 신뢰수준, 향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비전)와 한국사회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분야인 '사회적 이슈별 갈등과 통합수준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식 및 우리 사회의 국민적 공감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통일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한국사회의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분야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다섯 번째 분야인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정부정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대해 선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통일 관련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국민통합의식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도

발에 대해 튼튼한 안보에 의해 억지력을 확보하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향후 우리 사회와 통일 이후 지향해야 할 가치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증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대해 균형을 지닌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일곱째,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민족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적절히 융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차원의 통일편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남북사회통합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남북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수용성과 동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통일 이후 남북한의 내적통합에 대비해야 한다.

주제어: 통합, 국민의식, 사회갈등, 북한인식, 대북정책

Abstract

A Survey of People's Opinions on South-North Integration: Perception, Factor, Category, and Types

Park, Jongchul et 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rough a survey whether people are ready for and favor the South-North integration, to present basic information to facilitate people's shared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ion, and to prepare for unification in the broader sense, encompassing the unification process as well as institutional and socio-psychologic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eople's opin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rather than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The survey is composed of questions in six different areas: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tensions surrounding social issues and level of integration, acceptance and tolerance towards South-North integratio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and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s' attitude toward integration.

To prepare for unification and integration, the people's awareness on the benefit the unification can bring to individuals should be raised and comprehensive measures need to be set up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to build a foundation upon which conflicts that the integration process entail can be managed productively. Tolerance for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two Koreas, a sense of homogeneity, and conflict management capability in Korean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to lead the post unification internal integration of Korea more rationally.

Keywords: Integration, Public Opinion, Social Conflict, Percep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n Policy



I. 서론

1. 연구 목적

70여 년 동안 남북분단이 지속됨에 따라 남북한은 체제, 이념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극단적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다. 남한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보다는 비용과 통일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의식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남북통합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조사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남북통합에 대한 호감도 및 준비정도를 측정하고,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제도통합 및 사회심리적 통합이라는 통일개념 확대와 통일준비에 대한 남북통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통일 이후 남북통합까지 염두에 둔 국민의식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여론조사는 통일 이후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제도통합과 사회심리적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일반적인 국민의식 경향, 배경 변수의 영향, 국민인식의 변화 전망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4년 국민의식조사와의 연속 선상에서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다양한 교차분석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기존연구에서 통합은 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상호 협력적 소통과 호혜적 신

I
II
III
IV
V

뢰관계를 통해서 내부 행위자들(agents)의 보편적 질서와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¹ 남북통합은 공동체 내부의 각 행위자들이 상호 간 협력적인 소통과 상호의존적 신뢰관계의 갈등해소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통합은 모든 요소와 집단의 동질화(homonization)와는 다른 개념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구축과 이질적 제도의 통합이 요구된다. 남북통합을 구조의 통합, 의식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한 부분별 구분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번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제도적 통합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갈등해소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개인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민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해 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중요한 경험적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통합 시 상호 협력적 공존이 가능할 것인지, 혹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동화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가능하게 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내적 과제의 핵심은 통일의 국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국내적 역량강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 및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여론은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1.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1~62.

2.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3~4.

받는데 국제정세, 북한의 대남정책, 남북관계,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남한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세대별 연령 구성비율의 변화에 따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인식은 변화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국민인식을 모니터링해야만 한다.

또한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남북통합에 대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기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의 제도통합, 남북한 주민의 국민통합 등을 실질적으로 대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번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경향을 파악하여 남북통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사 내용

설문 문항은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첫 번째 영역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기관별 신뢰수준, 향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비전)와 한국사회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종합적 인식과 부분별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세부영역 주제는 민주주의 발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경제성장, 사회보장, 과학기술의 발전, 스포츠, 예술과 문화, 군사력, 역사,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 10개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국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한 항목이다. 한국사회의 종합적 신뢰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대표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치화할 수 있을 것

I
II
III
IV
V

이다. 기관별로는 군대, 시민단체, 대통령, 노동조합, 종교단체, 대기업, 행정부, 여론, 사법부, 정당,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로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12개의 항목을 3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우선순위 2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 발전과 안정, 분배와 변화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영역 '사회적 이슈별 갈등과 통합수준에 대한 인식'으로서 한국사회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식 및 우리 사회의 국민적 공감도를 조사하고 통일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찾는다면,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통합을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요인들을 미리 파악한다면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이 장기적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고, 국민들이 예상하는 통일 이후 갈등수준을 조사하였다. 항목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등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고 갈등요인으로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 개인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부족과 오해,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예상되는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일부는 응답자들에게 적극적 선택을 요구하는 4점

척도를 이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한국사회의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이 국가적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등이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태도와 그들에게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적극적 선택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부 사회구성원들과 동네이웃, 직장동료, 결혼 상대자 등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다원적 사회통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통하여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북한정보 획득 경로와 북한을 지원, 협력대상 그리고 경제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분석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를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의 국가이미지와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의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다섯 번째 영역인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묻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정부정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의 이익에 대해 전체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다른 연구기관의 통일의식조사 내용과 비교하기 위한 항목들이다. 통일한국의 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시 중요 사안과 통일한국의 우선시

I
II
III
IV
V

목표를 질문하였고,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정책의 국민의견 반영도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책별 대처능력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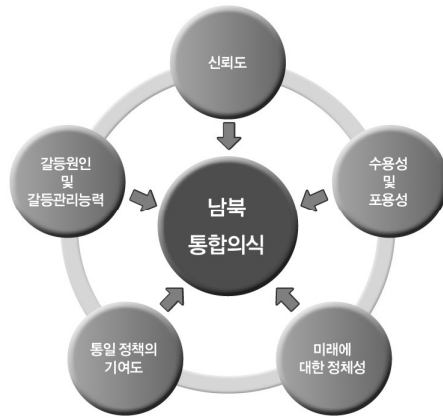
여섯 번째 영역으로 ‘남북한 주민의 통합의식 비교’로 북한이탈주민을 설문조사하여 남북한 통합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설문조사는 북한주민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발생하게 될 다양한 갈등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각 행위자들을 남한정권, 남한주민, 북한정권,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들로 구분하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은 개인적 변수, 정치 및 정책 관련 태도 변수, 경제적 변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변수는 결혼 여부, 학력, 종교, 신앙 활동 수준 등이다. 정치적 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 정당 선호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었다. 경제적 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수준에 대한 자기평가, 직업, 계층에 대한 자기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인구학적 특성은 설문항목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된 것으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코딩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³

³-위의 책, p. 8.

● 그림 1-1 남북 통합의식의 구성요소



출처: 필자 작성

3. 조사의 기본설계⁴

이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포함시켰다. 표본의 수는 1,000명이며 2014년 8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현장실사는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⁴ 2014년 국민의식조사의 설문조사 기본설계와 동일하며,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추가하였다. 위의 책, pp. 8~10.

I
II
III
IV
V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이용하였다. 현장실사에 앞서 현대리서치에서 조사원 교육을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는 현장 면접원에 의한 검증, 지역 감독원에 의한 검증, 본사 감독원에 의한 검증, 전산검증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마다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지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자들 중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 참가 여부와 면접 내용을 검증하였다. 원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산자료의 공개는 통일연구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조사결과의 분석은 문항별 기초통계분석과 심층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기초통계분석은 주요 문항별 조사내용을 성, 연령, 지역, 결혼, 학력, 국정운영평가, 월평균소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차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심층분석은 한국의 '사회갈등 실태 및 사회통합'과 '대북인식 및 사회통합'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부록에는 문항별 집계표와 주요 인구학적 변수의 교차표를 제공하였다. 사례수와 변수 항목별 응답자의 비율이 제시되어있다. 4점 척도 혹은 5점 척도 변수는 종합열에 긍정과 부정 혹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통합한 응답자의 비율도 기록하였다. 4점 척도 문항의 4점 평균은 각 척도별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고, 이 경우 100점 환산평균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 0점, 부정적 응답 33.3점, 긍정적인 응답 66.6점, 가장 긍정적인 응답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평균점수이다. 5점 척도 문항의 5점 평균은 각 척도별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고, 100점 환산평균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 0점, 부정적인 응답 25점, 보통 50점, 긍정적인 응답 75점, 가장 긍정적인 응답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평균점수이다. 즉 100점 환산평균은 각 척도별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에 따라 응답자 비율 혹은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는 통일연구원의 ‘신통일대계’⁵ 연구의 일 부로서 시행되었다. ‘신통일대계’에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조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240명이며, 남한 거주기간 및 성별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을 구성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이 북한이탈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후 4명의 면접 조사원을 선발하여 설문 진행과정에 대한 교육을 거친 후 1:1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버전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⁵ ‘신통일 대계’의 2년차 연구, 김수암 외,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Ⅱ. 한국사회의 통합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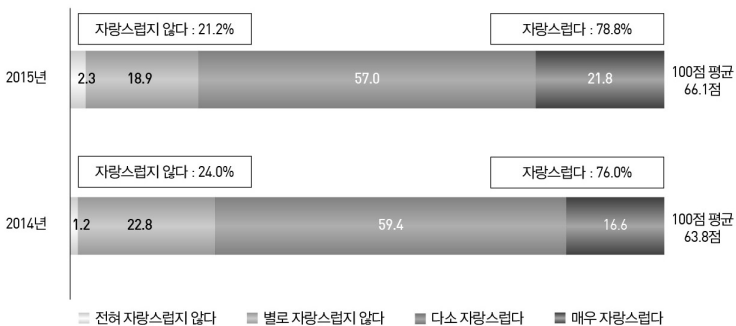
1. 한국사회의 정체성

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국민으로서의 전반적인 자긍심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78.8% (매우 자랑스럽다: 21.8% + 다소 자랑스럽다: 57.0%)가 한국 국민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국 국민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2.3% +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18.9%)였다. 2014년과 비교할 때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2.8% 소폭 증가하였다(2014년 76.0%).

● 그림 11-1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남성(76.6%, 65.6점)과 여성(81.0%, 66.6점)의 자긍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87.6%, 70.5점)이 가장 높았으며, 30대(70.7%, 58.9)가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긍

심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82.9%, 74.0점), 인천/경기(84.6%, 69.3점), 대전/충청(79.6%, 69.3점) 지역의 응답자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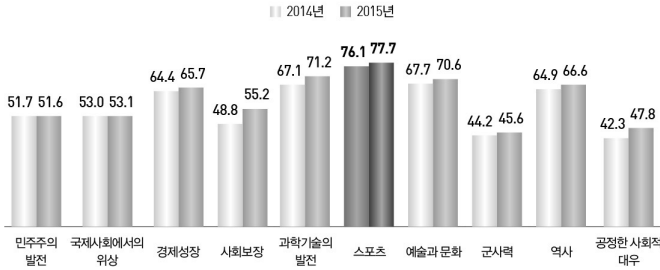
학력별로 중졸 이하(88.5%, 73.2점)의 자긍심이 고졸(78.8%, 66.2점) 및 대졸(74.7%, 63.1점)의 자긍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졸과 대졸의 자긍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91.8%, 74.6점)이 부정(74.4%, 63.2점)보다 높았으며,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85.4%, 71.8점)인 응답자가 진보(72.9%, 61.6점), 중도(78.2%, 65.2점)인 응답자보다 자긍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 자긍심이 2014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자긍심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권역은 대구/경북 지역과 광주/호남 지역이었다. 2015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8.8%(59.5점)로 2014년(85.4%, 70.2점) 대비 16.6%(10.7점) 감소하였다. 반면 광주/호남 지역은 2014년에 47.6%(47.2점)가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28.9%(15.5점)가 증가한 76.5%(62.7점)가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0개의 구체적 영역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긍심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자긍심에 대한 학력, 지역, 이념별 공감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긍심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수준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1-2 영역별 자긍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90.4%, 77.7점)’ 영역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워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82.9%, 71.2점),’ ‘예술과 문화(82.2%, 70.6점),’ ‘역사(74.3%, 66.6점),’ ‘경제성장(74.3%, 65.7점)’ 순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회보장(57.3%, 55.2점),’ ‘민주주의 발전(55.4%, 51.6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55.3%, 53.1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자랑스럽다고 보고하였다. ‘공정한 사회적 대우(45.1%, 47.8점),’ ‘군사력(38.4%, 45.6점)’ 영역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영역별로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영역에서는 여성의 자긍심이 남성의 자긍심보다 높았다.

세대, 정치적 이념,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른 영역별 자긍심은 정치 영역과 비정치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예술과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 ‘군사력’ 및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세대, 정치적 이념,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른 편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민주주의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I
II
III
IV
V

위상, '경제성장', '사회보장'과 같은 정치/경제 영역에서는 세대, 정치적 이념,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20대와 30대의 자긍심이 50대와 60대의 자긍심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40대는 중간정도의 자긍심을 보였다. 중졸자가 대졸자에 비해 자긍심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졸은 중간정도의 자긍심을 보였다.

정치적 이념에 따른 영역별 자긍심의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전',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자긍심이 진보와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자긍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는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보다 모든 영역에서 자긍심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자긍심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분배와 균형의 영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적 영역에 대한 높은 자긍심은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분배와 균형 영역에 대한 자긍심은 전 세대에 걸쳐 낮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향후 정치/경제적 영역에서는 세대별 갈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분배정의에 대한 요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분배정의와 관련된 갈등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2014년에 비해 영역별 자긍심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사회보장' 그리고 '공정한 사회적 대우' 영역에 대한 자긍심이 2014년에 비해 각각 9.6%, 8.4% 올랐다는 점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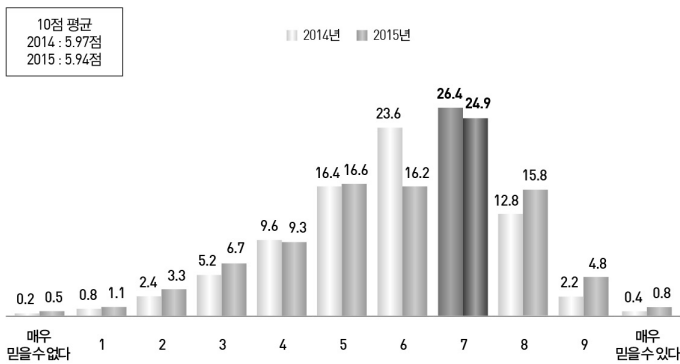
나.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11점 척도(0점: 매우 믿을 수 없다, 10점: 매우 믿을 수 있다) 기준으로 5.97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중 24.9%가 '7점'에 응답하였으며,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62.5%였다.

한국사회에 대한 여성의 신뢰도(6.11점)가 남성의 신뢰도(5.83점)보다 높았으며, 20대(5.59점)와 30대(5.72점)의 신뢰도는 60대(6.33점)의 신뢰도보다 낮았다. 20대와 30대의 신뢰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졸(6.64점)의 신뢰도가 고졸(5.93점)과 대졸(5.74점)의 신뢰도보다 낮았으며, 고졸과 대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진보(5.79점)와 중도(5.89점)의 신뢰도가 보수(6.26점)보다 낮았으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신뢰도 차이가 뚜렷하였다(긍정: 6.62점 vs. 부정: 5.75점).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2014년(5.94점)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 **그림 II-3**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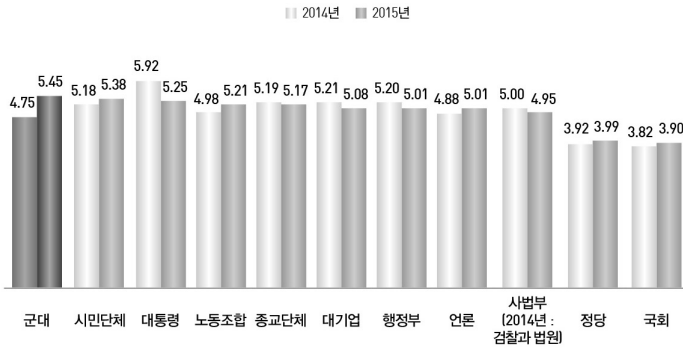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 그림 II-4 기관별 신뢰도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기관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점 내외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대(5.45점)가 가장 높았으며, 시민단체(5.38점), 대통령(5.25점), 노동조합(5.21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당(3.99점)과 국회(3.90점)는 3점대의 점수를 보이며 10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기관별 신뢰도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은 전반적 신뢰도와 비슷하였다. 여성의 신뢰도가 남성의 신뢰도보다 높았으며, 60대의 신뢰도가 20~30대의 신뢰도보다 높았다. 중졸의 신뢰도가 고졸과 대졸의 신뢰도보다 높았으며, 보수의 신뢰도가 진보 및 중도의 신뢰도보다 높았다. 국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자에 비해 신뢰도가 낮았다.

군대의 경우 20대의 신뢰도가 30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신뢰도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인 응답자의 신뢰도가 중도 및 보수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2014년(4.75점) 대비 신뢰도 변화가 가장 큰 기관은 군대로서 신뢰도가 전년대비 약 15%(0.7점) 상승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기간 중(2015년 7월 27일~8월 14일)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2015년 8월 10일)에 대한 우리 군의 침착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5.92점) 대비 0.67점 하락하였다. 설문조사 직전인 2015년 5월과 6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보인다.

다.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

향후 10년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발전과 안정,' '거버넌스,'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각 분야별 4개의 목표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였다.

먼저 '발전과 안정' 부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4%)이 '높은 경제 성장 유지'를 향후 대한민국이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았으며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22.5%),' '방위력 증강(11.4%),' '환경개선(10.7%)'이 그 뒤를 이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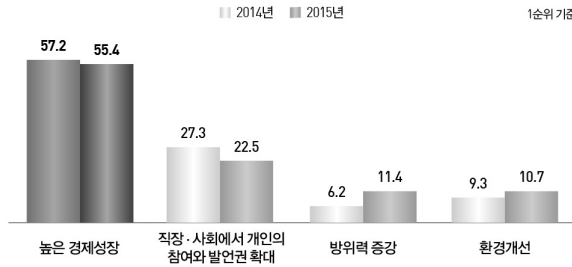
III

IV

V

● 그림 11-5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1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높은 경제성장 유지’가 76.1%로 가장 높았고,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47.1%),’ ‘환경개선(39.4%),’ ‘방위력 증강(37.1%)’ 순이다. ‘높은 경제성장 유지’에 대한 선호가 확실한 가운데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에 대한 요구 역시 50% 가량 차지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에 대한 요구 역시 상당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거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각 수준에서 ‘높은 경제성장 유지’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광주/호남 지역에서는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43.1%)’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경제성장 유지(26.5%)’를 1순위로 꼽은 비율보다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가 관찰된 것이다. 20대와 30대, 그리고 대도시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직장, 사회에서의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응답자, 진보, 중도 응답자 역시 '직장, 사회에서의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중시하였다.

방위력 증강에 대한 연령, 지역별, 국정운영 평가별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중소도시 및 읍면 거주자, 인천/경기 그리고 대전/충청 지역 거주자들은 타 연령,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방위력 증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응답자와 보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방위력 증강'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문제 해결이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2014년과 2015년의 결과는 일치한다. 반면 주목할만한 차이는 '방위력 증강'을 중장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2014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4년 조사에서는 '방위력 증강'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환경개선'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낮았지만 2015년에는 선호가 역전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2014년(6.2%)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응답자(11.4%)가 방위력 증강을 대한민국이 향후 10년간 지향해야할 목표로 선택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방위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28.3%) 대비 8.8% 증가한 37.1%의 응답자가 '방위력 증강'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하였다. 이는 북한의 상시적 군사 위협 속에서 극우 아베 정권의 등장,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 DMZ 내에서의 목함지뢰 사건 등이 안보 및 군사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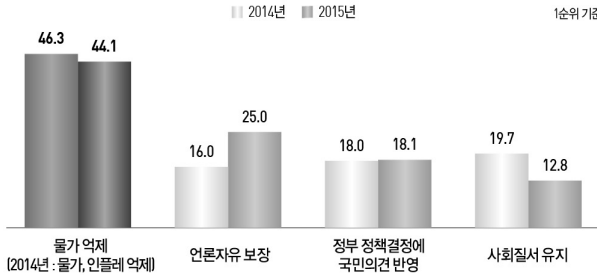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목표에 대해 44.1%의 응답자가 '물가 억제'를 1순위로 꼽았다. '언론자유 보장(25.0%),'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의견 수렴(18.1%),' '사회질서 유지(12.8%)'가 그 뒤를 따랐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보면, '물가, 인플레이 억제'가 65.3%로 가장 높았

I
II
III
IV
V

고, ‘사회질서 유지(48.1%),’ ‘언론자유 보장(43.3%),’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의견 수렴(43.1%)’ 순이었다.

● **그림 II-6**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2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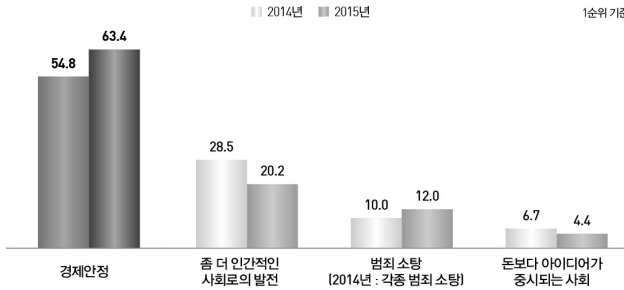
모든 계층에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물가 억제’를 꼽았다는 점은 2014년의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2014년 대비 ‘언론자유 보장’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4년에는 ‘언론자유 보장’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2015년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외에 모든 계층에서 ‘언론자유 보장’을 ‘사회질서 유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점은 언론자유에 대한 필요성이 특정 계층의 요구가 아닌 전반적인 요구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영역인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제안정(63.4%)’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그 뒤를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20.2%), '각종 범죄 소탕(12.0%),'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4.4%)'가 따랐다.

● **그림 11-7**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3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경제안정'이 79.7%로 가장 높았고,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59.3%),' '각종 범죄 소탕(40.2%),'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20.8%)' 순이었다.

모든 계층에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안정'을 꼽았으며, 계층수준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 '경제안정'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지역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이념성향별 차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 선호도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14년에 비해 경제안정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8.6% 증가한 반면,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8.3% 감소하였다. '경제안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것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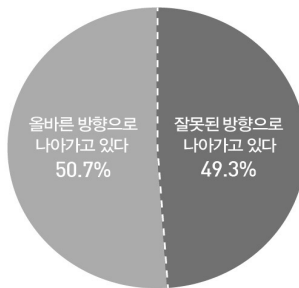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2014년에 비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목표 의식을 표출한 것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향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에 대한 지향성 역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라. 한국사회의 방향성

한국사회가 향후 추구해야할 가치 및 목표와 함께 현재 한국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목표 설정과 실행과정을 지배하는 담론에 대한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미래 가치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감대 수준을 이해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그림 II-8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출처: 필자 작성

현재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50.7%)’과 ‘잘못된 방향(49.3%)’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인구통계학적 편차가 관찰되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지만, 50대와 60대의 경우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40대는 두 응답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권역별로도 편차가 관찰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68.6%의 응답자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6.2%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응답하였다. 서울 지역은 두 응답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학력별, 국정운영 평가별, 이념성향별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비율이 높았으며,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는 ‘잘못된 방향,’ 긍정적인 응답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였다. 정치적으로 진보와 중도인 응답자의 경우 두 반응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보수인 응답자의 경우 ‘올바른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컸다.

마. 한국경제에 대한 만족도

앞서 한국 국민은 ‘높은 경제성장률,’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안정’과 같은 경제 관련 목표들을 향후 10년간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목표로 선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2.5% (매우 불만족한다: 14.2% + 다소 불만족한다: 58.3%)로 ‘만족한다’는 27.5% (매우 만족한다: 1.2% + 다소 만족한다: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모든 수준에서 현 한국경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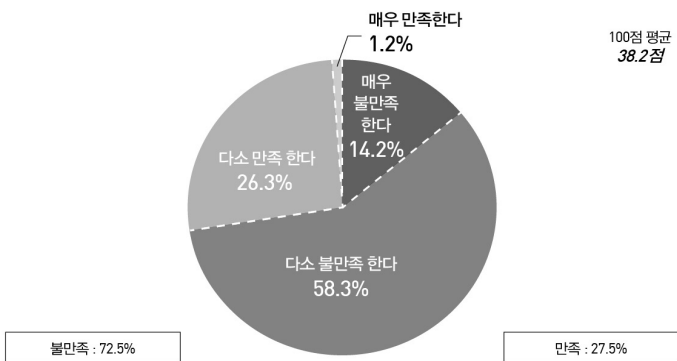
V

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만 불만족의 정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60대(37.4%, 42.6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26.0%, 39.0점), 30대(23.4%, 36.2점), 40대(25.0%, 36.2점), 50대(24.0%, 36.3점)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0대에서 50대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호남 지역(44.1%, 47.1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17.1%, 30.1점), 대구/경북(21.6%, 33.3점), 인천/경기(22.8%, 36.0점), 서울 지역(26.6%, 36.9점)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졸(19.7%, 34.5점)과 고졸(28.1%, 38.7점)의 만족도는 비슷하지만, 중졸(44.2%, 44.5점)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45.5%, 46.9점)의 만족도가 부정적인 응답자(21.3%, 35.2점)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그림 II-9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출처: 필자 작성

바. 정책적 시사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4년 대비 2.8% 증가한 78.8%로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자긍심 정도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스포츠, 예술과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 경제성장 부분에서 높은 자긍심을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위상, 민주주의 성숙도, 사회보장, 공정한 사회적 대우 분야에서는 비교적 낮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대비 사회보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 영역에서 5% 이상 자긍심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은 2014년과 유사하였다.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관찰된 세대, 이념, 학력별 자긍심의 차이는 정치/경제에 대한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치적 영역(예: 스포츠,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에서는 세대, 이념, 학력에 관계없이 자긍심이 높았다. 반면 공정한 사회적 대우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자긍심이 낮았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의 분배정의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종합적 신뢰도는 평균 5.97점(11점 척도 기준: 0~10점)으로 2014년(5.94점)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각 기관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군대에 대한 신뢰도가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당(3.99점)과 국회(3.90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2014년 대비 군대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설문조사 기간 중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침착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대비 가장

I
II
III
IV
V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조사기간 직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가 향후 10년 동안 지향해야 할 목표로 '발전과 안정' 영역에서는 '높은 경제성장 유지,'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물가 억제'를,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 영역에서는 '경제안정'을 선택하였다.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과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의 확대'와 같은 탈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것은, 함께 사는 사회, 인간적인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상당함을 시사한다.

경제 관련 목표를 향후 한국사회가 중요시해야 할 지향점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2014년 결과와 차이는 없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방위력 증강' 및 '언론의 자유'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방위력 증강'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항시적 위협, 일본 극우정권의 등장, 중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조사기간 중 발생한 북한의 도발 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언론의 자유'를 선택한 응답자가 증가한 것은 메르스 사태 등에서 정부가 병원정보 공개를 거부 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언론의 자성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문제 중심의 목표 의식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현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계층 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 고학력 응답자, 정치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인 응답자,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하였다.

한국사회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다. 응답자의 27.5%만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향후 10년간 목표로 경제문제를 선택한 것은 현재 경제상황의 불만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슈별 인식

가. 한국사회의 갈등수준과 사회발전

사회통합은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라기 보다 갈등이 사회질서와 거버넌스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갈등수준과 그러한 갈등이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갈등수준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 인식과 갈등 유형별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갈등에 대한 항목별 사회갈등 수준을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주요 항목별 요소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은 '계층갈등(65.5점)'과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64.7점)'이었다. 두 요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0대에서는 '계층갈등(67.6점)'이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61.2점)'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을 뿐 모든 연령대에서 두 요소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인천/경기 지역은 '계층갈등'이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전/충남 지역은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두 요소 간

I
II
III
IV
V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계층갈등’과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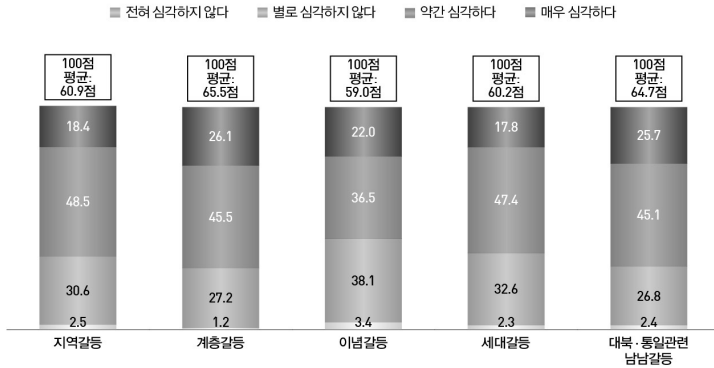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서울(67.5점) 및 인천/경기(74.7점), 강원/제주(71.5점) 지역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계층갈등’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비해 높았다. 대졸(69.8점) 응답자의 심각성이 고졸(63.2점) 및 중졸(60.8점)에 비해 높았다. 보수(67.8점) 및 중도(66.2점) 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이 진보(61.9점)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계층갈등’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에 대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권역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보수(68.8점) 성향의 응답자가 판단한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의 심각성이 진보(62.4점) 성향 및 중도(63.5점) 성향의 응답자가 판단한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의 심각성보다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었다. 반면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가 2014년 대비 3.1% 증가하여 ‘세대갈등’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 역시 2014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요소에 대한 우려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II-10 항목별 사회갈등 수준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한편,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이익 추구'가 40.4%, '정부의 대처 부족'이 12.0% 등으로 집계되었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연령별을 살펴보면, 20대가 47.5%, 권역별로는 서울 48.3%,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53.3%, 국정운영 평가별로는 부정 43.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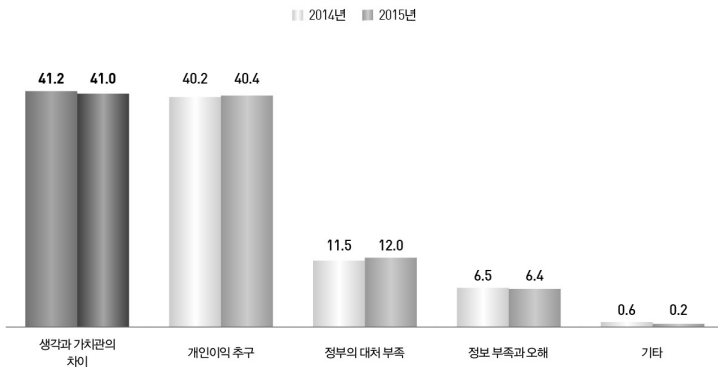
응답자 중 80% 이상이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및 개인적 이익 추구 때문에 한국사회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작년과 비슷한 요인 분석이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대비 20대의 응답에서 다른 연령대와 달리,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20대들이 기성세대보다 급격하게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15년 47.5%, 2014년 44.1%).

- I
- II
- III
- IV
- V

한편, 개인적 이익 추구 경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원인이라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는데, 20대 35.6%, 30대 38.6%, 40대 41.0%, 50대 42.5%, 60세 이상 43.2%로 세대 간 개인이익 추구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II-11 사회갈등 발생원인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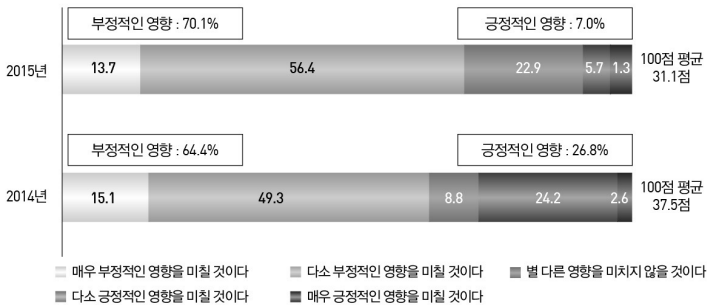
한 사회의 갈등요인들이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현재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사회갈등이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0%(매우: 1.3% + 다소: 5.7%)로 ‘부정적인 영향’ 70.1%(매우: 13.7% + 다소: 56.4%)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도 22.9%로 집계되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70.1%로, 2014년(64.4%) 대비 5.7% 증가하여 지금의 사회갈등이 한국사회의 발전적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100점 환산 평균으로 살펴보자면, 2015년 평균은 37.5점이며, 연령별로 50대가 33.1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고, 40대가 28.7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권역별로는 광주/호남(38.0점), 부산/울산/경남(35.5점), 학력별로 중졸(36.9점), 고졸(31.2점), 초졸 이하(30.7점)로 대졸(29.6점)과 대학원 재학 이상(25.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2 사회갈등의 사회발전 영향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나. 통일 이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한국 국민들이 어떠한 사회적 갈등이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자.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남북 지역 간 갈등(71.0점)’과 ‘이념갈

I
II
III
IV
V

등(68.9점)'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요소에 대한 심각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뒤를 '계층갈등(64.9점)'과 '세대갈등(62.1점)'이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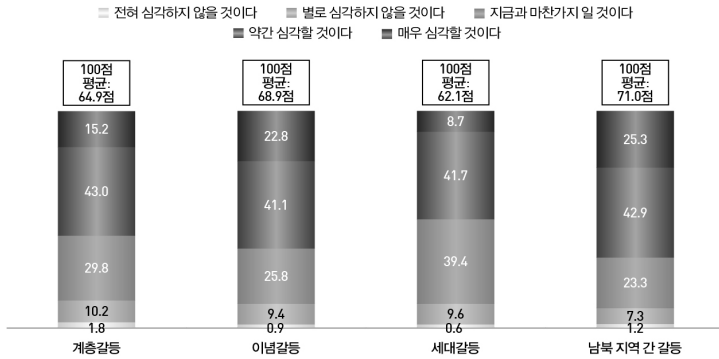
모든 연령수준, 학력수준, 정치적 이념성향 수준 및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수준에서 '남북 지역 간 갈등'과 '이념갈등'이 '세대갈등'과 '계층갈등'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은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다른 갈등요소에 대한 우려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호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응답자는 네 갈등요소에 대한 우려가 비슷하였다.

사회적 갈등 심각수준에 대해 '세대갈등'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2014년 조사 대비 0.8점 상승함), '계층갈등' 35.1점, '이념갈등' 31.1점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대갈등'이라는 응답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남북 지역 간 갈등이 2014년 34.2점으로 2순위였으나, 올해 4순위로(29.1점) 떨어졌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은 '이념갈등' 및 '남북 지역 간 갈등'이 통합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지역적 편차 외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은 통일 이후 갈등요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정치이념별, 국정운영 평가별 심각성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북 지역 간 갈등' 역시 연령별, 학력별, 국정운영 평가별 심각성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73.2점)들은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68.1점)들보다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II-13 항목별 통일 이후 사회갈등 변화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은 2014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계층갈등에 대한 우려가 2014년 대비 5.6% 하락한 반면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2014년 대비 5.1% 상승한 점은 2014년 조사와 다른 점이다.

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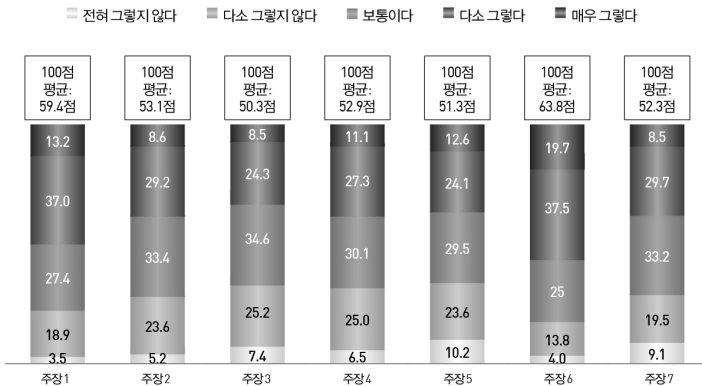
한국사회 전반에 여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고르는 것으로, 아래의 사회적 가치 대립과 관련된 각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점 척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I
- II
- III
- IV
- V

- 주장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 주장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슬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 주장3: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 주장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 주장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 주장6: 최근의 범죄, 성적 타락 및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 주장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그림 II-14 주장별 공감도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각 주장별 공감도는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한다’에 공감하는 정도가 6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59.4점),’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53.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한다’는 응답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의 공감도를 형성하고 있다(2014년 조사 대비 3.6점 상승). 이러한 응답은 최근의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범죄, 성적 타락에 대한 우려와 우리 공통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와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응답은 7가지 질문 중 가장 낮은 50.3점과 51.3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하더라도 폭력적 방법이나 권위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한국 국민들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순종과 존경이라는 덕목보다는 진취적인 덕목이 향후 세대에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권위적 방법에 대한 상대적 지지가 높고, 후세들에 대한 순종과 존경의 덕목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은 ‘계층갈등’과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을 꼽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계층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문제에 관한 남한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우리사회가 빠른 경제적 발전과 경쟁사회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와 ‘개인 이익 추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수준에 대해 ‘남북 지역 간 갈등’과 ‘이념갈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통일 이후 ‘이념갈등’과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는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편차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여 통일 및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사회 공감도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은 최근 증가하는 범죄와 성적 타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국 공통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었다. 반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구성원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린 세대의 덕목으로 권위적인 순종과 존경에 대한 규범에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사회가 사회정의와 민주의식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일 것이다.

3. 수용성과 포용성

가. 다문화 공존과 국가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통합에 대한 우리 국민의 통합의식 척도를 분석할 때,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수용성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먼저 '귀하는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여러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면,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발전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67.9%(매우: 10.5% + 다소: 57.4%)로 '반대한다'는 32.1%(매우: 3.3% + 다소: 28.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산출되었다. 연령별로는 100점 환산으로 계산했을 때, 20대 59.5점, 30대 59.8점, 40대 59.6점, 50대 58.8점, 60세 이상은 54.8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권역별로 대전/충청(63.1점), 서울(61.4점), 강원/제주(61.8점) 순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대구/경북(52.3점), 부산/울산/경남(52.6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학력별 지지도는 대졸(60.6점)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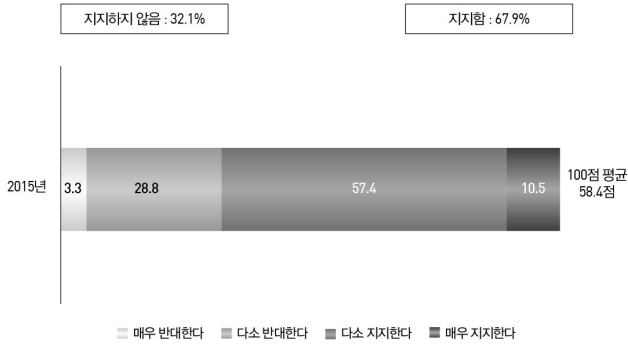
III

IV

V

●그림 II-15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공존 찬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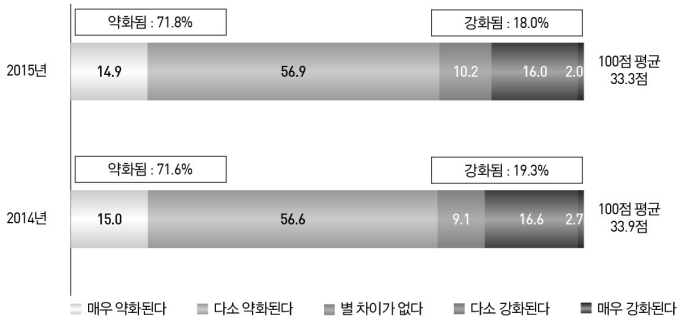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또한, 다문화 수용이 국가의 통합과 결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로서, ‘귀하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5단계 구간을 통해 대답하였다.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응답이 18.0%(매우: 2.0% + 다소: 16.0%)로 ‘약화된다는’의 71.8%(매우: 14.9% + 다소: 56.9%)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화된다는’ 응답은 18.0%로 2014년 19.3% 대비 1.3% 다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II-16 다민족 국가의 결속력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국가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여러 민족을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약화된다’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100점 환산값으로 30대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35.7점), 권역별로 서울(37.3점)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24.3점)이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 대졸(33.9점)/대학원 재학 이상(20.0점)이 최고/최저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의 수용과 공존에는 국민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다른 민족을 수용할 시에는 국가적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강하나, 다른 민족이 우리 국민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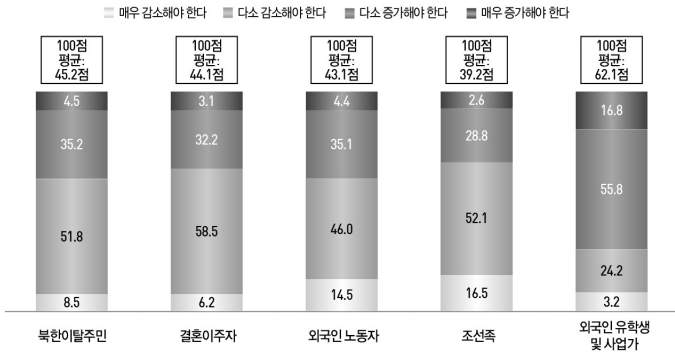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나. 이주민 수용과 친근감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과 친근감을 조사하는 이주민 유입에 관련된 인식조사는 다문화 공존과 국가결속력 측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그룹에 대한 외부 유입 인구수의 증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4단계 측정 구간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중간 척도에 집중되는 현상을 최소화하여,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그림 11-17** 계층별 인구수 증가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각 계층별 인구수 증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가 6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45.2점),’ ‘결혼이주자(44.1점)’ 등의 순으로 측정되었다. 조선족은 39.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45.2점)는 결

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보다 더 긍정적이지만 50점보다 낮은 수치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약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에 대해 연령별로 20대(44.8점), 30대(44.2점), 40대(47.2점), 50대(45.0점), 60세 이상(44.8점)이 비교적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권역별로는 광주/호남이 50.7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대구/경북이 42.2점으로 가장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와 이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계층별 이주민에 대한 친근함을 조사하였다.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계층별 친근감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가 5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46.1점),' '결혼이주자(45.4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40.4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외부 유입계층으로 조선족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조선족보다 친근감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외부 계층별 친근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54.2점)만이 다소 긍정적이었으며 나머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는 50점 이하로 다소 부정적 인식이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엿볼 수 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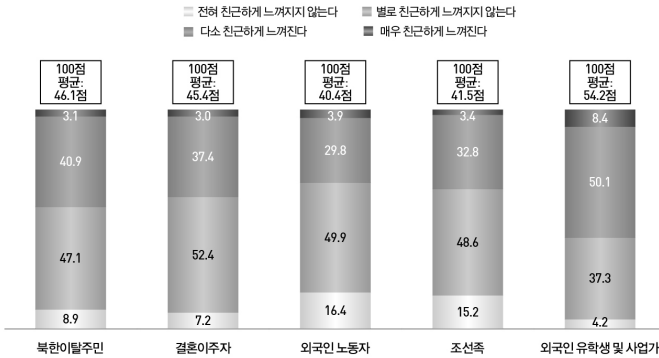
III

IV

V

그림 II-18 계층별 친근함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연령별로 40대가 47.2점, 권역별로는 광주/호남 53.3점,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5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자(46.1점)가 50점 이하라는 것은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융합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다. 사회적 관계맺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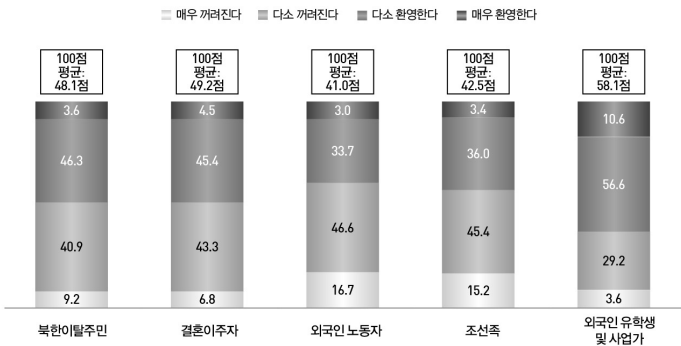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에 있어 국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친화적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이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맺기에 대한 태도와 인식 연구는 사회통합정책에 긍정적 역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주민들과 동네이웃, 직장동료, 결혼 상대자로서 사회적 관계맺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동네이웃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각 계층별 동네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가 5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이주자(49.2점),’ ‘북한이탈주민(48.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라는 응답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집계되었고, 2014년 조사 대비 4.2점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환영도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계층은 여전히 50점 이하인 4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동네이웃으로 부정적 의미가 다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9 계층별 동네이웃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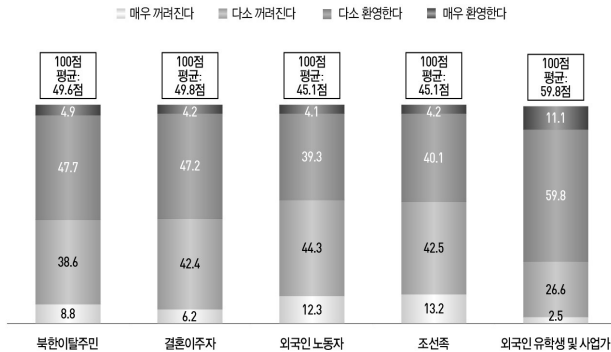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북한이탈주민을 동네이웃으로서 환영한다는 의견은 30대(50.7점), 광주/호남(57.2점), 강원/제주(54.5점), 대학원 재학 이상(55.6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 직장동료에 대한 의견으로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각 계층별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견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가 5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49.6점), '결혼이주자(49.8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라는 응답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나타났는데(2014년 조사 대비 4.2점 상승),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60.8점), 권역별로 서울(64.9점), 학력별로 대졸(61.9점)에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의견이 높았다.

●그림 11-20 계층별 직장동료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2014년 조사와 유사하게 모든 이주민 범주에서 직장동료로의 환영이 동네이웃으로 환영한다는 인식보다 높았다. 이는 직장동료로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주민으로서의 인식보다 다소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30대가 51.1점, 권역별로는 광주/호남 61.1점, 인천/경기 54.7점,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57.8점으로 가장 높은 환영도를 보였다.

각 계층별 결혼 상대자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환영한다는 의견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가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이주자(36.1점),’ ‘북한이탈주민(34.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계층이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의견이 작년 조사와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4년 대비 3.3점 상승),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48.6점), 권역별로 강원/제주(56.9점), 학력별로 대학원 재학 이상(51.1점)에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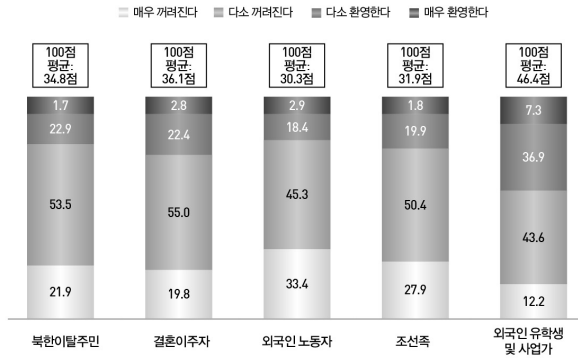
III

IV

V

그림 11-21 계층별 결혼 상대자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이러한 각 계층별 결혼 상대자로서 국민들의 인식은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맺기보다 더욱더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외부 이주민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와의 결혼도 50점을 넘지 못하고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 정책적 시사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67.9%로 다문화 수용에 대해 비교적 높은 포용력을 보였으나, 다른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면 국가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7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 국민이 다문화 공존에 대해 문화적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의지와 이주민들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민 각 계층에 대한 국민의 수용 태도와 친근감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친근감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여전히 50점 이하로서 우리 국민의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동네이웃으로서 또는 직장동료로서 사회적 관계맺기를 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었다(58.1점/59.8점). 북한이탈주민도 각각 48.1점, 49.6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 상대자로서 각 계층별 환영도는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46.4점)가 역시 가장 높았으나 50점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뒤이어 결혼이주자(36.1점), 북한이탈주민(34.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외부 이주민들과 가족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큼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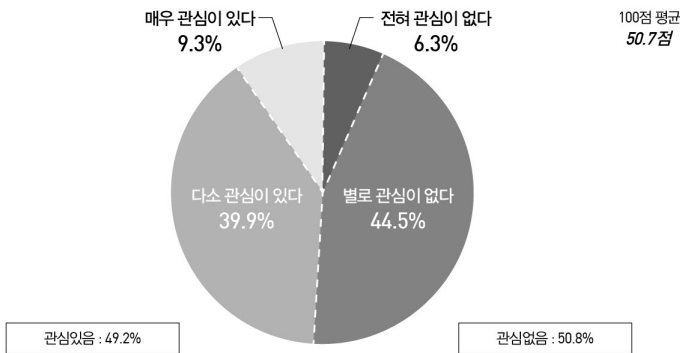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현실적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른 민족에 대한 국가수용력을 늘리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경계심보다는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민의식 토대를 형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통합정책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4. 북한인식

가.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질문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관심이 없다, 2점: 별로 관심이 없다, 3점: 다소 관심이 있다, 4점: 매우 관심이 있다) 상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응답자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 있다'는 응답(49.2% = 매우 관심이 있다: 9.3% + 다소 관심이 있다: 39.9%)과 '관심 없다'는 응답(50.8% = 전혀 관심이 없다: 6.3% + 별로 관심이 없다: 44.5%)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11-22 북한에 대한 관심도



출처: 필자 작성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수준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남성(54.6%, 53.3점)이 여성(43.8%, 48.2점)에 비해 관심도

가 높았다. 연령에 따른 분석은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에 뚜렷한 세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0대 응답자의 33.3%(42.6점), 30대 응답자의 42.4%(47.1점)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연령대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50대의 55.5%(53.8점), 60대의 62.6%(57.1점)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 연령대간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관심도(36.5%, 44.7점)가 가장 낮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의 관심도(63.4%, 56.1점)가 가장 높았다. 학력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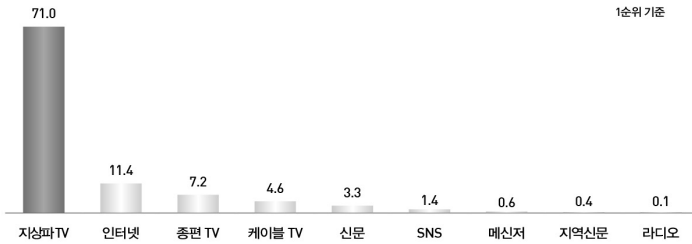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사람의 관심도(61.2%, 56.1점)가 부정적인 사람의 관심도(45.1%, 48.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치적으로 보수(61.7%, 56.4점)인 응답자의 관심이 진보(43.2%, 47.9점) 또는 중도(44.8%, 48.8점)인 응답자의 관심보다 높았다.

나.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지상파 TV(KBS, MBC, SBS, EBS, 지역민방)'의 비율(71.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인터넷(포털·블로그, 11.4%), 종합편성 TV(7.2%), 케이블 TV(4.6%), 신문(중앙지, 3.3%) 등이 따르고 있다.

20대(29.4%), 미혼(24.4%), 정치적 진보(15.8%)와 중도(13.0%)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우세하였으며 40대(9.9%), 대졸(9.7%), 정치적 보수(9.8%)는 상대적으로 종합편성 TV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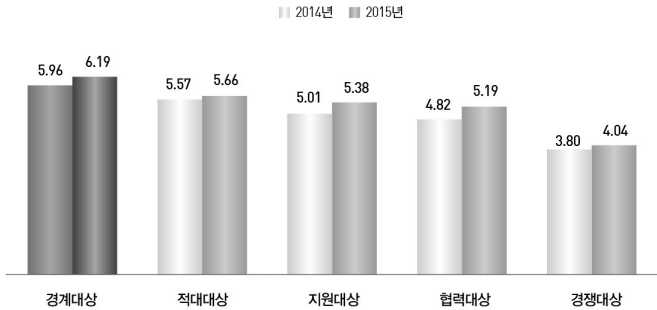
다.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이미지에 대해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동의한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 설계는 4개의 이미지 중 1순위 또는 1순위/2순위 만을 선택하게 하는 기존 조사 설계와 차별성을 가진다. 선택형 조사방식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호감-비호감의 단일 차원에서 살펴보는 방식인 반면, 본 조사 설계는 북한에 대한 다차원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경계대상'이라는 답변이 6.1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대대상(5.66점), '지원대상(5.38점), '협력대상(5.19점), '경쟁대상(4.04점)'순으로 나타났다. 경쟁대상을 제외한 4개의 이미지는 모두 중간점수(5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적대대상 이미지와 협력대상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11-24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모든 수준에서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적대대상’과 ‘지원대상’의 서열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20대, 30대 그리고 60대에서는 ‘적대대상’의 점수가 ‘지원대상’의 점수보다 높았지만 40대와 50대의 두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20대와 30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로는 영남지역에서 ‘적대대상’의 점수가 ‘지원대상’의 점수보다 높았으며, 광주/호남 및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지원대상’의 점수가 ‘적대대상’의 점수보다 높았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두 점수 간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진보인 응답자들의 ‘지원대상’ 점수가 ‘적대대상’ 점수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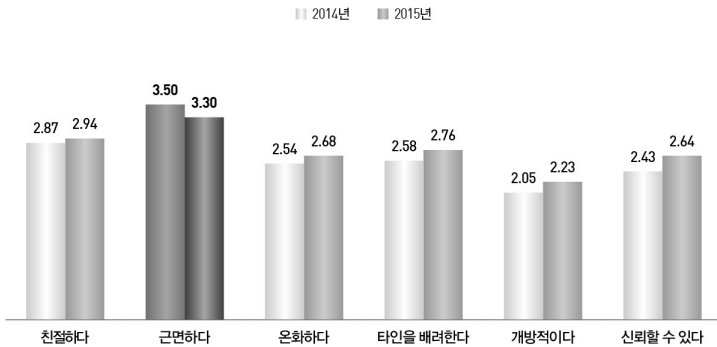
2014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이미지에 대해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이 가장 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경계대상 영역과

- I
- II
- III
- IV
- V

적대대상 영역의 점수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2014년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들은 경계대상 영역에서 5.89점, 적대대상 영역에서는 5.07점을 주었지만, 2015년에는 각각 2.11점, 2.50점 증가한 8.00점, 7.57점을 주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역시 경계대상 영역에 대해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1.64점 증가한 7.16점을 주었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편차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적 이미지 점수의 증가가 전체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영남권 국민들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II-25 북한주민에 대한 항목별 이미지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에게 친절, 근면, 온화, 배려, 개방, 신뢰 등 6개의 어휘를 제공하고 5점 척도(예: 1점: 불친절하다, 5점: 친절하다)상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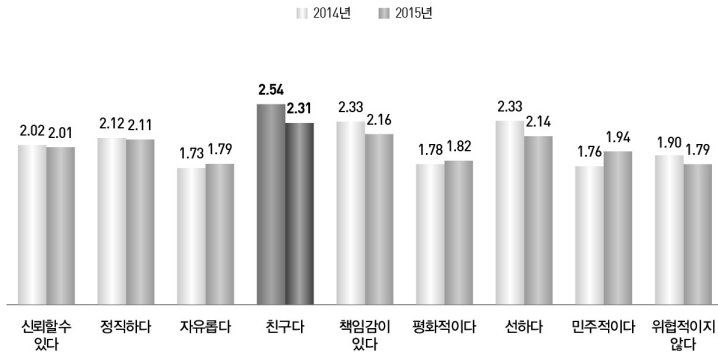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미지는 ‘근면하다(3.30점)’였으며, ‘친절하다(2.94점),’ ‘타인을 배려한다(2.76점),’ ‘온화하다(2.68점),’ ‘신뢰할

수 있다(2.64점), '개방적이다(2.23점)'가 그 뒤를 따랐다. 근면성에 대한 점수는 평균점인 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한국인들이 북한주민의 근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영역은 평균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적대적·경계적 이미지가 현저한 상황과 비교하면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과 비교해보면 '근면하다'를 제외한 5개 이미지에 대한 점수는 소폭 상승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6 북한정권에 대한 항목별 이미지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같은 방법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위협 등 9개 어휘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항목이 중앙치 점수인 3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가운데 '친구다' 영



역이 2.31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영역으로, '자유롭다' 영역이 1.79점으로서 가장 부정적인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으로 형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으로 형성된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 점수는 우리 국민이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에 대해 뚜렷이 구분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4년 조사와 2015년의 차이는 크지 않다. 2014년 대비 '민주적이다,' '평화적이다,' '자유롭다' 이미지 점수는 변화가 없거나 소폭 상승하였으며, '친구다,' '책임감이 있다,' '선하다,' '정직하다,' '신뢰할 수 있다,' '위협적이지 않다' 이미지 점수는 소폭 하락하였다.

라.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의 절반 정도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세대별 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와 30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50대 이상의 관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남한의 젊은 세대는 통일 준비 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의 주체가 될 것이다. 순조로운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의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공감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은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적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젊은 세대들이 북한, 북한주민의 삶,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포괄하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미지는 다중적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라는 국가를 적대 또는 협력의 단일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대상인 동

시에 협력 및 지원의 대상이라는 이미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지만, 북한을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이라고 평가한 정도가 다른 이미지에 비해 상승의 폭이 컸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로는 근면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2014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개방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친절함, 배려심, 신뢰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하였다.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는 2014년과 큰 변화가 없었다. 무책임, 반평화, 억압과 악함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강도는 북한주민보다 더욱 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언론 매체, 특히 지상파 방송을 통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의 경로가 지상파 방송에 편중된 상황은 상대적으로 북한정보를 전달하는 지상파 언론 매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도 드문 상태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언론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간접적 경험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는 자칫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등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주민과의 갈등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편파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은 향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갈등관리에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객관적 이미지를

I
II
III
IV
V

전달하는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 북한정보에 대한 분열적 보도 행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북한 관련 정보의 객관적,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전달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고민 역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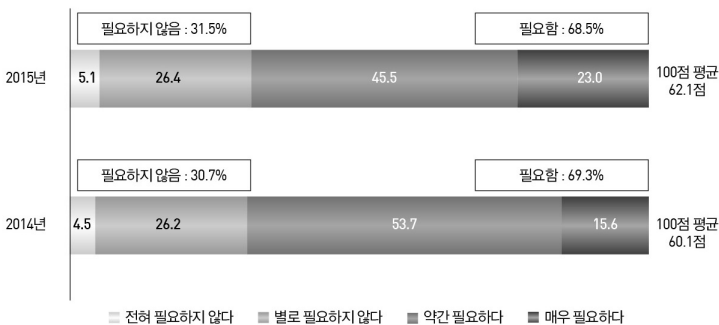
5. 남북관계와 통일

가.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5%(매우 필요하다: 23.0% + 약간 필요하다: 45.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1.5%(전혀 필요하지 않다: 5.1% + 별로 필요하지 않다: 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27 통일의 필요성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모든 수준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통일 필요성의 정도는 편차가 나타났다. 먼저 남성(73.4%, 65.2점)이 여성(63.7%, 59.1점)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20대는 50%를 상회하고, 30대는 60%를 상회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모두 70%가 넘었다. 대전/충청 지역 응답자의 76.7%(65.0점), 강원/제주 지역의 응답자 중 75.6%(73.2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61.8%(54.2점),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6.0%(53.0점)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치적으로 진보(63.7%, 62.4점), 중도(66.1%, 60.3점), 보수(76.7%, 66.8점) 간에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2014년(69.3%)과 비교할 때, 0.8% 하락하였지만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편차가 존재했다. 읍면지역 응답자의 60.7%(56.7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작년대비 21.1% 하락하였다. 대구/경북 지역(61.8%, 54.2점), 부산/울산/경남 지역(56.0%, 53.0점)역시 2014년 대비 각각 13.9%, 17.9% 하락하였다. 반면 인천/경기(73.4%, 65.2점), 강원/제주 지역(75.6%, 73.2점)은 2014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56.5%, 54.2점)는 작년대비 5% 감소하였다. 비록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20대가 느끼는 통일 필요성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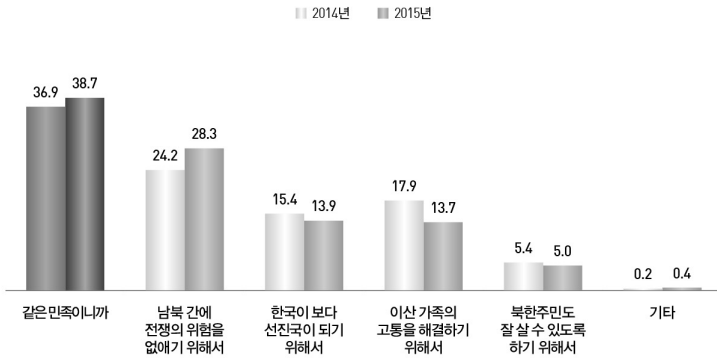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28.3%),’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13.7%),’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3.9%),’ ‘북한주민이 잘살기 위해서(5%)’ 순으로 나타났

I
II
III
IV
V

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 민족 동질성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연령별로 60세 이상(42.3%), 권역별로 서울(45.8%), 정치적으로 보수(44.3%)인 응답자에서 높게 관찰되었다. 반면 연령별로 20대(권역별로 대구/경북), 정치적으로 진보인 응답자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1-28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통일의 이유를 민족 동질성 회복,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라는 당위적 차원과 남북 간 전쟁 위협의 제거,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진입의 도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⁶ 전반적으로 당위적 차원에 기반한 이유(52.6%)가 도구적 차원에 기반한 이유(42%)보다 높았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크기별, 권역별, 이념성향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20대의 경우 당위적 이유(49.1%)의 비율이 도구적 이유(45.2%)

⁶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 53.

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3.9%에 불과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당위적 이유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60대의 경우 도구적 이유(38.2%)와 당위적 이유(57.9%)의 차이는 19.7%였다.

대도시는 당위적 이유(57.9%)의 비율이 도구적 이유(45.2%)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읍면의 경우 도구적 이유(57.2%)의 비율이 당위적 이유(40.5%)의 비율보다 높았다. 서울의 경우는 당위적 이유의 비율이, 광주/호남, 대구/경북은 도구적 이유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진보와 중도는 두 이유의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정치적 보수는 당위적 이유의 비율이 도구적 이유의 비율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 도구적으로 접근한다는 기존의 분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조사 결과는 통일에 대한 도구적 접근이 젊은 세대에 국한되기보다는 연령, 지역,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4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같은 민족이니까’는 1.8% 증가,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4.1% 증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 감소,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4.2% 감소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은 ‘같은 민족이니까’의 비율이 11.8% 증가한 반면, 광주/호남 지역은 17.1% 감소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은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의 비율이 25.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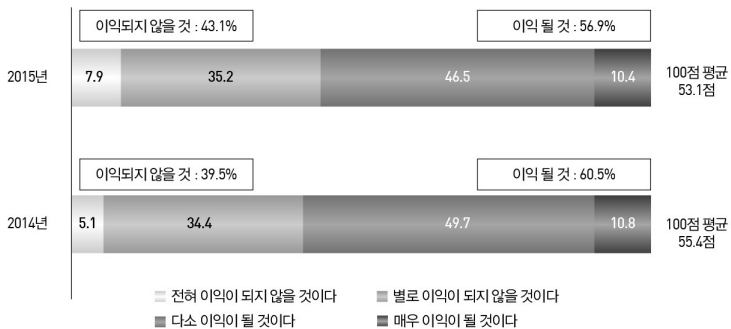
I
II
III
IV
V

나. 통일의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통일의 이익을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통일이 국가(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56.9%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0.4%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6.5%)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43.1%(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7.9%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5.2%)보다 높게 나타났다. 4점 환산 평균은 2.59점, 100점 환산 평균은 53.1점이다.

그림 11-29 국가의 통일효용성 인식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본 통일의 유용성에 대해서 세대별, 권역별, 정치이념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20대(49.7%, 49.2점)가 평가한 유용성이 가장 낮고 50대(63.0%, 57.0점)가 평가한 유용성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반응이 우세하였다. 강원/제주의 응답자 중 80.5%(64.2점)가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49.0%(48.7점)

만이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치적 진보(53.1%, 52.0점), 중도(52.5%, 50.6점)에 비해 보수(67.2%, 58.1점)가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2014년에 비해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 하락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구/경북 지역의 비율 변화이다. 2014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7%로 가장 높았지만 2015년에는 49.0%로 가장 낮게 나왔다. 20대, 읍면지역, 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통일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집합적인 관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통일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33.7%(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6.0%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7.7%)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66.3%(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4.6%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7%)보다 낮게 나타났다. 4점 평균은 2.25점, 100점 환산 평균은 41.7점이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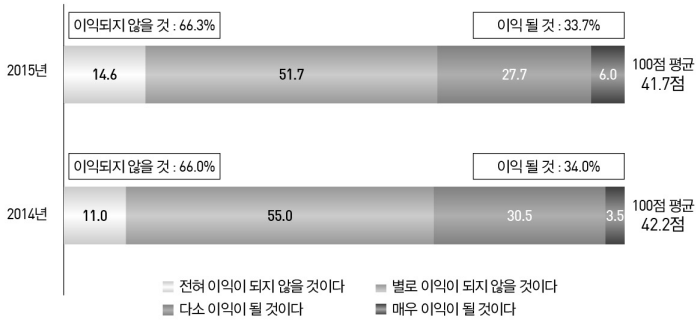
III

IV

V

●그림 II-30 자신의 통일효용성 인식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통일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에는 인구통계학적 편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은 통일의 개인적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18.6%(31.4점)만이 통일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의 응답보다 훨씬 부정적이었다. 정치적으로 중도(28.6%)인 국민의 응답이 진보(34.8%) 및 보수(40.4%)의 응답보다 부정적이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0.3% 하락하여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변화가 두드러졌다.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40.4%), 인천/경기(40.0%)에서 2014년 대비 14.2%, 11.8% 증가하였지만, 광주/호남(36.3%), 대구/경북(18.6%), 부산/울산/경남(20.1%)은 각각 23.9%, 26.1%, 14.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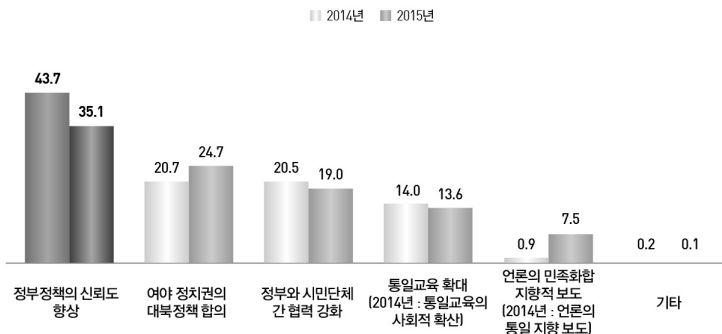
다. 통일한국의 목표

응답자의 35.1%가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그 뒤를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24.7%),’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강화(19.0%),’ ‘통일교육 확대(13.6%)’ 등이 따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 간 세대별,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국민적 합의에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대의 경우 37.3%, 30대의 경우는 41.3%가 ‘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0대, 50대는 각각 34.0%, 60대 이상은 30.4%가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강화’가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30대 이상 세대는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II-31 통일문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주요 사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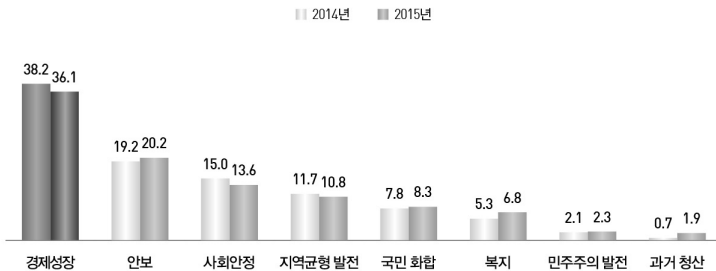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강원/제주 제외)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서울, 인천/경기 지역은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를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대전/충청 지역의 38.8%의 응답자는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가 중요하다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14년 대비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은 8.6% 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 대비 정부의 대북정책 신뢰도가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에 대한 요구는 4.0%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의 민족화합 지향적 보도'가 2014년에는 0.9%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6.6% 증가한 7.5%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국민의 비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언론의 '분열적 보도 행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32 통일한국의 우선시 목표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지금까지 언급한 2014년 대비 2015년의 변화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모든 수준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특정세대, 계층, 지역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의 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경제성장(36.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뒤를 '안보(20.2%),' '사회안정(13.6%),' '지역 균형 발전(10.8%)'이 따랐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서 통일한국이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경제성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의 향후 10년간 추구해야 할 목표를 묻는 질문에 경제성장과 안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경제 관련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라.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통일한국의 목표에 이어 8가지 대북정책 방향이 통일한국을 이루는 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8개의 정책은 남북대화, 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 남북한 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통일교육 그리고 인도적 대북지원이었으며 11점 척도(0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기여한다)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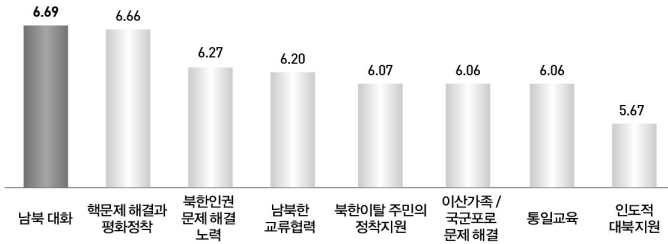
각 정책별 남북한 통합 기여도에 대한 응답으로 '남북 대화(6.69점)'와 '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6.66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정책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 뒤를 '북한

I
II
III
IV
V

인권 문제 해결 노력(6.27점), '남북한 교류협력(6.20점)'이 따랐으며 '인도적 대북지원(5.67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11-33 정책별 남북통합 기여도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각 정책에 대해 연령대별, 학력별, 권역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별, 이념성향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Tukey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8개 정책에 대해 연령별, 학력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각 정책이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점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정책별 남북통합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모든 정책에 대해 서울지역 응답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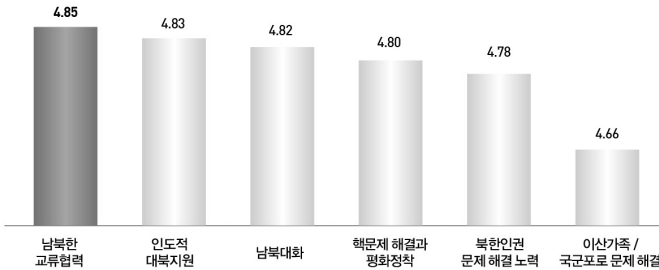
본 조사 결과는 통일정책에 대해 남남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상반된다. 적어도 남북통합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따라서 남남갈등의 소지가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북대화, 핵문제에 대한 안정

적 관리, 인권문제 해결 등이 남북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각 정책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북 대처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앞서 조사한 8개의 정책 중 '통일교육'과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제외한 6개의 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대처능력을 11점 척도(0점: 잘못 대처하고 있다, 10점: 잘 대처하고 있다)를 사용해 조사하였다.

●그림 II-34 정책별 정부의 대처능력 평가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 대처능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대처능력 모두 중앙치인 5점 이하를 기록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4.85점), 인도적 대북지원(4.83점), 남북대화(4.82점), 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4.80점),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4.78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산가족/국군포로

- I
- II
- III
- IV
- V

문제 해결(4.66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북정책의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편차가 뚜렷이 존재하였다. 6개 정책 모두에 대해 20대와 30대의 점수가 50대와 60대의 점수에 비해 낮았다. 6개 정책의 대처능력을 평균했을 때 20대는 4.48점, 30대는 4.41점인 반면, 50대는 5.02점, 60대 이상은 5.09점이었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존재했다. 모든 정책에 대해 서울지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서울지역 6개 정책의 평균점은 3.90점으로 4점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평균점은 5.74점이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같은 수도권임에도 경기/인천 지역의 점수는 5.20점으로 서울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의 점수가 낮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6개 정책 평균점은 4.3점으로 대전/충청(4.5점), 광주/호남(4.74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대학졸업자들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중학교 졸업자들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정치적 이념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진보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6개 정책 평균: 4.30점), 보수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다(6개 정책 평균: 5.25점).

통일을 위한 통합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전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통일 대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남북한 통합의 핵심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본 조사 결과는 정부의 대북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잠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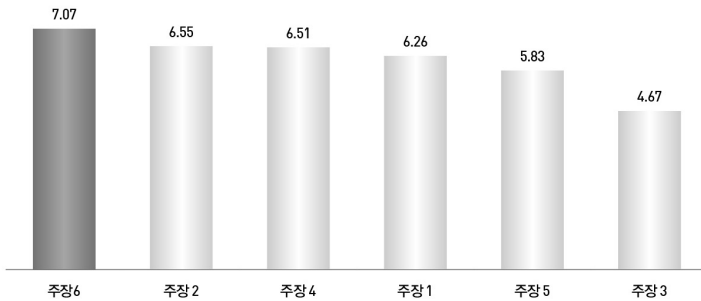
비해, 이를 추진해 가는 정부의 실천력에 대해서는 연령별, 지역별, 이념별 정부의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국민적 여론을 설득 및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6가지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11점 척도(0점: 매우 반대한다, 10점: 매우 찬성한다)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 정책1: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장완화와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
- 정책2: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면 남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책3: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
- 정책4: 꾸준히 스포츠나 문화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 정책5: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 정책6: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II-35 대북정책별 찬반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6개의 대북정책 중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7.07점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면 남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6.55점),’ ‘꾸준히 스포츠나 문화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6.51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장완화와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6.26점)’ 등의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4.67점으로 찬성보다는 반대가 우세하였다.

6개의 주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편차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 편차가 관찰된 주장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뿐이었다. 20대가 가장 낮은 찬성도(5.84점)를 보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별 편차가 관찰된 주장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주장 3),’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주장 6)’였다. 주장 3에 대한 대졸자(4.34점)의 찬성도는 고졸(4.88점) 및 중졸자(4.97점)에 비해 낮았으며, 주장 6에 대해서는 대졸자의 찬성도(6.86점)가 중졸자(7.37점)에 비해 낮았다.

정치적 이념에 따른 편차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주장 3)’에서만 관찰되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진보(4.40점)와 보수(4.66점) 간 차이는 없었으며 진보와 중도(4.83점)의 차이만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6개의 주장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차이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장완화와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주장 1),’ ‘꾸준히 스포츠나 문화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관

계를 단독히 해야 한다(주장 4),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주장 6)'에서 관찰되었다.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응답자의 찬성도가 부정적인 응답자의 찬성도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들은 확고한 안보정책 속에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과와 일관성을 지닌다. 즉,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 남북한 통합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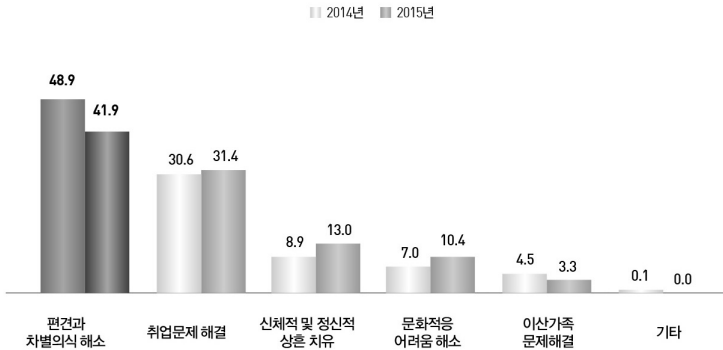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으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가 41.9%로 가장 높았고, '취업문제 해결(31.4%),' '신체 및 정신적 상흔 치료(13.0%),' '문화적응 어려움 해소(10.4%)'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편견과 차별의식의 해소를 1순위로 꼽은 것은 우리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편견과 차별이 원활한 정착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앞서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 취업과 관련한 차별과 편견을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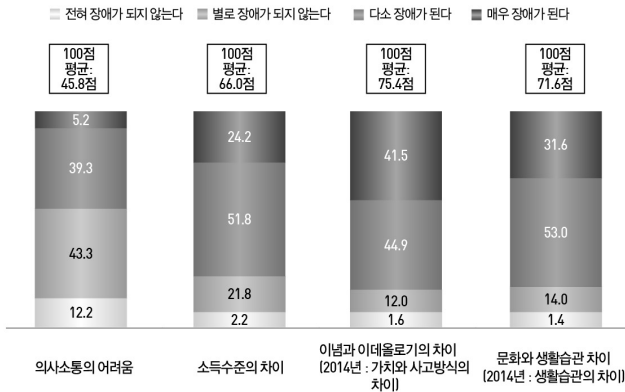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36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필요 사안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37 항목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저해요소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2014년과 비교할 때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는 7.0% 감소한 반면, ‘취업문제 해결’은 0.8%, ‘신체적 및 정신적 상흔 치유’는 4.1%, ‘문화 적응 어려움 해소’는 3.4%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문화적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저해요소로 우리 국민들의 86.4% (75.4점)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84.6%, 71.6점),’ ‘소득수준의 차이(76.0%, 66.0점),’ ‘의사소통의 어려움(44.5%, 45.8점)’이 뒤를 따랐다.

각 통합 저해요소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편차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이념과 사상의 차이,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통일 대박론으로 대표되는 통일의 편익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다양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념과 사상의 충돌 및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심리적·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6.4%(6.8점)가 증가하였으며,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는 13.4%(9.2점) 증가하였다.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5.6%(2.9점)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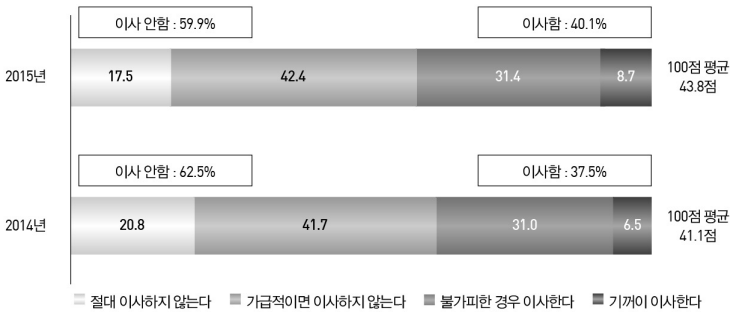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I
II
III
IV
V

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만일 통일 이후에도 북한지역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한지역으로 이주를 거부할 것이다.

●그림 II-38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이주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통일 후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지역으로 이주해야 될 경우 ‘이사한다’는 응답이 40.1%(기꺼이 이사한다: 8.7% + 불가피한 경우 이사한다: 31.4%)로 ‘이사하지 않는다’의 59.9%(절대 이사하지 않는다: 17.5% + 가급적이면 이사하지 않는다: 42.4%)보다 낮게 나타났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불확실성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0.1%의 국민들이 북한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편차, 학력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별 편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 ‘북한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2014년 대비 2.6% (2.7점)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20대와

30대의 경우는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0.1%, 3.8%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15% 이상 증가한 반면, 광주/호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15% 이상 감소하였다. 정치적으로 진보인 경우 5% 이상 감소하였지만 중도와 보수의 경우 각각 5% 이상 증가하였다.

북한으로의 이주문제는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및 북한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4년과 2015년의 응답치 변화는 연령, 지역, 이념별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변화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바.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 10명 중 7명이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14년과 차이가 없었다. 통일을 이유로 민족동질성 회복 등과 같은 당위적 이유가 우세한 가운데 전쟁 위협 제거 등과 같은 도구적 이유를 선택한 비율도 높았다. 당위적 통일에 비해 도구적 통일을 선호하는 경향은 젊은 세대에게서만 관찰되지 않았다. 지역, 정치적 이념 등에 따라 도구적 통일을 당위적 통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예: 광주/호남 지역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관찰된 시사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였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

I
II
III
IV
V

응답자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를 꼽았다. 2014년 대비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 요구는 8.6% 감소한 반면,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에 대한 요구는 4.0% 증가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의 민족화합 지향적 보도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6.9% 증가한 것은 통일 관련 언론의 보도가 남북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목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꼽았으며 안보와 사회안정이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의 향후 10년간 목표로 경제 관련 문제를 선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 경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목표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편차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대화, 핵문제의 안정적 관리, 인권문제 해결 등이 남북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인구통계학적 편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적어도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남남 갈등의 요소는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해 물었을 때는 다소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교류협력,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대화 등에 대해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연령, 지역, 정치적 이념, 학력 등 거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수준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정책 방향성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비해 이를 추진해 가는 정부의 실천과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국민적 여론을 설득 및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군사적, 정치적 대결상황에서도 경제, 스포츠, 문화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대북 전단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해소, 취업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신체적 및 정신적 상흔 치유 및 문화적응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늘어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은 남북주민들 간 통합의 저해요소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들고 있다. 통일 대박론으로 대표되는 편익위주의 통합정책을 넘어 이념과 사고방식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2014년 대비 2% 증가한 40%의 응답자는 통일 이후 필요한 경우 북한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의식 비교

통일의 방식에 관계없이 통일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다. 특히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 통일의 실현,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갈등의 해소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다. 결과적으로 통일의 대상이자 당사자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남북한 통합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외식조사는 남한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및 통합 이후의 문제,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와 문화, 사람을 경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의식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통일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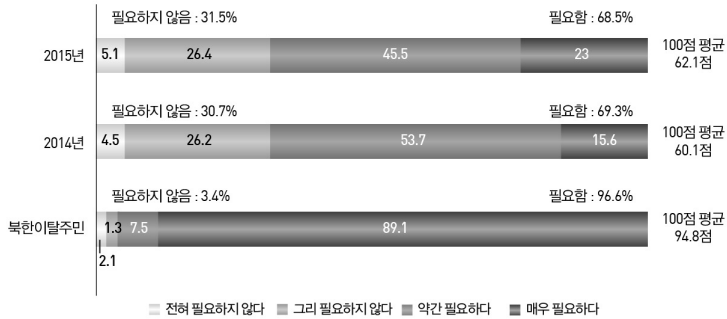
이를 위해 본 조사는 2015년 남북통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설문 중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통일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6%(매우 필요하다: 89.1% + 약간 필요하다: 7.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인 3.4%(전혀 필요하지 않다: 1.3% + 그리 필요하지 않다: 2.1%)를 압도하였다.

I
II
III
IV
V

● 그림 III-1 통일의 필요성-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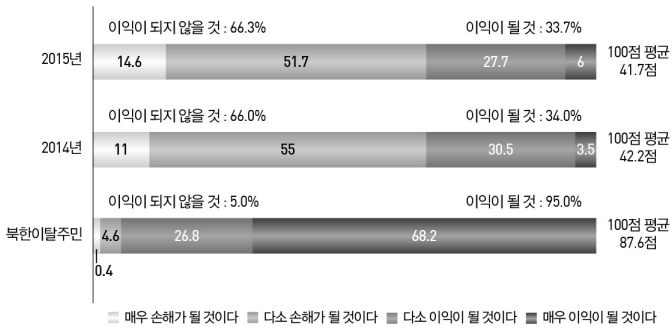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4년과 2015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25%(30점) 이상 높았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수의 각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탈북 이후 남한에 거주한 기간에 따른 통일 필요성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남한에서의 사회, 문화, 경제적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당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주민의 경우, 세대, 학력, 정치적 이념 성향,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정도 등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 편차가 관찰된 결과와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집단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통일이 응답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유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한주민에 비해 30% 이상 높았다.

● 그림 III-2 통일의 개인적 이익-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95.0%(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68.2%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6.8%)였다. 반면 ‘손해가 될 것이다’는 응답은 5.0%(매우 손해가 될 것이다: 0.4% + 다소 손해가 될 것이다: 4.6%)였다. 4점 환산 평균은 3.63점, 100점 환산 평균은 87.6점이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변수의 각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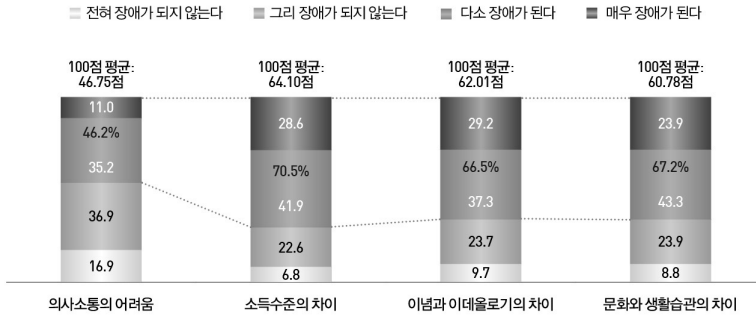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응답과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4년과 2015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매우 손해가 될 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의 선택지를 사용한 반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의 선택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손해가 된다’는 응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의 공통부분인 ‘이익이 된다(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의 응답만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익이 된다’는 응답만을 비교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응답(95.0%)은 2014년 남한주민의 응답에 비해 61.0%, 2015년에 비해 61.3% 높은 수준이다.

3. 통합의 장애요소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저해요소로 북한이탈주민의 70.5% (64.1점)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66.5%, 62.0점),’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67.2%, 60.8점),’ ‘의사소통의 어려움(46.2%, 46.7점)’이 따랐다. 각 통합 저해요소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편차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I-3 통합의 장애요소-북한이탈주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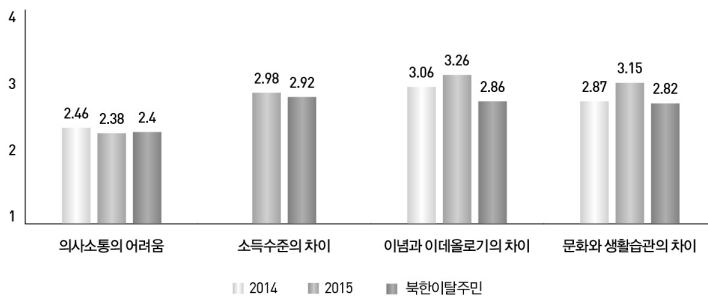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014년과 2015년에 실시된 남북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남한주민은 이념과 사상의 차이,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이념과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한 갈등이 남한주민이 생각하는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4 통합의 장애요소-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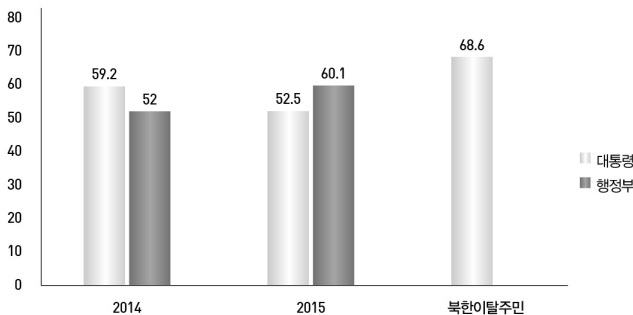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4.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통일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적용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남한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82.7% (약간 신뢰한다: 58.2% + 매우 신뢰한다: 24.5%)가 '신뢰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7.3%(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16.0%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3%)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4점 평균은 3.06점, 100점 평균은 68.6점이다. 연령별로 20대의 신뢰도(75.7%, 59.46점)가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의 신뢰도(87.5%, 77.78점)가 가장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결과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남한에 입국한 후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연령이 아닌 남한입국 후 거주기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그림 III-5** 정부에 대한 신뢰도-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2014년과 2015년에 실시된 남북통합에 대한 인식조사는 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가 아닌 대통령 및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4점 척도를 사용하지만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1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두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정부에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5>는 세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신뢰도를 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정부에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남한주민이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가지고 있는 신뢰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및 관계맺기

북한이탈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을 측정하기 위해 남한사람,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친근감을 물었다. 남한사람에 대해 친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 (65.5점)로 평균을 넘은 가운데 결혼이주자(44.7%, 45.9점), 외국인 노동자(36.3%, 38.2점), 조선족(48.7%, 47.2점),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41.2%, 41.2점) 등에 대해서는 50% 미만이 친근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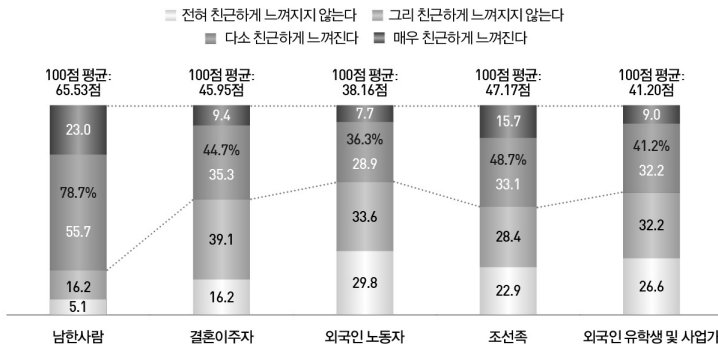
남한사람,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남성(51.3%, 51.7점)에 비해 여성(41.4%, 43.1점)의 친근감이 낮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남성의 친근감(44.2%, 44.2점)이 여성(32.9%, 35.23점)의 친근감보다 높았다. 또한 남한입국 후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이는

I
II
III
IV
V

친근감(64.9%, 56.76점)이 10년 미만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III-6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각 계층별 친근함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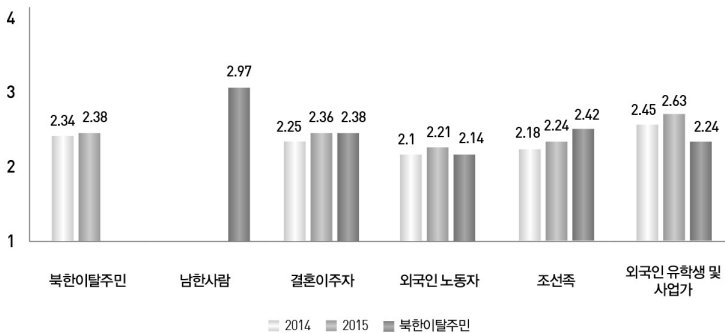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상호 비대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통일준비 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직접적 경험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탈출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남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 교류가 거의 없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간접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두 집단의 직접적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외부 유입계층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조선족과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친근감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에 비해 조선족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반면,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해서는 남한주민들에 비해 덜 친근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에 대한 친근감이 남한주민에 비해 다소 높지만 여전히 평균 이하의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그림 III-7** 계층별 친근함-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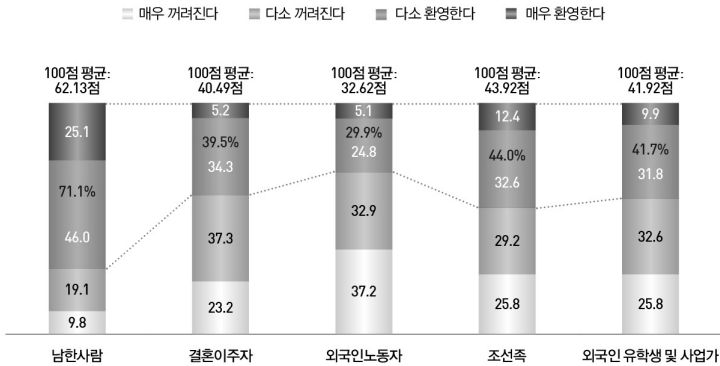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결혼 상대자로서 남한사람,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결과는 친근감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71.1%, 62.1점)에 대해서는 결혼 상대자로서 우호적이었지만 다른 집단(결혼이주자: 39.5%, 40.5점; 외국인 노동자: 29.9%, 32.6점; 조선족: 44.0%, 43.9점;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41.7%, 41.9점)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었다. 남한주민,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호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남성의 호감(48.1%, 46.75점)이 여성의 호감(35.3%, 37.29점)보다 높았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후 4~6년 거주자의 호감(35.5%, 38.2점)이 가장 낮은 반면, 10년 이상 거주자의 호감(59.5%, 49.55점)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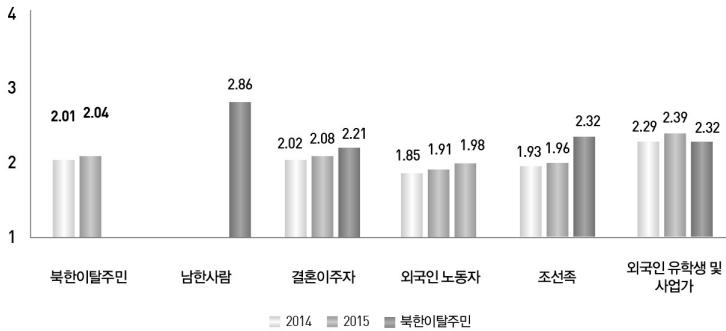
● 그림 III-8 결혼 상대자로서 각 계층에 대한 호감-북한이탈주민



출처: 필자 작성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할 때, 결혼 상대자로서 조선족에 대한 호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한주민의 응답과 유사했다.

● **그림 III-9** 결혼 상대자로서 각 계층에 대한 호감
-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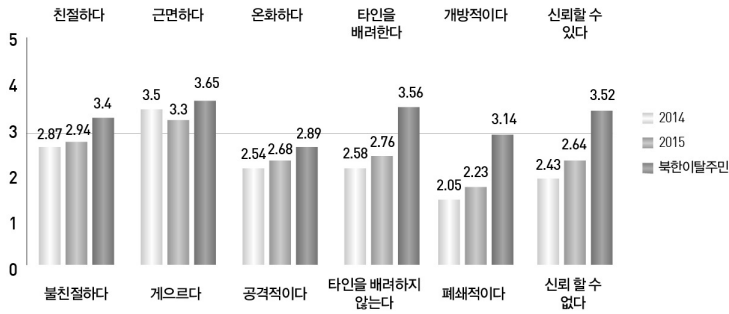
6. 남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았다. 2014년 그리고 2015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동일하게 응답자에게 북한주민을 친절, 근면, 온화, 배려, 개방, 신뢰 등의 관점에서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 I
- II
- III
- IV
- V

●그림 III-10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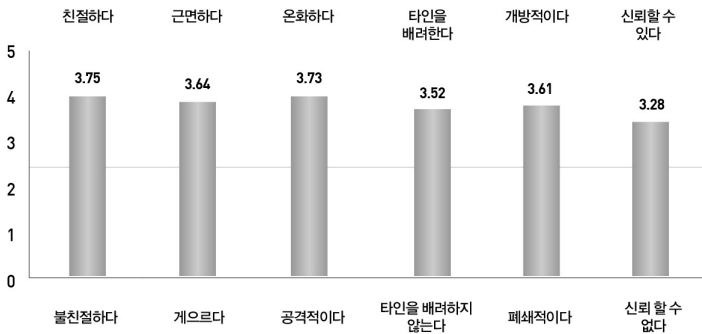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근면하다’가 3.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배려심(3.56점), 신뢰(3.52점)가 그 뒤를 따랐다. 세 특성 간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친절함(3.40점), 개방성(3.14점)이 그 뒤를 따랐으며, 온화함이 2.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격적-온화함 영역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주민을 온화하기보다는 다소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공격적-온화함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주민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친절함에 3.75점을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온화함(3.73점), 근면함(3.64점), 개방성

(3.61점), 배려(3.52점) 등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주었다. 북한 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신뢰성에 대해서 3.28점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그림 III -1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이미지(2015)



출처: 필자 작성

6개의 모든 영역에 대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변화였다. 남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친절함에 대해 3.91점, 근면함에 대해서는 3.89점, 온화함에 대해서는 4.02점, 배려심에 대해서는 3.85점, 개방성에 대해서는 3.82점, 신뢰성에 대해서는 3.47점을 주었다. 반면, 10년 이상 거주자는 친절함에 대해 3.35점, 근면함에 대해서는 3.14점, 온화함에 대해서는 3.54점, 배려심에 대해서는 3.08점, 개방성에 대해서는 3.43점, 신뢰성에 대해서는 3.05점을 주었다.

I
II
III
IV
V

7. 정책적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96.6%의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89.1%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과, 세대, 북한 탈출 후 남한 거주기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의지가 집단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북한이탈주민의 95%가 통일이 응답자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남한주민들의 약 30%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점, 약 70%는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점에서 남한주민들의 통일 의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수준의 차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그리고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세 요인의 중요성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 대한 우려 수준이었다. 남한주민들은 정치제도의 차이에 따른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장 큰 통합의 장애물로 꼽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 대한 우려는 남한주민보다 크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82.7%는 남한정부를 신뢰하고 있으며, 남한주민들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등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친근감, 결혼 상대자로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호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두 평균 이하의 호감 및 친근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남한주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선족에 대한 호감은 남한주민에 비해 높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배타성은 남한입국 후 거주기간에 따른 편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화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민족주의에 기반한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지만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근감, 결혼 상대자로서의 호감, 근면함, 성실성 등 남한주민의 이미지를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 평균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남한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보이는 부정성과 배치된다. 2014년 및 2015년 남북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의 비대칭성은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에서도 관찰되었다.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통일의 관점에서 활용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많은 경우 북한정권의 허위성과 야만성,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생활, 남한 삶의 우월성 등 체제 경쟁의 관점에서 활용되었지만, 통합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통일에 대한 높은 기대, 통일의

I

II

III

IV

V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 이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변화가 현재 남한사회와 남한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설득은 남한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인 통일의 동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주민의 통일 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젊어질수록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는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의 통합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통합은 법에 의해 강제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결국 남북한 주민이다. 남북한 주민은 통합 이전에는 직접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에서 통합 전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의 대상이자 통합의 주체인 남북한 주민이 서로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 특히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통합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 경험보다는 언론, TV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학습,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언론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더 나아가 북한주민에 대한 열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심층분석: 통합의 요인, 범주, 유형

1. 통일의 필요성 및 북한인식의 요인

가. 문제제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왜 국민들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태도는 남북한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미래에 다가올 남북통합의 구성원이 될 현재의 국민들이 남북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통합에 이르는 과정인 통일의 가능성 및 그 방식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 ‘약간 필요하다’는 4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4년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매우 필요하다: 15.6%, 약간 필요하다: 53.7%)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70%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은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이므로 동질성 회복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측면⁷과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측면 등으로 설명되어져 왔다.⁸

7.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p. 359.

8. 김규륜 외, 『통일 비용·편익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330~334.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도 후자인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통일의 대상이면서 궁극적으로 통합의 대상이기도 한 북한에 대해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이해도 남북한 통일을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인해 한국사회의 국민들에게 북한은 동일한 민족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적대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 북한은 독립된 주권을 보유한 국가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하는 국경의 일부분을 점령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보유한 한국의 대북한 인식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종종 사회갈등의 한 측면인 북한에 대한 남남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⁹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누가 북한을 협력 혹은 지원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반면, 어떤 국민들이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무엇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을까? '친북' 혹은 '중북'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은 국민의 대북한 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안보정책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¹⁰ 반면, 이상신은 북한에 대한 인식 형성이

⁹ 조원빈, "사회갈등 기원 분석과 사회통합,"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p. 76.

¹⁰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각자의 정치이념이나 정당일체감, 출신지역 등 정치적 측면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용주의적 태도와 권위주의적 태도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주장한다.¹¹ 이에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상반된 대북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형성 요인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이들 다섯 가지 측면에는 정책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등이 포함된다. 이들 다섯 가지 개별 요인들이 남북한 통합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통계 기법을 이용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및 대북한 인식 형성에 대한 이들 다섯 가지 측면들 간의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어떠한 측면이 이러한 인식 형성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사회가 남북한 통일을 추구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인식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그림 IV-1>이 보여주듯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문 문항인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호(2007), pp. 31~59.

¹¹ 이상신, “북한인식과 통합: 북한이미지 결정요인 분석,”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p. 130~132.

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38.7%가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여섯 가지 보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로 응답자의 28.3%가 이것을 선택했다. 세 번째는 응답자의 13.9%가 선택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 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의 분단이란 문제로 인식하고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사고와 대비되는 실용주의적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의 필요성을 통일이 가져올 미래의 이익과 현재의 분단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비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시각은 통일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하는 도구주의적 관점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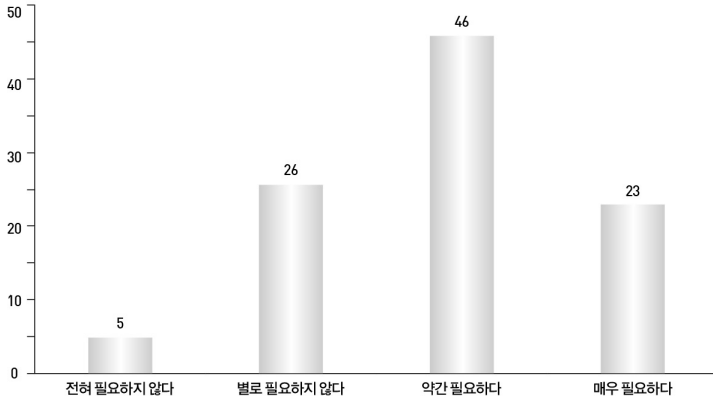
본 연구는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이냐 혹은 실용주의적이냐의 담론수준의 논쟁에서 벗어나려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 국민 중 누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좀 더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¹²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2000), pp. 104~106.

¹³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p. 367~371.

● **그림 IV-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단위: %)



설문 문항: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필자 작성

(2)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협력대상과 경계/적대대상

남북한 통일은 두 개의 주체인 남한과 북한이 참여하는 통합의 과정이다.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통일, 혹은 통합의 상대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통합을 위한 정책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국민들이 통합의 대상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민들이 왜 북한을 그렇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통일 준비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I
II
III
IV
V

● 표 IV-1 북한에 대한 네 가지 인식 상관관계 분석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지원대상	1.00			
협력대상	0.703	1.00		
경계대상	-0.018	-0.157	1.00	
적대대상	-0.101	-0.191	0.705	1.00

설문 문항: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출처: 필자 작성

<표 IV-1>은 응답자들이 북한에 대해 보유한 네 가지 인식을 측정 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북한을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0.70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과 '적대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사이의 상관계수도 0.70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상관계수들은 절대값이 0.2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두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북한을 긍정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북한을 긍정적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의의 과정을 통해 통합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더하고 그 값을 2로 나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북한을 부정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북한을 부정적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통합의 과정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협의를 대신에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남한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을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정권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북한을 지원/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합산척도를 만든 방식과 같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합산척도를 만들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를 더하고 그 값을 2로 나누었다.

표 IV-2 북한에 대한 인식 합산척도 기술통계

(단위: 점)

북한에 대한 인식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빈도
지원/협력대상	5.28	2.09	0	10	1000
경계/적대대상	5.93	2.07	0	10	1000

출처: 필자 작성

<표 IV-2>는 국민들이 북한을 인식하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지원/협력대상과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측정하는 두 가지 합산척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지원/협력대상 합산척도의 평균값은 10점 만점에 5.28이며 경계/적대대상 합산척도의 평균값은 5.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원/협력대상으로서 보다 경계/적대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V

다. 다섯 가지 측면 비교 분석모델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형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다섯 가지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측면은 평균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책적 요인 분석

정책적 요인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군사정책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북정책의 남북통합 기여도 평가이다. 이 요인은 여덟 가지 대북정책(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교류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통일교육, 남북대화, 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 북한인권 문제해결 노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남북한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덟 가지 정책들이 남북한 통합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응답자들의 대답을 모두 더하고 8로 나누었다. 여덟 가지 대북정책이 얼마나 남북통합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들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 요인의 아이겐벨류(eigenvalue)는 5.12로 나타났다. 또한, 이 합산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hach's α)값을 측정하였는데, 0.94였다. 즉, 여덟 가지 대북정책이 남북한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합산한 척도가 충분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측면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박근혜정부가 대북문제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이다. 박근혜정부 대북문제 대처능력 평가는 여섯 가지 대북문제(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교류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해결, 남북대화, 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 북한인권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응답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대처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대북문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처능력을 평가한 응답자들의 대답을 모두 더하고 6으로 나누었다. 박근혜정부 대북문제 대처능력을 평가한 여섯 가지 응답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첫 요인의 아이겐밸류는 4.72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문제 대처능력 평가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0.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가지 응답을 합산한 척도가 내적으로 충분히 일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측면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인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이다. 응답자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 다소 잘 못하고 있다,’ ‘3) 다소 잘하고 있다,’ ‘4) 매우 잘하고 있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5%(매우: 15.3% + 다소: 59.2%)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5.5%(매우: 3.6% + 다소: 21.9%)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I

II

III

IV

V

● 표 IV-3 정책적 측면 세 가지 요인 기술통계

(단위: 점)

정책적 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빈도
대북정책의 남북통합 기여도 평가	6.21	1.69	0	10	1000
박근혜정부 대북문제 대처능력 평가	4.79	1.84	0	10	1000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2.14	0.71	1	4	1000

출처: 필자 작성

〈표 IV-3〉은 정책적 측면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북정책의 남북통합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6.2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중간점수인 5점보다 높지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대북정책이 남북통합에 매우 기여한다고 평가하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문제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평균 4.79점으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대북문제들에 대해 다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4 정책적 요인 분석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대북정책의 남북통합 기여도 평가	0.116***	0.526***	0.119**
박근혜정부 대북문제 대처능력 평가	0.026	0.054	0.126**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0.060	0.134	0.124
교육 수준	0.080*	0.175*	-0.221*
나이	0.089***	0.049	-0.091
성별(여성=1)	-0.156***	-0.015	-0.131
도시 규모	-0.087**	-0.263**	0.279**
상수	1.734***	1.202*	5.060***
Adj. R2	0.103	0.194	0.051
사례수	1000	1000	1000

참고: *** p<0.001, ** p<0.01, * p<0.05

출처: 필자 작성

<표 IV-4>는 정책적 측면을 측정한 세 가지 요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 정도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4>에 제시된 회귀분석 모델들은 세 가지 정책적 요인들과 더불어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나이, 성별, 주거도시의 규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분석 결과, 정책적 요인들 중 대북정책이 얼마나 남북통합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만이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I
II
III
IV
V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가지 대북정책들이 남북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IV-3>이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현재의 대북정책들이 남북통합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점수(6.21점)는 그리 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북정책들이 남북통합 기여도 평가가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남북통합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가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는 여덟 가지 대북정책들이 남북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대북정책들이 남북한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은 북한을 긍정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대북정책이 남북한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포함된 이상신의 연구에서 자세히 보여주듯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반드시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강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만,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과연 대북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며 그 정책들이 남북한 통합에 기여하리라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계분석

의 회귀계수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박근혜정부의 대북문제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종속변수 중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분석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 요인인 박근혜정부의 대북문제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와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정부가 주어진 여섯 가지 대북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박근혜정부가 대북문제를 대처하는 방향이 북한을 긍정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대북문제 대처방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국민들은 그 방식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에 다소 만족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표 IV-4>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포함한 정책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정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이나 남북한 통합과 관련된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정치적 요인 분석

정치적 측면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응답자가 스스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응답자가 느끼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응답자들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11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6.3점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측면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정당선호도이다.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선호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인지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이 선호정당이 다름에 따라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응답자들을 여당인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집단과 야당을 선호하는 집단, 그리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무당파 집단 등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 '새누리당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6.3%, '야당인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2.1%,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51.5%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인은 정치이념 성향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이념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에 따라 남북한 통일

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중북'이나 '친북'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과연 일반 국민들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정치이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1) 매우 진보적이다,' '2) 다소 진보적이다,' '3) 중도이다,' '4) 다소 보수적이다,' '5) 매우 보수적이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자신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7.3%(매우: 3.6% + 다소: 23.7%)로 조사되었으며 '중도적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44.0%, '보수적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8.7%(매우: 5.2% + 다소: 23.5%)로 나타났다.

표 IV-5 정치적 요인 분석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	0.011	0.300***	0.115**
야당 선호	-0.106	0.432*	-1.002***
무당파	-0.072	0.197	-0.582***
정치이념 성향	0.032	-0.243**	0.298***
교육 수준	0.106**	0.301**	-0.124
나이	0.100***	0.120*	-0.137**
성별(여성=1)	-0.173**	-0.141	-0.113
도시 규모	-0.001	0.010	0.375***
상수	2.366***	2.777***	5.205***
Adj. R2	0.037	0.085	0.094
사례수	1000	1000	1000

참고: *** p<0.001, ** p<0.01, * p<0.05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표 IV-5>는 정치적 측면을 측정한 요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 정도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요인도 국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열망은 선호하는 정당이나 자신의 정치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북한에 대한 인식 형성에는 분석모델에 포함된 모든 정치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변수는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뿐 아니라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통합의 다른 주체인 북한을 다소 체제 정당성이 있고 자율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한계인 독재체제의 취약성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정치적 요소인 정당의 선호 역시 북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분석모델에는 정당의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야당 선호를 측정한 변수이며 다른 하나는 무당파를 측정한 변수이다. 따라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집단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집단이다. 이에, 통계모델에 포함된 야당 선호 변수의 계수는 여당을 선호하는 집단과 야당을 선호하는 집단 사이에 북한을 인식하는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통계모델에 포함된 무당파의 계수는 여당 선호 집단과 무당파 사이에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당을 선호하는 이들에 비해 야당을 선호하는 이들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한다는 면에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와 여당을 지지하는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에도 정당선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이들은 야당을 선호하는 이들에 비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당을 선호하는 이들은 무당파라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서도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정당선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왜 한국의 정치현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북한에 관련된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한국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 중 북한과 관련된 이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각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의 차별성을 강조하려 한다. 이때,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 중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친북’ 혹은 ‘중북’이다. 일반 유권자들도 정당선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 유형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한국의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가 각자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정치적 요인인 응답자의 정치이념 성향도 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유형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 중 자신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경제/적대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정당선호의 영향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3) 경제적 요인 분석

경제적 측면은 경제적 환경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차이가 과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이다. 응답자가 현재 남한사회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동일한 요인이 응답자들이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으로 느끼는 정도와 북한을 경제/적대의 대상으로 느끼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준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귀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항목을 이용한다. 이번 조사 결과,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매우: 14.2% + 다소: 58.3%)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27.5%(매우: 1.2% + 다소: 26.3%)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한국경제의 저성장

상황을 잘 반영한 결과이다.

경제적 측면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개인의 소득수준 평가이다. 응답자가 자신의 가정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과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 혹은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느끼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개인 가정의 소득수준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가 이용한 설문 문항은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 가정의 소득수준은 평균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1) 평균보다 훨씬 낮다,’ ‘2) 평균보다 약간 낮다,’ ‘3) 평균과 비슷하다,’ ‘4) 평균보다 약간 높다,’ ‘5) 평균보다 훨씬 높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신의 가정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 (훨씬: 10.5% + 약간: 39.0%), ‘평균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 ‘평균보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8.2% (훨씬: 0.7% + 약간: 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측면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인은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이다. 이 요인은 응답자가 평가한 자신의 사회계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상이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동일한 요인이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 혹은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가 이용한 설문 문항은 ‘한국사회 계층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족은 한국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는 ‘1) 하층의 하,’ ‘2) 하층의 상,’ ‘3) 중간층의 하,’ ‘4) 중간층의 상,’ ‘5) 상류층의 하,’

I
II
III
IV
V

'6) 상류층의 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자신의 가족이 한국사회의 계층 중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 (상: 19.1% + 하: 5.8%),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4.3% (상: 19.8% + 하: 54.5%), '상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8% (상: 0.2% + 하: 0.6%)로 조사되었다.

표 IV-6 경제적 요인 분석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0.073	0.496***	0.067
개인가정의 소득수준 평가	-0.113**	-0.080	0.137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0.053	0.291**	-0.274**
교육 수준	0.112**	0.256**	-0.186
나이	0.106***	0.129*	-0.051
성별(여성=1)	-0.179**	-0.109	-0.143
도시 규모	0.006	0.093	0.421***
상수	2.403***	2.356***	6.529***
Adj. R2	0.044	0.040	0.027
사례수	1000	1000	1000

참고: *** p<0.001, ** p<0.01, * p<0.05

출처: 필자 작성

<표 IV-6>은 경제적 요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 정도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회귀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종속변수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 가지 경제적 요인 중 통일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가정의 소득수준 평가 항목이었다. 자신의 가정소득이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은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현재 자신의 가계소득이 낮으므로 통일이 이루어져 경제발전의 기회가 높아지고 그 효과로 자신의 개인소득도 상승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요인 중 하나인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가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시각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현재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북한을 경제/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의 가정 소득수준 변수는 응답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세 번째 경제 요인으로서 자신이 어느 사회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변수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확연히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응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이 상위라고 대

답할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이 하위라고 대답할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하위계층에 속한 이들은 북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뿐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의 영향에 민감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들 하위계층에 속한 국민들은 북한을 보다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4) 사회적 요인 분석

사회적 측면은 응답자가 보유한 한국사회에 대한 태도나 평가가 자신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응답자가 한국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신뢰수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응답자가 느끼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응답자들이 한국사회의 신뢰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에 따라 북한을 협력/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0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5.8로 조사되었다.

둘째, 국가에 대한 신뢰도이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 요인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사람(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언론, 시민단체, 군대, 종교단체, 노동조합, 대기업)에 대하여 응답자가 보여주

는 신뢰도 수준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열한 가지 기관들에 대하여 보여준 응답자들의 신뢰도 수준을 모두 더하고 11로 나누었다. 열한 가지 기관들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 평가들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 요인의 아이겐밸류는 5.61로 나타났다. 또한, 이 합산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을 측정하였는데, 0.92였다. 즉, 열한 가지 기관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수준 평가를 합산한 척도가 충분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측면을 보여주는 마지막 요인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응답자가 느끼는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또한, 동일한 요인이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경제/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다섯 가지 사회갈등(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심각성 정도를 모두 합하고 5로 나누어 계산했다. 이들 다섯 가지 사회갈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사이에 관계를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 요인의 아이겐밸류는 1.79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평가인 합산척도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0.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섯 가지 설문 문항을 하나의 합산척도로 변환하는데 충분한 내적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IV-7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요인 기술통계

(단위: 점)

사회적 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빈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5.97	1.89	0	10	1000
국가에 대한 신뢰도	4.95	1.65	0	10	1000
사회갈등 심각성 평가	2.86	0.55	1	4	1000

출처: 필자 작성

<표 IV-7>은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97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중간점수인 5점보다 높지만, 만점인 10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점수이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 신뢰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95점으로, 중간점수인 5점에 다소 못 미치는 점수였다. 이는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심각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한국사회 갈등수준이 다소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인 2.86점의 '약간 심각하다'는 3점에 근접한 점수였다.

표 IV-8 사회적 요인 분석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사회에 대한 신뢰도	0.008	0.102*	0.147**
국가에 대한 신뢰도	-0.002	0.136**	-0.001
사회갈등 심각성	0.279***	0.480***	-0.163
교육 수준	0.071	0.268**	-0.202*
나이	0.099***	0.089	-0.068
성별(여성=1)	-0.173**	-0.157	-0.191
도시 규모	-0.012	-0.014	0.343**
상수	1.774***	1.746**	6.110***
Adj. R2	0.067	0.048	0.038
사례수	1000	1000	1000

참고: *** p<0.001, ** p<0.01, * p<0.05

출처: 필자 작성

<표 IV-8>은 사회적 요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 정도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사회적 요인 중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 사회적 요인 중 통일의 필요성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갈등의 심각성이 유일한 것이었다. 다섯 가지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이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포함된 것이다. 이번 조

I
II
III
IV
V

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섯 가지 갈등 중 계층갈등이 4점 만점에 2.96점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도 4점 만점에 2.94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이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제성장의 기회가 계층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적용된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남남갈등이 대북문제와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남북한 통일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리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세 가지 사회적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긍정적 통합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이들도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와 국가체제에 대한 자신감이나 우월성이 높은 국민일수록 통합의 대상인 북한을 협력이나 지원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심각성도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통합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세 가지 사회적 요인 중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북한을 인식함에 있어 협력/지원 대상뿐 아니라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사회에 대

한 신뢰도 수준이 높으면, 남한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북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분석

북한에 대한 태도 측면은 응답자가 보유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나 태도가 과연 자신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 측면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관심도이다. 응답자가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스스로 느끼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북한을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2%(매우: 9.3% + 다소: 39.9%)로 나타났으며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전혀: 6.3% + 별로: 4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 대한 태도 측면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이다. 응답자가 북한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느끼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가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응답자가 5점 척도로 대답한 다섯 가지 이미지(친절하다, 근면하다, 온화하다, 타인을 배려한다, 개방적이다,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했다. 이들 다섯 가지 설문 문항에

I
II
III
IV
V

대한 응답자의 대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첫 요인의 아이겐밸류는 2.37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합산척도의 크론바흐 알파값도 0.79점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 대한 태도 측면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인은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와 구분하여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정도와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 혹은 경계/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도 응답자가 5점 척도로 대답한 아홉 가지 이미지(신뢰할 수 있다, 정직하다, 자유롭다, 친구다, 책임감이 있다, 평화적이다, 선하다, 민주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다)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했다. 이들 아홉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첫 요인의 아이겐밸류는 4.72로 나타났다. 아홉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대답한 평균값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크론바흐 알파값은 0.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9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기술통계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빈도
북한에 대한 관심도	2.52	0.75	1	4	1000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2.76	0.63	1	5	1000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	2.01	0.69	1	5	1000

출처: 필자 작성

<표 IV-9>는 북한에 대한 태도 측면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인 2.52점은 2점인 '별로 관심이 없다'와 3점인 '다소 관심이 있다'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2.76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보유한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라기보다 다소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북한주민에 대한 그것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2.01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와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0.33으로 낮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수록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주민들과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때, 이들 둘을 어느 정도 구분한다는 것이다.

● 표 IV-10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분석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북한에 대한 관심도	0.514***	0.651***	-0.111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0.177***	0.658***	0.122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	-0.004	0.198*	-0.676***
교육 수준	0.070*	0.192*	-0.227*
나이	0.046*	0.036	-0.041
성별(여성=1)	-0.084	0.026	-0.173
도시 규모	-0.013	0.072	0.324**

I
II
III
IV
V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상수	0.871***	0.543	7.816***
Adj. R2	0.273	0.120	0.068
사례수	1000	1000	1000

참고: *** p<0.001, ** p<0.01, * p<0.05

출처: 필자 작성

<표 IV-10>은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들이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 정도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 비록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표 IV-10>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사안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모두 통일의 필요성 과정의 상관관계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할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요인 모두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북한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할수록, 또한 북한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할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모델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세 가지 요인 중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주민들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지배적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응답자들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과 확연히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도나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남한주민들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남한주민들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북한정권으로부터 북한주민을 분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6) 종합 분석 모델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다섯 가지 요인을 개별적 통계모델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각 요인들을 개별적 통계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목적은, 이들 다섯 가지 요인들이 각각 종속변수인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하는데 있다. 이처럼 각 통계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량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Adj. R²를 이용할 수 있다.

각 통계모델의 Adj. R²를 비교한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이 가장 설명력이 높으며, 그 다음이 정책적 요인들

I
II
III
IV
V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측면 중 남한주민이 보유한 통일에 대한 열망을 설명하는데 가장 미약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남한주민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있어서 북한주민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다음으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정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대북정책 요인이다.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가 남북한 통일, 혹은 통합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열망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이 설명하는 힘이 가장 미약하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이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주민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면, 정책적 측면의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 <표 IV-4>의 Adj. R2 값이 0.194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Adj. R2가 큰 모델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형성 요인으로 포함하는 모델로서 그 값이 0.120이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측면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모델이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낮은 요인은 경제적 요인들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남한주민들이 통합의 대상인 북한을 협력의 대상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남한주민들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처럼 남한주민들이 북한을 협

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있어 북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왔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서적 당위론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남한주민들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경제적인 요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였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중심적 대북한 정책방향과 달리, 일반 국민들이 보유한 북한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경제상황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무슨 요인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가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의 Adj. R2값이 0.09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설명력이 컸던 요인은 북한에 대한 태도였으며, 세 번째로 설명력이 컸던 것은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모델이었다. 경제적 요인은 역시 남한주민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가장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남한사회에서 국민들이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정치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요인이란 국민들의 정당선호와 정치이념 성향 등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남한사회에서는 정치화되어 보수적인 정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면 당연히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이념 성향에서도 보수적인 국민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

I
II
III
IV
V

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북한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국민일수록 북한을 경제/적 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세 가지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약한 것은 눈에 띄는 결과이다. 남한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남북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국가의 경제환경과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정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문제와 대북한문제를 정치나 이념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강조하려는 노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통일의 문제나 북한에 대한 이슈들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 IV-11 다섯 가지 요인 종합 분석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대북정책의 남북통합 기여도 평가	0.070***	0.427***	0.124**
박근혜정부 대북문제 대처능력 평가	0.055***	0.018	0.067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0.043	0.064	-0.023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	-0.016	0.187***	0.053
야당선호	-0.101	0.439**	-0.765***

	통일의 필요성	협력/지원	경계/적대
무당파	-0.054	0.145	-0.562**
정치이념 성향	-0.012	-0.222**	0.288***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0.040	0.197*	0.013
개인가정의 소득수준 평가	-0.033	-0.006	0.034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0.005	0.205*	-0.247**
사회에 대한 신뢰도	-0.030	-0.065	0.051
국가에 대한 신뢰도	-0.028	0.014	-0.059
사회갈등 심각성	0.190***	0.384***	-0.231*
북한에 대한 관심도	0.462***	0.475***	-0.204*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	0.124**	0.334**	-0.009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	0.037	0.310**	-0.451***
교육 수준	0.065	0.063	-0.055
나이	0.035	-0.004	-0.114*
성별(여성=1)	-0.064	0.059	-0.119
도시 규모	-0.044	-0.232*	0.258*
상수	0.289	-2.699***	7.123***
Adj. R2	0.319	0.303	0.135
사례수	1000	1000	1000

참고: *** p<0.001, ** p<0.01, * p<0.05

출처: 필자 작성

<표 IV-11>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다섯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통계 모델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

I
II
III
IV
V

는 세 가지 종속변수인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정책적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덟 가지 대북정책이 과연 남북한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평가였다. 이 독립변수는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북정책들이 남북통합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IV-4>가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측면을 구성하는 변수로 한국의 다섯 가지 사회갈등의 심각수준을 측정하는 변수였다.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뿐 아니라,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표 IV-8>이 제시한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반면, 사회갈등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8>에서는 사회갈등수준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북한에 대한 태도 측면을 구성하는 변수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뿐 아니라,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IV-10>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덜한 응답자일

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0>에서는 이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 계수는 음수로 동일했었다. 이 결과는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을 북한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북한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1>의 종합분석 결과는 남한사회의 주민들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대부분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정당 선호와 정치이념 성향이 정반대였다. 여당을 선호하고 보수적인 국민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야당을 선호하고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지닌 주민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결과는 왜 정당이나 정치엘리트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북한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려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표 IV-11>은 북한을 바라보는 방식이 사회의 계층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남한사회에서 상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주민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스스로가 남한사회에서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주민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남남갈등과 중첩되어 갈등상황이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한국사회의 갈등의 심각성을 느끼는 수준에 따라 북한을 인식하는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났으며 북한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한주민들이 북한정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 혹은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지가 확연하게 대비된다. 북한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일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정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남한주민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계변수들 중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대와 거주지역의 크기였다. 한국사회에서는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한주민들이 읍이나 면처럼 소규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종합분석 결과는 소규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국민일수록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왜 한국사회의 국민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왜 국민들이 통합의 한 주체인 북한을 두 가지 상반된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답을 구하고 있다. 즉, 어떤 요인

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협력/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지,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그들이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주민들이 남북한 통일을 열망하게 하는 주된 요인은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이란 당위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국민들이 보유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워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경제적 요인도 포함되지만, 그 영향력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확연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언급하면서 분단의 비용이나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현실생활에서 이러한 비용이나 편익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이것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얼마나 남북한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그들은 북한을 협력/

I

II

III

IV

V

지원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이었다. 국민들 중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북한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할수록, 그리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할수록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요인은 가장 미약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국민들이 보유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처한 경제상황이나 그들이 느끼는 국가의 경제 환경과는 실질적인 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국민들이 북한을 경제/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었다. 국민들 중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집단일수록, 또한 보수적인 정치이념 성향을 지닌 국민일수록 북한을 경제/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 요인이었다. 북한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국민일수록 북한을 경제/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은 국민들이 북한을 경제/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가장 설명력이 낮은 것이었다.

본 연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남북한 통일의 열망과 북한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남한과 북한이 동일한 민족공동체라는 정서적 당위성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반 국민들이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해 바라본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국민들이 보유한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문제나 북한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정책수행업적이 주요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

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용적인 접근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볼 일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대북 정책의 실용적 측면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는 이들 정책내용이 개념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통일 정책과 대북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일반 국민들도 점차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제상황과 통일의 문제나 북한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선택도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보유한 통일에 대한 열망에 정치적 요인은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특히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대북정책이 정치적 이슈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쉽게 정치화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동원함으로써 정치이념 갈등이 초래되고, 남남갈등과 이념갈등이 증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수의 갈등 증첩은 한국사회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이 팽배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북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전적인 방안은 정부가 일관된, 그리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2. 남북통합의 세 가지 범주: 가치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수용

가. 문제제기

남북한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인식은 현재의 한국사회와는 전혀 다른 통일한국의 긍정적 이익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통일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온다”라는 언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7월 10일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서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통일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두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내부혼란과 붕괴에 따른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두 가지 관점 모두 과정보다는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가 되는 결과론적 통일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통일이 남북한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 경제적, 정치적 상호 의존성의 증가, 공통된 가치지향성의 발견 등의 단계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가는 매우 논쟁적이다. 분단체제 아래서 남북한 주민들이 장기간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확연히 구분되는 가치의 내면화가 이뤄졌으며 서로를 악마적 상대로 형상화하는 이미지 정치가 이뤄져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의 과정 속에서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체제경쟁 등으로 인한 역사성과 역

¹⁴ “박 대통령, 통일은 내년에 될 수도 있다,” 『한겨레』, 2015.8.18., <www.hani.co.kr>. (검색일: 2015.9.20.); “[정세현 칼럼] 북한붕괴론 vs 북한패러독스,” 『한겨레』, 2015.10.11., <www.hani.co.kr>. (검색일: 2015.10.15.); 한반도평화포럼, 『통일, 대박이 아니라 긴 과정이다』 (경기: 서해문집, 2015).

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반도가 지니는 현재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한 사회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통일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남북한의 꾸준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통일은 제도적 통일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동일한 공동체 사회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며 그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이뤄질 수 있다. 통일의 수준과 범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회는 한 공동체로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남북한 통일이 제도적 통일의 완성으로 그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통일 이후에도 통일한국은 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유지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과 통합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현재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미래사회에 거는 기대로 어떻게 투영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을 구조, 제도, 의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고,¹⁵ 남북한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을 특히 강조하며 설명하기도 한다.¹⁶ 그런데 남북한의 통일로 인해서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의 능력이 아주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대하는 가치와 그에 대한 지향성,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수준 등이 하루아침에 전혀

15. 박명규 외, 『남북통합 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참조.

16. 특히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가 수행하는 “접촉지대와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 연구는 남북한 통합 관련 미시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nk.ac.kr>>. (검색일: 2015.10.30).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의 양상 및 심각성,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¹⁷

이 글은 2015년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남북한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 분단체제로 인해 발생한 역사성, 현재 국제질서 속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현재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지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에 대한 인식과 통일한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 한국사회의 갈등수준과 원인에 대한 인식과 통일된 한국사회의 갈등수준과 원인에 대한 인식 간의 차이,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양상 등을 통해 조작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분석이 사회적 갈등 및 통합의 요인과 양상의 인과성을 충분히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진단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향후 남북한 통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검토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통일정책과 남북한 사회통합정책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역량과 그들이 기대하는 미래가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책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¹⁷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p. 3~5.

나.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 구성

남북한 통합연구는 일반적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경험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회통합은 제도적 차원의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사회구성원들의 결속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응집(social cohesion) 등이 차별되지 않고 사용된다.¹⁸ 일반적으로 국내 연구에서 사회통합은 특정 구성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는 제도가 정착된 상태로서의 사회통합을 주로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응집에 가깝다. 그런데 사회결속이라는 용어는 social unity, social binding, bond 등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그 내용 역시 사회응집에 가깝다.

해외문헌들은 사회통합을 제도에 치중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미시적 차원의 통합으로서 사회응집을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두 가지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도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사회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접근방식을, 사회응집을 선호하는 연구는 사회시스템의 기능을 강조하는 뒤르켐(Emile Durkheim)의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남북한의 통일 후 통합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거시적 제도와 미시적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¹⁹ 제

¹⁸ 사회응집(social cohesion) 역시 사회통합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즉 사회응집을 미시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마음의 소통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역시 사회통합으로 번역할 수 있다.

¹⁹ Th. Jansen, N. Chioncel, and H. Dekkers,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Learning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7, no. 2 (2006), pp. 189~205.

도의 정비와 구성원들 간 소통과 갈등해결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의 개념은 사회통합의 속성과 과정 중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정의된다. 첫째, 국가·사회·개인의 노력을 통해 실현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의 상태 혹은 그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사회통합은 갈등의 최소화, 상호 존중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역량으로 조명되기도 하며,²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²¹ 귀속감과 가치 공유,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과 안정성, 결속이 유지되는 상태²²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회통합의 향상성을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사회의 내재적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개입에만 의존하는 연구보다 관찰 가능한 행태 혹은 인식에 기반을 둔 귀납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은 한 사회가 지향하는 속성과 그에 도달하는 과정을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경우 사회통합은 '사회적 단위들 간의 연결 및 관계 보장,' '구성원 간 가치 공유, 도전의식 공유, 기회균등 보장' 등으로 이해된다.²³ 전자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20. 문형표, “사회통합의 의의 및 정책적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23호 겨울호 (1994), p. 59; 이재열 외,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제21집 제2호 (2014), pp. 113~149.

21. 김준현·문병기,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국가 간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2014), pp. 59~90; 김미숙 외, 『사회통합 증장기 전략 개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p. 37~39.

22. 노대명,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0호 (2009), pp. 6~19; 강신욱,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7호 9월호 (2010), pp. 122~127.

23. 정기선 외,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2012: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과천:

통합된 사회의 속성에 해당되며, 후자는 그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해당된다. 통합된 사회의 속성과 그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접근은 통합 상태에 이르는 데에 미치는 전략과 행동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²⁴ 원인에 해당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 개념의 구성요소로 동시에 포함될 때 발생하는 인과추론의 어려움 때문이다.

사회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도전이지만, 학술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영태 외²⁵는 사회통합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개념정의는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하며, 그로 인해 실효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정책 주체들 간의 효율적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사회통합이 본질적으로 어느 한 정책주체에 의해서만 이뤄지거나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와 가치의 공유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경향들도 일반적 사회통합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한이 통합된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북한주민의 사회통합 과정과 통합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2), pp. 1~2; 설동훈·김명아,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과천: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 p. 3.

²⁴ 정영태 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천: 법무부, 2014), pp. 1~3.

²⁵ 위의 책, p. 32.

일시하는 경우 정책만 잘 만들어 시행하면 남북한 주민들 간 통합된 사회를 이루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의 어려움을 정책적 실패의 결과로 비판하게 된다. 그러한 비판들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정책대상자의 정책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의 수립과 평가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 사회통합의 당사자인 남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 통합연구에서 사회통합은 추상성이 너무 높거나 개념적 정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남북한 사회통합의 특징이 범주화되지 않고 여러 지표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합된 사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통합된 사회의 특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의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남북한이 통합된 사회의 특징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수립된 정책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정책수요자들과 소통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개념적 범주 관련 최소주의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한 사회통합이 개념적으로 포함하는 속성이 명확하고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의 개념적 구성요소들을 많이 배제할수록 개념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명확해지고, 통합된 사회의 속성을 적은 수의 구성요소로 설명한다면 경험적 분석에도 유리하며, 현재 한국사회와 통일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하는 핵심적 사회가치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해주

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상적 용법 활용의 원칙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청중(audience)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과 정책결정자 혹은 연구자들이 전문적이고 고도의 추상화된 속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사회통합을 이해하는 방식에 가까운 개념일수록 더 좋다.

이와 같은 원칙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 동질성 회복으로서의 통일과 통합 논의를 지양하고 분단과 전쟁의 역사성을 고려하며, 세계화 등에 따른 차이와 다양성의 확대를 수용하는 통합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은 갈등의 완전한 부재가 아니라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른 학문적 영역의 사회통합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이전의 공통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사회통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역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사회 내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며, 제도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언어로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남북한 사회통합은 <그림 IV-2>에서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 개념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한주민들이 통합된 사회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갈등의 요소들이 사회적 긴장상태 혹은 폭력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추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직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수용성과 포용

I
II
III
IV
V

성의 수준이 높은 상태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범주들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으며 범주 간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동시에 세 가지 범주는 구성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관념에 따라 기대가 달라질 수 있는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 **그림 IV-2** 남북한 사회통합 인식의 세 가지 범주



출처: 필자 작성

공유된 미래가치 지향성은 현재 한국사회와 통일된 미래의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미래가치가 현재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통일 후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단절적이지 않게 미래 사회통합의 질적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정책개발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반면, 현재 한국사회와 통일 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들이 서로 다르다면, 현재의 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관리 및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역량이라는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은 갈등의 부재 혹은 완전한 해소라기보다는 존재하는 갈등이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통합은 개념적으로 갈등의 부재가 아니다. 오히려 통합된 사회는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고, 다름에 의해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다름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집단의 인식과 기억은 공동체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독점되거나 통제되기보다 집단 인식과 집단 기억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70년 동안 분절적이고 적대적인 사회화를 경험한 남북한 두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귀속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포용성과 수용성 측면에서의 남북한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관계맺기에 구조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일된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관계맺기에 구조적 제한 없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들만의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적대적 타자상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회의 포용성과 수용성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역시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포용성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사회통합과 분리된 것일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가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라면 통일 후에도 국민들이 북한주민들에 대해 포용적 이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 범주 1: 공유된 미래가치 지향성

남북한이 통일 후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의제는 남북한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미래의 지향점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와 통일한국의 국가목표가 달라져야 하는가? 통일된 한국이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면 현재의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것과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더불어 보완적인 가치의 실현이 시대적 요구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일한국의 남북통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10년 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목표와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목표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높은 경제성장,' '물가억제,' '경제안정' 등을 1순위로 꼽고 있다.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모두 고려하면 '높은 경제성장'은 76.1%(2014년 78.1%), '물가억제는 65.3%(2014년 68.7%), '경제안정'은 79.7%(2014년 76.4%)에 이른다. 모든 계층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탈물질적 가치들보다 경제적, 물질적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안정은 중요한 의제임에 틀림이 없다.

표 IV-12 한국사회가 향후 10년, 통일 후 지향해야 할 목표: 1순위 (단위: %)

향후 10년 동안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				
그룹 1	높은 경제성장 (55.4)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 (22.5)	방위력 증강 (11.4)	환경개선 (10.7)
그룹 2	물가억제 (44.1)	언론자유 보장 (25.0)	정부정책결정에 국민의견 반영 (18.1)	사회질서 유지 (12.8)
그룹 3	경제안정 (63.4)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20.2)	범죄소탕 (12.0)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 (4.4)
통일 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				
경제성장 (36.1)	안보 (20.2)	사회안정 (13.6)	지역균형 발전 (10.8)	국민화합(8.3) 복지(6.8) 민주주의 발전(2.3) 과거청산(1.9)

출처: 필자 작성

통일 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1순위만 고려한다면, 경제적, 물질적 가치의 중시 현상은 계속된다. 통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될 안보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응답이 20.2%로 2위를 차지하였지만, 그 외 다른 의제들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응답이 36.1%로 월등히 높다. 2010년대 중반 한국사회의 경기침체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또한 통일 후에도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발전과 통합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가 예상되기에 경제적 성장을 통한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미래가치를 제1순위 응답만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의식 저변에 있는 사회적 삶의 질 혹은 사회안정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간과하게 된다. 통일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에 대한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동시에 고려하면, 경제성장이 52.6%, 안보가 36.7%, 사회안정이 33.1%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개별 항목에 따른 응답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의 조합별 빈도를 살펴보면 통일 이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국민들은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3>은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바탕으로 가능한 28가지 조합 중 상위 6개 조합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상위 6개 조합에 포함되는 응답자는 전체 1,000 중 2014년 444명, 2015년 432명이다. 따라서 이 빈도를 백분율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2015년 ‘경제성장, 안보’ 조합은 전체 응답자의 11.5%에 해당한다.

● 표 IV-13 통일한국의 가치지향 1순위 2순위 응답 조합표

순위	2014		2015	
	조합	빈도	조합	빈도
1	경제성장, 사회안정	112	경제성장, 안보	115
2	경제성장, 안보	96	경제성장, 사회안정	65
3	경제성장, 지역균형 발전	83	경제성장, 지역균형 발전	62
4	안보, 경제성장	57	안보, 경제성장	56
5	사회안정, 경제성장	50	사회안정, 경제성장	46
6	안보, 사회안정	46	경제성장, 민주주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안정	44 44

출처: 필자 작성

가장 빈도가 높은 상위 여섯 개의 조합에서 경제성장이 제일 많이 포함된다. 그런데 2015년 조사에서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성장을 꼽은 사람들 중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목표는 안보이며, 그 다음이 사회안정이다. 1순위 응답만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가치지향점은 국민들은 경제적인 것들과 관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1순위와 2순위를 고려하는 경우 국민들은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 사회안정 혹은 지역균형 발전, 민주주의와 같은 탈물질적 가치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결과는 통일한국의 지향해야할 목표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 다양한 조합의 가치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가 모두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하고, 남북대결이 아닌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도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모든 계층과 지역 등에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런 결과는 통일 이후 한국사회가 특정 가치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 사회전반의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개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14 통일한국의 우선시 목표 1순위/2순위 (2015)

(단위: %)

1순위/2순위	경제 성장	안보	복지	지역 균형 발전	사회 안정	민주 주의 발전	국민 화합	과거 청산	합계
경제성장	—	31.9	10.5	17.2	18.0	12.2	9.1	1.1	100
안보	27.9	—	10.0	11.9	20.9	8.5	19.9	1.0	100
복지	13.4	22.4	—	25.4	16.4	6.0	10.5	6.0	100

I
II
III
IV
V

1순위/2순위	경제 성장	안보	복지	지역 균형 발전	사회 안정	민주주의 발전	국민 화합	과거 청산	합계
지역균형 발전	18.5	8.3	16.7	—	40.7	2.8	13.0	0.0	100
사회안정	33.8	11.8	2.9	22.8	—	8.1	19.1	1.5	100
민주주의 발전	31.8	4.6	4.6	9.1	22.7	—	27.3	0.0	100
국민화합	28.9	9.6	3.6	14.5	28.9	8.4	—	6.0	100
과거청산	15.8	5.3	0.0	36.8	21.1	5.3	15.8	—	100

출처: 필자 작성

통일한국의 미래지향성에 대한 모든 가능한 조합의 통계를 <표 IV-14>가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 중에 2순위로 안보(31.9%), 사회안정(18%), 지역균형 발전(17.2%), 민주주의 발전(12.2%)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응답은 2014년도 5.2%와 비교하면 많이 증가하였다. 안보를 1순위로 응답한 사람 중에도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각각 27.9%와 20.9%를 기록하였다. 지역균형을 1순위로 한 사람들 중에는 사회안정을 2순위로 하는 경우가 경제성장을 2순위로 하는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사회안정을 1순위로 한 응답자들 중에는 2순위로 경제성장을 선택한 사람이 33.8%에 이른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국민들은 현재의 한국사회, 10년 후의 한국사회, 그리고 통일한국사회 모두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민감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제도적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 한국사회가 사회안정,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증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식도 이해할 수 있다. 경제에 민감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분배와 정의의 가치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성장과 사회안

정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이지, 어느 하나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통일의 편익을 지나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통일준비와 통일정책은 지양하고,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통일준비와 통일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라. 범주 II : 갈등관리 및 갈등해소 역량

남북한 사회통합의 두 번째 범주는 다양한 수준에서 항상 존재하는 갈등의 요인들이 긴장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인식이다. 즉 사회통합을 갈등의 부재상황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적인 분석에 활용될 수 있지만, 변화의 주기가 짧은 현 국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갈등관리와 갈등해소라는 보다 동적인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개념이 유용하다. 어느 사회나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수용한다면, 사회통합은 그러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 혹은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의 관리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의 갈등양상과 수준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계층갈등 71.6%,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70.8%, 지역갈등 66.9%, 세대갈등 65.2%, 이념갈등 58.5% 순이다. 반면, 통일 후 한국사회의 예상되는 갈등수준은 남북 지역 간 갈등 68.2%, 이념갈등 63.9%, 계층갈등 58.2%, 세대갈등 50.4%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수준이 계층과 남남갈등이지만, 통

I
II
III
IV
V

일한국 사회에 대한 예상수준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와 이질적 문화 등에 따른 남북 지역 간 갈등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표 IV-15 한국사회, 통일한국의 갈등수준 인식(2015)

	평균(M)	표준편차(SD)	M-SD	M+SD
한국사회 갈등수준 ¹⁾				
지역갈등	2.83	0.75	2.08	3.58
계층갈등	2.97	0.76	2.20	3.73
이념갈등	2.77	0.83	1.94	3.60
세대갈등	2.81	0.75	2.06	3.55
남남갈등	2.94	0.79	2.15	3.73
통일한국 사회갈등 예상수준 ²⁾				
계층갈등	3.60	0.93	2.67	4.52
이념갈등	3.76	0.94	2.81	4.70
세대갈등	3.48	0.81	2.68	4.29
남북 지역갈등	3.84	0.93	2.91	4.77

출처: 필자 작성

- 주 1) 한국사회 갈등수준은 다음과 같이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약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 주 2) 통일한국 사회갈등 예상수준은 다음과 같이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③ 지금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④ 약간 심각할 것이다, ⑤ 매우 심각할 것이다.

<표 IV-15>는 현재와 통일한국의 갈등수준에 대한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이 통계는 통일한국의 갈등수준에 대한 평균적 예측이 ‘약간 심각할 것이다’에 가깝다. 설문 문항이 현재의 갈등수준과 비교하여 통일된 한국사회의 갈등이 어떠한 것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수준과 변함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실질적으로는 갈등 수준이 높을 것임을 예측하는 것이다. 통일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에 대한 인식의 표준편차보다 통일한국의 갈등수준에 대한 인식의 표준편차가 큰 것은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일 이후 갈등수준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평가는 본인의 경험과 관찰에 의존하여 이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는 개인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차는 정책적 개입에 의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 관련 인식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준비 혹은 통일정책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높이는 실질적인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갈등수준과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주관적 경제만족도, 그리고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갈등수준이 높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 수입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자신의 기대와 격차가 커질 때 그 만족도는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다. 경제상황과 자신의 기대와의 차이는 또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갈등요소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관리 및 해소되고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I
II
III
IV
V

갈등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의 정부정책 혹은 사회적 경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이 높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에서 보듯이 일부 계층 간 한국사회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아닌 단절과 갈등의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표 IV-16>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2.5%가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 중 61.0%(전체의 44.2%)는 한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을 하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27.5%인데, 이들 중 한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6명에 불과하다. 즉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경우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기대감이 충족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IV-16 한국사회 발전방향성, 주관적 경제만족도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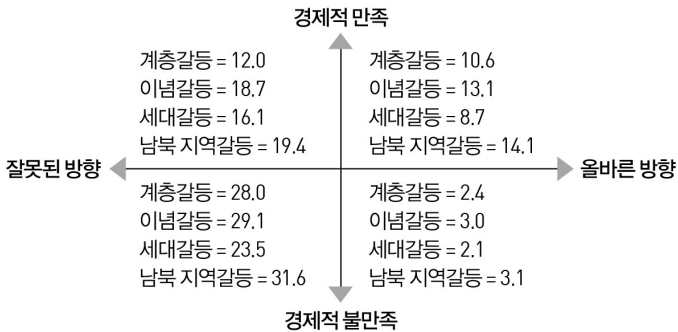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방향성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합계 (빈도)
	매우 불만	다소 불만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10.7	33.5	5.0	0.1	493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3.5	24.8	21.3	1.1	507
합계(빈도)	142	583	263	12	1,000

출처: 필자 작성

그렇다면 응답자의 주관적 경제만족도와 사회발전 방향성 등에 따라 통일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그림 IV-3>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통일 후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그림은 ‘경제적 만족, 올바른 방향,’ ‘경제적 만족, 잘못된 방향,’ ‘경제적 불만족, 잘못된 방향,’ ‘경제적 불만족, 올바른 방향’ 등 네 가지 갈등심각성에 대한 인식 유형으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통계는 전체응답자 중 해당 갈등의 양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 **그림 IV-3** 주관적 경제만족도, 사회 발전방향성과 통일 후 갈등의 심각성 인식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주 1) 갈등수준별 총합: 계층갈등 58.2%, 이념갈등 63.9%, 세대갈등 50.4%, 남북 지역갈등 68.2%

<그림 IV-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경제상황에 불만족하고 동시에 한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일 후 갈등이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

I
II
III
IV
V

단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통일 후 갈등양상이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만족하는 사람일수록 통일 후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적으로 만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한국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일 후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통일 이후 갈등은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의 불균형 분배에 의해서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 후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에 대해서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도 통일 후 갈등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만족하는 사람들과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통일 후 사회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통일 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투사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남북한 통일의 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선언적 통일정책 혹은 캠페인은 국민들의 공론을 끌어내는데 비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경제적 문제 역시 통일 후 사회통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대박론 등이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문제에 대한 처방 없이 통일에 대한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의 청사진에 이상적으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어렵다. 사회정의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라면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에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우, 국민들은 통일 후 한국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다층적 논의가 요구된다. 한국사회의 방향성과 주관적 경제만족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다른 비물질적 가치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가치지향성에 대한 담론의 장이 활성화되어 유형별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부 주도의 통일준비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행위자 간 공감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안정이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 70년 동안 형성해온 상호 적대적 타자로서의 이미지 해소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적대적 타자상의 형성은 실제 적대적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오해와 편견,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편견 등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향이 강하다.²⁶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도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념과 이데올로기 차이(86.4%),’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84.6%),’ ‘소득수준의 차이(76.0%),’ ‘의사소통의 어려움(44.5%)’ 순으로 꼽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41.9%),’ ‘취업 문제해결(31.4%)’ 순으로

26.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pp. 3~13.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회의 가치와 문화 차원에서의 통합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마. 범주 III : 사회적 포용성과 수용성

남북한 사회통합의 세 번째 범주는 통일 후 한국사회가 얼마나 이방인에게 포용적이고 수용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통일 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포용성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포용적, 수용적 태도와 다른 부류의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포용적, 수용적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통일한국이 남북한 주민들로만 구성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통일 후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한 집단별 편견의 부재,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대하는 상호 인정, 관계맺음에 있어서 공존을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관계맺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일대일 통합의 과정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 다른 문화 등과의 통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후 사회통합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차원보다 다양성의 인정, 사회적 관계성의 증진,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남북한 사회통합의 세 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통일한국의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인정하거나 그러한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남북한 주민, 그리고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성 증진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통합적 관계맺기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와 같은 다양성과 관계성은 집단 구성원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통일한국 공통의 구성원, 그리고 나아가 공통의 세계구성원임을 수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제시민으로서 보편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다문화의 수용과 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통해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17 다문화 수용과 국가결속력에 대한 인식(빈도)

		다문화 수용		다문화 수용과 국가결속력		
		반대	찬성	약화됨	차이 없음	강화됨
한국사회 방향성	잘못된 방향	166	327	373	45	75
	올바른 방향	155	352	345	57	105
주관적 경제만족	불만족	248	477	538	67	120
	만족	73	202	180	35	60

주 1) 각 문항별 응답자 수는 1,000명 임.

출처: 필자 작성

다문화 수용과 관련하여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응답자가 67.9%이다. <표 IV-17>에 의하면 한국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문화 수용과 관련된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상황에 대해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경우 73.5%의 비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 65.6%의 비율 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다문화 수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였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입인구



를 수용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수용에 대해 소극적일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1.8%가 다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인해 국가의 결속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더 많은 비율로 국가결속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더 높은 비율로 국가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다문화 수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집단별로 국민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사회가 현재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그룹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72.6%), 북한이탈주민(39.7%), 외국인 노동자(39.5%), 결혼이주자(35.3%), 조선족(31.4%) 순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추가수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른 집단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수용적임을 알 수 있다.

국내 다른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58.5%), 북한이탈주민(44.0%), 결혼이주자(40.4%), 조선족(36.2%), 외국인 노동자(33.7%) 순으로 나타난다. 포용적 태도에서와 비슷하게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조선족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보다 훨씬 높다. 통일담론이 민족적 동질성, 남북 사회통합의 중요성, 인적소통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그와 같은 담론 혹은 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포용의식과 친근감을 증진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정책적 비효과성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그만큼 많지 않아 국민들이 상호접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사회의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민족적 당위성 보다는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변화과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에 이어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과 어떤 형태로 관계맺기를 원하는가와 관련된 관계성이다. 관계 유형에 따라 구성원들이 느끼는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다. 개인마다 타인과 1차적 관계와 2차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맺기는 개인 대 개인으로 관계성이 성립되기보다 개인 대 집단 이미지로 관계성이 성립되는 경우, 관계맺기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집단에 대해 느끼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거리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통일 후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V-18 관계맺기 유형별 ‘꺼리지 않는다’ 응답

관계유형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유학생/ 사업가	
	환영 (%)	평균 ±SD	환영 (%)	평균 ±SD	환영 (%)	평균 ±SD	환영 (%)	평균 ±SD	환영 (%)	평균 ±SD
동네이웃	49.9	2.44 ±0.71	49.9	2.48 ±0.69	36.7	2.23 ±0.76	39.4	2.28 ±0.76	67.2	2.74 ±0.69
직장동료	52.6	2.49 ±0.72	51.4	2.49 ±0.68	43.4	2.35 ±0.75	44.3	2.35 ±0.76	70.9	2.80 ±0.66
결혼상대자	24.6	2.04 ±0.72	25.2	2.08 ±0.73	21.3	1.91 ±0.74	21.7	1.96 ±0.74	44.2	2.39 ±0.79

주 1) 4점 척도: ① 매우 꺼려진다, ② 다소 꺼려진다, ③ 다소 환영한다, ④ 매우 환영한다.
출처: 필자 작성

이 조사는 관계맺기 유형을 동네이웃, 직장동료, 결혼상대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관계맺기 유형에서 국민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집단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다. 10명 중 7명 정도가 동네이웃 혹은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자 집단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집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결혼상대자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적은 수의 응답자가 꺼리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아주 밀접한 1차적 관계맺기에 대해서는 2차적 관계맺기보다는 소극적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와 결혼상대자로 관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표준차를 고려할 때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 관계맺기보다 결혼상대자로 관계맺기에 대해 구성원들 간 인식의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맺기 유형별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집단별 사회적 거리감

을 종합지표를 구성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 가지 관계 유형에 대한 개인들의 거리감을 더함으로써 집단별 종합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다. 각각의 지표가 최소 1, 최대 4의 값을 갖기 때문에 집단별 각 종합지표는 최소 3, 최대 12의 값을 갖는다. 집단별 사회적 거리감의 종합지표는 분석의 편리를 위해 종합 지표에서 3을 빼면 최소 0, 최대 9의 값을 갖게 된다.²⁷

사회적 거리감의 지표가 9이면 그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유형에 ‘매우 환영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거리감의 지표가 0이라면 그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유형에 ‘매우 꺼려진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거리감 지수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회집단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국민들의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지수는 평균적으로 4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IV-19 집단별 사회적 거리감 기술통계

변수	사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북한이탈주민	1,000	3.97	1.85	0	9
결혼이주자	1,000	4.05	1.74	0	9
외국인 노동자	1,000	3.49	1.91	0	9
조선족	1,000	3.59	1.91	0	9
유학생/사업가	1,000	4.93	1.74	0	9

출처: 필자 작성

²⁷ 종합지표의 거리감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사회적 거리감)_i=(동네이웃)_i+(직장 동료)_i+(결혼 상대자)_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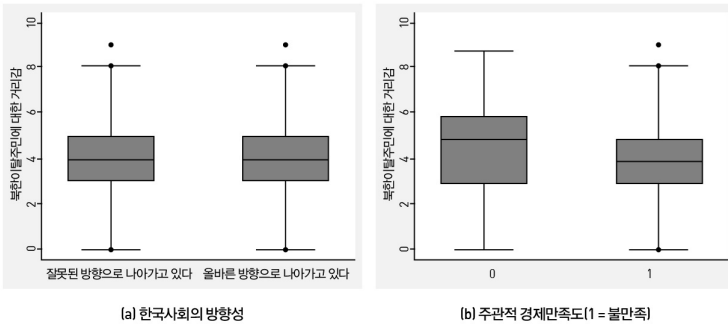
집단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집단이다. <표 IV-19>의 통계에 의하면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보다 1점이나 더 높은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집단과 비교하면 약 1.5점이 높은 것이다. 개별 유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감 종합지수에서도 국민들의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적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결혼이주자 또는 유학생 및 외국인 사업가 집단에 대한 거리감보다 크다는 점은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이 한국의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닌지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사회의 방향성과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4>는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구분해본 것이다. <그림 IV-4>의 (a)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그룹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다.

반면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거리감을 나타낸 <그림 IV-4>의 (b)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값은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그룹에서 조금 낮다. 경제상황에 불만족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감이 더 클 수 있고 그 편차도 작다. 유럽 사회에서 이민자의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제적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또 다른 거울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거리감이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개연

성이 있는 것이다. 통일 후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다른 집단의 수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IV-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방향성, 경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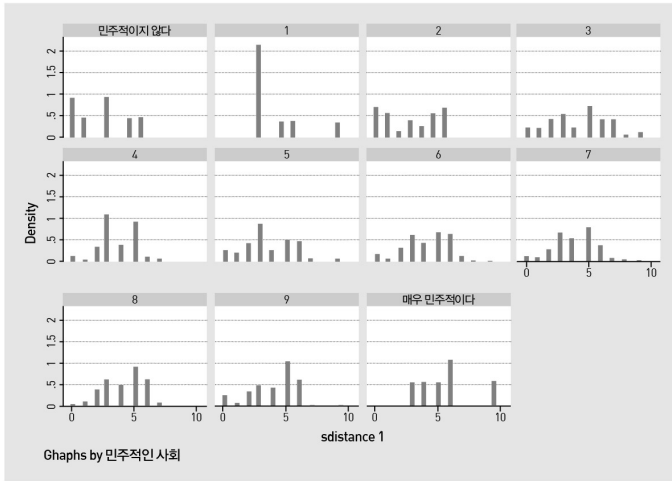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한국사회의 방향성과 경제적 만족도 이외에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 특히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긍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세 가지는 공동체 밖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II
III
IV
V

○ 그림 IV-5 민주주의 수준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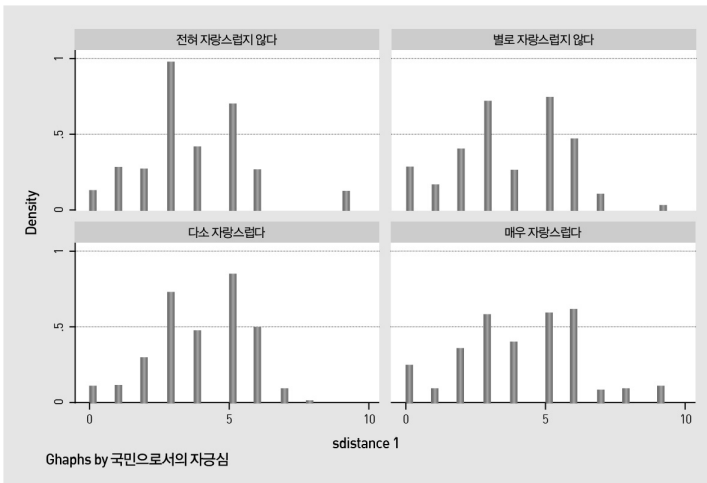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5>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한국사회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부분 평균보다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3점에서 5점을 부여한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한 사람들보다는 거리감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수준을 7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5점 이상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수준이 항상적인 것이 아니라 발전과 퇴보를 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임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수준 대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민주주의 수준은 독립변수로 작용하기보다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민주주의 수준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아주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단순 매개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그림 IV-6 국민적 자긍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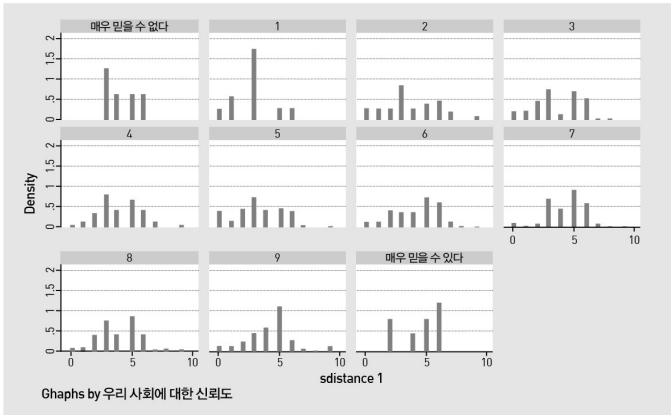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국민적 자긍심이 높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거리감 지표가 5 이상일 비율이 '다소 자랑스럽다'와 '매우 자랑스럽다'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자긍심이 낮은 그룹에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은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컸고 편차도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한 사람, 공동체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회통합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전통적 주장과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와 친밀감을 느끼고, 다양한 형태의 관계 맺기에 대해 꺼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다른 인종, 민족,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지나친 민족주의적 경향에 치우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통일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며 국제화의 흐름에 조응하는 국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림 IV-7** 한국사회 신뢰수준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출처: 필자 작성

사회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행위자들이 지니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높다는 것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과정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사회에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기능하는 기구들이 존재한다. 행정부와 군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낮고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거리감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의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I
II
III
IV
V

바. 정책적 시사점

남북한 사회통합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인식적 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과정과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신뢰, 가치의 공유 등을 바탕으로 갈등요인들이 극단적인 폭력이나 사회적 긴장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또는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춘 상태 혹은 그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 후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양상 및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것일 수 없다.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과제, 현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위치와 한국사회의 역할과 기능, 미래에 대한 구성원들 간 공유하는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할 때, 남북한 사회통합은 역사성, 현재성, 미래지향성을 가지는 개념이 된다.

남북한 사회통합은 통일된 한국사회의 특징과 속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한 특징과 속성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영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들은 특징과 속성만을 다루기도 하고, 일부 연구는 특징과 속성, 과정과 영향을 동시에 다루기도 한다. 속성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고, 과정만을 고려하는 경우 제도적 장치에 의한 정책적 개입에만 초점을 둘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 사회통합은 분단의 현실과 통일된 미래라는 이중적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속성 또는 과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통합의 속성과 과정을 동시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통합의 촉진요인과 그로 인한 결과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남북한 사회통합 연구와 정책개발에서는 이 둘을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은 보편적 가치와 특수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 사회통합은 구성원들이 현재 한국사회와 통일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미래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국민들은 향후 10년 한국사회 그리고 통일 후 한국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향해야할 가치로 경제성장 혹은 경제안정을 꼽았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경제성장과 비슷한 비율로 국민들은 사회안정, 균형발전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그동안 정부가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통일준비 및 통일의 과정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남북한 사회통합의 정도는 한국사회 그리고 통일 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거나 직면하게 될 갈등을 평화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 의해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 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해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고 한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통일 후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답자들이 통일 후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사

회통합은 통일준비 혹은 통일정책이 선언적 수사에 그칠 경우, 국민들은 통일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이해의 결여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사회가 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결과 여러 민족이 국적을 취득한다면 사회적 결속력은 저하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남북한 통합정책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친근감과 수용적 태도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결국 크게 설득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일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보편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남북통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 통합에서 있어서 남북한 주민들의 관계맺기는 1차적 관계보다는 2차적, 3차적 관계맺기에 좀 더 개방적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분단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사회화과정을 경험하고, 오해와 편견 등으로 인해 형성된 타자상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가치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재의 보편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3. 북한인식의 네 가지 유형과 대북정책

가. 문제제기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는 단순히 대북정책 선호와 관련된 물음이 아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곧 이념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었으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비판은 항상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와 연관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는 바로 한국사회의 이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묻는 것과 동시에, 한국정치의 핵심적 갈등의 기저에 무엇이 놓여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은 조세제도나 복지제도, 소득불평등 문제 같은 경제적 문제들이었다. 강원택은 이와 달리 한국사회의 이념문제를 특징짓는 요인은 정치적인 요인들이라고 주장한다.²⁸ 즉,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는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반대로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은 한국인의 이념을 경제적 요인들로 환원시킬 수 없으며, 정치적인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 강원택은 여러 비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대북한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강원택은 결론에서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이념성향의 특성은 (……) 특히 대북지원 문제와 보안법 개정과 같은 ‘대북한’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한다.²⁹

²⁸ 강원택,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1호 (2003), pp. 5~30.

I
II
III
IV
V

이렇게 한국에서 이념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념은 진보와 보수의 2차원적 축 사이에 분포된다고 상정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 또한 2차원적 단선 모형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왔다. 즉,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는 태도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대결을 강조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극단 사이의 한 점에 개인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인식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모형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단선적인 북한인식 모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남한의 시민들은 북한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다. 또, 대북정책과 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여, 단순히 경제협력에 찬성하면 진보, 북한의 체제전환을 찬성하면 보수로서 정의하던 기존의 연구들의 관행에 심각한 수정이 필요함을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진보-보수의 이념을 결정하는 중요한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과 2015년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는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 및 국내정세의 변화에 상당히 유연하게 반응하는 변수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념과 정당지지 같은 정치적 요인이 북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과의 방향을 그 반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념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정치이

²⁹ 위의 책.

념과 정당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과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4군집 모형을 비교하여 소개할 것이다.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4군집 모형을 어떠한 경험적 방식으로 측정하고 분석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어서 4개 북한인식 군집간의 차이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과 정치요인 변수들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4군집 모형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각 군집에서 선호하는 대북정책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과 4군집 모형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북한인식과 관련된 논의에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단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반 대중과는 달리 논리적으로 일관된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엘리트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이념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진보·보수의 이념적 속성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거부-수용(혹은 과거 발전국가 유산의 청산-존치)’이라는 하나의 축과 ‘자유주의-권위’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이 교차하는 2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³⁰ 권숙도 또한 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남남갈등을 분석하면서,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놓는다.³¹ 즉, 남남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북인식의 시각 차이

³⁰ 강원택,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2005), p. 209.

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갈등의 축을 구성하는 것은 ‘냉전반공주의의 유지와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것이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³²

이러한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IV-8>처럼 보일 것이다.

● **그림 IV-8**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



출처: 필자 작성

이런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인식 구조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이 시도된 바 없다는 것이다. 즉, 진보-보수의 2차원적 이념 모형에 비판없이 북한인식 모형을 적용시켜온 것에 불과할 뿐, 정말로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협력 혹은 대결적 인식이라는 양극단만의 북한인식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국제관계에 미치는 여론의 영향을 연구하는 국가 이미지 이론(national image theory)을 주장하는 허먼(Richard K. Herrmann)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타국과의 관계, 힘의 균형, 문화적 지위 등의 요소에 따라 다양한

31.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2012), pp. 51~69.

32. 이우영, “체제수호적 통일과 반체제적 통일, 그 동일 구조를 넘어서,” 『당대비평』, 제21권 (2003), pp. 205~216; 주봉호, “남한사회 남남갈등의 양상과 해소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64권 (2012), pp. 145~169.

스키마(schema)로서의 국가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³³ 예를 들어 양국 간의 국가적 목표가 일치하며, 힘과 문화적 지위가 엇비슷한 경우에는 동맹국(alliance)의 이미지가 형성되며, 힘과 문화적 지위는 비슷하나 국가적 목표가 상치되는 경우는 적국(enemy)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국가적 목표가 상치하나 상대방의 힘과 문화적 지위가 자국보다 뒤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상대 국가는 종속국(dependent state) 혹은 식민지(colony)의 이미지, 반대로 상대방이 힘과 문화 모든 측면에서 자국보다 우월할 경우는 제국(imperialist)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국가 이미지는 외교정책 선호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동맹국의 경우에는 협력정책을 선호할 것이며 적국의 경우는 공격 혹은 봉쇄정책을, 종속국에 대해서는 착취 및 보호정책을, 그리고 제국에 대해서는 독립과 분리를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국가이미지 이론은 같은 국가라고 해도 그 국가와 자국과의 관계 및 상대적 힘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양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는 이 허먼의 이미지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공식적으로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³⁴ 즉, 허먼의 도식 속에서는 상대방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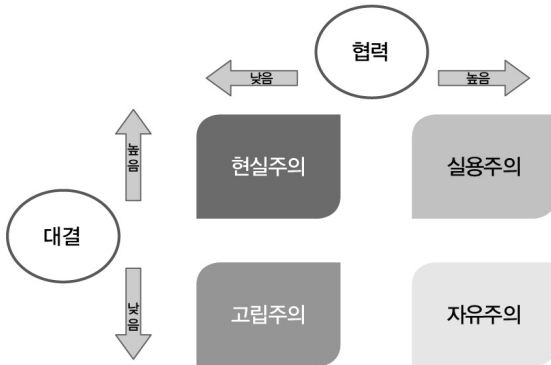
33.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pp. 185~213; Richard K. Herrmann, *Perceptions and Behavior in Soviet Foreign Policy* (Pittsburgh, Pennsylvani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5), pp. 22~49; Richard K. Herrmann and Michael P. Fischerkeller,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pp. 415~450; Richard K. Herrmann, James F. Voss, Tonya Y. E. Schooler, and Joseph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3 (1997), pp. 403~433.

I
II
III
IV
V

이미지가 빠져 있으며, 각 국가 이미지와 연결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허먼의 이미지 이론에서 상대방 국가를 바라보는 이미지 혹은 스키마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스키마의 차이가 선호하는 외교정책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체적인 도식은 가져왔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IV-9>에서 도식화된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이 바로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려는 북한에 대한 인식 모형이다.

이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이 단지 진보(협력)와 보수(대결)의 양 극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과 대결을 양축으로 하여 4가지의 군집(cluster)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접근해 보고 있다.

● 그림 IV-9 북한인식 4군집 모형



출처: 필자 작성

34. 통일원, 『통일백서 1992』 (서울: 통일원, 1992), p. 85.

위의 그림에서 현실주의(rea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는 기존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의 보수와 진보에 각각 상응하는 개념이다. 현실주의 군집은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회의적이며, 북한에 대한 대결적 접근을 선호하는 집단이다. 반면 자유주의 군집은 이와 반대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에 대해 긍정적이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결적 접근 방식을 지양하는 군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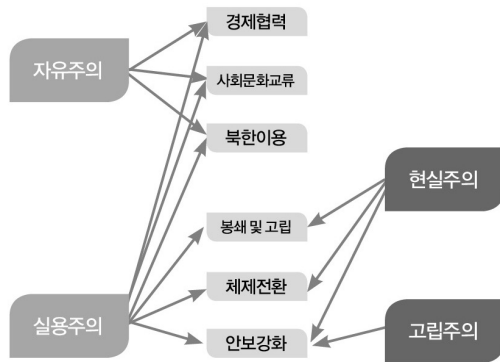
실용주의(pragmatism)와 고립주의(isolationism)는 지금까지의 단선적 인식 모형에서 다룰 수 없었던 부분이다. 우선 실용주의 군집은 북한에 대한 협력과 대결을 모두 긍정한다. 즉,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의 태세를 낮출 수 없다는 조심성을 같이 갖추고 있는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접근과 대결적 접근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 실용주의 군집의 북한인식은 일견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남한정권들이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나 경계 또한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에 주력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도 결코 안보 및 군비문제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주장을 내세운 적은 없었으며,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협력 자체를 부정한 바는 없다.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남북한 갈등을 우려하는 것은 전혀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태도이다.

고립주의는 북한과의 협력과 대결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군집이다. 이 군집은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통일연구원이 199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91.6%의 응답

I
II
III
IV
V

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³⁵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급속히 하락하였는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응답자의 비율이 63.8%였고, 2014년 현재 50%대 중반 정도로 떨어진 것이 발견된다.³⁶ 따라서 더 이상 통일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을 그저 하나의 외국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립주의 군집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접촉 자체에 부정적이며, 다른 외국에 비해 북한문제에 더 특별한 관심과 외교 역량이 집중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림 IV-10 북한인식 군집과 대북정책 선호 모형



출처: 필자 작성

35. 최수영 외,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통일연구원, 1994), pp. 84~90.

36. 박명규 외, 『2014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p. 37~39.

북한인식의 군집들은 대북정책의 선호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단선적 북한 모형에서는 진보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보수는 북한에 대한 공격 혹은 방어적인 정책을 선호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북한인식 4군집 모형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위의 <그림 IV-10>에 도식화한 것처럼 여섯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북한 자원의 이용 등이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이라면 북한의 봉쇄 및 고립, 체제전환, 대북 안보강화는 대결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군집이 협력적 정책을, 현실주의 군집이 대결적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은 단선적 인식 모형과 같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협력과 대결 모두를 긍정하는 실용주의 군집의 경우는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한 선호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대척점에 서 있는 고립주의 군집은 모든 유형의 정책에 대해 선호가 낮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 수동적 거리 넓히기라고 볼 수 있는 안보강화정책에 대한 선호만을 보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다. 북한 4군집 모형의 측정과 분석

4군집 모형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2014년과 2015년의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새로운 문항을 추가했다. 이 문항의 내용은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으며, 응답자는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제대상’, ‘적대대상’이라는 답지를 각각 11점 리커트 척도³⁷로 답하게 되어

³⁷-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중간값; 10=매우 동의한다.

있었다.³⁸ 이 다섯 가지 북한 이미지의 평균값은 아래 <표 IV-20>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20 북한 이미지별 평균값

(단위: 점)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14년	5.01	4.82	3.80	5.96	5.57
2015년	5.38	5.19	4.04	6.19	5.66

출처: 필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북한인식 측정 변수를 이용하여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의 기초로 삼았다. 우선, 다섯 변수들을 요인분석하여 같은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서로 묶어 합산척도로 구성한 후, 이 새로운 합산척도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4개의 군집으로 응답자들을 구분하였다. 아래에서는 분석 순서대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과정을 소개한다.

(1)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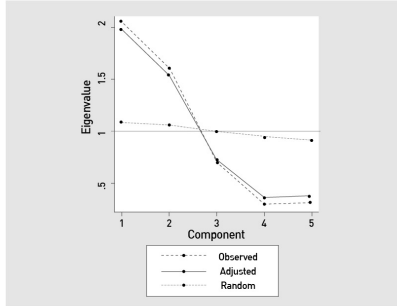
위에서 소개한 북한 이미지 변수 다섯 개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좀 더 정확한 요인 수의 추출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를 줄이는 방식인 평행성 분석(parallel analysis)을 먼저 실시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고,³⁹ 이어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평행

³⁸-이 북한인식 문항은 90년대 초에 시작된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도 계속 조사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기존의 북한인식 문항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식 문항의 차이점과 비교, 측정 방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p. 108~115.

³⁹-Alexis. Dinno, "Implementing Horn's Parallel Analysis for Principal Compon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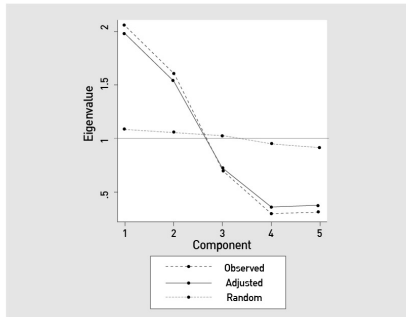
성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13 프로그램의 paran 패키지를 사용했다. 아래의 <그림 IV-11>과 <그림 IV-12>는 이 평행성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IV-11** 2014년 데이터의 평행성 분석



출처: 필자 작성

○ **그림 IV-12** 2015년 데이터의 평행성 분석



출처: 필자 작성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Stata Journal*, vol. 9, no. 2 (2009), pp. 291~298; Louis W. Glorfeld, An Improvement on Horn’s Parallel Analysis Methodology for Selecting the Correct Number of Factors to Retai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5, no. 3 (1995), pp. 377~393; John L. Horn,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0, no. 2 (1965), pp. 179~185.

I
II
III
IV
V

위 두 그래프에서 보듯, 2014년과 2015년 모두 1 이상의 아이겐값(Eigenvalue)을 갖는 요인의 수는 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인 수를 2로 상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추출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의 회전을 위해서는 프로맥스(pro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IV-21>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21 북한인식 요인분석 요인적재값(2014/2015)

	2014년			2015년		
	협력 요인	대결 요인	Uniqueness	협력 요인	대결 요인	Uniqueness
지원대상		0.86	0.26		0.72	0.45
협력대상		0.82	0.31		0.87	0.21
경쟁대상			0.87			0.81
경계대상	0.88		0.23	0.72		0.48
적대대상	0.79		0.35	0.92		0.10

출처: 필자 작성

위 표에서는 해석 편의를 위해 0.4 이하의 요인적재값을 생략한 것이다. 추출된 두 개의 요인은 각각 ‘협력요인’ 및 ‘대결요인’으로 이름 지었다. 위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을 하나의 변수(협력요인)로, 그리고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을 또 다른 변수(대결요인)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쟁대상 변수는 요인적재값이 낮아서 요인분석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변수들을 더하여 생성한 이 두 개의 새로운 합산척도는 최솟값이 0이고 최댓값이 20이다. 2014년의 경우 협력요인의 평균값은 9.83(표준

편차 4.12), 대결요인의 평균값은 11.53(표준편차 4.17)이었다. 2015년에는 두 값이 모두 약간씩 상승하여⁴⁰ 협력요인은 10.56(표준편차 4.18), 대결요인은 11.85(표준편차 4.14)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합산척도의 내적타당도를 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IV-22 협력요인·대결요인 변수의 내적타당도

	크론바흐 알파	
	2014년	2015년
협력요인	0.79	0.83
대결요인	0.81	0.83

출처: 필자 작성

크론바흐 알파값이 모두 최소 0.79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내적타당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협력요인 변수와 대결요인 변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해보면, 2014년에는 $-0.14(p < 0.001)$ 였고 2015년에는 $-0.3(p < 0.001)$ 이었다. 즉, 양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만큼의 강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협력 혹은 대결적 인식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협력요인과 대결요인 변수사이의 약한 상관관계는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 대한 중요한 반론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2차원적이며,

⁴⁰ 협력요인의 경우는 0.1% 수준에서, 대결요인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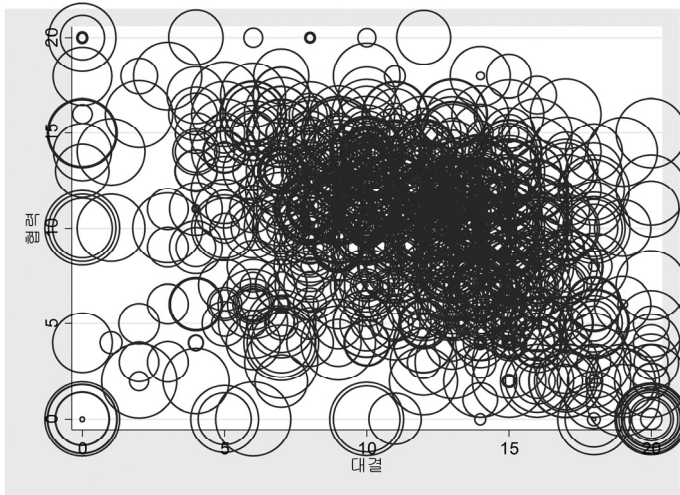
I
II
III
IV
V

협력과 대결적 태도 사이에 화해하기 힘들 정도의 강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전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이 단선적 인식모형에 따르면 북한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개인이라면 북한에 대한 대결적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두 변수 사이에는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의 협력과 대결 모두를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태도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북한과의 일체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태도 또한 가능할 것임을 이 약한 상관관계는 보여주고 있다.

(2)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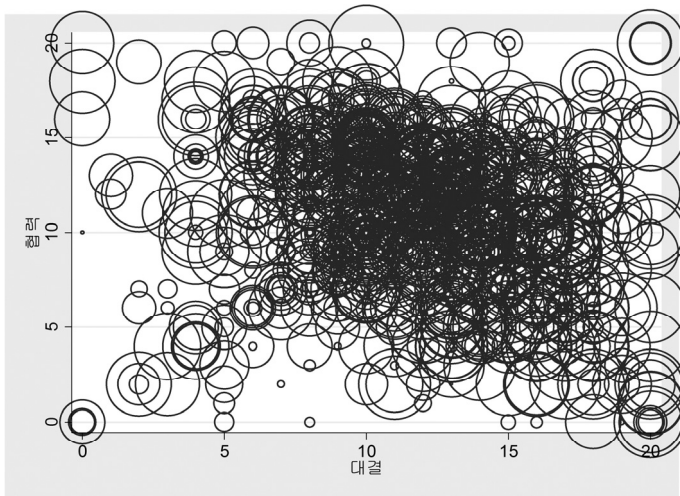
아래 <그림 IV-13>와 <그림 IV-14>의 두 산포도는 북한인식 4군집 이론과 관련된 위에서의 추론이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인분석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두 합산척도, 협력과 대결을 각각 양축으로 놓고 응답자들의 도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포도를 그려보면 그 분포가 상당히 넓게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V-13 2014년 북한인식 산포도(도수 가중치)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V-14 2015년 북한인식 산포도(도수 가중치)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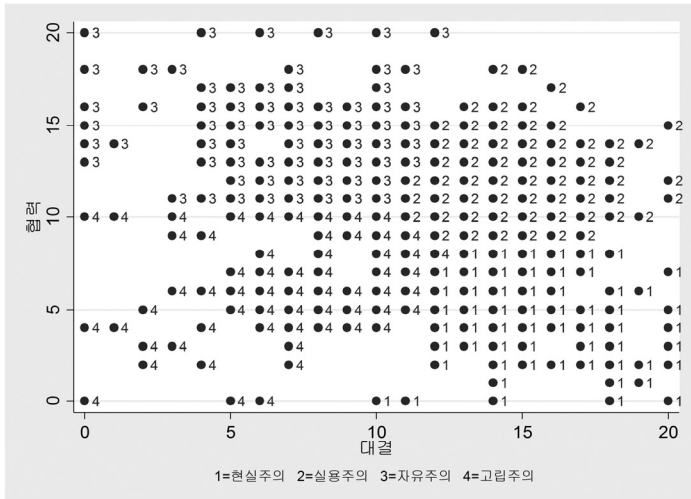
I
II
III
IV
V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의 가정이 옳다면, 이 두 산포도에서는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에 응답자들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즉, 북한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대결적 인식 점수가 낮을 것이므로 제 2사분면에, 반대로 북한에 경계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은 협력적 관계를 부정할 것이므로 제 4사분면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 산포도에서는 제 3사분면과 제 1사분면에도 상당수의 응답자가 존재하며, 오히려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 추론하는 것과 달리 가장 많은 응답자가 존재하는 공간은 제 1사분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다수의 응답자들은 북한과의 협력과 대결을 동시에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위의 두 산포도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시각화 해주고 있다.

협력요인과 대결요인 두 변수를 바탕으로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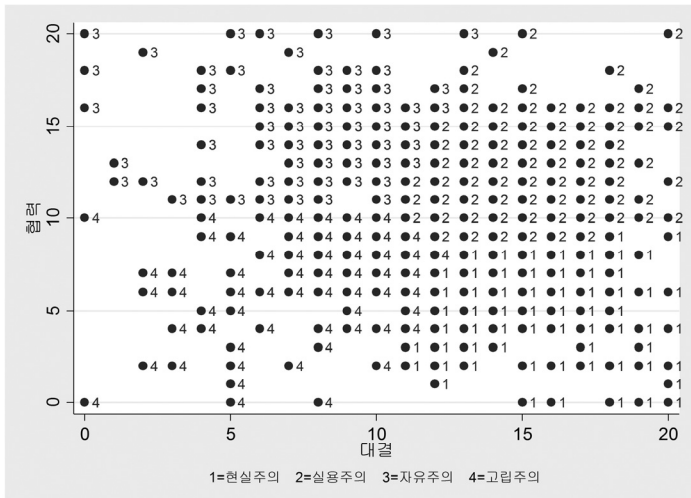
⁴¹-K-means 군집분석과 군집의 숫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이상신, "Do South Koreans Really Hate North Korea? National Image of North Korea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한국정당학회 춘계회의 발표논문, 2015), pp. 9~12.

●그림 IV-15 2014년 북한인식 산포도(4군집 표기)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V-16 2015년 북한인식 산포도(4군집 표기)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그림 IV-15>와 <그림 IV-16>은 2014년과 2015년도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방식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나눈 것을 산포도로 표시한 것이다. 4군집 인식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들은 4개의 군집-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표 IV-23 군집별 분포

4군집	조사년도		합계
	2014년	2015년	
현실주의	223(22.3%)	180(18%)	403(20.15%)
실용주의	345(34.5%)	373(37.3%)	718(35.9%)
자유주의	247(24.7%)	247(24.7%)	494(24.7%)
고립주의	185(18.5%)	200(20%)	385(19.25%)
합계	1,000(100%)	1,000(100%)	2,000(100%)

출처: 필자 작성

위의 <표 IV-23>은 각 군집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도수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4개의 군집 중 가장 큰 것은 실용주의 군집으로, 2014년에는 34.5%, 2015년에는 37.3%의 응답자들이 이 군집에 포함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유주의 군집으로 양 해 모두 24.7%였고, 현실주의 군집은 2014년에는 22.3%였지만 2015년에는 18%로 그 비율이 약간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고립주의 군집은 현실주의 군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크기로, 약 20% 안팎의 응답자들이 고립주의로 분류되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 실용주의와 고립주의의 비율이 약간 늘고 현실주의가 좀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4군집의

분포는 '실용주의 > 자유주의 >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 순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집분포는 지금까지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 예측하고 있던 것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2차원적인 인식을 가정하는 단선적 모형이 옳다면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군집이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표에선 오히려 실용주의와 고립주의 군집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의 비율(2014년 및 2015년 합산 기준으로는 55.1%)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4 군집별 북한인식 비교

	2014년				2015년			
	협력		대결		협력		대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현실주의	4.91	2.48	15.56	2.40	5.17	2.23	15.70	2.44
실용주의	11.63	1.86	13.68	1.84	12.20	2.39	14.41	2.34
자유주의	13.80	2.24	7.80	2.69	14.55	2.04	8.28	2.38
고립주의	7.09	2.73	7.65	3.04	7.45	2.56	8.04	2.71
전체	9.83	4.12	11.53	4.17	10.56	4.18	11.85	4.14

출처: 필자 작성

<표 IV-24>는 각 군집별 협력요인과 대결요인 변수의 평균값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협력요인과 대결요인 모두 최솟값 0, 최댓값 21이며 중간값은 10을 갖는다. 이 4군집 중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한 집단은 실용주의와 고립주의 군집이다. 실용주의의 협력과 대결 요인 평균값은 각각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이에 위치한다. 실용주

I
II
III
IV
V

의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약한 정도로 북한과의 협력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대결적 태도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자들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립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협력과 대결을 모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협력요인 평균값(2014년 7.09; 2015년 7.45)은 현실주의의 협력요인 평균값보다 약간 높다(2014년 4.91; 2015년 5.17). 반면 고립주의자들의 대결요인 평균값(2014년 7.65; 2015년 8.04)은 자유주의자들의 평균값(2014년 7.80; 2015년 8.28)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고립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혐오하지만, 북한과의 협력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현실주의자들보다 약간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 군집별 특징

(1) 사회경제적 배경

(가) 세대

아래의 <표 IV-25>는 2014년과 2015년의 응답자 연령별로 군집 분포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 표 IV-25 연령대별 군집분포

(단위: %)

연령	연도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20대	2014년	26.8	35.8	20.1	17.3	100
	2015년	23.7	31.6	22.6	22.0	100

연령	연도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30대	2014년	23.0	33.0	22.0	22.0	100
	2015년	13.6	39.1	22.8	24.5	100
40대	2014년	20.4	32.9	30.1	16.7	100
	2015년	18.4	40.1	24.5	17.0	100
50대	2014년	22.8	35.5	24.4	17.3	100
	2015년	15.0	40.5	25.0	19.5	100
60대	2014년	19.4	35.5	25.8	19.4	100
	2015년	19.4	34.8	27.8	18.1	100

위의 군집분포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흥미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20대의 경우, 북한에 대해 실용주의적 인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인식의 비율 또한 30대와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오면서 20대에서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군집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자유주의와 고립주의가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30대에서는 오히려 실용주의적 인식을 갖는 이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현실주의 군집의 비율은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에서도 하락하였는데, 23%에서 13.6%로 변화하여 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30대, 40대, 50대에서는 모두 실용주의적 군집의 폭이 커지는 변화가 있었다. 반면 현실주의 군집은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다. 60대 이상의 응답자 집단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장 안정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0대에서는 실용주의와 현실주의가, 40대에서는 실용주의와 자

I
II
III
IV
V

유주의가, 50대에서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꽤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의 <표 IV-23>에서 2014년과 2015년 사이 전체 응답자의 북한 인식 군집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북한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은 60대를 제외한 연령대층에서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념 및 정당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에 의구심을 제기하게 하는 부분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판단은 외부 정세와 새로운 변화에 따라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위의 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따라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념과 정치적 정향, 정당지지 등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성별

표 IV-26 성별 군집분포

(단위: %)

성별	연도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남성	2014년	25.3	33.3	26.3	15.2	100
	2015년	19.0	37.9	26.0	17.1	100
여성	2014년	19.4	35.6	23.2	21.8	100
	2015년	17.1	36.7	23.4	22.8	100

출처: 필자 작성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우세한 북한인식 군집은 실용주의였다. 그러나 성별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유주의 비율

이 높았고, 여성은 고립주의의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현실주의 군집비율은 14년과 15년 사이 6.3%나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실용주의와 고립주의의 강화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현실주의 비율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애초에 현실주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관계로 변화의 폭은 2.3%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가장 비율이 낮은 군집은 현실주의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군 경험 등의 유무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다) 지역

한편, <표 IV-27>은 응답자의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인식 군집을 정리한 것이다. 지역주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영호남과 서울, 경기 지방을 비교해보았다.

표 IV-27 지역별 군집분포

(단위: %)

지역	연도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전체
서울	2014	23.3	26.7	30.2	19.8	100
	2015	10.3	26.6	23.7	39.4	100
경기	2014	24.7	41.7	21.7	11.9	100
	2015	14.5	46.6	26.9	12.0	100
영남	2014	23.0	30.3	24.3	22.3	100
	2015	31.8	50.0	10.6	7.6	100
호남	2014	19.0	39.4	20.4	21.1	100
	2015	9.1	33.8	46.1	11.0	100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우선, 가장 보수적인 영남지역의 2014년 군집분포를 보면 의외로 현실주의 군집의 비율과 자유주의 군집비율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시 영남지역에서도 가장 큰 군집은 실용주의 군집이며, 경기나 서울에 비교해보았을 때 고립주의 군집이 좀 높은 편이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현 야당의 굳건한 지지 거점인 호남지역의 2014년 군집을 보면 역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비율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2014년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군집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며, 현실주의 군집이 가장 큰 곳은 경기였다. 영남은 보수정당에, 호남은 진보정당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최소한 2014년에는 이 두 지역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5년에 들어오면서 지역별 군집의 분포가 큰 변화를 보인다. 우선 영남에서는 현실주의가 23%에서 31.8%로 강화되며, 실용주의도 30.3%에서 50%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와 더불어 자유주의는 13.7%가, 고립주의는 14.7%가 줄어드는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호남의 변화 방향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호남에서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의 비율이 같은 기간 9.9%와 5.6% 줄어들었지만 자유주의는 25.7%가 상승하는 변화가 있었다.

반면 중산층과 고학력층의 비율이 높은 서울과 경기에서는 같은 기간 현실주의 군집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호남과 비슷했지만 실용주의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나(서울), 다소 증가했다(경기). 서울의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고립주의 비율의 상승으로, 19.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경기에서 고립주의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실용주의와 자유주의의 비율이 중간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2014년과 2015년의 변화 원인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목적의 폭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마도 판문점 지뢰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2016년 총선을 앞둔 여야 각 정당 내부의 갈등 격화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변화의 폭과 방향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북한의 인식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으며 정치상황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수적인 영남과 진보적인 호남의 2014년 북한인식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외부적인 자극의 결과 2015년 두 지역 간의 북한 인식은 극적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두 지역 주민들 간의 이념 및 지지정당의 차이가 북한인식의 변화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의 진보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보수는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태도를 변경한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영호남과 대조적으로, 중산층과 고학력, 그리고 탈물질주의가 강한 서울의 경우, 고립주의가 단시간 내에 강화되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는 중도이념의 경우 북한과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고립주의적 태도가 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학력

<표 IV-28>과 <표 IV-29>는 학력별로 북한인식 군집의 분포를 나누어 본 것이다. 2015년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현실주의가 강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자유주의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자료에서는 초졸 이하 학력 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두드러지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에서 현실주의가 좀 낮고 상대적으로 자유주의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초졸 이하에서는 고립주의가 3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실용주의가 17.1%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표 IV-28 학력별 군집분포(2014년)

(단위: %)

학력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초졸 이하	17.1	17.1	26.8	39.0	100
중졸	20.5	38.6	24.1	16.9	100
고졸	22.5	35.7	23.3	18.5	100
대졸	23.2	34.0	25.9	16.9	100
대학원 이상	19.1	33.3	33.3	14.3	100
합계	22.3	34.5	24.7	18.5	100

출처: 필자 작성

표 IV-29 학력별 군집분포(2015년)

(단위: %)

학력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초졸 이하	31.4	40.0	11.4	17.1	100
중졸	21.2	34.5	27.4	16.8	100
고졸	16.7	39.3	23.6	20.4	100
대졸	17.8	35.0	26.2	21.0	100
대학원 이상	6.7	46.7	33.3	13.3	100
합계	18.0	37.3	24.7	20.0	100

출처: 필자 작성

이러한 경향은 2015년에 들어와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중졸, 고졸 집단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면 초졸 이하 및 대졸,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 북한인식에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한다. 초졸 이하 집단에서는 고립주의와 자유주의가 각각 21.9%와 15.4%씩이나 하락하면서 동시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높은 비율로 상승한다. 반면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는 현실주의가 하락하고 실용주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정당지지와 정치이념

(가) 정당지지

앞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북한인식 군집변수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북한인식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개인의 지지정당 및 이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정당 및 이념과 북한인식 군집변수들을 교차분석하여 이런 해석들을 다시 검증해볼 것이다. 우선 아래의 <표 IV-30>은 2014년의 군집 분포와 정당지지를 교차분석 한 것이다.⁴²

표 IV-30 정당지지와 군집분포(2014년)

(단위: %)

정당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새누리	22.3	34.2	25.0	18.5	100
새정치연합	19.8	39.0	26.7	14.4	100

⁴²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응답자들도 있었지만, 그 표본 숫자가 2014년에는 35명, 2015년에는 12명으로 너무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당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무당파	22.9	33.5	24.2	19.5	100
합계	22.3	34.5	24.7	18.5	100

출처: 필자 작성

<표 IV-30>은 2014년도 지지정당에 따른 대북인식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현실주의 비율은 22.3%인데 비해 새정치연합(이하 새정연) 지지자들 중 현실주의자도 19.8%여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들의 비율도 25%와 26.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립주의의 비율은 새정연보다 새누리당이 4.1% 정도 높아서, 북한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선호하는 이들의 비율이 새누리당에 좀 더 많은 편이었고, 반대로 새정연 지지자들의 실용주의 비율이 3.8% 정도 더 높았다. 이 결과대로라면 결코 새정연이 새누리당보다 북한에 유화적이거나 무조건적인 협력을 선호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단지 새정연은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과 새정연 사이의 실용주의 차이는 2015년에 뒤집힌다(<표 IV-31>). 새누리당의 실용주의가 49.8%로 대폭 상승하고, 새정연의 실용주의는 오히려 24.8%로 낮아진다. 또 비슷하던 자유주의 비율도 각기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새누리당은 16%, 새정연은 35.2%로 19.8%에 달하는 차이가 생기고 있다. 현실주의에서도 양당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새누리당의 현실주의는 2.1% 정도 소폭 하락한 반면, 새정연은 7.1%의 하락율을 보여서, 2015년 현재 양당의 현실주의 비율 차이는 7.3%에 달하고 있다. 고립주의 또한 새누리당은 4.4% 하락했지만 새정연은 12.7% 상승하여 양당 중 새정연의 고립주의가 13% 더 높은 현상이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2015년에 새정연은

확실히 북한에 대한 자유주의적 인식이 강한 정당인 반면, 새누리당은 실용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현실주의가 앞서는 정당이 되어 버린 것이다.

표 IV-31 정당지지와 군집분포(2015년)

(단위: %)

정당	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	합계
새누리	20.2	49.8	16.0	14.1	100
새정치연합	12.9	24.8	35.2	27.1	100
무당파	19.0	35.7	24.7	20.6	100
합계	18.0	37.3	24.7	20.0	100

출처: 필자 작성

흥미로운 것은 무당파 층에서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당파는 2015년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51.5%, 2014년 조사에서는 44.2%에 달할 정도로 큰 집단이었다.⁴³ 그러나 무당파 집단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현실주의가 3.9% 감소하고 실용주의가 2.2% 증가한 정도의 크지 않은 변화만이 관찰되었다. 같은 기간 새정연과 새누리당의 실용주의 비율이 15% 안팎의 변화를 겪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기간 동안 북한인식의 변화가 무당파 집단에서는 미미한 것에 비해 지지정당이 확실한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컸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주장되어온 것과 달리,⁴⁴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정치

⁴³ 2014년에는 새누리당 지지 33.6%, 새정연 지지 18.7%였다. 2015년에는 새누리당 지지 26.3%, 새정연 지지 21%로 조사되었다.

⁴⁴ 강원택,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pp. 193~217;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북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2012), pp. 51~69.

이념과 정당지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정당에 동원되는 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 정치이념

<표 IV-32>는 정치이념과 북한인식 군집의 교차분석을 보여준다. 설문 응답자들의 정치이념은 진보-보수 스펙트럼에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⁴⁵ 중간값은 3이며, 값이 클수록 응답자의 이념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한 것처럼 4군집 중 가장 보수성이 강한 군집은 현실주의 군집이었다. 현실주의자들의 평균 정치이념은 2014년에는 3.13, 그리고 2015년에는 더욱 높아져 3.20을 기록했다. 실용주의자들의 이념 또한 보수적이어서 현실주의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2014년과 2015년 모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의 정치이념 차이를 t-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2 북한인식 군집과 정치이념

(단위: 점)

	2014년		2015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실주의	3.13	0.87	3.20	0.85
실용주의	3.06	0.86	3.14	0.91
자유주의	3.03	0.81	2.78	0.86
고립주의	3.12	1.03	2.98	0.95
전체	3.08	0.88	3.03	0.91

출처: 필자 작성

⁴⁵-1=매우 진보; 2=다소 진보; 3=중도; 4=다소 보수; 5=매우 보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현실주의자와 실용주의자들의 이념은 약간 보수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주의자와 고립주의자들의 이념은 진보 쪽으로 변화했다. 2014년에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자유주의와 고립주의보다 정치이념에서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말할 수 없었으나, 2015년 데이터에서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의 정치이념이 확실히 자유주의와 고립주의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2015년에는 네 가지 북한인식 군집들의 상대적 이념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강우창은 “한국인의 이념지형이 대북인식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⁴⁶ 그의 연구에서도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이념집단 간에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강우창은 따라서, “햇볕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 혹은 경쟁이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친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념집단 간의 차이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⁴⁷ 결론적으로 남남갈등은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앞서 정당지지와 북한인식 군집의 교차분석에서 확인한 것과 더불어, 이렇게 2015년에 군집 간 이념의 상대적 거리가 커지고 있는 현상은 북한인식이 이념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이념과 정치엘리트들의 동원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⁴⁶ 강우창,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과 대외정책 신념체계: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에서 나타나는 일반국민과 엘리트의 차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제11권 (2005), p. 102.

⁴⁷ 위의 글, p. 102.

마.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선호

외교정책은 국가 간의 관계 및 역사, 상대적인 힘의 크기 및 동맹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북정책도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이며,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대북정책을 여섯 가지로 유형화했다. 이 절에서는 이 여섯 가지 대북정책 유형을 북한인식 4군집 모형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⁴⁸

(1) 대북정책의 여섯 유형과 측정

2015년의 설문에서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대북정책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선호를 측정했다. 11점 리커트 척도⁴⁹로 측정된 대북정책 각 문항의 내용과 기본적인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V-33 대북정책 여섯 유형 문항의 내용과 평균값

(단위: 점)

대북정책	설문 내용	평균	표준편차
경제협력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장완화와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	6.26	1.96
북한이용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면 남한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55	1.94
봉쇄 및 고립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	4.67	2.12
사회문화 교류	꾸준히 스포츠나 문화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6.51	1.95

⁴⁸ 2014년 설문에서 대북정책 선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 좀 더 정리된 내용의 문항으로 교체되어 여기서는 2015년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⁴⁹ 0=매우 반대; 5=중간; 10=매우 찬성

대북정책	설문 내용	평균	표준편차
체제전환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5.83	2.07
안보강화 및 방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7.07	2.08

출처: 필자 작성

위 표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대북정책은 안보 강화 및 방어였다(평균 7.07). 반면 가장 낮은 호응을 얻은 정책은 봉쇄 및 고립, 그리고 체제전환정책으로 각각 평균값이 4.67과 5.83에 그쳤다. 특히 이 문항들이 5를 중간값으로 하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봉쇄 및 고립정책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세 문항, 경제협력, 북한이용, 사회문화 교류는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2) 북한인식 4군집 모형과 대북정책 선호

표 IV-34 군집별 대북정책 선호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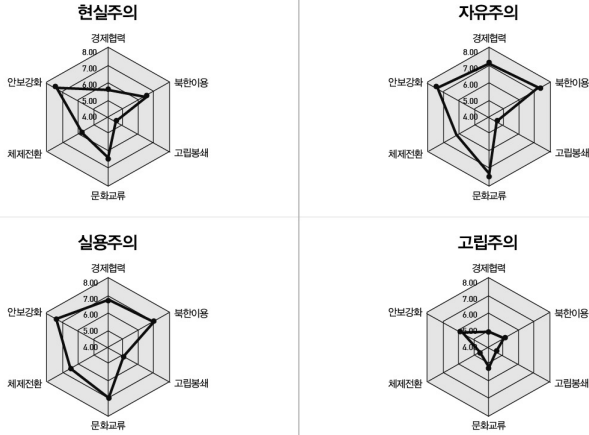
(단위: 점)

	경제 협력	북한 이용	고립 봉쇄	문화 교류	체제 전환	안보 강화
현실주의	5.62	6.42	4.48	6.32	5.72	7.39
실용주의	6.64	6.80	5.10	6.84	6.35	7.38
자유주의	7.17	7.34	4.49	7.22	6.17	7.41
고립주의	5.00	5.21	4.24	5.19	4.58	5.77
전체	6.26	6.55	4.67	6.51	5.83	7.07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 **그림 IV-17** 군집별 대북정책 선호 방사그래프



출처: 필자 작성

<표 IV-34>에서는 북한인식 군집별로 여섯 가지 대북정책의 선호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림 IV-17>은 이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각각의 북한인식 군집은 대북정책 선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분명한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고립주의 군집의 경우이다. 2015년에는 응답자의 20%, 2014년에는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고립주의 군집의 경우, 여섯 가지 대북정책에 있어 다른 군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동적으로 대북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보강화정책의 선호도가 5.77로 다른 정책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으나, 그나마 다른 군집들의 안보강화 선호도와 비교하면 가장 낮았다. 고립주의 군집은 북한인식 4군집의 이론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 자체를 꺼리고, 북한을 무시하거나 현 상태의 유지에 만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인식 4군집에서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각각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의 보수 및 진보에 상응하는 집단이다. 현실주의 군집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고 대결적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고립 및 봉쇄, 체제전환, 안보강화 등의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 군집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자유주의 군집이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예측은 위의 표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 군집의 경제협력 선호도는 7.17, 문화교류 선호도는 7.22로 다른 3개 군집의 선호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실주의 군집의 대북정책 선호는 예측과 좀 다른 면모가 드러난다. 고립봉쇄정책의 경우 현실주의 군집과 자유주의 군집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자유주의 군집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각 정책 선호도의 중간값이 5점이므로, 현실주의 군집과 자유주의 군집은 모두 고립봉쇄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군집 중 유일하게 약간이나 고립봉쇄정책에 적극적인 군집은 오히려 실용주의 군집이었다.

여섯 가지 대북정책 유형 중,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체제전환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이 체제전환에 있어서도 오히려 현실주의 군집의 선호도가 오히려 자유주의 군집의 선호도보다 낮았다 ($p < 0.05$). 그리고 체제전환을 가장 선호하는 군집은 실용주의 군집이었다. 마찬가지로 안보강화정책에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군집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유주의 군집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즉, 대북정책 측면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군집의 차이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이고 대결적인 정책의 선호가 아니었다. 두 군집의 차이는 주로 북한과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드러났다.

한편, 4군집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포함된 실용주의 군집은 대북정책 선호 측면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군집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군집을 비교하면, 예상대로 경제협력정책은 자유주의 군집이 더 선호하고 있었고($p < 0.001$), 사회문화교류 정책도 자유주의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p < 0.01$).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용정책의 선호도도 자유주의 군집의 경우가 더 높았다($p < 0.001$).

적대적 대북측면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군집의 북한고립정책 선호가 자유주의 군집보다 높았지만($p < 0.001$), 체제전환과 안보강화의 경우에는 두 군집 간 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대북정책 측면에서 각 군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 고립주의 군집은 북한과의 모든 적대적·협력적 상호작용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군집은 종래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실주의 군집이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유주의 군집은 북한과의 협력적 교류에 있어 더 적극적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되고 있었다. 셋째, 실용주의 군집은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북한이용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와 현

실주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그러나 체제전환이나 고립봉쇄 같은 적극적 대결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현실주의 군집보다 선호도가 더 높았다. 즉, 실용주의 군집은 남북 사이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 및 협력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제거하는 것에도 반감을 느끼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바.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새로운 설문 문항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과는 달리, 한국의 시민들은 북한에 대해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협력과 대결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인식은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이론화할 수 있다.

셋째, 자유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고립주의 북한인식 중 자유주의는 기존 단선적 인식모형의 진보적 북한인식에, 현실주의는 보수적 북한인식에 상응한다. 실용주의 인식은 북한에 대한 협력과 대결을 동시에 긍정하며, 고립주의는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꺼려하는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넷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위에서 이론화한 북한인식의 네 가지 군집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응답자들을 나눌 수 있었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적 요인과 북한인식 4군집을 교차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북한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

I
II
III
IV
V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2015년에 좀 더 실용주의 쪽으로의 변화가 있었으며, 새정연 지지자들은 큰 폭으로 자유주의 인식 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무당파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당지지와 이념 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지지정당이나 정치인이 동원하는 바에 따라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인식은 정치적 요인의 종속변수이다.

여섯째, 대북정책과 북한인식을 교차해 본 결과, 고립주의는 예상대로 모든 대북정책 유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의 예측과는 달리 현실주의 군집이 자유주의 군집보다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주의 군집은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그리고 북한이 용정책에서 다른 군집에 비해 확실히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실용주의 군집은 북한에 대한 대결적 정책과 협력적 정책을 모두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V. 결론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남북통합에 대한 호감도 및 준비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제도적 통합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여섯 개의 분야에 대해 인식조사를 하였다. 첫 번째 분야인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기관별 신뢰수준, 향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비전)와 한국사회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분야인 ‘사회적 이슈별 갈등과 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식 및 우리 사회의 국민적 공감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통일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한국사회의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분야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다섯 번째 분야인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정부정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대해 선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의 필요성 및 북한에 대한 인식형성 요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당위적 요인에 근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남북한 통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 가운데 북한을 협력/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을 경계/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데는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변수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해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북한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영역으로 '남북통합의 가치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포용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들은 향후 지향해야 할 가치로 '경제성장' 혹은 '경제안정'을 꼽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을 수용하는 데 찬성하지만, 여러 민족이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현실주의, 실용주의, 고립주의, 자유주의로 표현되는 네 가지 유형(4군집 모형)으로 나누어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인식구조를 갖고 있었다. 자유주의적 유형은 진보적 시각과 유사성을 나타냈으며, 현실주의는 보수적 시각과 유사성을 보였다. 실용주의 인식은 북한과의 협력 및 대결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고립주의는 북한과 상호작용 자체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한편, 이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통일 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통일 관련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제고 되어 건전한 국민통합의식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튼튼한 안보에 의해 억지력을 확보하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향후 우리사회와 통일 이후 지향해야 할 가치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대해 균형을 지닌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일곱째,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민족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적절히 융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차원의 통일편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남북사회통합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남북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수용성과 동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통일 이후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 대비해야 한다.

I

II

III

IV

V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2000.
- 김규륜 외.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수암 외.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박명규 외. 『남북통합 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_____.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설동훈·김명아.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과천: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
-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정기선 외. 『채류외국인 실태조사. 2012: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2.
- 정영태 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천: 법무부, 2014.
- 최수영 외. 『1994년도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통일연구원.

1994.

통일원. 『통일백서 1992』. 서울: 통일원, 1992.

한반도평화포럼. 『통일, 대박이 아니라 긴 과정이다』. 경기: 서해문집, 2015.

Herrmann, Richard K. *Perceptions and Behavior in Soviet Foreign Policy*.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5.

2. 논문

강우창.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과 대외정책 신념체계: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에서 나타나는 일반국민과 엘리트의 차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제11권, 2005.

강원택.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1호, 2003.

———.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2005.

강신욱.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7호 9월호, 2010.

권속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2012.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김준현·문병기.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국가 간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2014.

김미숙 외.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개발연구—한국의 사회갈등 현황과 사회통합정책 등.” 『사회통합위원회·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

- 노대명.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50호, 2009.
- 문형표. “사회통합의 의의 및 정책적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23호 겨울호, 1994.
-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철학』. 제21권 2호, 2010.
-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2호, 2014.
- _____. “Do South Koreans Really Hate North Korea? National Image of North Korea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한국정당학회춘계회의발표논문, 2015.
- 이우영. “체제수호적 통일과 반체제적 통일, 그 동일 구조를 넘어서.” 『당대비평』. 제21권, 2013.
- 이재열 외.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제21집 제2호, 2014.
- 주봉호. “남한사회 남남갈등의 양상과 해소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64권, 2012.
- Dinno, Alexis. “Implementing Horn’s Parallel Analysis fo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Stata Journal*. vol. 9, no. 2. 2009.
- Glorfeld, Louis W. An Improvement on Horn’s Parallel Analysis Methodology for Selecting the Correct Number of Factors to Retai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5, no. 3. 1995.

- Herrmann, Richard K. and Michael P. Fischerkeller.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issue 3. 1995.
- Herrmann, Richard K., James F. Voss, Tonya Y. E. Schooler, and Joseph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issue 3. 1997.
- Horn, John L.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0, no. 2. 1965.
- Jansen, Th., N. Chioncel and H. Dekkers.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Learning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7, no. 2. 2006.

3. 기타 자료

『한겨레』.

북한대학원대학교. <www.nk.ac.kr>.

<부록 1.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조사설계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남북한 통일과정과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학술적 분석과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나.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2) 표본 수 : 1,000명
- (3) 조사 방법 :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
- (4) 조사 시기 : 2015년 7월 27일~8월 14일
- (5)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Structured Questionnaire)
- (6)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다. 조사내용

- (1)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 (2) 사회갈등과 통합에 대한 인식
- (3)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 (4)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 (5)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라. 응답자 특성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	19세~29세	177	17.7
	30대	184	18.4
	40대	212	21.2
	50대	200	20.0
	60세 이상	227	22.7
지역크기	대도시	459	45.9
	중소도시	457	45.7
	읍면	84	8.4
권역	서울	203	20.3
	인천/경기	290	29.0
	대전/충청	103	10.3
	광주/호남	102	10.2
	대구/경북	102	10.2
	부산/울산/경남	159	15.9
	강원/제주	41	4.1
결혼상태	미혼	238	23.8
	기혼	732	73.2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0
학력	초졸 이하	35	3.5
	중졸	113	11.3
	고졸	466	46.6
	대졸	371	37.1
	대학원 재학 이상	15	1.5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30	13.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7.9
	400만 원 이상	386	38.6
	무응답	5	0.5

※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낸 수치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인구비례 할당표

행정구역	계	쿼터표									
		남					여				
		19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 이 상	19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 이 상
전국	1,000	93	95	108	100	100	84	89	104	100	127
서울특별시	203	19	20	21	19	20	19	20	21	20	24
부산광역시	71	6	6	7	7	8	6	6	7	8	10
대구광역시	48	5	4	5	5	5	4	4	5	5	6
인천광역시	56	5	6	6	6	5	5	5	6	6	6
광주광역시	29	3	3	3	3	2	3	3	3	3	3
대전광역시	30	3	3	3	3	3	3	3	3	3	3
울산광역시	22	2	2	3	2	2	2	2	3	2	2
경기도-시	228	22	23	27	23	19	20	23	26	22	23
경기도-군	6	0	0	1	1	1	0	0	1	1	1
강원도-시	21	2	2	2	2	2	2	2	2	2	3
강원도-군	9	1	1	1	1	1	0	0	1	1	2
충청북도-시	21	2	2	2	2	2	2	2	2	2	3
충청북도-군	9	1	1	1	1	1	0	0	1	1	2
충청남도-시	33	3	4	4	3	3	3	3	3	3	4
충청남도-군	10	1	1	1	1	2	0	0	1	1	2
전라북도-시	28	3	2	3	3	3	2	2	3	3	4
전라북도-군	6	0	0	1	1	1	0	0	0	1	2
전라남도-시	21	2	2	2	2	2	2	2	2	2	3
전라남도-군	18	1	1	2	2	3	1	1	1	2	4
경상북도-시	41	4	4	4	4	5	3	3	4	4	6
경상북도-군	13	1	1	1	1	2	1	1	1	1	3
경상남도-시	53	5	5	6	6	5	4	5	6	5	6
경상남도-군	13	1	1	1	1	2	1	1	1	1	3
제주특별자치도	11	1	1	1	1	1	1	1	1	1	2

2. 결과 집계표

문1)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2.3	18.9	57.0	21.8	21.2	78.8	2.98	66.1		
2014년	1,000	1.2	22.8	59.4	16.6	24.0	76.0	2.91	63.8		
성별	남성	496	2.8	20.6	53.6	23.0	23.4	76.6	2.97	65.6	5.206
	여성	504	1.8	17.3	60.3	20.6	19.0	81.0	3.00	66.6	
연령	19세~29세	177	3.4	19.2	63.8	13.6	22.6	77.4	2.88	62.5	66.142 ***
	30대	184	3.8	25.5	60.9	9.8	29.3	70.7	2.77	58.9	
	40대	212	1.9	22.2	58.0	17.9	24.1	75.9	2.92	64.0	
	50대	200	1.5	18.5	52.0	28.0	20.0	80.0	3.07	68.8	
	60세 이상	227	1.3	10.6	52.0	36.1	11.9	88.1	3.23	74.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3	20.5	52.9	23.3	23.7	76.3	2.96	65.4	9.078
	중소도시	457	1.5	16.8	60.6	21.0	18.4	81.6	3.01	67.0	
	읍면	84	1.2	21.4	59.5	17.9	22.6	77.4	2.94	64.7	
권역	서울	203	3.0	25.1	49.3	22.7	28.1	71.9	2.92	63.9	56.723 ***
	인천/경기	290	3.1	12.4	57.9	26.6	15.5	84.5	3.08	69.3	
	대전/충청	103	1.9	18.4	49.5	30.1	20.4	79.6	3.08	69.3	
	광주/호남	102	2.0	21.6	62.7	13.7	23.5	76.5	2.88	62.7	
	대구/경북	102	1.0	30.4	57.8	10.8	31.4	68.6	2.78	59.5	
	부산/울산/경남	159	1.9	14.5	69.2	14.5	16.4	83.6	2.96	65.4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17.1	43.9	39.0	17.1	82.9	3.22	74.0	20.979 **
	미혼	238	2.9	23.1	60.1	13.9	26.1	73.9	2.85	61.6	
	기혼	732	2.2	17.5	56.8	23.5	19.7	80.3	3.02	67.2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20.0	36.7	43.3	20.0	80.0	3.23	74.4	29.681 **
	초졸 이하	35	0.0	5.7	65.7	28.6	5.7	94.3	3.23	74.3	
	중졸	113	2.7	8.8	54.9	33.6	11.5	88.5	3.19	73.2	
	고졸	466	2.8	18.5	56.0	22.7	21.2	78.8	2.99	66.2	
	대졸	371	1.9	23.5	58.2	16.4	25.3	74.7	2.89	63.1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6.7	53.3	20.0	26.7	73.3	2.93	64.4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2.4	23.2	56.8	17.6	25.6	74.4	2.90	63.2	52.887 ***
	긍정	255	2.0	6.3	57.6	34.1	8.2	91.8	3.24	74.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	14.6	54.6	29.2	16.2	83.8	3.12	70.5	10.06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3	19.8	55.7	21.1	23.2	76.8	2.95	64.9	
	400만 원 이상	386	1.3	18.9	59.3	20.5	20.2	79.8	2.99	66.3	
	무응답	5	0.0	40.0	60.0	0.0	40.0	60.0	2.60	53.3	
이념 성향	진보	273	3.7	23.4	57.5	15.4	27.1	72.9	2.85	61.5	37.224 ***
	중도	440	1.4	20.5	59.3	18.9	21.8	78.2	2.96	65.2	
	보수	287	2.4	12.2	53.0	32.4	14.6	85.4	3.15	71.8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0.0	100.0	0.0	100.0	4.00	100.0	20.689
	상하	6	16.7	16.7	33.3	33.3	33.3	66.7	2.83	61.1	
	중상	198	2.5	20.2	51.5	25.8	22.7	77.3	3.01	66.8	
	중하	545	2.0	18.7	60.0	19.3	20.7	79.3	2.97	65.5	
	하상	191	2.6	17.3	57.6	22.5	19.9	80.1	3.00	66.7	
	하하	58	1.7	22.4	50.0	25.9	24.1	75.9	3.00	66.7	

* 사례수 30 미만은 해석에 유의(이하 동일)

* p<0.05, ** p<0.01, *** p<0.001(이하 동일)

문2) 귀하는 다음의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민주주의 발전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4.6	40.0	51.3	4.1	44.6	55.4	2.55	51.6		
2014년	1,000	4.5	39.8	51.8	3.9	44.3	55.7	2.55	51.7		
성별	남성	496	5.6	41.1	49.0	4.2	46.8	53.2	2.52	50.6	3.716
	여성	504	3.6	38.9	53.6	4.0	42.5	57.5	2.58	52.6	
연령	19세~29세	177	4.5	45.2	48.0	2.3	49.7	50.3	2.48	49.3	29.167 **
	30대	184	8.2	43.5	45.1	3.3	51.6	48.4	2.43	47.8	
	40대	212	4.2	42.5	50.9	2.4	46.7	53.3	2.51	50.5	
	50대	200	3.0	34.5	59.0	3.5	37.5	62.5	2.63	54.3	
	60세 이상	227	3.5	35.7	52.4	8.4	39.2	60.8	2.66	55.2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2	41.2	49.5	4.1	46.4	53.6	2.53	50.8	4.768
	중소도시	457	4.6	38.3	53.4	3.7	42.9	57.1	2.56	52.1	
	읍면	84	1.2	42.9	50.0	6.0	44.0	56.0	2.61	53.6	
권역	서울	203	4.9	46.8	44.3	3.9	51.7	48.3	2.47	49.1	30.369*
	인천/경기	290	6.6	37.2	53.1	3.1	43.8	56.2	2.53	50.9	
	대전/충청	103	7.8	40.8	45.6	5.8	48.5	51.5	2.50	49.8	
	광주/호남	102	0.0	39.2	57.8	2.9	39.2	60.8	2.64	54.6	
	대구/경북	102	2.9	43.1	48.0	5.9	46.1	53.9	2.57	52.3	
	부산/울산/경남	159	1.9	32.1	61.0	5.0	34.0	66.0	2.69	56.4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7.3	48.8	41.5	2.4	56.1	43.9	2.39	46.3	10.928
	미혼	238	6.3	47.1	43.7	2.9	53.4	46.6	2.43	47.8	
	기혼	732	4.1	37.7	53.8	4.4	41.8	58.2	2.58	52.8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40.0	50.0	6.7	43.3	56.7	2.60	53.3	27.928 **
	초졸 이하	35	0.0	25.7	62.9	11.4	25.7	74.3	2.86	61.9	
	중졸	113	2.7	37.2	52.2	8.0	39.8	60.2	2.65	55.2	
	고졸	466	3.9	37.8	55.6	2.8	41.6	58.4	2.57	52.4	
	대졸	371	6.5	44.7	44.7	4.0	51.2	48.8	2.46	48.8	
국정 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6.7	46.7	0.0	53.3	46.7	2.40	46.7	35.997 ***
	부정	745	6.0	43.5	47.1	3.4	49.5	50.5	2.48	49.3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0.4	29.8	63.5	6.3	30.2	69.8	2.76	58.6	4.614
	200만원 미만	130	5.4	36.9	50.8	6.9	42.3	57.7	2.59	53.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4	39.0	52.8	3.8	43.4	56.6	2.56	52.0	
	400만 원 이상	386	4.1	42.5	49.7	3.6	46.6	53.4	2.53	51.0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20.0	40.0	0.0	60.0	40.0	2.00	33.3	7.737
	진보	273	6.2	41.0	48.7	4.0	47.3	52.7	2.51	50.2	
	중도	440	4.5	42.3	49.5	3.6	46.8	53.2	2.52	50.8	
계층 소속 감	보수	287	3.1	35.5	56.4	4.9	38.7	61.3	2.63	54.4	19.766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상하	6	0.0	66.7	33.3	0.0	66.7	33.3	2.33	44.4	
	중상	198	6.6	39.9	49.5	4.0	46.5	53.5	2.51	50.3	
	중하	545	4.0	40.6	51.4	4.0	44.6	55.4	2.55	51.8	
	하상	191	4.2	35.6	56.5	3.7	39.8	60.2	2.60	53.2	
하하	58	5.2	48.3	41.4	5.2	53.4	46.6	2.47	48.9		

(단위: %)

(2) 국제사회에서 위상		사태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5.8	38.9	45.5	9.8	44.7	55.3	2.59	53.1	
2014년		1,000	5.9	38.7	45.8	9.6	44.6	55.4	2.59	53.0	
성별	남성	496	7.3	39.9	44.6	8.3	47.2	52.8	2.54	51.3	6.425
	여성	504	4.4	37.9	46.4	11.3	42.3	57.7	2.65	54.9	
연령	19세~29세	177	7.9	41.8	45.2	5.1	49.7	50.3	2.47	49.2	43.473 ***
	30대	184	10.9	44.0	35.9	9.2	54.9	45.1	2.43	47.8	
	40대	212	4.2	42.5	46.7	6.6	46.7	53.3	2.56	51.9	
	50대	200	5.5	33.5	50.5	10.5	39.0	61.0	2.66	55.3	
	60세 이상	227	1.8	33.9	48.0	16.3	35.7	64.3	2.79	59.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0	38.3	47.7	7.0	45.3	54.7	2.55	51.6	21.169 **
	중소도시	457	5.5	39.8	44.2	10.5	45.3	54.7	2.60	53.2	
	읍면	84	1.2	36.9	40.5	21.4	38.1	61.9	2.82	60.7	
권역	서울	203	6.9	36.9	49.3	6.9	43.8	56.2	2.56	52.1	33.740 *
	인천/경기	290	7.6	39.3	46.6	6.6	46.9	53.1	2.52	50.7	
	대전/충청	103	4.9	34.0	49.5	11.7	38.8	61.2	2.68	56.0	
	광주/호남	102	1.0	35.3	46.1	17.6	36.3	63.7	2.80	60.1	
	대구/경북	102	8.8	43.1	32.4	15.7	52.0	48.0	2.55	51.6	
	부산/울산/경남	159	2.5	43.4	44.7	9.4	45.9	54.1	2.61	53.7	
결혼 상태	미혼	238	8.4	47.9	37.4	6.3	56.3	43.7	2.42	47.2	19.924 **
	기혼	732	5.1	36.1	48.2	10.7	41.1	58.9	2.64	54.8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36.7	43.3	16.7	40.0	60.0	2.73	57.8	31.088 **
	초졸 이하	35	0.0	28.6	45.7	25.7	28.6	71.4	2.97	65.7	
	중졸	113	3.5	31.0	50.4	15.0	34.5	65.5	2.77	59.0	
	고졸	466	5.6	38.0	47.6	8.8	43.6	56.4	2.60	53.2	
	대졸	371	6.7	43.4	41.5	8.4	50.1	49.9	2.51	50.5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40.0	40.0	0.0	60.0	40.0	2.20	40.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7.5	42.8	41.6	8.1	50.3	49.7	2.50	50.1	45.184 ***
	긍정	255	0.8	27.5	56.9	14.9	28.2	71.8	2.86	62.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6.9	36.9	40.8	15.4	43.8	56.2	2.65	54.9	8.718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6	38.2	45.7	10.4	43.8	56.2	2.61	53.7	
	400만 원 이상	386	5.2	40.9	46.6	7.3	46.1	53.9	2.56	52.0	
	무응답	5	40.0	0.0	60.0	0.0	40.0	60.0	2.20	40.0	
이념 성향	진보	273	8.4	35.2	49.5	7.0	43.6	56.4	2.55	51.6	20.765 **
	중도	440	5.2	44.5	40.9	9.3	49.8	50.2	2.54	51.4	
	보수	287	4.2	33.8	48.8	13.2	38.0	62.0	2.71	57.0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21.018
	상하	6	16.7	50.0	33.3	0.0	66.7	33.3	2.17	38.9	
	중상	198	6.6	35.9	48.0	9.6	42.4	57.6	2.61	53.5	
	중하	545	5.5	36.7	47.7	10.1	42.2	57.8	2.62	54.1	
	하상	191	4.7	45.5	42.4	7.3	50.3	49.7	2.52	50.8	
	하하	58	8.6	48.3	27.6	15.5	56.9	43.1	2.50	50.0	

(단위: %)

(3) 경제성장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2.5	23.2	49.0	25.3	25.7	74.3	2.97	65.7	
2014년		1,000	3.6	19.1	57.7	19.6	22.7	77.3	2.93	64.4	
성별	남성	496	3.4	23.2	47.8	25.6	26.6	73.4	2.96	65.2	3.720
	여성	504	1.6	23.2	50.2	25.0	24.8	75.2	2.99	66.2	
연령	19세 ~29세	177	3.4	28.8	50.8	16.9	32.2	67.8	2.81	60.5	33.342 **
	30대	184	3.3	28.3	44.6	23.9	31.5	68.5	2.89	63.0	
	40대	212	1.4	26.9	50.9	20.8	28.3	71.7	2.91	63.7	
	50대	200	3.0	19.5	49.5	28.0	22.5	77.5	3.03	67.5	
	60세 이상	227	1.8	14.5	48.9	34.8	16.3	83.7	3.17	72.2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2	21.8	51.2	24.8	24.0	76.0	2.99	66.2	11.010
	중소도시	457	2.8	26.7	45.7	24.7	29.5	70.5	2.92	64.1	
	읍면	84	2.4	11.9	54.8	31.0	14.3	85.7	3.14	71.4	
권역	서울	203	3.0	24.6	46.8	25.6	27.6	72.4	2.95	65.0	29.711 *
	인천/경기	290	3.4	27.2	50.7	18.6	30.7	69.3	2.84	61.5	
	대전/충청	103	4.9	17.5	50.5	27.2	22.3	77.7	3.00	66.7	
	광주/호남	102	1.0	16.7	46.1	36.3	17.6	82.4	3.18	72.6	
	대구/경북	102	2.9	22.5	47.1	27.5	25.5	74.5	2.99	66.3	
	부산/울산/경남	159	0.0	24.5	50.9	24.5	24.5	75.5	3.00	66.7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14.6	48.8	36.6	14.6	85.4	3.22	74.0	
	미혼	238	3.8	28.6	48.3	19.3	32.4	67.6	2.83	61.1	11.594
학력	기혼	732	2.2	21.7	48.9	27.2	23.9	76.1	3.01	67.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16.7	56.7	26.7	16.7	83.3	3.10	70.0	
	초졸 이하	35	0.0	11.4	54.3	34.3	11.4	88.6	3.23	74.3	17.576
	중졸	113	0.9	19.5	46.0	33.6	20.4	79.6	3.12	70.8	
	고졸	466	3.0	21.5	52.4	23.2	24.5	75.5	2.96	65.2	
대졸	371	2.7	27.5	45.6	24.3	30.2	69.8	2.91	63.8		
국정 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6.7	40.0	33.3	26.7	73.3	3.07	68.9	
	부정	745	3.4	27.1	47.9	21.6	30.5	69.5	2.88	62.6	44.263 ***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0.0	11.8	52.2	36.1	11.8	88.2	3.24	74.8	
	200만원 미만	130	1.5	16.2	49.2	33.1	17.7	82.3	3.14	71.3	10.648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1	22.8	51.6	23.6	24.8	75.2	2.97	65.6	
	400만 원 이상	386	2.8	26.4	45.6	25.1	29.3	70.7	2.93	64.3	
무응답	5	40.0	0.0	60.0	0.0	40.0	60.0	2.20	40.0		
이념 성향	진보	273	2.9	20.9	51.6	24.5	23.8	76.2	2.98	65.9	7.050
	중도	440	2.5	26.8	45.5	25.2	29.3	70.7	2.93	64.5	
	보수	287	2.1	19.9	51.9	26.1	22.0	78.0	3.02	67.4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7	19.686
	상하	6	16.7	0.0	83.3	0.0	16.7	83.3	2.67	55.6	
	중상	198	4.0	21.2	44.9	29.8	25.3	74.7	3.01	66.8	
	중하	545	2.4	22.6	50.1	25.0	25.0	75.0	2.98	65.9	
	하상	191	1.0	27.2	48.7	23.0	28.3	71.7	2.94	64.6	
하하	58	1.7	25.9	48.3	24.1	27.6	72.4	2.95	64.9		

(단위: %)

(4) 사회보장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4.9	37.8	44.2	13.1	42.7	57.3	2.66	55.2	
2014년		1,000	5.9	46.4	43.2	4.5	52.3	47.7	2.46	48.8	
성별	남성	496	5.0	38.7	41.9	14.3	43.8	56.3	2.66	55.2	2.505
	여성	504	4.8	36.9	46.4	11.9	41.7	58.3	2.65	55.2	
연령	19세~29세	177	6.2	40.1	41.2	12.4	46.3	53.7	2.60	53.3	22.463 *
	30대	184	7.6	40.8	41.8	9.8	48.4	51.6	2.54	51.3	
	40대	212	5.7	39.2	45.8	9.4	44.8	55.2	2.59	53.0	
	50대	200	3.5	36.5	47.0	13.0	40.0	60.0	2.70	56.5	
	60세 이상	227	2.2	33.5	44.5	19.8	35.7	64.3	2.82	60.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2	41.4	40.5	10.9	48.6	51.4	2.55	51.7	18.529 **
	중소도시	457	3.1	35.4	46.6	14.9	38.5	61.5	2.73	57.8	
	읍면	84	2.4	31.0	51.2	15.5	33.3	66.7	2.80	59.9	
권역	서울	203	9.9	48.3	33.5	8.4	58.1	41.9	2.40	46.8	78.758 ***
	인천/경기	290	5.9	33.1	49.0	12.1	39.0	61.0	2.67	55.7	
	대전/충청	103	4.9	43.7	35.9	15.5	48.5	51.5	2.62	54.0	
	광주/호남	102	2.0	18.6	52.9	26.5	20.6	79.4	3.04	68.0	
	대구/경북	102	1.0	38.2	52.9	7.8	39.2	60.8	2.68	55.9	
	부산/울산/경남	159	0.0	39.0	45.9	15.1	39.0	61.0	2.76	58.7	
결혼 상태	미혼	238	5.5	40.8	42.0	11.8	46.2	53.8	2.60	53.4	3.669
	기혼	732	4.9	36.7	44.7	13.7	41.7	58.3	2.67	55.7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40.0	50.0	10.0	40.0	60.0	2.70	56.7	37.593 ***
	초졸 이하	35	0.0	40.0	45.7	14.3	40.0	60.0	2.74	58.1	
	중졸	113	0.9	32.7	44.2	22.1	33.6	66.4	2.88	62.5	
	고졸	466	4.7	33.0	48.3	13.9	37.8	62.2	2.71	57.2	
	대졸	371	6.7	45.8	38.0	9.4	52.6	47.4	2.50	50.0	
국정 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20.0	66.7	6.7	26.7	73.3	2.73	57.8	24.559 ***
	부정	745	6.0	40.4	42.6	11.0	46.4	53.6	2.59	52.8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1.6	30.2	49.0	19.2	31.8	68.2	2.86	62.0	5.432
	200만원 미만	130	3.1	40.0	41.5	15.4	43.1	56.9	2.69	56.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6	36.1	44.1	14.2	41.8	58.2	2.67	55.6	
	400만 원 이상	386	4.1	39.4	45.6	10.9	43.5	56.5	2.63	54.4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20.0	20.0	20.0	60.0	40.0	2.20	40.0	16.903 *
	진보	273	7.7	36.6	45.8	9.9	44.3	55.7	2.58	52.6	
	중도	440	5.0	40.0	42.7	12.3	45.0	55.0	2.62	54.1	
계층 소속 감	보수	287	2.1	35.5	44.9	17.4	37.6	62.4	2.78	59.2	15.902
	상상	2	0.0	50.0	0.0	50.0	50.0	50.0	3.00	66.7	
	상하	6	0.0	66.7	33.3	0.0	66.7	33.3	2.33	44.4	
	중상	198	6.6	36.9	42.9	13.6	43.4	56.6	2.64	54.5	
	중하	545	4.0	35.8	47.7	12.5	39.8	60.2	2.69	56.2	
	하상	191	5.2	43.5	38.7	12.6	48.7	51.3	2.59	52.9	
하하	58	6.9	37.9	36.2	19.0	44.8	55.2	2.67	55.7		

(단위: %)

(5) 과학기술의 발전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1.4	15.7	50.7	32.2	17.1	82.9	3.14	71.2	
2014년		1,000	2.2	15.7	60.6	21.5	17.9	82.1	3.01	67.1	
성별	남성	496	2.0	15.3	49.0	33.7	17.3	82.7	3.14	71.4	3.984
	여성	504	0.8	16.1	52.4	30.8	16.9	83.1	3.13	71.0	
연령	19세~29세	177	1.7	16.9	52.0	29.4	18.6	81.4	3.09	69.7	11.839
	30대	184	2.2	16.8	55.4	25.5	19.0	81.0	3.04	68.1	
	40대	212	0.5	17.9	47.2	34.4	18.4	81.6	3.16	71.9	
	50대	200	2.0	13.0	51.5	33.5	15.0	85.0	3.17	72.2	
	60세 이상	227	0.9	14.1	48.5	36.6	15.0	85.0	3.21	73.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4	19.4	47.5	30.7	21.8	78.2	3.07	68.8	16.948 **
	중소도시	457	0.4	12.0	54.3	33.3	12.5	87.5	3.20	73.5	
	읍면	84	1.2	15.5	48.8	34.5	16.7	83.3	3.17	72.2	
권역	서울	203	3.4	21.7	49.3	25.6	25.1	74.9	2.97	65.7	56.317 ***
	인천/경기	290	1.4	12.4	54.1	32.1	13.8	86.2	3.17	72.3	
	대전/충청	103	1.0	6.8	41.7	50.5	7.8	92.2	3.42	80.6	
	광주/호남	102	0.0	15.7	43.1	41.2	15.7	84.3	3.25	75.2	
	대구/경북	102	2.0	22.5	58.8	16.7	24.5	75.5	2.90	63.4	
	부산/울산/경남	159	0.0	17.0	49.1	34.0	17.0	83.0	3.17	72.3	
	강원/제주	41	0.0	9.8	61.0	29.3	9.8	90.2	3.20	73.2	
결혼 상태	미혼	238	1.3	18.9	48.3	31.5	20.2	79.8	3.10	70.0	3.340
	기혼	732	1.4	14.8	51.5	32.4	16.1	83.9	3.15	71.6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13.3	50.0	33.3	16.7	83.3	3.13	71.1	
학력	초졸 이하	35	0.0	17.1	57.1	25.7	17.1	82.9	3.09	69.5	11.489
	중졸	113	0.9	10.6	47.8	40.7	11.5	88.5	3.28	76.1	
	고졸	466	1.9	14.2	52.4	31.5	16.1	83.9	3.14	71.2	
	대졸	371	1.1	18.9	49.1	31.0	19.9	80.1	3.10	70.0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0.0	46.7	33.3	20.0	80.0	3.13	71.1	
국정 인정 평가	부정	745	1.7	17.2	51.5	29.5	18.9	81.1	3.09	69.6	13.443 **
	긍정	255	0.4	11.4	48.2	40.0	11.8	88.2	3.28	75.9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0.8	16.9	50.8	31.5	17.7	82.3	3.13	71.0	7.12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0	13.4	54.3	31.3	14.4	85.6	3.16	72.0	
	400만 원 이상	386	1.8	17.9	46.6	33.7	19.7	80.3	3.12	70.7	
	무응답	5	20.0	40.0	20.0	20.0	60.0	40.0	2.40	46.7	
이념 성향	진보	273	1.8	16.1	53.8	28.2	17.9	82.1	3.08	69.5	7.206
	중도	440	1.6	17.0	47.0	34.3	18.6	81.4	3.14	71.4	
	보수	287	0.7	13.2	53.3	32.8	13.9	86.1	3.18	72.7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50.0	0.0	50.0	50.0	50.0	3.00	66.7	16.133
	상하	6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중상	198	2.0	13.1	50.5	34.3	15.2	84.8	3.17	72.4	
	중하	545	1.7	16.1	50.3	31.9	17.8	82.2	3.12	70.8	
	하상	191	0.0	14.1	52.4	33.5	14.1	85.9	3.19	73.1	
하하	58	1.7	20.7	51.7	25.9	22.4	77.6	3.02	67.2		

(단위: %)

(6) 스포츠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0.3	9.3	47.3	43.1	9.6	90.4	3.33	77.7	
2014년		1,000	1.6	8.7	49.5	40.2	10.3	89.7	3.28	76.1	
성별	남성	496	0.6	8.5	48.6	42.3	9.1	90.9	3.33	77.6	4.259
	여성	504	0.0	10.1	46.0	43.8	10.1	89.9	3.34	77.9	
연령	19세~29세	177	0.0	11.9	50.8	37.3	11.9	88.1	3.25	75.1	23.018 *
	30대	184	0.0	12.5	47.3	40.2	12.5	87.5	3.28	75.9	
	40대	212	0.5	9.4	49.1	41.0	9.9	90.1	3.31	76.9	
	50대	200	1.0	9.5	47.5	42.0	10.5	89.5	3.31	76.8	
	60세 이상	227	0.0	4.4	42.7	52.9	4.4	95.6	3.48	82.8	
지역 크기	대도시	459	0.7	12.0	45.8	41.6	12.6	87.4	3.28	76.1	18.523 **
	중소도시	457	0.0	5.9	50.8	43.3	5.9	94.1	3.37	79.1	
	읍면	84	0.0	13.1	36.9	50.0	13.1	86.9	3.37	79.0	
권역	서울	203	0.5	15.3	49.8	34.5	15.8	84.2	3.18	72.7	31.418 *
	인천/경기	290	0.7	8.6	47.9	42.8	9.3	90.7	3.33	77.6	
	대전/충청	103	0.0	5.8	35.9	58.3	5.8	94.2	3.52	84.1	
	광주/호남	102	0.0	7.8	54.9	37.3	7.8	92.2	3.29	76.5	
	대구/경북	102	0.0	4.9	52.0	43.1	4.9	95.1	3.38	79.4	
	부산/울산/경남	159	0.0	8.8	44.7	46.5	8.8	91.2	3.38	79.2	
결혼 상태	미혼	238	0.0	13.4	46.2	40.3	13.4	86.6	3.27	75.6	7.889
	기혼	732	0.4	8.1	47.4	44.1	8.5	91.5	3.35	78.4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6.7	53.3	40.0	6.7	93.3	3.33	77.8	
학력	초졸 이하	35	0.0	0.0	48.6	51.4	0.0	100.0	3.51	83.8	16.357
	중졸	113	0.9	5.3	39.8	54.0	6.2	93.8	3.47	82.3	
	고졸	466	0.2	9.4	47.9	42.5	9.7	90.3	3.33	77.5	
	대졸	371	0.3	10.8	48.5	40.4	11.1	88.9	3.29	76.4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0.0	53.3	26.7	20.0	80.0	3.07	68.9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0.4	11.1	49.4	39.1	11.5	88.5	3.27	75.7	25.448 ***
	긍정	255	0.0	3.9	41.2	54.9	3.9	96.1	3.51	83.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	4.6	44.6	49.2	6.2	93.8	3.42	80.5	13.446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0	9.6	48.6	41.8	9.6	90.4	3.32	77.4	
	400만 원 이상	386	0.3	10.4	46.4	43.0	10.6	89.4	3.32	77.4	
	무응답	5	0.0	20.0	60.0	20.0	20.0	80.0	3.00	66.7	
이념 성향	진보	273	0.7	10.3	54.6	34.4	11.0	89.0	3.23	74.2	21.260 **
	중도	440	0.0	9.3	48.2	42.5	9.3	90.7	3.33	77.7	
	보수	287	0.3	8.4	39.0	52.3	8.7	91.3	3.43	81.1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9.883
	상하	6	0.0	16.7	66.7	16.7	16.7	83.3	3.00	66.7	
	중상	198	0.5	8.6	47.5	43.4	9.1	90.9	3.34	77.9	
	중하	545	0.0	9.5	48.1	42.4	9.5	90.5	3.33	77.6	
	하상	191	0.5	9.4	46.6	43.5	9.9	90.1	3.33	77.7	
	하하	58	1.7	8.6	39.7	50.0	10.3	89.7	3.38	79.3	

(단위: %)

(7) 예술과 문화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1.5	16.3	51.1	31.1	17.8	82.2	3.12	70.6	
2014년		1,000	1.8	16.5	58.6	23.1	18.3	81.7	3.03	67.7	
성별	남성	496	1.6	15.9	53.8	28.6	17.5	82.5	3.09	69.8	3.536
	여성	504	1.4	16.7	48.4	33.5	18.1	81.9	3.14	71.4	
연령	19세~29세	177	1.7	16.4	49.7	32.2	18.1	81.9	3.12	70.8	11.223
	30대	184	2.7	17.4	50.5	29.3	20.1	79.9	3.07	68.8	
	40대	212	1.9	16.5	52.8	28.8	18.4	81.6	3.08	69.5	
	50대	200	1.5	18.5	52.0	28.0	20.0	80.0	3.07	68.8	
	60세 이상	227	0.0	13.2	50.2	36.6	13.2	86.8	3.23	74.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0	21.6	46.6	29.8	23.5	76.5	3.04	68.1	20.623 **
	중소도시	457	1.3	11.4	55.1	32.2	12.7	87.3	3.18	72.7	
	읍면	84	0.0	14.3	53.6	32.1	14.3	85.7	3.18	72.6	
권역	서울	203	3.0	24.6	47.3	25.1	27.6	72.4	2.95	64.9	37.620 **
	인천/경기	290	2.1	13.8	56.9	27.2	15.9	84.1	3.09	69.8	
	대전/충청	103	1.0	13.6	44.7	40.8	14.6	85.4	3.25	75.1	
	광주/호남	102	0.0	11.8	46.1	42.2	11.8	88.2	3.30	76.8	
	대구/경북	102	1.0	13.7	47.1	38.2	14.7	85.3	3.23	74.2	
	부산/울산/경남	159	0.0	17.0	54.7	28.3	17.0	83.0	3.11	70.4	
결혼 상태	미혼	238	2.1	20.6	45.0	32.4	22.7	77.3	3.08	69.2	8.523
	기혼	732	1.2	15.2	52.7	30.9	16.4	83.6	3.13	71.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10.0	60.0	26.7	13.3	86.7	3.10	70.0	
학력	초졸 이하	35	0.0	11.4	60.0	28.6	11.4	88.6	3.17	72.4	18.290
	중졸	113	0.0	14.2	45.1	40.7	14.2	85.8	3.27	75.5	
	고졸	466	1.1	15.5	53.2	30.3	16.5	83.5	3.13	70.9	
	대졸	371	2.4	17.8	49.9	29.9	20.2	79.8	3.07	69.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33.3	40.0	20.0	40.0	60.0	2.73	57.8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1.9	18.5	49.4	30.2	20.4	79.6	3.08	69.3	14.081 **
	긍정	255	0.4	9.8	56.1	33.7	10.2	89.8	3.23	74.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	20.0	44.6	33.8	21.5	78.5	3.11	70.3	8.88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5	13.6	55.7	29.2	15.0	85.0	3.13	70.9	
	400만 원 이상	386	1.6	17.9	47.9	32.6	19.4	80.6	3.12	70.6	
	무응답	5	0.0	60.0	20.0	20.0	60.0	40.0	2.60	53.3	
이념 성향	진보	273	1.5	18.3	51.3	28.9	19.8	80.2	3.08	69.2	5.230
	중도	440	2.0	16.6	49.1	32.3	18.6	81.4	3.12	70.5	
	보수	287	0.7	13.9	54.0	31.4	14.6	85.4	3.16	72.0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9.880
	상하	6	0.0	16.7	66.7	16.7	16.7	83.3	3.00	66.7	
	중상	198	0.0	18.7	51.5	29.8	18.7	81.3	3.11	70.4	
	중하	545	1.8	14.9	51.7	31.6	16.7	83.3	3.13	71.0	
	하상	191	2.1	16.2	50.8	30.9	18.3	81.7	3.10	70.2	
	하하	58	1.7	20.7	43.1	34.5	22.4	77.6	3.10	70.1	

(단위: %)

(8) 군사력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6.3	55.3	33.7	4.7	61.6	38.4	2.37	45.6	
2014년		1,000	6.8	56.9	33.2	3.1	63.7	36.3	2.33	44.2	
성별	남성	496	6.5	56.0	32.9	4.6	62.5	37.5	2.36	45.2	0.348
	여성	504	6.2	54.6	34.5	4.8	60.7	39.3	2.38	46.0	
연령	19세 ~29세	177	9.0	52.5	34.5	4.0	61.6	38.4	2.33	44.4	17.960
	30대	184	9.2	57.1	31.0	2.7	66.3	33.7	2.27	42.4	
	40대	212	4.7	58.5	32.1	4.7	63.2	36.8	2.37	45.6	
	50대	200	7.5	54.5	33.0	5.0	62.0	38.0	2.36	45.2	
	60세 이상	227	2.2	53.7	37.4	6.6	55.9	44.1	2.48	49.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4	61.2	27.5	3.9	68.6	31.4	2.28	42.6	21.212 **
	중소도시	457	6.1	50.3	38.3	5.3	56.5	43.5	2.43	47.6	
	읍면	84	1.2	50.0	42.9	6.0	51.2	48.8	2.54	51.2	
권역	서울	203	7.4	65.5	23.2	3.9	72.9	27.1	2.24	41.2	67.261 ***
	인천/경기	290	6.9	51.7	38.3	3.1	58.6	41.4	2.38	45.9	
	대전/충청	103	5.8	43.7	46.6	3.9	49.5	50.5	2.49	49.5	
	광주/호남	102	0.0	49.0	37.3	13.7	49.0	51.0	2.65	54.9	
	대구/경북	102	8.8	47.1	40.2	3.9	55.9	44.1	2.39	46.4	
	부산/울산/경남	159	5.0	67.3	22.6	5.0	72.3	27.7	2.28	42.6	
강원/제주	강원/제주	41	12.2	48.8	39.0	0.0	61.0	39.0	2.27	42.3	
	미혼	238	9.2	55.0	30.7	5.0	64.3	35.7	2.32	43.8	7.000
기혼	732	5.3	55.5	34.4	4.8	60.8	39.2	2.39	46.2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53.3	40.0	0.0	60.0	40.0	2.33	44.4		
학력	초졸 이하	35	0.0	48.6	48.6	2.9	48.6	51.4	2.54	51.4	17.366
	중졸	113	2.7	58.4	30.1	8.8	61.1	38.9	2.45	48.4	
	고졸	466	6.4	54.1	35.6	3.9	60.5	39.5	2.37	45.6	
	대졸	371	7.5	56.3	31.3	4.9	63.9	36.1	2.33	44.5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60.0	26.7	0.0	73.3	26.7	2.13	37.8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7.5	57.9	30.9	3.8	65.4	34.6	2.31	43.6	22.750 ***
	긍정	255	2.7	47.8	42.0	7.5	50.6	49.4	2.54	51.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4	56.2	34.6	3.8	61.5	38.5	2.37	45.6	0.84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6.1	55.3	33.8	4.8	61.4	38.6	2.37	45.8	
	400만 원 이상	386	7.0	54.7	33.4	4.9	61.7	38.3	2.36	45.4	
	무응답	5	0.0	80.0	20.0	0.0	80.0	20.0	2.20	40.0	
이념 성향	진보	273	9.2	55.7	30.4	4.8	64.8	35.2	2.31	43.6	14.230 *
	중도	440	5.7	58.6	32.0	3.6	64.3	35.7	2.34	44.5	
	보수	287	4.5	49.8	39.4	6.3	54.4	45.6	2.47	49.1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7.234
	상하	6	16.7	33.3	50.0	0.0	50.0	50.0	2.33	44.4	
	중상	198	6.6	52.0	35.9	5.6	58.6	41.4	2.40	46.8	
	중하	545	6.4	54.3	34.7	4.6	60.7	39.3	2.37	45.8	
	하상	191	5.2	60.7	29.3	4.7	66.0	34.0	2.34	44.5	
하하	58	6.9	60.3	29.3	3.4	67.2	32.8	2.29	43.1		

(단위: %)

(9) 역사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3.3	22.4	45.5	28.8	25.7	74.3	3.00	66.6	
2014년		1,000	2.5	19.2	59.5	18.8	21.7	78.3	2.95	64.9	
성별	남성	496	3.6	22.8	44.2	29.4	26.4	73.6	2.99	66.5	0.917
	여성	504	3.0	22.0	46.8	28.2	25.0	75.0	3.00	66.7	
연령	19세~29세	177	4.0	26.6	50.8	18.6	30.5	69.5	2.84	61.4	25.847 *
	30대	184	4.9	18.5	50.0	26.6	23.4	76.6	2.98	66.1	
	40대	212	3.8	25.5	43.4	27.4	29.2	70.8	2.94	64.8	
	50대	200	2.5	21.5	45.5	30.5	24.0	76.0	3.04	68.0	
	60세 이상	227	1.8	20.3	39.6	38.3	22.0	78.0	3.15	71.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8	25.1	42.0	28.1	29.8	70.2	2.93	64.5	23.818 **
	중소도시	457	2.4	20.6	50.5	26.5	23.0	77.0	3.01	67.0	
	읍면	84	0.0	17.9	36.9	45.2	17.9	82.1	3.27	75.8	
권역	서울	203	6.4	29.1	44.3	20.2	35.5	64.5	3.28	59.4	53.416 ***
	인천/경기	290	3.1	19.3	53.1	24.5	22.4	77.6	2.99	66.3	
	대전/충청	103	2.9	16.5	45.6	35.0	19.4	80.6	3.13	70.9	
	광주/호남	102	1.0	18.6	41.2	39.2	19.6	80.4	3.19	72.9	
	대구/경북	102	4.9	27.5	26.5	41.2	32.4	67.6	3.04	68.0	
	부산/울산/경남	159	0.0	22.6	49.1	28.3	22.6	77.4	3.06	68.6	
강원/제주	41	4.9	22.0	41.5	31.7	26.8	73.2	3.00	66.7		
결혼 상태	미혼	238	4.2	25.6	48.7	21.4	29.8	70.2	2.87	62.5	11.393
	기혼	732	2.9	21.2	44.9	31.0	24.0	76.0	3.04	68.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26.7	33.3	33.3	33.3	66.7	2.93	64.4	
학력	초졸 이하	35	0.0	17.1	42.9	40.0	17.1	82.9	3.23	74.3	8.659
	중졸	113	2.7	21.2	40.7	35.4	23.9	76.1	3.09	69.6	
	고졸	466	3.9	22.3	46.1	27.7	26.2	73.8	2.98	65.9	
	대졸	371	3.0	22.9	46.6	27.5	25.9	74.1	2.99	66.2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33.3	40.0	20.0	40.0	60.0	2.73	57.8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4.3	24.0	47.7	24.0	28.3	71.7	2.91	63.8	38.305 ***
	긍정	255	0.4	17.6	39.2	42.7	18.0	82.0	3.24	74.8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8	25.4	33.1	37.7	29.2	70.8	3.05	68.2	13.113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9	21.7	49.9	25.5	24.6	75.4	2.98	66.0	
	400만 원 이상	386	3.4	22.3	44.3	30.1	25.6	74.4	3.01	67.0	
	무응답	5	20.0	20.0	40.0	20.0	40.0	60.0	2.60	53.3	
이념 성향	진보	273	6.6	25.3	43.6	24.5	31.9	68.1	2.86	62.0	20.911 **
	중도	440	2.0	23.4	46.6	28.0	25.5	74.5	3.00	66.8	
	보수	287	2.1	18.1	45.6	34.1	20.2	79.8	3.12	70.6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22.403
	상하	6	16.7	16.7	33.3	33.3	33.3	66.7	2.83	61.1	
	중상	198	2.5	22.2	41.9	33.3	24.7	75.3	3.06	68.7	
	중하	545	2.6	22.6	48.4	26.4	25.1	74.9	2.99	66.2	
	하상	191	4.7	19.4	47.1	28.8	24.1	75.9	3.00	66.7	
하하	58	6.9	32.8	25.9	34.5	39.7	60.3	2.88	62.6		

(단위: %)

(10) 공정한 사회적 대우		사례수 (명)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 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지 않다	자랑스 럽다			
2015년		1,000	11.2	43.7	35.7	9.4	54.9	45.1	2.43	47.8	
2014년		1,000	13.2	50.1	33.3	3.4	63.3	36.7	2.27	42.3	
성별	남성	496	12.7	44.0	34.3	9.1	56.7	43.3	2.40	46.6	2.668
	여성	504	9.7	43.5	37.1	9.7	53.2	46.8	2.47	48.9	
연령	19세~29세	177	14.7	44.1	34.5	6.8	58.8	41.2	2.33	44.4	29.735 **
	30대	184	18.5	39.7	32.1	9.8	58.2	41.8	2.33	44.4	
	40대	212	10.8	46.7	35.8	6.6	57.5	42.5	2.38	46.1	
	50대	200	9.5	43.5	34.5	12.5	53.0	47.0	2.50	50.0	
	60세 이상	227	4.4	44.1	40.5	11.0	48.5	51.5	2.58	52.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3.7	43.1	32.5	10.7	56.9	43.1	2.40	46.7	13.150 *
	중소도시	457	10.1	44.6	37.4	7.9	54.7	45.3	2.43	47.7	
	읍면	84	3.6	41.7	44.0	10.7	45.2	54.8	2.62	54.0	
권역	서울	203	17.2	51.2	25.6	5.9	68.5	31.5	2.20	40.1	126.828 ***
	인천/경기	290	12.4	45.5	38.6	3.4	57.9	42.1	2.33	44.4	
	대전/충청	103	11.7	27.2	42.7	18.4	38.8	61.2	2.68	56.0	
	광주/호남	102	2.0	27.5	49.0	21.6	29.4	70.6	2.90	63.4	
	대구/경북	102	10.8	58.8	26.5	3.9	69.6	30.4	2.24	41.2	
	부산/울산/경남	159	3.1	39.6	42.8	14.5	42.8	57.2	2.69	56.2	
결혼 상태	미혼	238	15.5	46.6	31.9	5.9	62.2	37.8	2.28	42.7	12.568
	기혼	732	9.7	43.2	36.7	10.4	52.9	47.1	2.48	49.3	
학력	초졸 이하	35	0.0	54.3	37.1	8.6	54.3	45.7	2.54	51.4	32.039 **
	중졸	113	3.5	39.8	39.8	16.8	43.4	56.6	2.70	56.6	
	고졸	466	10.3	42.5	38.8	8.4	52.8	47.2	2.45	48.4	
	대졸	371	15.4	45.3	30.5	8.9	60.6	39.4	2.33	44.3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46.7	33.3	0.0	66.7	33.3	2.13	37.8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13.8	45.1	32.8	8.3	58.9	41.1	2.36	
긍정	255	3.5	39.6	44.3	12.5	43.1	56.9	2.66	55.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0.8	46.2	31.5	11.5	56.9	43.1	2.44	47.9	3.01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1.1	44.1	36.7	8.1	55.1	44.9	2.42	47.3	
	400만 원 이상	386	11.4	42.2	36.0	10.4	53.6	46.4	2.45	48.4	
	무응답	5	20.0	60.0	20.0	0.0	80.0	20.0	2.00	33.3	
이념 성향	진보	273	13.9	43.6	36.3	6.2	57.5	42.5	2.35	44.9	15.949 *
	중도	440	12.7	43.6	34.5	9.1	56.4	43.6	2.40	46.7	
	보수	287	6.3	43.9	36.9	12.9	50.2	49.8	2.56	52.1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23.900
	상하	6	33.3	50.0	16.7	0.0	83.3	16.7	1.83	27.8	
	중상	198	12.1	41.9	33.8	12.1	54.0	46.0	2.46	48.7	
	중하	545	10.5	43.1	38.9	7.5	53.6	46.4	2.43	47.8	
	하상	191	10.5	44.0	34.6	11.0	54.5	45.5	2.46	48.7	
	하하	58	15.5	55.2	17.2	12.1	70.7	29.3	2.26	42.0	

문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믿을 수 없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믿을 수 있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5	1.1	3.3	6.7	9.3	16.6	16.2	24.9	15.8	4.8	0.8	5.97	
2014년		1,000	0.2	0.8	2.4	5.2	9.6	16.4	23.6	26.4	12.8	2.2	0.4	5.94	
성별	남성	496	0.8	1.2	3.8	8.7	9.1	16.7	15.5	24.2	14.5	4.6	0.8	5.83	10.114
	여성	504	0.2	1.0	2.8	4.8	9.5	16.5	16.9	25.6	17.1	5.0	0.8	6.11	
연령	19세 ~29세	177	1.1	1.7	4.5	8.5	11.3	17.5	16.4	25.4	9.0	3.4	1.1	5.59	42.701
	30대	184	0.5	1.1	4.3	10.9	8.7	16.3	16.3	23.9	13.6	3.8	0.5	5.72	
	40대	212	0.0	0.9	2.8	5.2	11.3	17.9	19.3	22.6	16.0	3.8	0.0	5.94	
	50대	200	0.0	1.0	3.5	5.0	8.0	17.5	14.5	24.5	20.5	4.5	1.0	6.16	
	60세 이상	227	0.9	0.9	1.8	4.8	7.5	14.1	14.5	27.8	18.5	7.9	1.3	6.3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0.4	1.7	4.8	10.0	12.6	21.4	11.3	20.5	13.5	2.8	0.9	5.52	87.833 ***
	중소도시	457	0.4	0.2	1.8	4.6	7.0	12.3	20.1	27.4	18.2	7.2	0.9	6.38	
	읍면	84	1.2	2.4	3.6	0.0	3.6	14.3	21.4	35.7	15.5	2.4	0.0	6.19	
권역	서울	203	0.5	1.5	5.4	12.8	15.3	26.6	14.3	15.3	6.9	0.5	1.0	5.07	165.334 ***
	인천/경기	290	1.0	0.7	1.7	5.2	7.2	15.2	19.3	24.8	15.5	8.6	0.7	6.23	
	대전/충청	103	1.0	1.0	4.9	6.8	11.7	16.5	19.4	17.5	17.5	3.9	0.0	5.74	
	광주/호남	102	0.0	1.0	1.0	4.9	6.9	16.7	18.6	33.3	15.7	2.0	0.0	6.17	
	대구/경북	102	0.0	2.0	5.9	6.9	11.8	15.7	13.7	26.5	12.7	3.9	1.0	5.75	
	부산/울산/경남	159	0.0	0.6	1.3	2.5	1.9	7.5	11.3	37.1	30.2	6.3	1.3	6.94	
결혼 상태	미혼	238	0.8	2.1	4.2	8.4	12.2	17.6	16.4	22.7	9.7	4.6	1.3	5.61	32.405 *
	기혼	732	0.4	0.8	3.1	5.7	8.7	16.4	16.0	25.5	18.0	4.6	0.5	6.0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16.7	0.0	13.3	20.0	26.7	10.0	10.0	3.3	6.27	
	초졸 이하	35	0.0	0.0	2.9	0.0	2.9	14.3	5.7	40.0	20.0	14.3	0.0	6.91	
학력	중졸	113	0.9	0.9	0.0	2.7	4.4	15.9	14.2	29.2	20.4	9.7	1.8	6.64	62.225 *
	고졸	466	0.6	1.3	3.6	6.7	9.4	16.3	15.9	24.9	16.7	3.4	1.1	5.93	
	대졸	371	0.3	1.1	4.0	7.8	11.3	17.8	18.6	21.8	12.9	4.0	0.3	5.74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26.7	6.7	6.7	6.7	33.3	13.3	6.7	0.0	5.8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0.7	1.2	4.0	8.3	10.2	17.0	16.8	23.8	14.2	3.6	0.1	5.75	52.381 ***
	긍정	255	0.0	0.8	1.2	2.0	6.7	15.3	14.5	28.2	20.4	8.2	2.7	6.62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0.0	1.5	5.4	7.7	5.4	17.7	15.4	23.8	14.6	6.9	1.5	5.99	14.901
	200만원 ~400만원 미만	479	0.6	1.3	2.9	6.3	9.0	15.9	16.9	24.6	17.5	4.0	1.0	6.01	
	400만 원 이상	386	0.3	0.8	3.1	6.7	11.1	17.1	15.5	25.6	14.2	5.2	0.3	5.93	
	무응답	5	20.0	0.0	0.0	20.0	0.0	20.0	20.0	20.0	0.0	0.0	0.0	4.20	
이념 성향	진보	273	0.7	0.7	2.9	8.1	8.4	20.9	17.6	23.4	14.7	1.8	0.7	5.79	24.867
	중도	440	0.5	1.4	4.1	6.6	10.0	16.8	15.2	25.7	14.3	4.8	0.7	5.89	
	보수	287	0.3	1.0	2.4	5.6	9.1	12.2	16.4	25.1	19.2	7.7	1.0	6.26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00	61.237
	상하	6	0.0	16.7	0.0	33.3	0.0	0.0	33.3	0.0	0.0	16.7	0.0	4.67	
	중상	198	1.5	0.0	3.5	7.6	11.1	17.7	15.2	21.2	14.1	7.1	1.0	5.89	
	중하	545	0.4	0.9	3.3	6.1	9.7	16.1	16.5	26.2	15.6	4.6	0.6	6.00	
	하상	191	0.0	2.1	2.1	6.3	7.3	15.2	17.3	25.7	19.9	3.1	1.0	6.12	
하하	58	0.0	1.7	6.9	8.6	6.9	24.1	12.1	22.4	12.1	3.4	1.7	5.64		

문4) 귀하는 한국사회의 다음 각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1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사례수 (명)	군대	시민 단체	대통 령	노동 조합	종교 단체	대기 업	행정 부	언론	사법 부	정당	국회
2015년		1,000	5.45	5.38	5.25	5.21	5.17	5.08	5.01	5.01	4.95	3.99	3.90
2014년		1,000	4.75	5.18	5.92	4.98	5.19	5.21	5.20	4.88	5.00	3.92	3.82
성별	남성	496	5.37	5.28	5.10	5.17	5.01	4.95	4.89	4.84	4.75	3.82	3.74
	여성	504	5.52	5.47	5.39	5.24	5.33	5.20	5.14	5.18	5.15	4.15	4.06
연령	19세~29세	177	5.31	5.45	4.50	5.23	4.97	4.98	4.72	4.75	4.63	3.79	3.82
	30대	184	4.96	5.36	4.51	5.18	4.82	4.95	4.72	4.82	4.76	3.60	3.57
	40대	212	5.44	5.39	5.28	5.13	5.21	4.88	4.88	4.92	4.77	3.83	3.90
	50대	200	5.59	5.36	5.62	5.23	5.21	5.08	5.16	5.05	5.11	4.15	3.95
	60세 이상	227	5.83	5.34	6.06	5.27	5.56	5.44	5.48	5.44	5.37	4.46	4.2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04	5.19	4.78	5.02	5.00	4.78	4.62	4.62	4.59	3.59	3.49
	중소도시	457	5.82	5.60	5.65	5.40	5.37	5.31	5.39	5.36	5.31	4.29	4.28
	읍면	84	5.62	5.21	5.58	5.14	5.05	5.44	5.11	5.25	4.98	4.55	4.08
권역	서울	203	5.08	4.90	4.56	4.78	4.80	4.46	4.30	4.44	4.45	3.10	3.18
	인천/경기	290	6.06	5.80	5.86	5.58	5.75	5.32	5.65	5.72	5.61	4.46	4.52
	대전/충청	103	4.96	4.82	5.14	4.71	4.34	4.81	4.73	4.46	4.37	3.79	3.64
	광주/호남	102	5.38	5.65	3.65	6.28	6.21	5.70	4.25	5.29	4.28	4.25	4.00
	대구/경북	102	5.04	4.87	5.38	4.31	4.33	4.98	5.20	4.33	4.84	3.83	3.22
	부산/울산/경남	159	5.45	5.70	6.05	5.40	5.19	5.45	5.40	5.27	5.42	4.50	4.46
결혼 상태	미혼	238	5.21	5.38	4.53	5.12	4.89	4.99	4.84	4.82	4.79	3.83	3.85
	기혼	732	5.51	5.38	5.41	5.24	5.26	5.10	5.04	5.10	4.97	4.03	3.92
동거/이혼/별거/사별		30	5.87	5.30	6.93	5.13	5.40	5.13	5.73	4.43	5.67	4.27	3.97
학력	초졸 이하	35	5.94	5.34	7.37	5.43	5.63	5.94	5.77	5.51	5.66	5.23	4.77
	중졸	113	5.86	5.50	6.40	5.32	5.44	5.65	5.51	5.45	5.40	4.54	4.25
	고졸	466	5.56	5.36	5.19	5.20	5.26	5.19	5.00	5.04	4.94	4.05	3.94
	대졸	371	5.16	5.39	4.78	5.18	4.94	4.68	4.80	4.83	4.77	3.62	3.67
	대학원 재학 이상	15	4.73	4.67	4.73	5.00	5.07	5.07	5.33	4.40	4.87	4.20	4.0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5.24	5.36	4.76	5.20	5.09	4.97	4.73	4.77	4.68	3.70	3.70
	긍정	255	6.05	5.42	6.66	5.24	5.42	5.40	5.83	5.71	5.72	4.84	4.49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41	5.09	5.87	4.98	5.01	5.27	5.18	5.02	5.18	4.29	3.7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57	5.43	5.28	5.26	5.25	5.16	5.08	5.10	4.98	3.97	3.93
	400만 원 이상	386	5.32	5.41	5.03	5.23	5.11	4.91	4.90	4.92	4.84	3.92	3.95
	무응답	5	5.00	5.00	3.00	4.40	6.80	4.40	3.00	3.40	4.00	3.40	2.40
이념 성향	진보	273	5.32	5.54	4.83	5.41	5.22	4.92	4.77	5.10	4.86	3.96	3.91
	중도	440	5.33	5.36	5.01	5.14	5.04	5.05	5.00	4.80	4.83	3.76	3.76
	보수	287	5.74	5.24	6.01	5.12	5.33	5.26	5.27	5.25	5.22	4.36	4.12
계층 소속 감	상상	2	4.50	5.50	7.00	5.50	6.00	5.50	4.00	4.50	4.50	4.50	4.50
	상하	6	4.83	3.67	4.17	4.17	4.50	4.50	4.17	4.00	3.83	4.00	2.67
	중상	198	5.24	5.10	4.76	5.11	4.89	4.81	4.62	4.75	4.66	3.46	3.48
	중하	545	5.55	5.50	5.31	5.24	5.19	5.12	5.15	5.17	5.00	4.15	4.10
	하상	191	5.47	5.53	5.37	5.39	5.40	5.36	5.05	4.94	4.98	3.99	3.84
	하하	58	5.24	4.90	6.00	4.78	5.31	4.64	5.07	4.74	5.45	4.19	3.84

문5-1)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1) 1순위		사례수 (명)	높은 경제성장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	방위력 증강	환경개선	X ² -test
2015년		1,000	55.4	22.5	11.4	10.7	
2014년		1,000	57.2	27.3	6.2	9.3	
성별	남성	496	53.4	21.4	16.9	8.3	33.149 ***
	여성	504	57.3	23.6	6.0	13.1	
연령	19세~29세	177	49.7	31.1	9.0	10.2	18.008
	30대	184	55.4	25.0	9.2	10.3	
	40대	212	59.0	22.2	9.4	9.4	
	50대	200	56.5	17.5	14.0	12.0	
	60세 이상	227	55.5	18.5	14.5	11.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63.0	18.7	7.4	10.9	28.557 ***
	중소도시	457	49.7	24.5	14.9	10.9	
	읍면	84	45.2	32.1	14.3	8.3	
권역	서울	203	69.0	18.7	5.4	6.9	104.584 ***
	인천/경기	290	56.9	17.2	16.9	9.0	
	대전/충청	103	36.9	24.3	20.4	18.4	
	광주/호남	102	26.5	43.1	11.8	18.6	
	대구/경북	102	67.6	17.6	3.9	10.8	
	부산/울산/경남	159	60.4	24.5	7.5	7.5	
결혼 상태	미혼	238	55.5	26.9	8.8	8.8	6.898
	기혼	732	55.7	21.0	12.2	11.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46.7	23.3	13.3	16.7	
학력	초졸 이하	35	60.0	17.1	17.1	5.7	11.833
	중졸	113	50.4	20.4	13.3	15.9	
	고졸	466	55.4	22.1	12.4	10.1	
	대졸	371	57.1	24.0	8.9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5	40.0	26.7	13.3	2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53.4	25.0	10.5	11.1	12.709 **
	긍정	255	61.2	15.3	14.1	9.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0.0	22.3	15.4	12.3	7.24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7.6	23.2	10.6	8.6	
	400만 원 이상	386	54.4	21.8	11.1	12.7	
	무응답	5	60.0	20.0	0.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54.2	27.5	9.5	8.8	20.380 **
	중도	440	52.5	24.5	10.5	12.5	
	보수	287	61.0	14.6	14.6	9.8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0.0	0.0	0.0	16.360
	상하	6	33.3	16.7	0.0	50.0	
	중상	198	55.1	23.2	9.6	12.1	
	중하	545	55.8	21.5	12.1	10.6	
	하상	191	53.9	25.7	12.6	7.9	
	하하	58	58.6	20.7	8.6	12.1	

(단위: %)

(2) 1+2순위		사례수 (명)	높은 경제성장 유지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	환경개선	방위력 증강
2015년		1,000	76.1	47.1	39.4	37.1
2014년		1,000	78.1	53.9	39.7	28.3
성별	남성	496	76.2	47.6	34.5	41.5
	여성	504	76.0	46.6	44.2	32.7
연령	19세~29세	177	70.1	59.3	39.5	29.9
	30대	184	73.4	45.7	46.2	34.8
	40대	212	79.7	46.2	39.6	34.4
	50대	200	78.0	41.5	39.5	40.5
	60세 이상	227	78.0	44.5	33.5	44.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8.9	46.2	44.7	29.6
	중소도시	457	74.0	47.0	35.2	43.8
	읍면	84	72.6	52.4	33.3	41.7
권역	서울	203	78.8	44.8	44.8	30.0
	인천/경기	290	80.3	39.0	33.4	47.2
	대전/충청	103	62.1	46.6	53.4	37.9
	광주/호남	102	62.7	54.9	40.2	42.2
	대구/경북	102	82.4	45.1	33.3	39.2
	부산/울산/경남	159	81.8	59.1	36.5	22.6
	강원/제주	41	63.4	56.1	43.9	36.6
결혼 상태	미혼	238	74.8	54.6	40.8	29.4
	기혼	732	76.9	44.8	38.5	39.5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6.7	43.3	50.0	40.0
학력	초졸 이하	35	91.4	31.4	28.6	48.6
	중졸	113	72.6	47.8	39.8	38.9
	고졸	466	77.0	45.5	38.4	38.8
	대졸	371	74.9	50.1	41.2	33.4
	대학원 재학 이상	15	66.7	53.3	46.7	33.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74.2	49.9	40.0	35.7
	긍정	255	81.6	38.8	37.6	41.2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73.1	49.2	39.2	37.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77.7	47.2	40.3	34.7
	400만 원 이상	386	75.4	46.4	37.8	40.2
	무응답	5	60.0	40.0	80.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76.6	51.6	39.6	32.2
	중도	440	72.5	50.5	39.8	36.8
	보수	287	81.2	37.6	38.7	42.2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0.0	50.0	50.0
	상하	6	33.3	50.0	50.0	66.7
	중상	198	76.8	42.9	42.9	36.9
	중하	545	75.8	47.5	39.6	36.7
	하상	191	77.0	50.3	33.5	39.3
	하하	58	77.6	48.3	43.1	31.0

문5-2)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1) 1순위		사례수 (명)	물가 억제	언론자유 보장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의견 수렴	사회질서 유지	χ^2 -test
2015년		1,000	44.1	25.0	18.1	12.8	
2014년		1,000	46.3	16.0	18.0	19.7	
성별	남성	496	42.3	24.8	19.0	13.9	2.052
	여성	504	45.8	25.2	17.3	11.7	
연령	19세~29세	177	31.1	28.8	26.6	13.6	30.415 **
	30대	184	38.6	28.8	21.2	11.4	
	40대	212	50.0	22.6	16.0	11.3	
	50대	200	48.0	22.5	17.0	12.5	
	60세 이상	227	49.8	23.3	11.9	15.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8.6	24.2	17.4	9.8	15.211 *
	중소도시	457	38.9	27.4	18.2	15.5	
	읍면	84	47.6	16.7	21.4	14.3	
권역	서울	203	36.5	31.0	19.7	12.8	59.612 ***
	인천/경기	290	42.4	23.8	14.8	19.0	
	대전/충청	103	31.1	21.4	27.2	20.4	
	광주/호남	102	46.1	30.4	18.6	4.9	
	대구/경북	102	52.0	20.6	15.7	11.8	
	부산/울산/경남	159	58.5	20.1	17.0	4.4	
결혼 상태	미혼	238	35.3	28.6	23.5	12.6	14.604 *
	기혼	732	46.4	23.8	16.7	13.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56.7	26.7	10.0	6.7	
학력	초졸 이하	35	51.4	22.9	14.3	11.4	25.557 *
	중졸	113	58.4	21.2	8.0	12.4	
	고졸	466	44.8	24.7	17.0	13.5	
	대졸	371	37.7	26.4	23.2	12.7	
	대학원 재학 이상	15	53.3	33.3	13.3	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44.8	27.1	17.9	10.2	21.091 ***
	긍정	255	42.0	18.8	18.8	20.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43.8	30.8	13.8	11.5	5.04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4.3	24.2	19.6	11.9	
	400만 원 이상	386	44.0	24.1	17.6	14.2	
	무응답	5	40.0	20.0	20.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42.9	27.5	21.2	8.4	12.919 *
	중도	440	43.9	25.5	18.0	12.7	
	보수	287	45.6	22.0	15.3	17.1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100.0	28.659 *
	상하	6	50.0	33.3	16.7	0.0	
	중상	198	39.9	26.8	18.2	15.2	
	중하	545	42.8	24.2	19.4	13.6	
	하상	191	51.8	23.0	17.3	7.9	
	하하	58	46.6	32.8	8.6	12.1	

(단위: %)

(2) 1+2순위		사례수 (명)	물가 억제	사회질서 유지	언론자유 보장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의견 수렴
2015년		1,000	65.3	48.1	43.3	43.1
2014년		1,000	68.7	56.3	33.4	41.4
성별	남성	496	63.7	48.2	42.1	46.0
	여성	504	66.9	48.0	44.4	40.3
연령	19세~29세	177	54.8	45.8	51.4	48.0
	30대	184	61.4	44.0	46.7	47.3
	40대	212	69.8	49.5	41.0	39.6
	50대	200	71.5	46.0	39.5	43.0
	60세 이상	227	67.0	53.7	39.6	39.2
지역 크기	대도시	459	69.3	50.5	41.2	38.6
	중소도시	457	60.2	44.9	48.8	46.2
	읍면	84	71.4	52.4	25.0	51.2
권역	서울	203	59.1	52.7	45.3	42.4
	인천/경기	290	61.0	55.2	44.1	39.3
	대전/충청	103	58.3	46.6	39.8	55.3
	광주/호남	102	63.7	35.3	46.1	54.9
	대구/경북	102	74.5	43.1	40.2	42.2
	부산/울산/경남	159	83.6	40.9	40.9	34.6
강원/제주	강원/제주	41	53.7	51.2	46.3	48.8
	강원/제주	41	53.7	51.2	46.3	48.8
결혼 상태	미혼	238	59.2	46.6	49.6	44.1
	기혼	732	67.1	48.2	41.7	42.9
	동거/이혼/별거/사별	30	70.0	56.7	33.3	40.0
학력	초졸 이하	35	77.1	60.0	34.3	28.6
	중졸	113	77.0	50.4	36.3	35.4
	고졸	466	65.5	49.6	44.6	40.3
	대졸	371	60.4	45.0	44.7	49.6
	대학원 재학 이상	15	66.7	33.3	40.0	6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64.6	45.4	46.6	43.2
	긍정	255	67.5	56.1	33.7	42.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60.8	53.8	46.2	38.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63.9	48.4	41.8	45.7
	400만 원 이상	386	68.7	45.3	44.6	41.5
	무응답	5	60.0	80.0	20.0	40.0
이념 성향	진보	273	66.3	41.4	46.5	45.1
	중도	440	65.7	48.0	43.6	42.7
	보수	287	63.8	54.7	39.7	41.8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100.0	0.0	0.0
	상하	6	83.3	66.7	33.3	16.7
	중상	198	66.2	52.0	40.4	40.9
	중하	545	62.6	46.6	45.3	45.5
	하상	191	70.2	45.5	41.4	42.9
	하하	58	69.0	53.4	43.1	1132.8

문5-3)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1) 1순위		사례수 (명)	경제안정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범죄 소탕	돈보다 아이디어 중시되는 사회	χ^2 -test
2015년		1,000	63.4	20.2	12.0	4.4	
2014년		1,000	54.8	28.5	10.0	6.7	
성별	남성	496	64.3	18.5	11.9	5.2	3.053
	여성	504	62.5	21.8	12.1	3.6	
연령	19세~29세	177	61.0	22.6	9.6	6.8	9.930
	30대	184	62.5	22.3	12.5	2.7	
	40대	212	64.2	19.8	10.4	5.7	
	50대	200	65.5	19.0	12.0	3.5	
	60세 이상	227	63.4	18.1	15.0	3.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0.4	15.5	9.2	5.0	26.266 ***
	중소도시	457	58.9	23.9	13.3	3.9	
	읍면	84	50.0	26.2	20.2	3.6	
권역	서울	203	65.0	19.2	10.8	4.9	66.337 ***
	인천/경기	290	66.9	19.0	9.3	4.8	
	대전/충청	103	50.5	24.3	16.5	8.7	
	광주/호남	102	42.2	31.4	22.5	3.9	
	대구/경북	102	65.7	9.8	19.6	4.9	
	부산/울산/경남	159	76.1	17.6	5.7	0.6	
결혼 상태	미혼	238	60.5	21.8	12.2	5.5	6.176
	기혼	732	64.3	20.1	11.7	3.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3.3	10.0	16.7	10.0	
학력	초졸 이하	35	80.0	8.6	11.4	0.0	48.037 ***
	중졸	113	54.9	15.0	25.7	4.4	
	고졸	466	66.3	18.5	12.2	3.0	
	대졸	371	61.7	24.0	7.8	6.5	
	대학원 재학 이상	15	40.0	46.7	6.7	6.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63.5	21.5	10.6	4.4	7.111
	긍정	255	63.1	16.5	16.1	4.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63.1	18.5	16.9	1.5	11.05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61.8	22.1	12.3	3.8	
	400만 원 이상	386	65.5	18.4	10.1	6.0	
	무응답	5	60.0	20.0	0.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60.4	22.7	13.6	3.3	6.234
	중도	440	62.5	21.1	11.4	5.0	
	보수	287	67.6	16.4	11.5	4.5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0.0	50.0	0.0	16.189
	상하	6	50.0	16.7	33.3	0.0	
	중상	198	63.6	21.7	10.1	4.5	
	중하	545	61.8	20.9	11.7	5.5	
	하상	191	68.1	17.8	11.5	2.6	
	하하	58	63.8	17.2	19.0	0.0	

(단위: %)

(2) 1+2순위		사례수 (명)	경제안정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범죄 소탕	돈보다 아이디어 중시되는 사회
2015년		1,000	79.7	59.3	40.2	20.8
2014년		1,000	76.4	64.6	33.4	25.4
성별	남성	496	80.2	60.1	37.7	22.0
	여성	504	79.2	58.5	42.7	19.6
연령	19세~29세	177	76.3	59.3	37.3	27.1
	30대	184	77.2	63.0	38.0	21.7
	40대	212	81.6	66.5	33.0	18.9
	50대	200	81.5	55.5	41.5	21.5
	60세 이상	227	81.1	52.9	49.8	16.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84.1	59.3	35.7	20.9
	중소도시	457	77.0	60.0	42.9	20.1
	읍면	84	70.2	56.0	50.0	23.8
권역	서울	203	79.8	55.7	39.4	25.1
	인천/경기	290	80.7	64.5	34.5	20.3
	대전/충청	103	81.6	66.0	30.1	22.3
	광주/호남	102	56.9	54.9	63.7	24.5
	대구/경북	102	87.3	46.1	45.1	21.6
	부산/울산/경남	159	87.4	56.6	45.9	10.1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75.6	78.0	17.1	29.3
	미혼	238	76.5	62.2	38.2	23.1
학력	기혼	732	80.9	59.2	39.8	20.2
	동거/이혼/별거/사별	30	76.7	40.0	66.7	16.7
	초졸 이하	35	91.4	34.3	62.9	11.4
	중졸	113	73.5	47.8	60.2	18.6
	고졸	466	82.2	59.9	39.9	18.0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77.6	64.2	33.4	24.8
	대학원 재학 이상	15	73.3	66.7	13.3	46.7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79.6	62.4	37.0	20.9
	200만원 미만	130	73.8	51.5	50.0	24.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78.5	61.6	39.9	20.0
	400만 원 이상	386	83.2	59.1	37.6	20.2
이념 성향	무응답	5	80.0	60.0	20.0	40.0
	진보	273	81.3	60.8	39.2	18.7
	중도	440	78.4	60.9	40.2	20.5
계층 소속감	보수	287	80.1	55.4	41.1	23.3
	상상	2	100.0	50.0	50.0	0.0
	상하	6	83.3	50.0	50.0	16.7
	중상	198	79.3	60.1	40.4	20.2
	중하	545	78.9	58.9	39.3	22.9
	하상	191	83.2	60.2	40.8	15.7
하하	58	75.9	58.6	44.8	20.7	

문6) 귀하는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X ² -test
2015년		1,000	49.3	50.7	
성별	남성	496	49.2	50.8	0.004
	여성	504	49.4	50.6	
연령	19세~29세	177	55.9	44.1	12.725 *
	30대	184	55.4	44.6	
	40대	212	50.9	49.1	
	50대	200	43.5	56.5	
	60세 이상	227	42.7	57.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9.7	50.3	1.016
	중소도시	457	49.9	50.1	
	읍면	84	44.0	56.0	
권역	서울	203	49.8	50.2	22.418 **
	인천/경기	290	43.8	56.2	
	대전/충청	103	47.6	52.4	
	광주/호남	102	52.9	47.1	
	대구/경북	102	68.6	31.4	
	부산/울산/경남	159	43.4	56.6	
강원/제주	강원/제주	41	56.1	43.9	
	강원/제주	41	56.1	43.9	
결혼 상태	미혼	238	57.6	42.4	8.675 *
	기혼	732	46.9	53.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43.3	56.7	
학력	초졸 이하	35	34.3	65.7	23.031 ***
	중졸	113	35.4	64.6	
	고졸	466	47.2	52.8	
	대졸	371	56.9	43.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6.7	33.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56.8	43.2	65.372 ***
	긍정	255	27.5	72.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3.1	46.9	2.30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6.8	53.2	
	400만 원 이상	386	50.8	49.2	
	무응답	5	80.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52.7	47.3	6.156 *
	중도	440	51.1	48.9	
	보수	287	43.2	56.8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100.0	5.267
	상하	6	83.3	16.7	
	중상	198	48.0	52.0	
	중하	545	49.2	50.8	
	하상	191	49.2	50.8	
	하하	58	53.4	46.6	

문7) 귀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다소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불만족	만족			
2015년		1,000	14.2	58.3	26.3	1.2	72.5	27.5	2.15	38.2	
성별	남성	496	13.5	60.3	24.2	2.0	73.8	26.2	2.15	38.2	8.118 *
	여성	504	14.9	56.3	28.4	0.4	71.2	28.8	2.14	38.1	
연령	19세~29세	177	10.7	63.3	24.3	1.7	74.0	26.0	2.17	39.0	23.060 *
	30대	184	16.8	59.8	21.2	2.2	76.6	23.4	2.09	36.2	
	40대	212	17.0	58.0	24.5	0.5	75.0	25.0	2.08	36.2	
	50대	200	15.5	60.5	23.5	0.5	76.0	24.0	2.09	36.3	
	60세 이상	227	11.0	51.5	36.1	1.3	62.6	37.4	2.28	42.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5.3	56.0	27.5	1.3	71.2	28.8	2.15	38.3	4.431
	중소도시	457	14.2	60.2	24.5	1.1	74.4	25.6	2.12	37.5	
	읍면	84	8.3	60.7	29.8	1.2	69.0	31.0	2.24	41.3	
권역	서울	203	17.2	56.2	25.1	1.5	73.4	26.6	2.11	36.9	54.290 ***
	인천/경기	290	16.2	61.0	21.4	1.4	77.2	22.8	2.08	36.0	
	대전/충청	103	14.6	53.4	31.1	1.0	68.0	32.0	2.18	39.5	
	광주/호남	102	3.9	52.0	43.1	1.0	55.9	44.1	2.41	47.1	
	대구/경북	102	21.6	56.9	21.6	0.0	78.4	21.6	2.00	33.3	
	부산/울산/경남	159	4.4	65.4	28.9	1.3	69.8	30.2	2.27	42.3	
결혼 상태	미혼	238	14.3	60.1	23.5	2.1	74.4	25.6	2.13	37.8	6.013
	기혼	732	13.8	58.2	27.0	1.0	72.0	28.0	2.15	38.4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3.3	46.7	30.0	0.0	70.0	30.0	2.07	35.6	
학력	초졸 이하	35	5.7	54.3	37.1	2.9	60.0	40.0	2.37	45.7	37.381 ***
	중졸	113	11.5	44.2	43.4	0.9	55.8	44.2	2.34	44.5	
	고졸	466	13.3	58.6	26.8	1.3	71.9	28.1	2.16	38.7	
	대졸	371	17.3	63.1	18.6	1.1	80.3	19.7	2.04	34.5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6.7	46.7	0.0	53.3	46.7	2.40	46.7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16.4	62.3	20.8	0.5	78.7	21.3	2.06	35.2	61.929 ***
	긍정	255	7.8	46.7	42.4	3.1	54.5	45.5	2.41	46.9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4.6	50.8	33.8	0.8	65.4	34.6	2.21	40.3	9.33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2.9	58.2	27.8	1.0	71.2	28.8	2.17	39.0	
	400만 원 이상	386	15.5	60.9	22.0	1.6	76.4	23.6	2.10	36.5	
	무응답	5	20.0	60.0	20.0	0.0	80.0	20.0	2.00	33.3	
이념 성향	진보	273	12.8	57.5	28.6	1.1	70.3	29.7	2.18	39.3	3.173
	중도	440	13.4	58.9	26.4	1.4	72.3	27.7	2.16	38.6	
	보수	287	16.7	58.2	24.0	1.0	74.9	25.1	2.09	36.5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53.573 ***
	상하	6	50.0	33.3	16.7	0.0	83.3	16.7	1.67	22.2	
	중상	198	10.1	59.1	29.3	1.5	69.2	30.8	2.22	40.7	
	중하	545	15.6	57.2	26.1	1.1	72.8	27.2	2.13	37.6	
	하상	191	13.6	61.3	24.6	0.5	74.9	25.1	2.12	37.3	
	하하	58	13.8	60.3	24.1	1.7	74.1	25.9	2.14	37.9	

문8)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
 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지역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약간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함				
2015년	1,000	2.5	30.6	48.5	18.4	33.1	66.9	2.83	60.9		
2014년	1,000	1.2	30.8	59.1	8.9	32.0	68.0	2.76	58.6		
성별	남성	496	3.0	30.2	47.2	19.6	33.3	66.7	2.83	61.1	2.193
	여성	504	2.0	31.0	49.8	17.3	32.9	67.1	2.82	60.8	
연령	19세~29세	177	2.3	40.7	43.5	13.6	42.9	57.1	2.68	56.1	20.599
	30대	184	1.1	30.4	49.5	19.0	31.5	68.5	2.86	62.1	
	40대	212	1.4	31.1	47.2	20.3	32.5	67.5	2.86	62.1	
	50대	200	5.0	26.5	50.0	18.5	31.5	68.5	2.82	60.7	
	60세 이상	227	2.6	26.0	51.5	19.8	28.6	71.4	2.89	62.8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3	34.2	44.2	18.3	37.5	62.5	2.78	59.2	13.194 *
	중소도시	457	2.0	25.8	53.0	19.3	27.8	72.2	2.89	63.2	
	읍면	84	1.2	36.9	47.6	14.3	38.1	61.9	2.75	58.3	
권역	서울	203	3.0	27.1	47.8	22.2	30.0	70.0	2.89	63.1	129.861 ***
	인천/경기	290	1.7	20.3	48.3	29.7	22.1	77.9	3.06	68.6	
	대전/충청	103	7.8	43.7	41.7	6.8	51.5	48.5	2.48	49.2	
	광주/호남	102	0.0	19.6	72.5	7.8	19.6	80.4	2.88	62.7	
	대구/경북	102	1.0	28.4	48.0	22.5	29.4	70.6	2.92	64.1	
	부산/울산/경남	159	1.9	52.8	39.6	5.7	54.7	45.3	2.49	49.7	
강원/제주	강원/제주	41	4.9	34.1	46.3	14.6	39.0	61.0	2.71	56.9	
	제주	18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 상태	미혼	238	2.1	38.2	44.1	15.5	40.3	59.7	2.73	57.7	11.386
	기혼	732	2.5	28.3	50.1	19.1	30.7	69.3	2.86	62.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26.7	43.3	23.3	33.3	66.7	2.83	61.1	
학력	초졸 이하	35	5.7	25.7	42.9	25.7	31.4	68.6	2.89	62.9	13.262
	중졸	113	0.0	34.5	47.8	17.7	34.5	65.5	2.83	61.1	
	고졸	466	3.4	30.9	48.1	17.6	34.3	65.7	2.80	59.9	
	대졸	371	1.6	30.2	49.1	19.1	31.8	68.2	2.86	61.9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13.3	66.7	13.3	20.0	80.0	2.87	62.2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2.3	31.1	49.8	16.8	33.4	66.6	2.81	60.4	6.026
	긍정	255	3.1	29.0	44.7	23.1	32.2	67.8	2.88	62.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4.6	23.8	47.7	23.8	28.5	71.5	2.91	63.6	10.66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7	33.6	48.2	16.5	35.3	64.7	2.80	59.8	
	400만 원 이상	386	2.8	29.0	49.2	18.9	31.9	68.1	2.84	61.4	
	무응답	5	0.0	40.0	40.0	20.0	40.0	60.0	2.80	60.0	
이념 성향	진보	273	1.8	35.5	45.1	17.6	37.4	62.6	2.78	59.5	19.351 **
	중도	440	2.0	30.7	52.5	14.8	32.7	67.3	2.80	60.0	
	보수	287	3.8	25.8	45.6	24.7	29.6	70.4	2.91	63.8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6.229
	상하	6	0.0	33.3	66.7	0.0	33.3	66.7	2.67	55.6	
	중상	198	3.0	30.3	49.5	17.2	33.3	66.7	2.81	60.3	
	중하	545	2.6	29.9	48.3	19.3	32.5	67.5	2.84	61.4	
	하상	191	2.6	31.9	48.2	17.3	34.6	65.4	2.80	60.0	
하하	58	0.0	34.5	46.6	19.0	34.5	65.5	2.84	61.5		

(단위: %)

(2) 계층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약간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함			
2015년		1,000	1.2	27.2	45.5	26.1	28.4	71.6	2.97	65.5	
2014년		1,000	1.2	21.3	55.3	22.2	22.5	77.5	2.99	66.2	
성별	남성	496	1.0	25.2	46.6	27.2	26.2	73.8	3.00	66.7	2.467
	여성	504	1.4	29.2	44.4	25.0	30.6	69.4	2.93	64.4	
연령	19세~29세	177	0.0	29.9	46.3	23.7	29.9	70.1	2.94	64.6	14.373
	30대	184	0.5	25.5	44.6	29.3	26.1	73.9	3.03	67.6	
	40대	212	1.9	24.5	43.9	29.7	26.4	73.6	3.01	67.1	
	50대	200	2.5	24.0	49.5	24.0	26.5	73.5	2.95	65.0	
	60세 이상	227	0.9	31.7	43.6	23.8	32.6	67.4	2.90	63.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4	29.2	42.0	26.4	31.6	68.4	2.92	64.1	34.194 ***
	중소도시	457	0.0	22.5	48.6	28.9	22.5	77.5	3.06	68.8	
	읍면	84	1.2	41.7	47.6	9.5	42.9	57.1	2.65	55.2	
권역	서울	203	3.0	24.6	39.4	33.0	27.6	72.4	3.02	67.5	123.658 ***
	인천/경기	290	0.3	12.4	50.0	37.2	12.8	87.2	3.24	74.7	
	대전/충청	103	3.9	29.1	54.4	12.6	33.0	67.0	2.76	58.6	
	광주/호남	102	0.0	38.2	44.1	17.6	38.2	61.8	2.79	59.8	
	대구/경북	102	1.0	33.3	41.2	24.5	34.3	65.7	2.89	63.1	
	부산/울산/경남	159	0.0	48.4	40.3	11.3	48.4	51.6	2.63	54.3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14.6	56.1	29.3	14.6	85.4	3.15	71.5	5.712
	미혼	238	0.0	29.0	46.2	24.8	29.0	71.0	2.96	65.3	
	기혼	732	1.6	26.8	45.4	26.2	28.4	71.6	2.96	65.4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23.3	43.3	33.3	23.3	76.7	3.10	70.0	21.065 *
	초졸 이하	35	0.0	28.6	48.6	22.9	28.6	71.4	2.94	64.8	
	중졸	113	1.8	34.5	43.4	20.4	36.3	63.7	2.82	60.8	
	고졸	466	1.9	30.0	44.4	23.6	32.0	68.0	2.90	63.2	
	대졸	371	0.3	21.3	47.2	31.3	21.6	78.4	3.09	69.8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6.7	46.7	26.7	26.7	73.3	3.00	66.7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1.1	26.6	45.9	26.4	27.7	72.3	2.98	65.9	1.042
	긍정	255	1.6	29.0	44.3	25.1	30.6	69.4	2.93	64.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1	27.7	37.7	31.5	30.8	69.2	2.98	65.9	9.74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6	28.2	45.5	25.7	28.8	71.2	2.96	65.4	
	400만 원 이상	386	1.3	25.9	48.2	24.6	27.2	72.8	2.96	65.4	
	무응답	5	0.0	20.0	40.0	40.0	20.0	80.0	3.20	73.3	
이념 성향	진보	273	1.1	34.8	41.4	22.7	35.9	64.1	2.86	61.9	16.448 *
	중도	440	0.7	26.6	46.1	26.6	27.3	72.7	2.99	66.2	
	보수	287	2.1	20.9	48.4	28.6	23.0	77.0	3.03	67.8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7	12.929
	상하	6	0.0	33.3	66.7	0.0	33.3	66.7	2.67	55.6	
	중상	198	1.0	25.3	52.0	21.7	26.3	73.7	2.94	64.8	
	중하	545	1.3	26.4	43.9	28.4	27.7	72.3	2.99	66.5	
	하상	191	1.0	29.8	45.0	24.1	30.9	69.1	2.92	64.0	
하하	58	1.7	32.8	36.2	29.3	34.5	65.5	2.93	64.4		

(단위: %)

(3) 이념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약간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함			
2015년		1,000	3.4	38.1	36.5	22.0	41.5	58.5	2.77	59.0	
2014년		1,000	1.5	33.3	46.5	18.7	34.8	65.2	2.82	60.8	
성별	남성	496	3.8	37.3	33.7	25.2	41.1	58.9	2.80	60.1	7.448
	여성	504	3.0	38.9	39.3	18.8	41.9	58.1	2.74	58.0	
연령	19세~29세	177	4.0	42.9	33.3	19.8	46.9	53.1	2.69	56.3	15.243
	30대	184	3.3	36.4	35.3	25.0	39.7	60.3	2.82	60.7	
	40대	212	1.9	38.2	33.5	26.4	40.1	59.9	2.84	61.5	
	50대	200	5.5	32.5	40.5	21.5	38.0	62.0	2.78	59.3	
	60세 이상	227	2.6	40.5	39.2	17.6	43.2	56.8	2.72	57.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2	39.4	37.5	17.9	44.7	55.3	2.68	56.0	27.011 ***
	중소도시	457	2.0	35.2	34.8	28.0	37.2	62.8	2.89	62.9	
	읍면	84	1.2	46.4	40.5	11.9	47.6	52.4	2.63	54.4	
권역	서울	203	6.4	32.5	37.9	23.2	38.9	61.1	2.78	59.3	90.734 ***
	인천/경기	290	2.8	26.2	36.2	34.8	29.0	71.0	3.03	67.7	
	대전/충청	103	3.9	35.9	39.8	20.4	39.8	60.2	2.77	58.9	
	광주/호남	102	1.0	44.1	39.2	15.7	45.1	54.9	2.70	56.5	
	대구/경북	102	3.9	54.9	29.4	11.8	58.8	41.2	2.49	49.7	
	부산/울산/경남	159	1.9	56.0	34.6	7.5	57.9	42.1	2.48	49.3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2.4	29.3	41.5	26.8	31.7	68.3	2.93	64.2	5.840
	미혼	238	2.9	39.1	35.7	22.3	42.0	58.0	2.77	59.1	
	기혼	732	3.6	38.4	35.9	22.1	41.9	58.1	2.77	58.9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23.3	56.7	16.7	26.7	73.3	2.87	62.2	17.450
	초졸 이하	35	8.6	37.1	42.9	11.4	45.7	54.3	2.57	52.4	
	중졸	113	3.5	38.1	42.5	15.9	41.6	58.4	2.71	56.9	
	고졸	466	3.0	39.5	36.3	21.2	42.5	57.5	2.76	58.6	
	대졸	371	3.0	36.7	35.0	25.3	39.6	60.4	2.83	60.9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33.3	20.0	33.3	46.7	53.3	2.73	57.8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3.1	39.2	35.3	22.4	42.3	57.7	2.77	59.0	3.138
	긍정	255	4.3	34.9	40.0	20.8	39.2	60.8	2.77	59.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6.9	39.2	36.9	16.9	46.2	53.8	2.64	54.6	10.76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1	37.2	38.2	22.5	39.2	60.8	2.81	60.4	
	400만 원 이상	386	3.9	39.1	33.7	23.3	43.0	57.0	2.76	58.8	
	무응답	5	0.0	20.0	80.0	0.0	20.0	80.0	2.80	60.0	
이념 성향	진보	273	2.6	45.8	29.3	22.3	48.4	51.6	2.71	57.1	20.459 **
	중도	440	3.2	39.3	37.5	20.0	42.5	57.5	2.74	58.1	
	보수	287	4.5	28.9	41.8	24.7	33.4	66.6	2.87	62.3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7	24.791
	상하	6	16.7	33.3	33.3	16.7	50.0	50.0	2.50	50.0	
	중상	198	3.0	37.4	38.4	21.2	40.4	59.6	2.78	59.3	
	중하	545	2.6	36.3	35.4	25.7	38.9	61.1	2.84	61.4	
	하상	191	4.7	45.5	35.1	14.7	50.3	49.7	2.60	53.2	
하하	58	6.9	34.5	43.1	15.5	41.4	58.6	2.67	55.7		

(단위: %)

(4) 세대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약간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함			
2015년		1,000	2.3	32.5	47.4	17.8	34.8	65.2	2.81	60.2	
2014년		1,000	1.8	38.7	48.4	11.1	40.5	59.5	2.69	56.3	
성별	남성	496	2.8	30.8	47.8	18.5	33.7	66.3	2.82	60.7	2.336
	여성	504	1.8	34.1	47.0	17.1	35.9	64.1	2.79	59.8	
연령	19세~29세	177	2.3	39.0	42.9	15.8	41.2	58.8	2.72	57.4	8.259
	30대	184	2.2	33.2	47.3	17.4	35.3	64.7	2.80	60.0	
	40대	212	1.9	29.2	48.1	20.8	31.1	68.9	2.88	62.6	
	50대	200	2.5	31.5	46.0	20.0	34.0	66.0	2.84	61.2	
	60세 이상	227	2.6	30.8	51.5	15.0	33.5	66.5	2.79	59.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8	37.0	40.7	19.4	39.9	60.1	2.77	58.9	27.147 ***
	중소도시	457	2.2	25.8	54.7	17.3	28.0	72.0	2.87	62.4	
	읍면	84	0.0	44.0	44.0	11.9	44.0	56.0	2.68	56.0	
권역	서울	203	3.0	35.0	41.4	20.7	37.9	62.1	2.80	59.9	63.479 ***
	인천/경기	290	2.1	22.4	53.4	22.1	24.5	75.5	2.96	65.2	
	대전/충청	103	4.9	41.7	39.8	13.6	46.6	53.4	2.62	54.0	
	광주/호남	102	0.0	26.5	57.8	15.7	26.5	73.5	2.89	63.1	
	대구/경북	102	1.0	35.3	46.1	17.6	36.3	63.7	2.80	60.1	
	부산/울산/경남	159	1.9	49.1	37.7	11.3	50.9	49.1	2.58	52.8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4.9	12.2	68.3	14.6	17.1	82.9	2.93	64.2	4.254
	미혼	238	2.1	37.0	44.1	16.8	39.1	60.9	2.76	58.5	
	기혼	732	2.3	30.7	48.8	18.2	33.1	66.9	2.83	60.9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40.0	40.0	16.7	43.3	56.7	2.70	56.7	15.211
	초졸 이하	35	5.7	28.6	54.3	11.4	34.3	65.7	2.71	57.1	
	중졸	113	1.8	40.7	41.6	15.9	42.5	57.5	2.72	57.2	
	고졸	466	2.4	35.4	45.5	16.7	37.8	62.2	2.77	58.9	
	대졸	371	2.2	27.2	50.4	20.2	29.4	70.6	2.89	62.9	
국정 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0.0	60.0	20.0	20.0	80.0	3.00	66.7	8.646 *
	부정	745	1.9	30.6	49.7	17.9	32.5	67.5	2.83	61.2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3.5	38.0	40.8	17.6	41.6	58.4	2.73	57.5	8.038
	200만원 미만	130	2.3	29.2	50.8	17.7	31.5	68.5	2.84	61.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1	36.7	44.1	17.1	38.8	61.2	2.76	58.7	
	400만 원 이상	386	2.6	28.2	50.8	18.4	30.8	69.2	2.85	61.7	
이념 성향	무응답	5	0.0	40.0	20.0	40.0	40.0	60.0	3.00	66.7	5.475
	진보	273	3.3	34.1	46.5	16.1	37.4	62.6	2.75	58.5	
	중도	440	1.4	33.6	47.3	17.7	35.0	65.0	2.81	60.5	
계층 소속 감	보수	287	2.8	29.3	48.4	19.5	32.1	67.9	2.85	61.6	14.013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0.0	16.7	66.7	16.7	16.7	83.3	3.00	66.7	
	중상	198	2.5	34.3	42.4	20.7	36.9	63.1	2.81	60.4	
	중하	545	2.6	30.5	48.4	18.5	33.0	67.0	2.83	61.0	
하상	191	2.1	35.1	50.3	12.6	37.2	62.8	2.73	57.8		
하하	58	0.0	36.2	44.8	19.0	36.2	63.8	2.83	60.9		

(단위: %)

(5)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약간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함			
2015년		1,000	2.4	26.8	45.1	25.7	29.2	70.8	2.94	64.7	
2014년		1,000	2.3	29.8	48.8	19.1	32.1	67.9	2.85	61.6	
성별	남성	496	2.2	27.8	43.3	26.6	30.0	70.0	2.94	64.8	1.510
	여성	504	2.6	25.8	46.8	24.8	28.4	71.6	2.94	64.6	
연령	19세~29세	177	2.8	31.6	37.9	27.7	34.5	65.5	2.90	63.5	14.008
	30대	184	3.3	31.0	44.6	21.2	34.2	65.8	2.84	61.2	
	40대	212	1.4	25.9	46.7	25.9	27.4	72.6	2.97	65.7	
	50대	200	3.5	24.0	44.5	28.0	27.5	72.5	2.97	65.7	
	60세 이상	227	1.3	22.9	50.2	25.6	24.2	75.8	3.00	66.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5	28.3	40.1	28.1	31.8	68.2	2.93	64.3	13.147 *
	중소도시	457	1.8	26.0	48.6	23.6	27.8	72.2	2.94	64.7	
	읍면	84	0.0	22.6	53.6	23.8	22.6	77.4	3.01	67.1	
권역	서울	203	4.4	28.1	36.0	31.5	32.5	67.5	2.95	64.9	45.538 ***
	인천/경기	290	3.1	26.2	50.7	20.0	29.3	70.7	2.88	62.5	
	대전/충청	103	0.0	24.3	44.7	31.1	24.3	75.7	3.07	68.9	
	광주/호남	102	0.0	26.5	50.0	23.5	26.5	73.5	2.97	65.7	
	대구/경북	102	1.0	27.5	38.2	33.3	28.4	71.6	3.04	68.0	
	부산/울산/경남	159	3.1	30.8	49.7	16.4	34.0	66.0	2.79	59.7	
결혼 상태	미혼	238	2.1	29.4	41.6	26.9	31.5	68.5	2.93	64.4	7.225
	기혼	732	2.6	26.5	46.2	24.7	29.1	70.9	2.93	64.3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13.3	46.7	40.0	13.3	86.7	3.27	75.6	18.797
	초졸 이하	35	2.9	14.3	48.6	34.3	17.1	82.9	3.14	71.4	
	중졸	113	2.7	23.9	48.7	24.8	26.5	73.5	2.96	65.2	
	고졸	466	2.8	29.6	44.6	23.0	32.4	67.6	2.88	62.6	
	대졸	371	1.9	24.5	45.8	27.8	26.4	73.6	2.99	66.5	
국정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46.7	6.7	46.7	46.7	53.3	3.00	66.7	4.214
	부정	745	2.4	28.3	43.5	25.8	30.7	69.3	2.93	64.2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2.4	22.4	49.8	25.5	24.7	75.3	2.98	66.1	12.411
	200만원 미만	130	3.8	19.2	43.1	33.8	23.1	76.9	3.07	69.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1	25.3	47.4	25.3	27.3	72.7	2.96	65.3	
	400만 원 이상	386	2.1	31.1	43.3	23.6	33.2	66.8	2.88	62.8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40.0	20.0	20.0	60.0	40.0	2.40	46.7	19.428 **
	진보	273	2.2	33.3	39.6	24.9	35.5	64.5	2.87	62.4	
	중도	440	3.2	28.0	44.1	24.8	31.1	68.9	2.90	63.5	
계층 소속감	보수	287	1.4	18.8	51.9	27.9	20.2	79.8	3.06	68.8	8.530
	상상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7	
	상하	6	0.0	33.3	33.3	33.3	33.3	66.7	3.00	66.7	
	중상	198	2.5	25.3	47.5	24.7	27.8	72.2	2.94	64.8	
	중하	545	2.8	25.3	45.0	27.0	28.1	71.9	2.96	65.4	
하상	191	1.6	32.5	43.5	22.5	34.0	66.0	2.87	62.3		
하하	58	1.7	27.6	43.1	27.6	29.3	70.7	2.97	65.5		

문9)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	개인 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 부족과 오해	기타	χ^2 -test
2015년		1,000	41.0	40.4	12.0	6.4	0.2	
2014년		1,000	41.2	40.2	11.5	6.5	0.6	
성별	남성	496	41.1	40.1	12.1	6.3	0.4	2.097
	여성	504	40.9	40.7	11.9	6.5	0.0	
연령	19세~29세	177	47.5	35.6	13.0	2.8	1.1	21.343
	30대	184	40.8	38.6	13.0	7.6	0.0	
	40대	212	42.0	41.0	11.8	5.2	0.0	
	50대	200	39.5	42.5	11.0	7.0	0.0	
	60세 이상	227	36.6	43.2	11.5	8.8	0.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2.0	37.7	13.1	7.0	0.2	8.968
	중소도시	457	42.0	41.8	10.1	5.9	0.2	
	읍면	84	29.8	47.6	16.7	6.0	0.0	
권역	서울	203	48.3	26.6	17.2	7.4	0.5	89.587 ***
	인천/경기	290	44.5	40.0	10.7	4.8	0.0	
	대전/충청	103	43.7	27.2	20.4	8.7	0.0	
	광주/호남	102	24.5	52.9	6.9	15.7	0.0	
	대구/경북	102	31.4	59.8	6.9	2.0	0.0	
	부산/울산/경남	159	43.4	45.9	6.9	3.1	0.6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29.3	43.9	19.5	7.3	0.0	10.290
	미혼	238	42.9	40.3	10.9	5.0	0.8	
	기혼	732	40.8	40.3	12.0	6.8	0.0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0.0	43.3	20.0	6.7	0.0	16.564
	초졸 이하	35	25.7	57.1	8.6	8.6	0.0	
	중졸	113	39.8	44.2	9.7	6.2	0.0	
	고졸	466	39.7	41.8	12.7	5.8	0.0	
	대졸	371	43.9	36.1	12.7	6.7	0.5	
국정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53.3	33.3	0.0	13.3	0.0	12.438 *
	부정	745	43.1	39.3	12.2	5.1	0.3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34.9	43.5	11.4	10.2	0.0	10.761
	200만원 미만	130	36.2	43.8	10.0	10.0	0.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9.0	40.7	13.4	6.5	0.4	
	400만 원 이상	386	45.1	39.1	10.6	5.2	0.0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20.0	40.0	0.0	0.0	8.453
	진보	273	43.2	39.2	12.1	5.1	0.4	
	중도	440	43.2	40.0	10.2	6.4	0.2	
계층 소속감	보수	287	35.5	42.2	14.6	7.7	0.0	21.851
	상상	2	50.0	50.0	0.0	0.0	0.0	
	상하	6	66.7	0.0	33.3	0.0	0.0	
	중상	198	43.9	39.9	12.1	4.0	0.0	
	중하	545	39.1	41.7	12.7	6.4	0.2	
	하상	191	44.0	36.6	10.5	8.9	0.0	
하하	58	36.2	46.6	8.6	6.9	1.7		

문10)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부정 적 영향	보통	긍정 적 영향				
2015년	1,000	13.7	56.4	22.9	5.7	1.3	70.1	22.9	7.0	2.25	31.1		
2014년	1,000	15.1	49.3	8.8	24.2	2.6	64.4	8.8	26.8	2.50	37.5		
성별	남성	496	14.3	55.4	22.2	6.7	1.4	69.8	22.2	8.1	2.25	31.4	2.318
	여성	504	13.1	57.3	23.6	4.8	1.2	70.4	23.6	6.0	2.24	30.9	
연령	19세~29세	177	15.8	56.5	17.5	8.5	1.7	72.3	17.5	10.2	2.24	30.9	15.211
	30대	184	12.5	59.2	23.9	3.8	0.5	71.7	23.9	4.3	2.21	30.2	
	40대	212	16.0	58.5	21.2	3.3	0.9	74.5	21.2	4.2	2.15	28.7	
	50대	200	11.5	54.5	25.5	7.0	1.5	66.0	25.5	8.5	2.33	33.1	
	60세 이상	227	12.8	53.7	25.6	6.2	1.8	66.5	25.6	7.9	2.30	32.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4.6	56.2	19.6	7.4	2.2	70.8	19.6	9.6	2.26	31.6	22.239 **
	중소도시	457	14.2	57.1	23.9	4.2	0.7	71.3	23.9	4.8	2.20	30.0	
	읍면	84	6.0	53.6	35.7	4.8	0.0	59.5	35.7	4.8	2.39	34.8	
권역	서울	203	21.2	51.2	13.8	9.9	3.9	72.4	13.8	13.8	2.24	31.0	141.234 ***
	인천/경기	290	13.1	61.4	18.6	6.2	0.7	74.5	18.6	6.9	2.20	30.0	
	대전/충청	103	13.6	62.1	16.5	6.8	1.0	75.7	16.5	7.8	2.19	29.9	
	광주/호남	102	4.9	43.1	47.1	4.9	0.0	48.0	47.1	4.9	2.52	38.0	
	대구/경북	102	18.6	61.8	17.6	1.0	1.0	80.4	17.6	2.0	2.04	26.0	
	부산/울산/경남	159	2.5	56.0	39.0	1.9	0.6	58.5	39.0	2.5	2.42	35.5	
강원/제주	강원	41	34.1	53.7	4.9	7.3	0.0	87.8	4.9	7.3	1.85	21.3	
	제주	238	16.8	58.4	17.6	6.7	0.4	75.2	17.6	7.1	2.16	28.9	
결혼 상태	미혼	732	12.8	56.0	24.6	4.9	1.6	68.9	24.6	6.6	2.27	31.6	16.568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0.0	50.0	23.3	16.7	0.0	60.0	23.3	16.7	2.47	36.7	
학력	초졸 이하	35	8.6	62.9	25.7	2.9	0.0	71.4	25.7	2.9	2.23	30.7	20.618
	중졸	113	6.2	51.3	32.7	8.0	1.8	57.5	32.7	9.7	2.48	36.9	
	고졸	466	14.8	54.5	23.6	5.4	1.7	69.3	23.6	7.1	2.25	31.2	
	대졸	371	14.8	59.6	18.9	5.9	0.8	74.4	18.9	6.7	2.18	29.6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60.0	20.0	0.0	0.0	80.0	20.0	0.0	2.00	25.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15.3	56.9	22.1	4.8	0.8	72.2	22.1	5.6	2.19	29.7	15.690 **
	긍정	255	9.0	54.9	25.1	8.2	2.7	63.9	25.1	11.0	2.41	35.2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3.1	51.5	24.6	7.7	3.1	64.6	24.6	10.8	2.36	34.0	9.06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2.5	56.4	24.4	5.6	1.0	68.9	24.4	6.7	2.26	31.6	
	400만 원 이상	386	15.0	58.5	20.5	5.2	0.8	73.0	20.5	6.0	2.18	29.5	
	무응답	5	40.0	20.0	20.0	0.0	20.0	60.0	20.0	20.0	2.40	35.0	
이념 성향	진보	273	18.7	52.4	24.9	3.3	0.7	71.1	24.9	4.0	2.15	28.8	30.906 ***
	중도	440	11.4	61.6	21.6	5.0	0.5	73.0	21.6	5.5	2.22	30.4	
	보수	287	12.5	52.3	23.0	9.1	3.1	64.8	23.0	12.2	2.38	34.5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100.0	0.0	0.0	0.0	100.0	0.0	0.0	2.00	25.0	32.280 *
	상하	6	16.7	50.0	16.7	0.0	16.7	66.7	16.7	16.7	2.50	37.5	
	중상	198	14.1	52.5	21.7	10.6	1.0	66.7	21.7	11.6	2.32	33.0	
	중하	545	13.8	59.3	21.8	4.2	0.9	73.0	21.8	5.1	2.19	29.8	
	하상	191	13.1	55.0	26.2	4.2	1.6	68.1	26.2	5.8	2.26	31.5	
	하하	58	13.8	46.6	27.6	8.6	3.4	60.3	27.6	12.1	2.41	35.3	

문11)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계층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마찬 가지일 것이다	약간 심각할 것이다	매우 심각할 것이다	종합					100 점 평균 (점)	X ² -test
							심각 하지 않을 것	보통	심각 할 것	5점 평균 (점)			
2015년	1,000	1.8	10.2	29.8	43.0	15.2	12.0	29.8	58.2	3.60	64.9		
2014년	1,000	0.0	6.9	25.9	45.4	21.8	6.9	25.9	67.2	3.82	70.5		
성별	남성	496	2.2	10.1	29.4	43.8	14.5	12.3	29.4	58.3	3.58	64.6	1.443
	여성	504	1.4	10.3	30.2	42.3	15.9	11.7	30.2	58.1	3.61	65.2	
연령	19세~29세	177	0.6	12.4	32.8	40.7	13.6	13.0	32.8	54.2	3.54	63.6	13.333
	30대	184	2.2	10.3	28.3	40.2	19.0	12.5	28.3	59.2	3.64	65.9	
	40대	212	0.9	10.8	27.8	46.2	14.2	11.8	27.8	60.4	3.62	65.4	
	50대	200	3.5	9.0	27.5	46.0	14.0	12.5	27.5	60.0	3.58	64.5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8	8.8	32.6	41.4	15.4	10.6	32.6	56.8	3.60	65.0	9.741
	대도시	459	2.4	12.0	28.8	40.5	16.3	14.4	28.8	56.9	3.56	64.1	
권역	중소도시	457	1.3	8.3	30.0	45.1	15.3	9.6	30.0	60.4	3.65	66.2	19.177 ***
	읍면	84	1.2	10.7	34.5	45.2	8.3	11.9	34.5	53.6	3.49	62.2	
	서울	203	3.0	15.8	22.2	37.4	21.7	18.7	22.2	59.1	3.59	64.8	
	인천/경기	290	1.7	6.2	26.2	47.2	18.6	7.9	26.2	65.9	3.75	68.7	
	대전/충청	103	3.9	14.6	32.0	38.8	10.7	18.4	32.0	49.5	3.38	59.5	
	광주/호남	102	0.0	6.9	56.9	35.3	1.0	6.9	56.9	36.3	3.30	57.6	
결혼 상태	대구/경북	102	1.0	7.8	21.6	45.1	24.5	8.8	21.6	69.6	3.84	71.1	9.570
	부산/울산/경남	159	0.0	11.3	36.5	49.1	3.1	11.3	36.5	52.2	3.44	61.0	
	강원/제주	41	4.9	9.8	14.6	41.5	29.3	14.6	14.6	70.7	3.80	70.1	
학력	미혼	238	0.8	11.3	32.4	40.3	15.1	12.2	32.4	55.5	3.58	64.4	12.065
	기혼	732	1.9	9.8	29.0	44.4	14.9	11.7	29.0	59.3	3.61	65.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10.0	30.0	30.0	23.3	16.7	30.0	53.3	3.53	63.3	
	초졸 이하	35	0.0	8.6	22.9	51.4	17.1	8.6	22.9	68.6	3.77	69.3	
	중졸	113	2.7	8.0	38.1	39.8	11.5	10.6	38.1	51.3	3.50	62.4	
국정 운영 평가	고졸	466	1.9	10.9	29.2	43.8	14.2	12.9	29.2	57.9	3.57	64.3	1.619
	대졸	371	1.6	9.7	28.8	42.0	17.8	11.3	28.8	59.8	3.65	66.2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0.0	26.7	46.7	6.7	20.0	26.7	53.3	3.40	60.0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1.7	9.5	29.8	43.6	15.3	11.3	29.8	58.9	3.61	65.3	8.004
	긍정	255	2.0	12.2	29.8	41.2	14.9	14.1	29.8	56.1	3.55	63.7	
	200만원 미만	130	3.1	11.5	30.0	34.6	20.8	14.6	30.0	55.4	3.58	64.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9	10.2	30.3	43.4	14.2	12.1	30.3	57.6	3.58	64.5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3	9.3	29.5	45.3	14.5	10.6	29.5	59.8	3.62	65.6	8.767
	무응답	5	0.0	40.0	0.0	40.0	20.0	40.0	0.0	60.0	3.40	60.0	
	진보	273	2.2	12.5	33.7	36.6	15.0	14.7	33.7	51.6	3.50	62.5	
계층 소속 감	중도	440	1.4	9.5	29.3	44.5	15.2	10.9	29.3	59.8	3.63	65.7	17.868
	보수	287	2.1	9.1	26.8	46.7	15.3	11.1	26.8	62.0	3.64	66.0	
	상상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3.50	62.5	
	상하	6	0.0	16.7	16.7	66.7	0.0	16.7	16.7	66.7	3.50	62.5	
	중상	198	1.5	12.1	27.3	47.0	12.1	13.6	27.3	59.1	3.56	64.0	
	중하	545	2.0	10.3	30.3	41.1	16.3	12.3	30.3	57.4	3.59	64.9	
계속 소속 감	하상	191	1.0	7.3	29.8	48.2	13.6	8.4	29.8	61.8	3.66	66.5	17.868
	하하	58	3.4	12.1	34.5	27.6	22.4	15.5	34.5	50.0	3.53	63.4	

(단위: %)

(2) 이념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과 마찬 가지 일 것이다	약간 심각 할 것이다	매우 심각 할 것이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심각 하지 않을 것	보통	심각 할 것				
2015년	1,000	0.9	9.4	25.8	41.1	22.8	10.3	25.8	63.9	3.76	68.9		
2014년	1,000	0.6	7.7	23.5	36.0	32.2	8.3	23.5	68.2	3.92	72.9		
성별	남성	496	1.0	11.1	25.8	39.3	22.8	12.1	25.8	62.1	3.72	67.9	3.877
	여성	504	0.8	7.7	25.8	42.9	22.8	8.5	25.8	65.7	3.79	69.8	
연령	19세~29세	177	0.6	7.9	26.6	44.6	20.3	8.5	26.6	65.0	3.76	69.1	12.297
	30대	184	0.5	10.3	25.5	35.9	27.7	10.9	25.5	63.6	3.80	70.0	
	40대	212	0.5	10.8	25.0	42.5	21.2	11.3	25.0	63.7	3.73	68.3	
	50대	200	2.0	11.0	23.5	42.0	21.5	13.0	23.5	63.5	3.70	67.5	
	60세 이상	227	0.9	7.0	28.2	40.5	23.3	7.9	28.2	63.9	3.78	69.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5	10.2	29.8	39.9	18.5	11.8	29.8	58.4	3.64	65.9	50.535 ***
	중소도시	457	0.4	5.9	22.1	42.5	29.1	6.3	22.1	71.6	3.94	73.5	
	읍면	84	0.0	23.8	23.8	40.5	11.9	23.8	23.8	52.4	3.40	60.1	
권역	서울	203	2.0	12.8	22.2	39.4	23.6	14.8	22.2	63.1	3.70	67.5	125.592 ***
	인천/경기	290	0.7	4.5	20.0	41.4	33.4	5.2	20.0	74.8	4.02	75.6	
	대전/충청	103	2.9	8.7	33.0	36.9	18.4	11.7	33.0	55.3	3.59	64.8	
	광주/호남	102	0.0	15.7	43.1	40.2	1.0	15.7	43.1	41.2	3.26	56.6	
	대구/경북	102	0.0	6.9	13.7	45.1	34.3	6.9	13.7	79.4	4.07	76.7	
	부산/울산/경남	159	0.0	11.3	37.1	43.4	8.2	11.3	37.1	51.6	3.48	62.1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12.2	9.8	41.5	36.6	12.2	9.8	78.0	4.02	75.6	2.935
	미혼	238	0.8	9.2	25.6	39.9	24.4	10.1	25.6	64.3	3.78	69.4	
	기혼	732	1.0	9.6	26.0	41.7	21.9	10.5	26.0	63.5	3.74	68.5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6.7	23.3	36.7	33.3	6.7	23.3	70.0	3.97	74.2	13.663
	초졸 이하	35	0.0	8.6	14.3	45.7	31.4	8.6	14.3	77.1	4.00	75.0	
	중졸	113	0.9	8.0	31.9	41.6	17.7	8.8	31.9	59.3	3.67	66.8	
	고졸	466	1.1	9.2	28.3	39.7	21.7	10.3	28.3	61.4	3.72	67.9	
	대졸	371	0.8	10.0	21.6	42.9	24.8	10.8	21.6	67.7	3.81	70.2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13.3	33.3	26.7	26.7	13.3	33.3	53.3	3.67	66.7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0.9	9.4	25.6	40.1	23.9	10.3	25.6	64.0	3.77	69.2	2.274
	긍정	255	0.8	9.4	26.3	43.9	19.6	10.2	26.3	63.5	3.72	68.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0.0	10.0	26.2	43.1	20.8	10.0	26.2	63.8	3.75	68.7	7.43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0	11.3	25.9	39.0	22.8	12.3	25.9	61.8	3.71	67.8	
	400만 원 이상	386	1.0	6.7	25.6	43.0	23.6	7.8	25.6	66.6	3.81	70.3	
	무응답	5	0.0	20.0	20.0	40.0	20.0	20.0	20.0	60.0	3.60	65.0	
이념 성향	진보	273	0.7	12.8	26.0	37.0	23.4	13.6	26.0	60.4	3.70	67.4	8.464
	중도	440	0.9	8.2	27.5	41.1	22.3	9.1	27.5	63.4	3.76	68.9	
	보수	287	1.0	8.0	23.0	44.9	23.0	9.1	23.0	67.9	3.81	70.2	
계 층 소 속 감	상상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3.50	62.5	34.002 *
	상하	6	16.7	0.0	0.0	66.7	16.7	16.7	0.0	83.3	3.67	66.7	
	중상	198	1.5	9.6	27.3	41.4	20.2	11.1	27.3	61.6	3.69	67.3	
	중하	545	0.6	9.9	24.0	39.8	25.7	10.5	24.0	65.5	3.80	70.0	
	하상	191	0.5	8.9	27.2	46.1	17.3	9.4	27.2	63.4	3.71	67.7	
	하하	58	1.7	6.9	34.5	32.8	24.1	8.6	34.5	56.9	3.71	67.7	

(단위: %)

(3) 세대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과 마찬 가지 일 것이다	약간 심각 할 것이다	매우 심각 할 것이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X ² -test	
							심각 하지 않을 것	보통	심각 할 것				
2015년	1,000	0.6	9.6	39.4	41.7	8.7	10.2	39.4	50.4	3.48	62.1		
2014년	1,000	0.6	8.6	40.3	39.7	10.8	9.2	40.3	50.5	3.52	62.9		
성별	남성	496	0.8	11.5	38.5	42.3	6.9	12.3	38.5	49.2	3.43	60.7	8.515
	여성	504	0.4	7.7	40.3	41.1	10.5	8.1	40.3	51.6	3.54	63.4	
연령	19세~29세	177	0.6	6.8	37.3	44.1	11.3	7.3	37.3	55.4	3.59	64.7	11.966
	30대	184	1.1	10.9	37.5	41.8	8.7	12.0	37.5	50.5	3.46	61.5	
	40대	212	0.0	9.9	40.6	41.5	8.0	9.9	40.6	49.5	3.48	61.9	
	50대	200	1.0	11.0	41.0	36.5	10.5	12.0	41.0	47.0	3.45	61.1	
	60세 이상	227	0.4	9.3	40.1	44.5	5.7	9.7	40.1	50.2	3.46	61.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0.7	13.1	37.5	39.2	9.6	13.7	37.5	48.8	3.44	61.0	19.885 *
	중소도시	457	0.7	5.5	42.5	43.5	7.9	6.1	42.5	51.4	3.53	63.1	
	읍면	84	0.0	13.1	33.3	45.2	8.3	13.1	33.3	53.6	3.49	62.2	
권역	서울	203	1.0	15.8	33.0	36.9	13.3	16.7	33.0	50.2	3.46	61.5	100.435 ***
	인천/경기	290	0.7	5.5	36.6	46.9	10.3	6.2	36.6	57.2	3.61	65.2	
	대전/충청	103	1.0	23.3	34.0	35.9	5.8	24.3	34.0	41.7	3.22	55.6	
	광주/호남	102	0.0	5.9	59.8	34.3	0.0	5.9	59.8	34.3	3.28	57.1	
	대구/경북	102	0.0	2.9	43.1	44.1	9.8	2.9	43.1	53.9	3.61	65.2	
	부산/울산/경남	159	0.0	6.9	45.3	44.7	3.1	6.9	45.3	47.8	3.44	61.0	
결혼 상태	미혼	238	0.8	8.0	33.2	45.8	12.2	8.8	33.2	65.9	3.73	65.1	18.507 *
	기혼	732	0.4	10.1	42.1	39.8	7.7	10.5	42.1	47.4	3.44	61.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10.0	23.3	56.7	6.7	13.3	23.3	63.3	3.53	63.3	
학력	초졸 이하	35	0.0	5.7	37.1	48.6	8.6	5.7	37.1	57.1	3.60	65.0	18.796
	중졸	113	0.0	10.6	43.4	44.2	1.8	10.6	43.4	46.0	3.37	59.3	
	고졸	466	0.6	9.0	41.0	41.6	7.7	9.7	41.0	49.4	3.47	61.7	
	대졸	371	0.8	10.8	36.1	40.2	12.1	11.6	36.1	52.3	3.52	63.0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46.7	46.7	6.7	0.0	46.7	53.3	3.60	65.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0.7	9.5	40.3	40.5	9.0	10.2	40.3	49.5	3.48	61.9	2.057
	긍정	255	0.4	9.8	36.9	45.1	7.8	10.2	36.9	52.9	3.50	62.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0.8	6.2	37.7	46.9	8.5	6.9	37.7	55.4	3.56	64.0	5.07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8	9.4	40.5	40.9	8.4	10.2	40.5	49.3	3.47	61.6	
	400만 원 이상	386	0.3	10.9	38.6	40.9	9.3	11.1	38.6	50.3	3.48	62.0	
	무응답	5	0.0	20.0	40.0	40.0	0.0	20.0	40.0	40.0	3.20	55.0	
이념 성향	진보	273	0.4	10.3	43.6	37.7	8.1	10.6	43.6	45.8	3.43	60.7	7.025
	중도	440	0.7	8.9	40.5	41.4	8.6	9.5	40.5	50.0	3.48	62.1	
	보수	287	0.7	10.1	33.8	46.0	9.4	10.8	33.8	55.4	3.53	63.3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50.0	0.0	50.0	0.0	50.0	0.0	50.0	3.00	50.0	22.830
	상하	6	0.0	0.0	16.7	83.3	0.0	0.0	16.7	83.3	3.83	70.8	
	중상	198	0.0	13.1	36.4	40.4	10.1	13.1	36.4	50.5	3.47	61.9	
	중하	545	0.7	9.5	40.2	40.6	9.0	10.3	40.2	49.5	3.48	61.9	
	하상	191	0.5	4.7	42.4	45.0	7.3	5.2	42.4	52.4	3.54	63.5	
	하하	58	1.7	13.8	36.2	41.4	6.9	15.5	36.2	48.3	3.38	59.5	

(단위: %)

(4) 남북 지역 간 갈등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과 마찬 가지 일 것이다	약간 심각 할 것이다	매우 심각 할 것이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심각 하지 않을 것	심각 할 것				
2015년		1,000	1.2	7.3	23.3	42.9	25.3	8.5	23.3	68.2	3.84	71.0	
2014년		1,000	0.4	12.4	28.1	41.6	17.5	12.8	28.1	59.1	3.63	65.9	
성별	남성	496	1.4	8.5	21.8	44.2	24.2	9.9	21.8	68.3	3.81	70.3	4.024
	여성	504	1.0	6.2	24.8	41.7	26.4	7.1	24.8	68.1	3.86	71.6	
연령	19세~29세	177	0.6	6.2	24.9	41.8	26.6	6.8	24.9	68.4	3.88	71.9	10.794
	30대	184	1.1	9.2	22.8	37.0	29.9	10.3	22.8	66.8	3.85	71.3	
	40대	212	0.9	6.1	25.0	44.8	23.1	7.1	25.0	67.9	3.83	70.8	
	50대	200	2.0	8.5	22.5	41.5	25.5	10.5	22.5	67.0	3.80	70.0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3	6.6	21.6	48.0	22.5	7.9	21.6	70.5	3.84	70.9	23.221 **
	대도시	459	2.0	10.2	20.7	42.5	24.6	12.2	20.7	67.1	3.78	69.4	
	중소도시	457	0.7	3.9	24.7	45.1	25.6	4.6	24.7	70.7	3.91	72.8	
권역	읍면	84	0.0	9.5	29.8	33.3	27.4	9.5	29.8	60.7	3.79	69.6	167.925 ***
	서울	203	2.5	10.3	19.7	38.4	29.1	12.8	19.7	67.5	3.81	70.3	
	인천/경기	290	1.0	3.1	19.3	47.6	29.0	4.1	19.3	76.6	4.00	75.1	
	대전/충청	103	2.9	6.8	29.1	36.9	24.3	9.7	29.1	61.2	3.73	68.2	
	광주/호남	102	0.0	11.8	51.0	35.3	2.0	11.8	51.0	37.3	3.27	56.9	
	대구/경북	102	0.0	3.9	7.8	37.3	51.0	3.9	7.8	88.2	4.35	83.8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0.0	10.1	29.6	51.6	8.8	10.1	29.6	60.4	3.59	64.8	4.288
	강원/제주	41	2.4	9.8	0.0	46.3	41.5	12.2	0.0	87.8	4.15	78.7	
	미혼	238	1.3	7.1	24.4	40.3	26.9	8.4	24.4	67.2	3.84	71.1	
학력	기혼	732	1.2	7.5	23.2	43.7	24.3	8.7	23.2	68.0	3.82	70.6	16.14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3.3	16.7	43.3	36.7	3.3	16.7	80.0	4.13	78.3	
	초졸 이하	35	0.0	0.0	17.1	45.7	37.1	0.0	17.1	82.9	4.20	80.0	
	중졸	113	1.8	8.0	19.5	48.7	22.1	9.7	19.5	70.8	3.81	70.4	
	고졸	466	1.7	7.5	24.2	43.3	23.2	9.2	24.2	66.5	3.79	69.7	
국정 운영 평가	대졸	371	0.5	7.3	24.5	40.2	27.5	7.8	24.5	67.7	3.87	71.7	5.651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13.3	6.7	46.7	33.3	13.3	6.7	80.0	4.00	75.0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1.1	7.8	24.6	42.7	23.9	8.9	24.6	66.6	3.81	70.1	9.393
	긍정	255	1.6	5.9	19.6	43.5	29.4	7.5	19.6	72.9	3.93	73.3	
	200만원 미만	130	0.8	7.7	17.7	39.2	34.6	8.5	17.7	73.8	3.99	74.8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3	7.3	23.8	42.2	25.5	8.6	23.8	67.6	3.83	70.8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3	7.0	24.6	45.1	22.0	8.3	24.6	67.1	3.80	69.9	15.339
	무응답	5	0.0	20.0	20.0	40.0	20.0	20.0	20.0	60.0	3.60	65.0	
	진보	273	1.5	11.0	25.6	37.4	24.5	12.5	25.6	61.9	3.73	68.1	
계층 소속 감	중도	440	0.9	5.9	25.0	43.6	24.5	6.8	25.0	68.2	3.85	71.3	25.729
	보수	287	1.4	5.9	18.5	47.0	27.2	7.3	18.5	74.2	3.93	73.2	
	상상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3.50	62.5	
	상하	6	0.0	0.0	33.3	66.7	0.0	0.0	33.3	66.7	3.67	66.7	
	중상	198	1.5	10.1	24.2	39.4	24.7	11.6	24.2	64.1	3.76	68.9	
	중하	545	0.9	6.1	22.4	44.6	26.1	7.0	22.4	70.6	3.89	72.2	
	하상	191	1.0	5.8	27.2	44.0	22.0	6.8	27.2	66.0	3.80	70.0	69.8
	하하	58	3.4	15.5	13.8	32.8	34.5	19.0	13.8	67.2	3.79	69.8	

문12) 현재 한국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적이지 않다’가 0점, ‘매우 민주적이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사례 수 (명)	민주적이지 않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민주적이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7	0.9	2.4	6.3	5.5	14.3	16.0	24.3	20.8	8.2	0.6	6.30	
성별	남성	496	0.8	1.2	3.0	6.5	5.6	13.7	15.3	24.6	19.0	9.3	1.0	6.27	9.170
	여성	504	0.6	0.6	1.8	6.2	5.4	14.9	16.7	24.0	22.6	7.1	0.2	6.34	
연령	19세~29세	177	1.1	1.1	5.1	9.0	7.9	13.0	16.9	20.3	16.9	7.9	0.6	5.92	46.252
	30대	184	1.6	1.6	3.3	8.7	6.5	15.8	13.6	25.5	16.8	6.5	0.0	5.93	
	40대	212	0.5	0.9	2.4	7.5	4.2	13.2	18.9	22.2	21.2	8.0	0.9	6.31	
	50대	200	0.5	0.5	1.5	4.5	5.5	13.5	17.0	24.0	23.5	8.5	1.0	6.51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0	0.4	0.4	2.6	4.0	15.9	13.7	28.6	24.2	9.7	0.4	6.72	61.972 ***
	대도시	459	0.7	0.9	2.2	8.5	6.8	19.8	16.8	21.6	17.4	4.4	1.1	5.98	
권역	중소도시	457	0.7	0.7	2.4	5.0	4.4	9.6	15.1	27.4	22.5	12.0	0.2	6.59	203.649 ***
	읍면	84	1.2	2.4	3.6	1.2	4.8	9.5	16.7	22.6	29.8	8.3	0.0	6.51	
	서울	203	0.5	1.5	3.0	13.3	7.9	27.1	16.3	19.7	6.9	3.0	1.0	5.41	
	인천/경기	290	0.7	0.7	1.0	4.8	5.9	11.7	16.9	23.4	19.0	15.5	0.3	6.60	
	대전/충청	103	3.9	1.0	2.9	6.8	3.9	12.6	16.5	23.3	22.3	6.8	0.0	6.08	
	광주/호남	102	0.0	0.0	2.9	2.9	4.9	7.8	17.6	24.5	33.3	5.9	0.0	6.71	
결혼 상태	대구/경북	102	0.0	1.0	4.9	5.9	6.9	19.6	11.8	25.5	18.6	4.9	1.0	6.06	38.660 **
	부산/울산/경남	159	0.0	0.6	0.0	1.3	1.3	5.7	14.5	32.7	36.5	6.9	0.6	7.14	
	강원/제주	41	0.0	2.4	9.8	9.8	9.8	9.8	19.5	19.5	12.2	4.9	2.4	5.59	
	미혼	238	1.7	0.4	5.0	9.7	8.4	13.0	16.4	21.8	13.9	8.8	0.8	5.88	
학력	기혼	732	0.4	1.0	1.6	5.1	4.6	14.8	16.0	24.7	23.2	8.1	0.5	6.45	66.823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3.3	0.0	10.0	3.3	13.3	13.3	33.3	16.7	6.7	0.0	6.20	
	초졸 이하	35	0.0	0.0	0.0	0.0	0.0	14.3	5.7	34.3	25.7	20.0	0.0	7.31	
	중졸	113	0.0	0.0	0.9	0.9	3.5	10.6	17.7	23.9	26.5	14.2	1.8	7.03	
	고졸	466	0.4	1.3	2.4	5.2	4.9	16.3	16.5	24.2	21.9	6.7	0.2	6.29	
국정 운영 평가	대출	371	1.3	0.8	3.2	10.0	7.5	12.1	15.9	23.5	17.3	7.5	0.8	6.02	50.618 ***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6.7	0.0	33.3	13.3	26.7	20.0	0.0	0.0	6.13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0.9	0.9	3.1	8.1	6.6	15.3	16.1	22.6	19.7	6.3	0.4	6.07	18.219
	긍정	255	0.0	0.8	0.4	1.2	2.4	11.4	15.7	29.4	23.9	13.7	1.2	6.98	
	200만원 미만	130	0.0	0.8	2.3	6.2	4.6	19.2	13.1	17.7	25.4	10.0	0.8	6.4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0	1.0	2.3	6.3	5.4	12.9	15.4	26.3	21.9	6.5	0.8	6.30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0.5	0.5	2.3	6.2	6.0	14.0	17.9	24.4	18.1	9.8	0.3	6.32	22.684
	무응답	5	0.0	20.0	20.0	20.0	0.0	40.0	0.0	0.0	0.0	0.0	0.0	3.20	
계층 소속감	진보	273	0.7	0.7	3.7	7.0	4.8	16.5	15.4	25.3	18.3	7.3	0.4	6.16	61.847
	중도	440	1.1	1.1	2.0	7.0	6.6	13.9	16.8	24.3	19.8	7.0	0.2	6.17	
	보수	287	0.0	0.7	1.7	4.5	4.5	12.9	15.3	23.3	24.7	10.8	1.4	6.65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8.00	
계속 속감	상하	6	0.0	16.7	0.0	16.7	0.0	16.7	16.7	33.3	0.0	0.0	0.0	4.83	61.847
	중상	198	0.5	1.5	2.0	9.1	5.1	14.6	14.1	20.2	23.2	9.1	0.5	6.25	
	중하	545	0.9	0.4	2.4	5.0	5.5	15.4	16.9	24.6	19.1	9.4	0.6	6.35	
	하하	191	0.5	1.0	2.6	5.2	7.3	8.4	15.7	28.8	24.6	5.2	0.5	6.38	
	하하	58	0.0	1.7	3.4	12.1	1.7	22.4	15.5	19.0	19.0	3.4	1.7	5.90	

문13) 귀하는 다음의 진술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가 전혀 아니다’가 0점,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이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1)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사례수 (명)	민주주의 기본요소가 아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민주주의 기본요소이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1	0.6	1.0	1.9	3.0	12.3	13.2	26.9	23.7	10.4	6.9	7.02	
성별	남성	496	0.0	0.4	0.8	1.8	1.8	12.5	11.5	28.0	22.8	12.5	7.9	7.16	15.151
	여성	504	0.2	0.8	1.2	2.0	4.2	12.1	14.9	25.8	24.6	8.3	6.0	6.88	
연령	19세~29세	177	0.0	1.1	1.1	2.8	3.4	14.1	15.8	27.1	19.2	8.5	6.8	6.79	44.778
	30대	184	0.5	0.5	2.7	1.6	3.3	16.3	15.8	23.4	20.7	7.6	7.6	6.73	
	40대	212	0.0	0.5	0.5	0.9	2.8	8.5	13.2	25.0	27.8	14.2	6.6	7.28	
	50대	200	0.0	1.0	0.5	3.5	2.5	8.5	11.5	28.5	25.0	11.0	8.0	7.13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0	0.0	0.4	0.9	3.1	14.5	10.6	30.0	24.7	10.1	5.7	7.07	63.534 ***
	대도시	459	0.2	1.1	0.9	1.7	3.5	15.0	10.2	21.1	22.0	13.9	10.2	7.10	
	중소도시	457	0.0	0.0	1.3	2.4	3.1	10.1	16.6	30.4	24.5	7.4	4.2	6.90	
권역	읍면	84	0.0	1.2	0.0	0.0	0.0	9.5	10.7	39.3	28.6	7.1	3.6	7.17	196.164 ***
	서울	203	0.5	1.5	1.5	2.0	5.4	17.7	11.8	16.3	17.2	14.3	11.8	6.90	
	인천/경기	290	0.0	0.3	0.3	1.7	3.1	10.3	17.2	35.9	17.2	8.6	5.2	6.92	
	대전/충청	103	0.0	1.0	1.9	1.9	6.8	18.4	14.6	15.5	25.2	7.8	6.8	6.66	
	광주/호남	102	0.0	0.0	0.0	0.0	2.0	3.9	9.8	37.3	44.1	2.9	0.0	7.26	
결혼 상태	대구/경북	102	0.0	0.0	0.0	2.9	0.0	22.5	10.8	24.5	18.6	9.8	10.8	7.03	16.067
	부산/울산/경남	159	0.0	0.6	1.9	0.6	0.6	5.0	13.2	29.6	32.1	13.8	2.5	7.26	
	강원/제주	41	0.0	0.0	2.4	9.8	0.0	7.3	2.4	14.6	26.8	17.1	19.5	7.51	
학력	미혼	238	0.0	0.8	1.3	2.5	1.7	12.6	15.5	26.9	19.7	10.9	8.0	6.98	28.836
	기혼	732	0.1	0.5	1.0	1.8	3.4	12.3	12.3	27.2	25.3	10.0	6.1	7.0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0.0	3.3	10.0	16.7	20.0	16.7	16.7	16.7	7.53	
	초졸 이하	35	0.0	0.0	0.0	2.9	2.9	5.7	17.1	28.6	20.0	17.1	5.7	7.23	
국정 운영 평가	중졸	113	0.0	0.0	0.9	0.0	4.4	13.3	9.7	29.2	26.5	8.8	7.1	7.12	7.137
	고졸	466	0.2	0.9	0.9	2.1	2.8	12.9	13.1	28.1	25.5	8.4	5.2	6.91	
	대졸	371	0.0	0.5	1.3	2.2	3.0	11.9	13.7	25.3	20.8	12.4	8.9	7.07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0.0	13.3	20.0	6.7	26.7	20.0	13.3	7.60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0.1	0.8	1.1	2.1	3.0	12.2	12.6	27.9	22.8	10.7	6.6	6.98	34.898 *
	긍정	255	0.0	0.0	0.8	1.2	3.1	12.5	14.9	23.9	26.3	9.4	7.8	7.11	
	200만원 미만	130	0.0	0.0	0.8	2.3	4.6	12.3	11.5	20.8	23.1	10.8	13.8	7.23	
이념 성향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1.3	1.5	1.7	3.1	12.5	14.6	27.3	22.8	8.1	6.9	6.88	39.884 **
	400만 원 이상	386	0.0	0.0	0.5	1.8	2.3	11.9	11.9	28.8	25.4	13.2	4.1	7.12	
	무응답	5	0.0	0.0	0.0	20.0	0.0	20.0	20.0	0.0	0.0	0.0	40.0	6.80	
	진보	273	0.4	0.7	1.5	1.5	4.4	11.0	8.8	31.1	24.9	7.7	8.1	7.00	
계층 소속감	중도	440	0.0	0.2	0.9	0.9	2.5	11.4	16.6	24.8	22.3	12.0	8.4	7.15	149.894
	보수	287	0.0	1.0	0.7	3.8	2.4	15.0	12.2	26.1	24.7	10.5	3.5	6.82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8.00	
	상하	6	0.0	0.0	0.0	0.0	0.0	16.7	33.3	16.7	16.7	16.7	0.0	6.83	
	중상	198	0.0	0.0	1.0	3.0	2.0	14.6	10.6	22.2	25.3	13.1	8.1	7.13	
계층 소속감	중하	545	0.2	0.7	0.9	1.7	3.3	9.4	14.7	30.3	22.4	10.3	6.2	7.01	149.894
	하상	191	0.0	1.0	1.0	1.0	2.1	17.8	11.5	25.1	26.7	8.4	5.2	6.90	
	하하	58	0.0	0.0	1.7	3.4	6.9	13.8	12.1	19.0	19.0	8.6	15.5	7.00	

(단위: %)

(2)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례수 (명)	민주주의 기본 요소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 요소이다	10점 평균(점)	χ^2 -test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2015년		1,000	0.3	0.4	1.1	2.3	4.3	8.4	14.3	23.4	23.8	13.3	8.4	7.12	
성별	남성	496	0.0	0.4	0.8	2.8	3.6	7.7	12.9	22.2	25.8	14.5	9.3	7.26	12.187
	여성	504	0.6	0.4	1.4	1.8	5.0	9.1	15.7	24.6	21.8	12.1	7.5	6.99	
연령	19세~29세	177	0.0	0.6	1.7	1.7	6.8	9.6	15.3	27.1	18.1	12.4	6.8	6.90	40.532
	30대	184	0.5	0.5	1.1	2.7	4.3	11.4	17.4	23.4	21.2	8.2	9.2	6.89	
	40대	212	0.0	0.5	1.4	2.8	1.9	6.6	12.3	23.1	26.4	17.5	7.5	7.32	
	50대	200	1.0	0.5	0.5	2.5	5.0	6.0	14.5	22.5	21.5	15.0	11.0	7.21	
	60세 이상	227	0.0	0.0	0.9	1.8	4.0	8.8	12.8	21.6	30.0	12.8	7.5	7.2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0.4	0.7	1.1	2.6	7.0	7.6	13.7	20.3	21.6	14.4	10.7	7.10	41.368 **
	중소도시	457	0.0	0.0	1.3	2.4	2.2	9.6	14.7	26.3	24.5	12.9	6.1	7.12	
	읍면	84	1.2	1.2	0.0	0.0	1.2	6.0	15.5	25.0	32.1	9.5	8.3	7.30	
권역	서울	203	0.5	1.5	1.5	4.4	9.4	9.4	13.8	14.8	20.7	13.3	10.8	6.82	23.425 ***
	인천/경기	290	0.0	0.0	0.7	1.7	4.5	9.7	15.5	27.6	26.9	7.6	5.9	7.01	
	대전/충청	103	1.0	1.0	1.0	2.9	7.8	10.7	25.2	20.4	17.5	5.8	6.8	6.50	
	광주/호남	102	0.0	0.0	0.0	1.0	0.0	1.0	10.8	29.4	31.4	25.5	1.0	7.69	
	대구/경북	102	0.0	0.0	1.0	2.0	2.0	18.6	14.7	14.7	15.7	10.8	20.6	7.28	
	부산/울산/경남	159	0.6	0.0	0.0	0.0	0.0	3.8	9.4	33.3	27.0	21.4	4.4	7.62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0.0	9.8	7.3	2.4	0.0	7.3	12.2	22.0	17.1	22.0	7.29	15.942
	미혼	238	0.0	0.8	0.4	1.7	4.6	6.7	16.0	26.1	20.2	15.5	8.0	7.18	
	기혼	732	0.4	0.3	1.2	2.6	4.2	9.0	13.8	22.4	25.0	12.8	8.2	7.10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3.3	0.0	3.3	6.7	13.3	26.7	23.3	6.7	16.7	7.33	43.489
	초졸 이하	35	0.0	0.0	2.9	2.9	0.0	11.4	11.4	17.1	25.7	11.4	17.1	7.40	
	중졸	113	0.0	0.0	1.8	1.8	1.8	6.2	13.3	23.9	29.2	9.7	12.4	7.39	
	고졸	466	0.4	0.6	0.4	1.7	6.2	7.9	12.7	24.2	24.0	15.2	6.4	7.11	
	대졸	371	0.3	0.3	1.3	3.2	3.2	9.2	17.3	22.6	21.8	12.4	8.4	7.03	
국정 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6.7	0.0	0.0	13.3	6.7	26.7	20.0	6.7	20.0	7.27	13.000
	부정	745	0.3	0.5	1.2	2.7	3.9	7.2	14.8	24.8	23.1	13.2	8.3	7.12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0.4	0.0	0.8	1.2	5.5	11.8	12.9	19.2	25.9	13.7	8.6	7.15	52.351 ***
	200만원 미만	130	0.0	0.0	3.1	3.1	2.3	8.5	13.1	14.6	18.5	17.7	19.2	7.4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4	0.8	0.8	2.1	5.4	7.7	13.6	26.9	24.0	10.9	7.3	7.02	
	400만 원 이상	386	0.3	0.0	0.8	2.3	3.6	9.3	15.3	22.3	25.6	15.0	5.4	7.12	
이념 성향	무응답	5	0.0	0.0	0.0	0.0	0.0	0.0	40.0	0.0	0.0	0.0	60.0	8.40	17.243
	진보	273	0.4	0.4	1.1	3.7	3.7	8.4	15.8	21.2	24.2	12.5	8.8	7.07	
	중도 보수	287	0.3	0.7	1.7	1.7	6.6	9.8	13.2	22.6	24.4	10.8	8.0	6.95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9.00	50.498
	상하	6	0.0	0.0	0.0	0.0	16.7	16.7	0.0	33.3	16.7	0.0	16.7	6.83	
	중상	198	0.5	0.0	1.0	2.5	4.0	9.1	12.6	22.2	20.7	17.7	9.6	7.23	
	중하	545	0.4	0.4	1.1	2.4	3.3	9.5	16.5	23.9	23.9	11.4	7.3	7.03	
	하상	191	0.0	1.0	1.0	1.0	6.8	5.2	11.5	25.1	28.3	13.6	6.3	7.16	
하하	58	0.0	0.0	1.7	5.2	5.2	5.2	10.3	17.2	19.0	17.2	19.0	7.45		

(단위: %)

(3)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사례수 (명)	민주주의 기본 요소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 요소이다	10점 평균 (점)	총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2015년		1,000	0.1	0.5	0.5	1.2	1.9	5.7	6.4	18.1	26.2	20.6	18.8	7.89		
성별	남성	496	0.0	0.6	0.8	1.0	1.6	6.0	6.7	15.5	26.0	22.4	19.4	7.94	9,381	
	여성	504	0.2	0.4	0.2	1.4	2.2	5.4	6.2	20.6	26.4	18.8	18.3	7.85		
연령	19세 ~29세	177	0.0	0.6	0.0	2.3	2.8	10.2	8.5	15.8	23.7	21.5	14.7	7.61	61,903 *	
	30대	184	0.5	0.5	0.5	1.6	4.3	7.1	6.5	20.7	24.5	16.8	16.8	7.59		
	40대	212	0.0	0.5	0.5	0.9	1.4	2.8	5.2	17.9	27.4	23.6	19.8	8.10		
	50대	200	0.0	0.5	1.5	0.5	1.5	4.0	7.5	14.0	22.5	20.5	27.5	8.14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0	0.4	0.0	0.9	0.0	5.3	4.8	21.6	31.7	20.3	15.0	7.96	46,122 **	
	대도시	459	0.2	0.9	1.1	1.7	3.5	8.3	7.4	15.7	22.7	19.6	19.0	7.65		
	중소도시	457	0.0	0.0	0.0	0.7	0.7	3.5	5.7	20.1	30.2	21.4	17.7	8.09		
권역	읍면	84	0.0	1.2	0.0	1.2	0.0	3.6	4.8	20.2	23.8	21.4	23.8	8.14	170,038 ***	
	서울	203	0.5	2.0	1.5	2.0	4.9	9.4	6.9	12.8	19.7	18.7	21.7	7.51		
	인천/경기	290	0.0	0.0	0.3	1.4	2.1	6.2	5.9	21.4	31.4	17.9	13.4	7.76		
	대전/충청	103	0.0	1.0	1.0	1.0	1.0	4.9	2.9	6.8	24.3	16.5	40.8	8.50		
	광주/호남	102	0.0	0.0	0.0	1.0	2.0	2.9	12.7	27.5	23.5	29.4	1.0	7.57		
	대구/경북	102	0.0	0.0	0.0	2.0	0.0	7.8	1.0	20.6	18.6	24.5	25.5	8.20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0.0	0.0	0.0	1.9	9.4	18.9	32.7	23.9	13.2	8.07	14,788	
	강원/제주	41	0.0	0.0	0.0	0.0	0.0	2.4	2.4	17.1	26.8	14.6	36.6	8.59		
	미혼	238	0.0	0.8	0.0	1.3	1.7	7.1	7.6	15.5	28.6	21.8	15.5	7.82		
학력	기혼	732	0.1	0.4	0.7	1.2	2.0	5.3	6.3	18.9	25.5	20.2	19.3	7.89	35,433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0.0	0.0	3.3	0.0	20.0	23.3	20.0	33.3	8.57		
	초졸 이하	35	0.0	0.0	0.0	0.0	0.0	0.0	0.0	0.0	22.9	25.7	28.6	22.9		8.51
	중졸	113	0.0	0.9	0.0	0.9	0.0	3.5	6.2	18.6	31.9	16.8	21.2	8.07		
	고졸	466	0.2	0.6	0.4	1.3	2.4	6.2	7.3	18.5	25.5	21.0	16.5	7.78		
국정 운영 평가	대졸	371	0.0	0.3	0.5	1.3	2.2	6.2	5.7	16.7	25.9	20.5	20.8	7.95	16,366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6.7	0.0	0.0	6.7	13.3	26.7	13.3	20.0	13.3	7.33		
	부정	745	0.1	0.5	0.5	0.9	1.3	5.8	6.7	18.9	27.9	20.0	17.2	7.87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0.0	0.4	0.4	2.0	3.5	5.5	5.5	15.7	21.2	22.4	23.5	7.97	34,535 *	
	200만원 미만	130	0.0	0.8	0.8	1.5	1.5	3.8	4.6	13.8	17.7	23.8	31.5	8.28		
	200만원 ~400만원 미만	479	0.2	0.8	0.4	1.3	2.5	6.1	7.3	19.0	28.8	17.1	16.5	7.72		
	400만 원 이상	386	0.0	0.0	0.5	1.0	1.3	5.7	5.7	18.7	26.2	24.1	16.8	7.97		
이념 성향	무응답	5	0.0	0.0	0.0	0.0	0.0	20.0	20.0	0.0	0.0	0.0	60.0	8.20	29,010	
	진보	273	0.4	0.4	1.1	1.1	3.7	6.2	7.3	19.0	27.5	16.8	16.5	7.65		
	중도	440	0.0	0.2	0.5	0.7	0.5	6.1	6.4	19.1	26.1	22.0	18.4	7.99		
계층 소속감	보수	287	0.0	1.0	0.0	2.1	2.4	4.5	5.6	15.7	25.1	22.0	21.6	7.97	55,919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9.50		
	상하	6	0.0	0.0	0.0	0.0	0.0	0.0	0.0	33.3	50.0	0.0	16.7	8.00		
	중상	198	0.0	0.0	0.0	1.0	2.0	5.1	6.1	18.2	21.7	23.7	22.2	8.10		
	중하	545	0.2	0.4	0.2	1.3	2.0	6.6	6.4	18.3	26.6	21.1	16.9	7.84		
	하상	191	0.0	1.0	1.6	0.5	1.6	3.7	8.4	16.8	34.6	16.2	15.7	7.77		
하하	58	0.0	1.7	1.7	3.4	1.7	6.9	1.7	19.0	8.6	20.7	34.5	8.00			

(단위: %)

(4) 정부는 세금을 낭비해서 는 안 된다		사례수 (명)	민주 주의 기본 요소가 아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민주 주의 기본 요소 이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0	0.6	0.7	1.5	1.8	4.7	5.5	13.9	23.0	24.4	23.9	8.10	
성별	남성	496	0.0	0.6	0.8	1.8	2.0	4.4	4.4	12.7	23.2	24.6	25.4	8.14	5.216
	여성	504	0.0	0.6	0.6	1.2	1.6	5.0	6.5	15.1	22.8	24.2	22.4	8.06	
연령	19세~29세	177	0.0	0.6	0.6	1.7	2.3	9.0	5.6	11.9	24.9	22.0	21.5	7.90	41.066
	30대	184	0.0	0.0	0.5	1.1	4.3	5.4	6.0	15.2	22.3	21.7	23.4	7.99	
	40대	212	0.0	1.4	0.5	0.9	0.0	2.4	5.7	11.3	22.6	29.7	25.5	8.33	
	50대	200	0.0	0.5	1.0	2.5	1.0	4.0	6.5	12.5	22.0	22.5	27.5	8.14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0	0.4	0.9	1.3	1.8	3.5	4.0	18.1	23.3	25.1	21.6	8.10	91.666 ***
	대도시	459	0.0	0.9	1.1	3.3	3.1	7.4	7.6	12.2	18.5	19.8	26.1	7.81	
	중소도시	457	0.0	0.0	0.2	0.0	0.7	2.2	2.6	15.1	29.5	28.7	21.0	8.40	
권역	읍면	84	0.0	2.4	1.2	0.0	1.2	3.6	9.5	16.7	11.9	26.2	27.4	8.06	208.866 ***
	서울	203	0.0	1.0	1.5	3.9	5.4	9.4	5.4	6.4	16.3	18.2	32.5	7.81	
	인천/경기	290	0.0	0.0	1.0	1.7	0.3	4.5	5.2	15.5	25.9	29.3	16.6	8.07	
	대전/충청	103	0.0	1.9	0.0	1.9	1.9	4.9	1.0	5.8	17.5	22.3	42.7	8.54	
	광주/호남	102	0.0	0.0	1.0	0.0	2.9	2.0	10.8	32.4	36.3	11.8	2.9	7.40	
	대구/경북	102	0.0	1.0	0.0	0.0	1.0	5.9	2.9	11.8	22.5	24.5	30.4	8.39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0.0	0.6	0.0	0.0	0.0	0.6	7.5	16.4	24.5	32.1	18.2	8.31	20.409
	강원/제주	41	0.0	0.0	0.0	0.0	0.0	2.4	4.9	9.8	12.2	26.8	43.9	8.88	
	미혼	238	0.0	0.4	0.8	0.8	2.1	7.6	4.2	11.3	23.5	27.3	21.8	8.08	
학력	기혼	732	0.0	0.7	0.7	1.8	1.8	4.0	5.9	14.8	23.4	23.4	23.8	8.08	36.756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0.0	0.0	0.0	6.7	13.3	10.0	26.7	43.3	8.87	
	초졸 이하	35	0.0	0.0	0.0	0.0	0.0	0.0	2.9	11.4	20.0	34.3	31.4	8.80	
	중졸	113	0.0	0.9	0.0	0.9	0.9	4.4	7.1	19.5	23.9	18.6	23.9	8.05	
	고졸	466	0.0	0.4	1.3	2.6	1.7	4.7	6.4	14.6	22.3	24.5	21.5	7.95	
국정 운영 평가	대졸	371	0.0	0.8	0.3	0.5	2.4	4.9	3.8	11.6	24.3	24.8	26.7	8.25	13.333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0.0	13.3	13.3	13.3	13.3	33.3	13.3	7.80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0.0	0.5	0.5	1.2	2.0	4.6	5.4	15.2	24.4	23.9	22.3	8.08	20.465
	긍정	255	0.0	0.8	1.2	2.4	1.2	5.1	5.9	10.2	18.8	25.9	28.6	8.17	
	200만원 미만	130	0.0	0.8	0.0	2.3	1.5	4.6	6.9	11.5	16.9	23.8	31.5	8.2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0	1.0	0.8	2.1	2.3	5.2	5.6	13.6	23.2	23.6	22.5	7.96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0.0	0.0	0.8	0.5	1.3	4.1	4.4	15.3	25.1	25.9	22.5	8.22	43.496 **
	무응답	5	0.0	0.0	0.0	0.0	0.0	0.0	40.0	0.0	0.0	0.0	60.0	8.40	
	진보	273	0.0	0.4	1.5	2.2	2.6	6.2	4.8	19.4	24.9	16.1	22.0	7.80	
계층 소속 감	중도	440	0.0	0.2	0.2	0.7	0.9	3.4	5.7	14.1	23.4	26.6	24.8	8.30	45.260
	보수	287	0.0	1.4	0.7	2.1	2.4	5.2	5.9	8.4	20.6	28.9	24.4	8.08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상하	6	0.0	0.0	0.0	0.0	0.0	0.0	0.0	16.7	16.7	16.7	50.0	9.00	
	중상	198	0.0	0.0	0.0	0.5	1.5	5.6	2.5	15.7	22.2	23.2	28.8	8.35	
	중하	545	0.0	0.7	0.9	1.1	2.4	4.4	6.2	13.0	25.3	24.4	21.5	8.03	
계층 소속 감	하상	191	0.0	1.0	0.5	3.1	0.5	3.1	5.8	15.7	20.9	26.7	22.5	8.07	45.260
	하하	58	0.0	0.0	1.7	3.4	1.7	10.3	8.6	10.3	12.1	22.4	29.3	7.88	

(단위: %)

(5) 언론은 정부가 하는 일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사례수 (명)	민주주의 기본 요소가 아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민주주의 기본 요소가 있다	10점 평균 (점)	표준 편차
2015년		1,000	0.1	0.6	0.7	1.6	2.4	8.0	6.4	16.8	20.0	25.8	17.6	7.81	
성별	남성	496	0.0	0.8	0.8	2.0	1.8	8.1	5.8	15.9	18.8	29.2	16.7	7.83	10.921
	여성	504	0.2	0.4	0.6	1.2	3.0	7.9	6.9	17.7	21.2	22.4	18.5	7.78	
연령	19세~29세	177	0.0	0.6	1.1	2.8	0.6	9.6	8.5	13.6	18.1	22.0	23.2	7.82	53.031
	30대	184	0.0	1.6	0.0	2.7	4.9	8.7	4.9	16.3	21.2	21.2	18.5	7.61	
	40대	212	0.0	0.0	0.9	0.9	1.4	6.1	6.1	16.5	17.0	32.5	18.4	8.06	
	50대	200	0.5	1.0	1.0	1.5	2.0	7.5	6.0	18.0	17.0	29.0	16.5	7.77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0	0.0	0.4	0.4	3.1	8.4	6.6	18.9	26.0	23.3	12.8	7.74	91.949 ***
	대도시	459	0.2	0.9	1.3	2.2	2.4	12.4	8.3	17.9	19.0	17.6	17.9	7.46	
	중소도시	457	0.0	0.2	0.0	1.1	2.6	3.3	3.1	14.4	22.1	35.4	17.7	8.23	
권역	읍면	84	0.0	1.2	1.2	1.2	1.2	9.5	14.3	23.8	14.3	17.9	15.5	7.42	216.786 ***
	서울	203	0.0	2.0	1.5	3.4	4.4	12.8	7.9	11.8	14.8	18.2	23.2	7.41	
	인천/경기	290	0.0	0.3	1.0	1.0	2.4	7.6	5.9	10.0	21.0	33.1	17.6	8.00	
	대전/충청	103	0.0	1.0	0.0	1.0	4.9	14.6	6.8	19.4	20.4	17.5	14.6	7.39	
	광주/호남	102	0.0	0.0	0.0	2.9	1.0	2.0	8.8	39.2	27.5	18.6	0.0	7.37	
	대구/경북	102	0.0	0.0	0.0	0.0	1.0	3.9	2.0	10.8	12.7	31.4	38.2	8.77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0.6	0.0	0.0	0.6	0.0	5.7	6.9	25.2	25.8	29.6	5.7	7.77	18.700
	강원/제주	41	0.0	0.0	2.4	2.4	2.4	4.9	4.9	9.8	14.6	22.0	36.6	8.24	
	미혼	238	0.0	0.8	0.4	2.1	0.4	9.2	7.6	14.7	18.5	24.8	21.4	7.89	
학력	기혼	732	0.1	0.5	0.8	1.5	3.0	7.5	6.3	17.5	20.8	26.1	15.8	7.76	59.031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0.0	3.3	10.0	0.0	16.7	13.3	26.7	30.0	8.27	
	초졸 이하	35	0.0	0.0	0.0	0.0	5.7	2.9	2.9	8.6	28.6	37.1	14.3	8.20	
	중졸	113	0.0	0.0	0.9	1.8	3.5	9.7	10.6	25.7	19.5	15.9	12.4	7.36	
	고졸	466	0.2	0.6	1.1	1.9	2.4	9.0	7.1	13.9	20.8	28.1	14.8	7.71	
국정 운영 평가	대졸	371	0.0	0.5	0.3	1.3	1.9	7.0	4.6	18.3	17.8	25.1	23.2	8.03	12.204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6.7	0.0	0.0	0.0	0.0	6.7	20.0	33.3	20.0	13.3	7.67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0.1	0.8	0.7	1.3	2.0	7.1	5.9	17.7	20.8	25.5	18.0	7.85	28.022
	긍정	255	0.0	0.0	0.8	2.4	3.5	10.6	7.8	14.1	17.6	26.7	16.5	7.67	
	200만원 미만	130	0.0	0.8	0.0	1.5	3.1	9.2	9.2	11.5	16.9	23.8	23.8	7.88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0.8	1.3	2.5	2.9	8.1	7.1	16.7	19.0	25.9	15.4	7.62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0.0	0.3	0.3	0.5	1.6	7.3	4.4	18.7	22.5	26.7	17.9	8.01	24.378
	무응답	5	0.0	0.0	0.0	0.0	0.0	20.0	20.0	20.0	0.0	0.0	40.0	7.60	
	진보	273	0.0	1.1	0.7	2.6	3.3	7.7	8.1	20.5	17.6	22.7	15.8	7.56	
계층 소속 감	중도	440	0.0	0.5	0.5	0.7	1.4	8.0	5.9	17.3	21.4	27.5	17.0	7.94	54.161
	보수	287	0.3	0.3	1.0	2.1	3.1	8.4	5.6	12.5	20.2	26.1	20.2	7.83	
	상상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7.50	
	상하	6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8.50	
	중상	198	0.0	0.0	0.0	1.5	2.0	8.1	3.0	17.2	24.2	26.8	17.2	7.98	
	중하	545	0.2	0.9	0.6	1.7	2.4	7.3	7.2	16.7	19.1	26.4	17.6	7.80	
계층 소속 감	하상	191	0.0	0.5	1.6	1.0	2.6	9.9	5.2	19.4	22.0	23.0	14.7	7.64	54.161
	하하	58	0.0	0.0	1.7	3.4	3.4	8.6	13.8	5.2	10.3	27.6	25.9	7.79	

(단위: %)

(6) 국민은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사례수 (명)	민주주의 기본 요소 가 아니 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민주 주의 기본 요소 이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1	0.6	0.8	1.0	2.3	4.8	4.2	14.4	19.6	23.6	28.6	8.20	
성별	남성	496	0.2	0.6	0.8	1.2	2.6	5.4	3.0	12.7	18.3	25.8	29.2	8.22	10.907
	여성	504	0.0	0.6	0.8	0.8	2.0	4.2	5.4	16.1	20.8	21.4	28.0	8.17	
연령	19세~29세	177	0.0	1.1	0.0	1.7	3.4	5.1	7.3	13.6	9.6	26.6	31.6	8.16	62.950 *
	30대	184	0.0	0.5	2.2	0.5	2.7	8.2	2.2	10.3	20.1	23.9	29.3	8.13	
	40대	212	0.0	0.5	1.4	0.5	1.4	1.4	3.8	16.0	23.6	23.1	28.3	8.32	
	50대	200	0.5	0.5	0.5	1.5	1.0	5.0	6.0	13.5	19.0	20.0	32.5	8.23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0	0.4	0.0	0.9	3.1	4.8	2.2	17.6	23.8	24.7	22.5	8.13	86.831 ***
	대도시	459	0.0	1.1	1.3	2.0	3.7	6.8	5.0	13.7	19.2	15.3	32.0	7.95	
권역	중소도시	457	0.2	0.0	0.4	0.0	0.9	2.4	2.0	15.1	20.8	32.2	26.0	8.50	238.559 ***
	읍면	84	0.0	1.2	0.0	1.2	2.4	7.1	11.9	14.3	15.5	22.6	23.8	7.87	
	서울	203	0.0	1.5	2.0	3.4	5.4	9.4	3.0	6.4	10.3	15.3	43.3	8.00	
	인천/경기	290	0.0	0.7	0.7	0.0	1.0	5.2	2.8	11.7	19.0	32.1	26.9	8.40	
	대전/충청	103	1.0	1.0	0.0	1.9	2.9	4.9	4.9	12.6	24.3	14.6	32.0	8.06	
	광주/호남	102	0.0	0.0	0.0	1.0	3.9	1.0	9.8	29.4	29.4	25.5	0.0	7.53	
결혼 상태	대구/경북	102	0.0	0.0	1.0	0.0	1.0	2.0	2.0	10.8	9.8	25.5	48.0	8.91	29.800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0.6	0.0	0.0	1.9	5.0	25.2	32.1	23.3	11.9	8.03	
	강원/제주	41	0.0	0.0	0.0	0.0	2.4	7.3	7.3	7.3	9.8	19.5	46.3	8.59	
	미혼	238	0.0	0.8	0.4	0.8	2.9	6.3	4.2	13.0	10.1	29.4	31.9	8.29	
학력	기혼	732	0.1	0.5	1.0	1.1	2.2	4.4	4.1	15.2	22.8	21.6	27.0	8.14	44.33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0.0	0.0	3.3	6.7	6.7	16.7	26.7	40.0	8.77	
	초졸 이하	35	0.0	0.0	0.0	0.0	0.0	2.9	2.9	11.4	22.9	37.1	22.9	8.57	
	중졸	113	0.0	0.0	0.0	1.8	1.8	4.4	5.3	19.5	21.2	22.1	23.9	8.11	
	고졸	466	0.2	0.9	0.9	1.1	1.7	5.6	5.6	15.2	21.2	23.2	24.5	8.04	
국정 운영 평가	대졸	371	0.0	0.5	1.1	0.5	3.2	4.0	2.2	12.1	16.7	23.5	36.1	8.41	17.575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6.7	6.7	6.7	6.7	13.3	20.0	20.0	20.0	7.53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0.0	0.7	0.9	0.8	2.7	3.8	4.4	14.4	21.1	23.1	28.2	8.20	14.214
	긍정	255	0.4	0.4	0.4	1.6	1.2	7.8	3.5	14.5	15.3	25.1	29.8	8.19	
	200만원 미만	130	0.0	0.0	1.5	0.8	1.5	5.4	3.8	14.6	20.0	23.8	28.5	8.2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1.3	1.0	0.8	2.3	5.6	4.2	14.4	18.2	23.4	28.6	8.11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0.0	0.0	0.3	1.3	2.3	3.6	4.1	14.5	21.5	24.1	28.2	8.30	24.204
	무응답	5	0.0	0.0	0.0	0.0	20.0	0.0	20.0	0.0	0.0	0.0	60.0	8.00	
	진보	273	0.0	0.7	1.5	1.5	2.6	5.5	5.1	15.4	22.3	18.7	26.7	7.99	
계층 소속 감	중도	440	0.0	0.2	0.7	0.2	1.4	5.0	3.6	13.9	19.1	25.0	30.9	8.38	54.633
	보수	287	0.3	1.0	0.3	1.7	3.5	3.8	4.2	14.3	17.8	26.1	26.8	8.11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상하	6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9.00	
	중상	198	0.5	0.0	0.5	1.0	3.0	3.0	4.5	10.6	16.7	26.3	33.8	8.41	
	중하	545	0.0	0.6	0.6	0.7	2.0	5.1	4.0	16.1	18.2	25.0	27.7	8.22	
계속 소속 감	하상	191	0.0	1.0	1.6	1.0	2.1	5.2	4.2	14.7	29.3	17.3	23.6	7.95	54.633
	하하	58	0.0	1.7	1.7	3.4	3.4	6.9	5.2	12.1	8.6	25.9	31.0	7.91	

문14)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 ² -test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2015년		1,000	3.5	18.9	27.4	37.0	13.2	22.4	27.2	47.0	3.38	59.4	
2014년		1,000	2.5	23.3	27.2	37.2	9.8	25.8	27.2	47.0	3.29	57.1	
성별	남성	496	3.8	18.1	27.8	34.7	15.5	22.0	27.8	50.2	3.40	60.0	6.130
	여성	504	3.2	19.6	27.0	39.3	10.9	22.8	27.0	50.2	3.35	58.8	
연령	19세~29세	177	4.0	25.4	29.9	28.8	11.9	29.4	29.9	40.7	3.19	54.8	37.170 **
	30대	184	4.3	23.4	25.0	37.5	9.8	27.7	25.0	47.3	3.25	56.3	
	40대	212	4.2	19.8	29.2	34.4	12.3	24.1	29.2	46.7	3.31	57.7	
	50대	200	3.5	17.5	21.5	38.0	19.5	21.0	21.5	57.5	3.53	63.1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8	10.6	30.8	44.5	12.3	12.3	30.8	56.8	3.55	63.8	8.464
	대도시	459	3.7	17.6	28.1	37.0	13.5	21.4	28.1	50.5	3.39	59.7	
	중소도시	457	3.5	21.2	27.8	35.4	12.0	24.7	27.8	47.5	3.31	57.8	8.464
	읍면	84	2.4	13.1	21.4	45.2	17.9	15.5	21.4	63.1	3.63	65.8	
권역	서울	203	5.9	20.2	24.6	38.4	10.8	26.1	24.6	49.3	3.28	57.0	81.767 ***
	인천/경기	290	2.8	23.4	24.1	35.2	14.5	26.2	24.1	49.7	3.35	58.8	
	대전/충청	103	7.8	14.6	35.0	21.4	21.4	22.3	35.0	42.7	3.34	58.5	
	광주/호남	102	0.0	12.7	30.4	52.9	3.9	12.7	30.4	56.9	3.48	62.0	
	대구/경북	102	3.9	25.5	19.6	34.3	16.7	29.4	19.6	51.0	3.34	58.6	
	부산/울산/경남	159	0.0	13.2	39.0	36.5	11.3	13.2	39.0	47.8	3.46	61.5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7.3	12.2	12.2	51.2	17.1	19.5	12.2	68.3	3.59	64.6	5.275
	미혼	238	4.2	22.3	27.3	35.3	10.9	26.5	27.3	46.2	3.26	56.6	
학력	기혼	732	3.3	18.2	27.5	37.3	13.8	21.4	27.5	51.1	3.40	60.0	36.634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10.0	26.7	43.3	16.7	13.3	26.7	60.0	3.60	65.0	
	초졸 이하	35	0.0	2.9	28.6	54.3	14.3	2.9	28.6	68.6	3.80	70.0	
	중졸	113	1.8	15.0	34.5	39.8	8.8	16.8	34.5	48.7	3.39	59.7	
	고졸	466	3.2	19.7	26.0	38.4	12.7	23.0	26.0	51.1	3.38	59.4	
국정 운영 평가	대졸	371	4.0	20.5	28.0	32.9	14.6	24.5	28.0	47.4	3.33	58.4	16.660 **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20.0	0.0	33.3	26.7	40.0	0.0	60.0	3.27	56.7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3.6	20.8	28.3	36.1	11.1	24.4	28.3	47.2	3.30	57.6	9.500
	200만원 미만	130	3.1	12.3	29.2	40.0	15.4	15.4	29.2	55.4	3.52	63.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1	17.5	27.8	38.2	13.4	20.7	27.8	51.6	3.41	60.3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4.1	22.8	26.2	34.7	12.2	26.9	26.2	46.9	3.28	57.0	27.185 **
	무응답	5	0.0	20.0	40.0	20.0	20.0	40.0	40.0	40.0	3.40	60.0	
계층 소속 감	진보	273	4.4	17.9	30.0	36.3	11.4	22.3	30.0	47.6	3.32	58.1	29.160
	중도	440	2.0	22.7	30.0	33.0	12.3	24.8	30.0	45.2	3.31	57.7	
	보수	287	4.9	13.9	20.9	43.9	16.4	18.8	20.9	60.3	3.53	63.2	
	상상	2	0.0	50.0	0.0	50.0	0.0	50.0	0.0	50.0	3.00	50.0	
	상하	6	0.0	50.0	33.3	16.7	0.0	50.0	33.3	16.7	2.67	41.7	
	중상	198	5.6	21.2	20.2	37.9	15.2	26.8	20.2	53.0	3.36	59.0	29.160
	중하	545	3.5	19.6	27.5	37.2	12.1	23.1	27.5	49.4	3.35	58.7	
	하상	191	1.6	15.2	34.6	37.2	11.5	16.8	34.6	48.7	3.42	60.5	
	하하	58	3.4	12.1	27.6	32.8	24.1	15.5	27.6	56.9	3.62	65.5	

(단위: %)

(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설득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2015년		1,000	5.2	23.6	33.4	29.2	8.6	28.8	33.4	37.8	3.12	53.1	
2014년		1,000	3.4	25.5	33.1	31.9	6.1	28.9	33.1	38.0	3.12	53.0	
성별	남성	496	5.8	25.0	31.3	28.2	9.7	30.8	31.3	37.9	3.11	52.7	4.619
	여성	504	4.6	22.2	35.5	30.2	7.5	26.8	35.5	37.7	3.14	53.5	
연령	19세~29세	177	6.8	25.4	37.9	24.9	5.1	32.2	37.9	29.9	2.96	49.0	26.654 *
	30대	184	7.1	26.6	31.5	24.5	10.3	33.7	31.5	34.8	3.04	51.1	
	40대	212	5.2	25.0	30.7	33.0	6.1	30.2	30.7	39.2	3.10	52.5	
	50대	200	6.5	21.0	32.5	28.0	12.0	27.5	32.5	40.0	3.18	54.5	
	60세 이상	227	1.3	20.7	34.8	33.9	9.3	22.0	34.8	43.2	3.29	57.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6.1	21.8	33.3	27.2	11.5	27.9	33.3	38.8	3.16	54.1	24.981 **
	중소도시	457	4.6	27.8	31.7	29.8	6.1	32.4	31.7	35.9	3.05	51.3	
	읍면	84	3.6	10.7	42.9	36.9	6.0	14.3	42.9	42.9	3.31	57.7	
권역	서울	203	6.9	20.2	36.9	23.6	12.3	27.1	36.9	36.0	3.14	53.6	64.709 ***
	인천/경기	290	4.8	24.5	30.3	32.8	7.6	29.3	30.3	40.3	3.14	53.4	
	대전/충청	103	8.7	20.4	25.2	37.9	7.8	29.1	25.2	45.6	3.16	53.9	
	광주/호남	102	0.0	9.8	52.9	31.4	5.9	9.8	52.9	37.3	3.33	58.3	
	대구/경북	102	6.9	31.4	32.4	25.5	3.9	38.2	32.4	29.4	2.88	47.1	
	부산/울산/경남	159	2.5	28.9	32.1	25.8	10.7	31.4	32.1	36.5	3.13	53.3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9.8	36.6	17.1	26.8	9.8	46.3	17.1	36.6	2.90	47.6	10.607
	미혼	238	6.7	27.3	33.2	26.9	5.9	34.0	33.2	32.8	2.98	49.5	
	기혼	732	4.6	22.8	33.7	29.6	9.2	27.5	33.7	38.8	3.16	54.0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13.3	26.7	36.7	16.7	20.0	26.7	53.3	3.43	60.8	18.540
	초졸 이하	35	0.0	20.0	25.7	40.0	14.3	20.0	25.7	54.3	3.49	62.1	
	중졸	113	0.9	23.0	34.5	34.5	7.1	23.9	34.5	41.6	3.24	56.0	
	고졸	466	4.7	23.8	34.5	28.8	8.2	28.5	34.5	36.9	3.12	53.0	
	대졸	371	7.3	24.3	32.6	27.0	8.9	31.5	32.6	35.8	3.06	51.5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13.3	26.7	33.3	13.3	26.7	26.7	46.7	3.20	55.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6.3	25.8	32.8	26.4	8.7	32.1	32.8	35.2	3.06	51.4	20.772 ***
	긍정	255	2.0	17.3	35.3	37.3	8.2	19.2	35.3	45.5	3.33	58.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7.7	20.0	27.7	36.9	7.7	27.7	27.7	44.6	3.17	54.2	16.016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6	21.5	36.1	30.5	7.3	26.1	36.1	37.8	3.14	53.6	
	400만 원 이상	386	4.9	27.7	32.1	25.1	10.1	32.6	32.1	35.2	3.08	51.9	
	무응답	5	20.0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65.0	
이념 성향	진보	273	7.7	22.7	37.7	23.4	8.4	30.4	37.7	31.9	3.02	50.5	24.809 **
	중도	440	5.7	23.9	34.3	27.0	9.1	29.5	34.3	36.1	3.10	52.5	
	보수	287	2.1	24.0	27.9	38.0	8.0	26.1	27.9	46.0	3.26	56.4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100.0	0.0	0.0	0.0	100.0	0.0	0.0	2.00	25.0	25.084
	상하	6	0.0	16.7	50.0	33.3	0.0	16.7	50.0	33.3	3.17	54.2	
	중상	198	4.5	22.2	36.4	29.3	7.6	26.8	36.4	36.9	3.13	53.3	
	중하	545	5.3	22.2	33.6	30.5	8.4	27.5	33.6	38.9	3.14	53.6	
	하상	191	3.7	29.3	33.5	24.6	8.9	33.0	33.5	33.5	3.06	51.4	
하하	58	12.1	20.7	20.7	32.8	13.8	32.8	20.7	46.6	3.16	53.9		

(단위: %)

(3)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서러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지 않다	다소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 다			
2015년		1,000	7.4	25.2	34.6	24.3	8.5	32.6	34.6	32.8	3.01	50.3	
2014년		1,000	5.5	25.7	37.9	26.8	4.1	31.2	37.9	30.9	2.98	49.6	
성별	남성	496	7.9	26.0	32.7	23.8	9.7	33.9	32.7	33.5	3.01	50.4	3.319
	여성	504	6.9	24.4	36.5	24.8	7.3	31.3	36.5	32.1	3.01	50.3	
연령	19세~29세	177	11.3	23.2	40.1	18.6	6.8	34.5	40.1	25.4	2.86	46.6	27.981 *
	30대	184	10.9	27.2	31.0	23.4	7.6	38.0	31.0	31.0	2.90	47.4	
	40대	212	7.5	27.4	33.5	22.6	9.0	34.9	33.0	31.6	2.98	49.5	
	50대	200	6.0	26.5	29.0	28.5	10.0	32.5	29.0	38.5	3.10	52.5	
	60세 이상	227	2.6	22.0	39.2	27.3	8.8	24.7	39.2	36.1	3.18	54.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9.4	19.8	35.1	24.8	10.9	29.2	35.1	35.7	3.08	52.0	51.914 ***
	중소도시	457	6.6	33.5	33.0	21.9	5.0	40.0	33.0	26.9	2.85	46.3	
	읍면	84	1.2	9.5	40.5	34.5	14.3	10.7	40.5	48.8	3.51	62.8	
권역	서울	203	12.8	20.7	34.5	21.7	10.3	33.5	34.5	32.0	2.96	49.0	93.679 ***
	인천/경기	290	5.9	36.2	29.7	22.4	5.9	42.1	29.7	28.3	2.86	46.6	
	대전/충청	103	8.7	14.6	43.7	20.4	12.6	23.3	43.7	33.0	3.14	53.4	
	광주/호남	102	0.0	21.6	45.1	26.5	6.9	21.6	45.1	33.3	3.19	54.7	
	대구/경북	102	2.0	33.3	28.4	31.4	4.9	35.3	28.4	36.3	3.04	51.0	
	부산/울산/경남	159	6.3	17.6	39.6	26.4	10.1	23.9	39.6	36.5	3.16	54.1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24.4	14.6	17.1	29.3	14.6	39.0	17.1	43.9	2.95	48.8	7.454
	미혼	238	10.1	24.8	35.3	21.8	8.0	34.9	35.3	29.8	2.93	48.2	
	기혼	732	6.8	25.5	34.2	24.7	8.7	32.4	34.2	33.5	3.03	50.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20.0	40.0	33.3	6.7	20.0	40.0	40.0	3.27	56.7	
학력	초졸 이하	35	5.7	22.9	31.4	31.4	8.6	28.6	31.4	40.0	3.14	53.6	38.364 **
	중졸	113	0.9	21.2	48.7	22.1	7.1	22.1	48.7	29.2	3.13	53.3	
	고졸	466	5.4	27.3	34.5	24.9	7.9	32.6	34.5	32.8	3.03	50.7	
	대졸	371	11.3	24.5	30.5	24.0	9.7	35.8	30.5	33.7	2.96	49.1	
	대학원 재학 이상	15	26.7	13.3	40.0	13.3	6.7	40.0	40.0	20.0	2.60	40.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9.4	26.7	34.9	20.9	8.1	36.1	34.9	29.0	2.92	47.9	32.714 ***
	긍정	255	1.6	20.8	33.7	34.1	9.8	22.4	33.7	43.9	3.30	57.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7.7	22.3	34.6	26.9	8.5	30.0	34.6	35.4	3.06	51.5	7.74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6.9	22.8	37.0	25.3	8.1	29.6	37.0	33.4	3.05	51.3	
	400만 원 이상	386	7.8	29.5	31.6	22.3	8.8	37.3	31.6	31.1	2.95	48.7	
	무응답	5	20.0	0.0	40.0	20.0	20.0	20.0	40.0	40.0	3.20	55.0	
이념 성향	진보	273	11.7	31.1	26.0	21.6	9.5	42.9	26.0	31.1	2.86	46.5	32.346 ***
	중도	440	7.0	23.6	39.1	22.0	8.2	30.7	39.1	30.2	3.01	50.2	
	보수	287	3.8	22.0	35.9	30.3	8.0	25.8	35.9	38.3	3.17	54.2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	14.390
	상하	6	0.0	33.3	33.3	33.3	0.0	33.3	33.3	33.3	3.00	50.0	
	중상	198	6.6	25.3	31.8	26.3	10.1	31.8	31.8	36.4	3.08	52.0	
	중하	545	6.6	25.1	36.0	23.5	8.8	31.7	36.0	32.3	3.03	50.7	
	하상	191	8.9	24.1	36.1	25.7	5.2	33.0	36.1	30.9	2.94	48.6	
	하하	58	13.8	27.6	25.9	20.7	12.1	41.4	25.9	32.8	2.90	47.4	

(단위: %)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지 않다	다소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다			
2015년		1,000	6.5	25.0	30.1	27.3	11.1	31.5	30.1	38.4	3.12	52.9	
2014년		1,000	3.6	26.5	32.2	31.3	6.4	30.1	32.2	37.7	3.10	52.6	
성별	남성	496	7.5	25.4	28.0	27.6	11.5	32.9	28.0	39.1	3.10	52.6	3.041
	여성	504	5.6	24.6	32.1	27.0	10.7	30.2	32.1	37.7	3.13	53.2	
연령	19세 ~29세	177	4.5	33.3	30.5	21.5	10.2	37.9	30.5	31.6	2.99	49.9	27.200 *
	30대	184	9.8	24.5	33.2	25.5	7.1	34.2	33.2	32.6	2.96	48.9	
	40대	212	6.6	24.5	33.0	24.5	11.3	31.1	33.0	35.8	3.09	52.4	
	50대	200	8.0	21.0	27.5	31.5	12.0	29.0	27.5	43.5	3.19	54.6	
	60세 이상	227	4.0	22.9	26.9	32.2	14.1	26.9	26.9	46.3	3.30	57.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8.5	21.1	29.2	28.8	12.4	29.6	29.2	41.2	3.15	53.9	29.384 ***
	중소도시	457	5.3	31.1	30.4	24.5	8.8	36.3	30.4	33.3	3.00	50.1	
	읍면	84	2.4	13.1	33.3	34.5	16.7	15.5	33.3	51.2	3.50	62.5	
권역	서울	203	12.8	24.1	26.1	25.1	11.8	36.9	26.1	36.9	2.99	49.8	63.677 ***
	인천/경기	290	5.2	27.6	33.8	25.9	7.6	32.8	33.8	33.4	3.03	50.8	
	대전/충청	103	5.8	19.4	32.0	27.2	15.5	25.2	32.0	42.7	3.27	56.8	
	광주/호남	102	2.9	23.5	35.3	35.3	2.9	26.5	35.3	38.2	3.12	52.9	
	대구/경북	102	3.9	24.5	24.5	26.5	20.6	28.4	24.5	47.1	3.35	58.8	
	부산/울산/경남	159	2.5	25.8	32.7	26.4	12.6	28.3	32.7	39.0	3.21	55.2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17.1	26.8	9.8	34.1	12.2	43.9	9.8	46.3	2.98	49.4	11.850
	미혼	238	5.9	30.3	29.8	22.7	11.3	36.1	29.8	34.0	3.03	50.8	
	기혼	732	6.8	23.2	30.5	29.0	10.5	30.1	30.5	39.5	3.13	53.3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26.7	23.3	23.3	23.3	30.0	23.3	46.7	3.37	59.2	35.022 **
	초졸 이하	35	11.4	17.1	22.9	34.3	14.3	28.6	22.9	48.6	3.23	55.7	
	중졸	113	0.9	25.7	27.4	31.0	15.0	26.5	27.4	46.0	3.34	58.4	
	고졸	466	3.9	26.8	29.4	29.4	10.5	30.7	29.4	39.9	3.16	54.0	
	대졸	371	10.8	23.7	32.3	22.6	10.5	34.5	32.3	33.2	2.98	49.6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13.3	33.3	33.3	6.7	26.7	33.3	40.0	3.07	51.7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7.9	27.0	30.6	25.4	9.1	34.9	30.6	34.5	3.01	50.2	28.114 ***
	긍정	255	2.4	19.2	28.6	32.9	16.9	21.6	28.6	49.8	3.43	60.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9.2	21.5	24.6	31.5	13.1	30.8	24.6	44.6	3.18	54.4	16.671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6.5	22.1	30.1	28.8	12.5	28.6	30.1	41.3	3.19	54.7	
	400만 원 이상	386	5.4	30.1	32.1	23.8	8.5	35.5	32.1	32.4	3.00	50.0	
	무응답	5	20.0	0.0	20.0	40.0	20.0	20.0	20.0	60.0	3.40	60.0	
이념 성향	진보	273	9.9	28.6	27.1	24.2	10.3	38.5	27.1	34.4	2.96	49.1	19.415 *
	중도	440	5.7	25.9	32.5	26.1	9.8	31.6	32.5	35.9	3.08	52.1	
	보수	287	4.5	20.2	29.3	32.1	13.9	24.7	29.3	46.0	3.31	57.7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50.0	20.740
	상하	6	0.0	50.0	33.3	16.7	0.0	50.0	33.3	16.7	2.67	41.7	
	중상	198	5.6	22.7	29.3	31.3	11.1	28.3	29.3	42.4	3.20	54.9	
	중하	545	6.6	25.5	31.4	25.5	11.0	32.1	31.4	36.5	3.09	52.2	
	하상	191	6.8	26.7	26.2	31.4	8.9	33.5	26.2	40.3	3.09	52.2	
하하	58	8.6	20.7	31.0	19.0	20.7	29.3	31.0	39.7	3.22	55.6		

(단위: %)

(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지 않다	다소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2015년		1,000	10.2	23.6	29.5	24.1	12.6	33.8	29.5	36.7	3.05	51.3	
2014년		1,000	6.6	23.9	33.7	28.9	6.9	30.5	33.7	35.8	3.06	51.4	
성별	남성	496	9.9	24.6	28.8	24.2	12.5	34.5	28.8	36.7	3.05	51.2	0.675
	여성	504	10.5	22.6	30.2	24.0	12.7	33.1	30.2	36.7	3.06	51.4	
연령	19세 ~29세	177	14.7	27.1	27.7	19.2	11.3	41.8	27.7	30.5	2.85	46.3	32.777 **
	30대	184	10.9	23.4	34.2	24.5	7.1	34.2	34.2	31.5	2.93	48.4	
	40대	212	12.7	25.9	28.3	22.2	10.8	38.7	28.3	33.0	2.92	48.1	
	50대	200	9.5	23.0	28.0	25.0	14.5	32.5	28.0	39.5	3.12	53.0	
	60세 이상	227	4.4	19.4	29.5	28.6	18.1	23.8	29.5	46.7	3.37	59.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0.5	20.9	25.7	25.5	17.4	31.4	25.7	42.9	3.19	54.6	41.230 ***
	중소도시	457	10.7	28.2	32.6	20.1	8.3	38.9	32.6	28.4	2.87	46.8	
	읍면	84	6.0	13.1	33.3	38.1	9.5	19.0	33.3	47.6	3.32	58.0	
권역	서울	203	14.3	25.1	25.1	18.7	16.7	39.4	25.1	35.5	2.99	49.6	76.926 ***
	인천/경기	290	8.3	26.9	34.5	19.7	10.7	35.2	34.5	30.3	2.98	49.4	
	대전/충청	103	11.7	19.4	24.3	25.2	19.4	31.1	24.3	44.7	3.21	55.3	
	광주/호남	102	5.9	21.6	27.5	39.2	5.9	27.5	27.5	45.1	3.18	54.4	
	대구/경북	102	2.9	21.6	41.2	26.5	7.8	24.5	41.2	34.3	3.15	53.7	
	부산/울산/경남	159	10.1	18.9	27.7	29.6	13.8	28.9	27.7	43.4	3.18	54.6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29.3	31.7	12.2	14.6	12.2	61.0	12.2	26.8	2.49	37.2	9.393
	미혼	238	13.0	27.7	26.5	20.6	12.2	40.8	26.5	32.8	2.91	47.8	
	기혼	732	9.2	22.7	30.3	25.3	12.6	31.8	30.3	37.8	3.09	52.4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3.3	13.3	33.3	23.3	16.7	26.7	33.3	40.0	3.17	54.2	32.973 **
	초졸 이하	35	11.4	11.4	34.3	34.3	8.6	22.9	34.3	42.9	3.17	54.3	
	중졸	113	3.5	17.7	24.8	37.2	16.8	21.2	24.8	54.0	3.46	61.5	
	고졸	466	8.8	23.8	31.1	23.6	12.7	32.6	31.1	36.3	3.08	51.9	
	대졸	371	13.7	26.4	28.6	19.9	11.3	40.2	28.6	31.3	2.89	47.2	
국정 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20.0	26.7	20.0	20.0	33.3	26.7	40.0	3.13	53.3	23.515 ***
	부정	745	12.2	25.4	28.7	21.9	11.8	37.6	28.7	33.7	2.96	48.9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4.3	18.4	31.8	30.6	14.9	22.7	31.8	45.5	3.33	58.3	18.860 *
	200만원 미만	130	10.8	15.4	28.5	25.4	20.0	26.2	28.5	45.4	3.28	57.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8.1	23.6	31.9	25.3	11.1	31.7	31.9	36.3	3.08	51.9	
	400만 원 이상	386	12.4	26.7	26.9	22.5	11.4	39.1	26.9	33.9	2.94	48.4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0.0	20.0	0.0	60.0	20.0	20.0	60.0	3.80	70.0	18.146 *
	진보	273	12.1	28.9	26.0	21.2	11.7	41.0	26.0	33.0	2.92	47.9	
	중도	440	11.4	23.4	30.7	22.7	11.8	34.8	30.7	34.5	3.00	50.1	
계층 소속 감	보수	287	6.6	18.8	31.0	28.9	14.6	25.4	31.0	43.6	3.26	56.5	28.942
	상상	2	0.0	50.0	0.0	50.0	0.0	50.0	0.0	50.0	3.00	50.0	
	상하	6	0.0	66.7	0.0	16.7	16.7	66.7	0.0	33.3	2.83	45.8	
	중상	198	9.6	19.2	25.8	31.3	14.1	28.8	25.8	45.5	3.21	55.3	
	중하	545	9.9	25.9	30.5	23.5	10.3	35.8	30.5	33.8	2.98	49.6	
	하상	191	12.6	20.4	32.5	18.3	16.2	33.0	32.5	34.6	3.05	51.3	
	하하	58	8.6	22.4	27.6	24.1	17.2	31.0	27.6	41.4	3.19	54.7	

(단위: %)

(6)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지 않다	다소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2015년		1,000	4.0	13.8	25.0	37.5	19.7	17.8	25.0	57.2	3.55	63.8		
2014년		1,000	1.6	16.7	32.9	37.1	11.7	18.3	32.9	48.8	3.41	60.2		
성별	남성	496	4.8	11.1	23.8	40.5	19.8	15.9	23.8	60.3	3.59	64.8	9.951 *	
	여성	504	3.2	16.5	26.2	34.5	19.6	19.6	26.2	54.2	3.51	62.7		
연령	19세~29세	177	2.8	16.4	25.4	37.3	18.1	19.2	25.4	55.4	3.51	62.9	18.862	
	30대	184	4.9	14.1	28.3	38.0	14.7	19.0	28.3	52.7	3.43	60.9		
	40대	212	5.2	12.7	25.9	34.0	22.2	17.9	25.9	56.1	3.55	63.8		
	50대	200	4.5	16.0	19.5	35.0	25.0	20.5	19.5	60.0	3.60	65.0		
	60세 이상	227	2.6	10.6	26.0	42.7	18.1	13.2	26.0	60.8	3.63	65.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0	15.0	25.5	33.3	21.1	20.0	25.5	54.5	3.51	62.6	19.245 *	
	중소도시	457	3.3	14.2	22.3	41.1	19.0	17.5	22.3	60.2	3.58	64.6		
	읍면	84	2.4	4.8	36.9	40.5	15.5	7.1	36.9	56.0	3.62	65.5		
권역	서울	203	5.9	15.8	21.2	35.0	22.2	21.2	21.2	57.1	3.52	62.9	72.807 ***	
	인천/경기	290	1.4	13.1	17.9	39.7	27.9	14.5	17.9	67.6	3.80	69.9		
	대전/충청	103	1.9	12.6	31.1	36.9	17.5	14.6	31.1	54.4	3.55	63.8		
	광주/호남	102	7.8	16.7	33.3	36.3	5.9	24.5	33.3	42.2	3.16	53.9		
	대구/경북	102	1.0	14.7	31.4	36.3	16.7	15.7	31.4	52.9	3.53	63.2		
	부산/울산/경남	159	6.9	11.9	34.0	34.6	12.6	18.9	34.0	47.2	3.34	58.5		
강원/제주	강원/제주	41	4.9	9.8	7.3	53.7	24.4	14.6	7.3	78.0	3.83	70.7		
	결혼 상태	미혼	238	2.5	14.3	27.3	35.7	20.2	16.8	27.3	55.9	3.57	64.2	7.177
		기혼	732	4.6	13.5	24.7	37.6	19.5	18.2	24.7	57.1	3.54	63.5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16.7	13.3	50.0	20.0	16.7	13.3	70.0	3.73	68.3	14.111
초졸 이하		35	5.7	8.6	22.9	45.7	17.1	14.3	22.9	62.9	3.60	65.0		
중졸		113	2.7	12.4	31.0	41.6	12.4	15.0	31.0	54.0	3.49	62.2		
고졸		466	3.9	14.2	24.9	37.6	19.5	18.0	24.9	57.1	3.55	63.7		
대졸		371	4.3	13.7	23.2	36.1	22.6	18.1	23.2	58.8	3.59	64.8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26.7	33.3	20.0	13.3	33.3	33.3	33.3	3.07	51.7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5.4	15.8	24.0	36.0	18.8	21.2	24.0	54.8	3.47	61.7	26.638 ***	
	긍정	255	0.0	7.8	27.8	42.0	22.4	7.8	27.8	64.3	3.79	69.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4	9.2	20.8	46.9	17.7	14.6	20.8	64.6	3.62	65.6	11.369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9	13.6	26.5	37.6	19.4	16.5	26.5	57.0	3.57	64.2		
	400만 원 이상	386	4.7	15.8	24.6	34.5	20.5	20.5	24.6	54.9	3.50	62.6		
	무응답	5	20.0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65.0		
이념 성향	진보	273	4.8	17.2	27.1	30.8	20.1	22.0	27.1	50.9	3.44	61.1	14.599	
	중도	440	4.1	14.5	24.1	39.5	17.7	18.6	24.1	57.3	3.52	63.1		
	보수	287	3.1	9.4	24.4	40.8	22.3	12.5	24.4	63.0	3.70	67.4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	28.876	
	상하	6	16.7	33.3	16.7	33.3	0.0	50.0	16.7	33.3	2.67	41.7		
	중상	198	4.0	13.1	19.2	40.4	23.2	17.2	19.2	63.6	3.66	66.4		
	중하	545	2.8	13.8	26.8	36.3	20.4	16.5	26.8	56.7	3.58	64.4		
	하상	191	6.8	13.1	29.3	36.6	14.1	19.9	29.3	50.8	3.38	59.6		
하하	58	5.2	15.5	13.8	43.1	22.4	20.7	13.8	65.5	3.62	65.5			

(단위: %)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지 않다	다소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X ² -test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2015년		1,000	9.1	19.5	33.2	29.7	8.5	28.6	33.2	38.2	3.09	52.3	
2014년		1,000	4.8	23.4	37.9	28.5	5.4	28.2	37.9	33.9	3.06	51.6	
성별	남성	496	9.1	19.0	33.5	29.0	9.5	28.0	33.5	38.5	3.11	52.7	1.424
	여성	504	9.1	20.0	32.9	30.4	7.5	29.2	32.9	37.9	3.07	51.8	
연령	19세~29세	177	14.7	19.2	34.5	23.7	7.9	33.9	34.5	31.6	2.91	47.7	28.476 *
	30대	184	11.4	19.0	35.3	26.1	8.2	30.4	35.3	34.2	3.01	50.1	
	40대	212	10.4	23.6	28.3	30.7	7.1	34.0	28.3	37.7	3.00	50.1	
	50대	200	6.5	19.0	31.0	32.5	11.0	25.5	31.0	43.5	3.23	55.6	
	60세 이상	227	4.0	16.7	37.0	33.9	8.4	20.7	37.0	42.3	3.26	56.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8.5	15.7	34.6	29.8	11.3	24.2	34.6	41.2	3.20	55.0	35.987 ***
	중소도시	457	10.5	25.6	30.2	28.0	5.7	36.1	30.2	33.7	2.93	48.2	
	읍면	84	4.8	7.1	41.7	38.1	8.3	11.9	41.7	46.4	3.38	59.5	
권역	서울	203	13.3	14.8	33.0	28.6	10.3	28.1	33.0	38.9	3.08	52.0	67.128 ***
	인천/경기	290	7.2	21.0	32.4	29.7	9.7	28.3	32.4	39.3	3.13	53.4	
	대전/충청	103	9.7	19.4	35.0	30.1	5.8	29.1	35.0	35.9	3.03	50.7	
	광주/호남	102	14.7	10.8	29.4	41.2	3.9	25.5	29.4	45.1	3.09	52.2	
	대구/경북	102	4.9	27.5	44.1	18.6	4.9	32.4	44.1	23.5	2.91	47.8	
	부산/울산/경남	159	2.5	19.5	34.6	32.1	11.3	22.0	34.6	43.4	3.30	57.5	
결혼 상태	미혼	238	13.9	16.8	34.5	25.6	9.2	30.7	34.5	34.9	3.00	49.9	17.035 *
	기혼	732	7.8	20.5	32.9	31.0	7.8	28.3	32.9	38.8	3.11	52.6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16.7	30.0	30.0	20.0	20.0	30.0	50.0	3.47	61.7	
학력	초졸 이하	35	8.6	17.1	34.3	31.4	8.6	25.7	34.3	40.0	3.14	53.6	37.076 **
	중졸	113	4.4	11.5	43.4	28.3	12.4	15.9	43.4	40.7	3.33	58.2	
	고졸	466	6.7	20.6	30.5	34.5	7.7	27.3	30.5	42.3	3.16	54.0	
	대졸	371	13.7	20.5	32.9	24.8	8.1	34.2	32.9	32.9	2.93	48.2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26.7	46.7	6.7	13.3	33.3	46.7	20.0	2.93	48.3	
국정 운영 평가	부정	745	10.7	20.7	32.8	27.9	7.9	31.4	32.8	35.8	3.02	50.4	15.125 **
	긍정	255	4.3	16.1	34.5	34.9	10.2	20.4	34.5	45.1	3.31	57.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1.5	13.8	40.0	24.6	10.0	25.4	40.0	34.6	3.08	51.9	8.02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9.0	19.6	32.6	30.5	8.4	28.6	32.6	38.8	3.10	52.4	
	400만 원 이상	386	8.3	21.5	31.9	30.6	7.8	29.8	31.9	38.3	3.08	52.0	
	무응답	5	20.0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65.0	
이념 성향	진보	273	13.9	20.9	34.1	23.8	7.3	34.8	34.1	31.1	2.90	47.4	29.94 ***
	중도	440	9.3	20.7	32.7	27.5	9.8	30.0	32.7	37.3	3.08	51.9	
	보수	287	4.2	16.4	33.1	38.7	7.7	20.6	33.1	46.3	3.29	57.3	
계층 소속 감	상상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	25.591
	상하	6	16.7	16.7	50.0	16.7	0.0	33.3	50.0	16.7	2.67	41.7	
	중상	198	9.6	19.7	26.8	36.4	7.6	29.3	26.8	43.9	3.13	53.2	
	중하	545	8.8	18.3	34.3	30.1	8.4	27.2	34.3	38.5	3.11	52.8	
	하상	191	8.9	24.6	35.6	24.1	6.8	33.5	35.6	30.9	2.92	48.8	
하하	58	10.3	12.1	34.5	24.1	19.0	22.4	34.5	43.1	3.29	57.3		

문15) 귀하는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레수 (명)	매우 반대 한다	다소 반대 한다	다소 지지 한다	매우 지지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지지 하지 않음	지지함				
2015년		1,000	3.3	28.8	57.4	10.5	32.1	67.9	2.75	58.4	
성별	남성	496	3.2	24.0	61.7	11.1	27.2	72.8	2.81	60.2	11.401 *
	여성	504	3.4	33.5	53.2	9.9	36.9	63.1	2.70	56.5	
연령	19세~29세	177	4.0	24.9	59.9	11.3	28.8	71.2	2.79	59.5	14.646
	30대	184	3.8	26.1	57.1	13.0	29.9	70.1	2.79	59.8	
	40대	212	1.9	26.9	61.8	9.4	28.8	71.2	2.79	59.6	
	50대	200	3.5	27.0	59.0	10.5	30.5	69.5	2.77	58.8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3.5	37.4	50.2	8.8	41.0	59.0	2.64	54.8	25.811 ***
	대도시	459	4.1	30.7	50.8	14.4	34.9	65.1	2.75	58.5	
	중소도시	457	2.0	26.7	64.1	7.2	28.7	71.3	2.77	58.9	
권역	읍면	84	6.0	29.8	57.1	7.1	35.7	64.3	2.65	55.2	59.435 ***
	서울	203	3.0	28.6	49.8	18.7	31.5	68.5	2.84	61.4	
	인천/경기	290	1.7	30.0	58.3	10.0	31.7	68.3	2.77	58.9	
	대전/충청	103	1.9	21.4	62.1	14.6	23.3	76.7	2.89	63.1	
	광주/호남	102	0.0	24.5	71.6	3.9	24.5	75.5	2.79	59.8	
	대구/경북	102	8.8	32.4	52.0	6.9	41.2	58.8	2.57	52.3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5.7	34.6	56.0	3.8	40.3	59.7	2.58	52.6	8.285
	강원/제주	41	4.9	19.5	61.0	14.6	24.4	75.6	2.85	61.8	
	미혼	238	3.8	23.5	63.0	9.7	27.3	72.7	2.79	59.5	
학력	기혼	732	3.0	30.3	56.1	10.5	33.3	66.7	2.74	58.1	29.072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33.3	43.3	16.7	40.0	60.0	2.70	56.7	
	초졸 이하	35	11.4	45.7	40.0	2.9	57.1	42.9	2.34	44.8	
	중졸	113	2.7	31.0	52.2	14.2	33.6	66.4	2.78	59.3	
	고졸	466	3.0	29.2	59.9	7.9	32.2	67.8	2.73	57.6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2.7	26.1	58.0	13.2	28.8	71.2	2.82	60.6	6.039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26.7	46.7	13.3	40.0	60.0	2.60	53.3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2.7	27.8	58.4	11.1	30.5	69.5	2.78	59.3	10.257
	긍정	255	5.1	31.8	54.5	8.6	36.9	63.1	2.67	55.6	
	200만원 미만	130	3.8	36.9	44.6	14.6	40.8	59.2	2.70	56.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1	27.6	59.5	9.8	30.7	69.3	2.76	58.7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3.4	27.5	59.1	10.1	30.8	69.2	2.76	58.6	21.753 **
	무응답	5	0.0	40.0	60.0	0.0	40.0	60.0	2.60	53.3	
	진보	273	3.7	25.6	56.4	14.3	29.3	70.7	2.81	60.4	
계층 소속감	중도	440	1.6	27.0	61.8	9.5	28.6	71.4	2.79	59.8	22.182
	보수	287	5.6	34.5	51.6	8.4	40.1	59.9	2.63	54.2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상하	6	0.0	50.0	33.3	16.7	50.0	50.0	2.67	55.6	
	중상	198	5.1	22.2	60.6	12.1	27.3	72.7	2.80	59.9	
	중하	545	3.7	27.7	58.9	9.7	31.4	68.6	2.75	58.2	
계층 소속감	하상	191	0.0	37.2	52.4	10.5	37.2	62.8	2.73	57.8	22.182
	하하	58	5.2	31.0	51.7	12.1	36.2	63.8	2.71	56.9	

문16) 귀하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 수 (명)	매우 약화 된다	다소 약화 된다	별 차이가 없다	다소 강화 된다	매우 강화 된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X ² -test	
							약화 됨	보통	강화 됨				
2015년	1,000	14.9	56.9	10.2	16.0	2.0	71.8	10.2	18.0	2.33	33.3		
2014년	1,000	15.0	56.6	9.1	16.6	2.7	71.6	9.1	19.3	2.35	33.9		
성별	남성	496	15.1	55.6	9.1	17.9	2.2	70.8	9.1	20.2	2.36	34.1	4.088
	여성	504	14.7	58.1	11.3	14.1	1.8	72.8	11.3	15.9	2.30	32.5	
연령	19세~29세	177	16.4	52.5	9.0	20.9	1.1	68.9	9.0	22.0	2.38	34.5	13.413
	30대	184	12.0	56.0	11.4	18.5	2.2	67.9	11.4	20.7	2.43	35.7	
	40대	212	17.9	58.5	10.8	11.3	1.4	76.4	10.8	12.7	2.20	30.0	
	50대	200	14.0	56.5	11.0	16.0	2.5	70.5	11.0	18.5	2.37	34.1	
	60세 이상	227	14.1	59.9	8.8	14.5	2.6	74.0	8.8	17.2	2.32	32.9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3.5	53.6	12.6	17.0	3.3	67.1	12.6	20.3	2.43	35.7	16.655 *
	중소도시	457	16.4	59.3	7.7	15.8	0.9	75.7	7.7	16.6	2.25	31.3	
	읍면	84	14.3	61.9	10.7	11.9	1.2	76.2	10.7	13.1	2.24	31.0	
권역	서울	203	12.3	51.7	13.3	19.7	3.0	64.0	13.3	22.7	2.49	37.3	40.666 *
	인천/경기	290	13.8	59.3	7.9	15.5	3.4	73.1	7.9	19.0	2.36	33.9	
	대전/충청	103	22.3	50.5	10.7	16.5	0.0	72.8	10.7	16.5	2.21	30.3	
	광주/호남	102	10.8	62.7	10.8	14.7	1.0	73.5	10.8	15.7	2.32	33.1	
	대구/경북	102	21.6	64.7	9.8	2.9	1.0	86.3	9.8	3.9	1.97	24.3	
	부산/울산/경남	159	13.8	53.5	10.7	20.8	1.3	67.3	10.7	22.0	2.42	35.5	
결혼 상태	미혼	238	17.6	54.6	9.7	16.8	1.3	72.3	9.7	18.1	2.29	32.4	4.941
	기혼	732	13.8	57.8	10.2	15.8	2.3	71.6	10.2	18.2	2.35	33.8	
학력	초졸 이하	35	25.7	48.6	5.7	17.1	2.9	74.3	5.7	20.0	2.23	30.7	17.101
	중졸	113	15.0	56.6	8.8	17.7	1.8	71.7	8.8	19.5	2.35	33.6	
	고졸	466	14.2	58.6	9.7	14.6	3.0	72.7	9.7	17.6	2.34	33.4	
	대졸	371	14.3	55.3	11.9	17.8	0.8	69.5	11.9	18.6	2.36	33.9	
	대학원 재학 이상	15	26.7	66.7	6.7	0.0	0.0	93.3	6.7	0.0	1.80	2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4.6	59.2	10.1	14.9	1.2	73.8	10.1	16.1	2.29	32.2	14.270 **
	긍정	255	15.7	50.2	10.6	19.2	4.3	65.9	10.6	23.5	2.46	36.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1	53.1	10.0	11.5	2.3	76.2	10.0	13.8	2.17	29.2	16.473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5.0	57.0	9.6	15.4	2.9	72.0	9.6	18.4	2.34	33.6	
	400만 원 이상	386	11.9	58.5	11.1	17.6	0.8	70.5	11.1	18.4	2.37	34.2	
	무응답	5	20.0	20.0	0.0	60.0	0.0	40.0	0.0	60.0	3.00	50.0	
이념 성향	진보	273	17.2	54.9	12.1	12.8	2.9	72.2	12.1	15.8	2.29	32.3	20.557 **
	중도	440	13.0	61.1	10.7	14.3	0.9	74.1	10.7	15.2	2.29	32.3	
	보수	287	15.7	52.3	7.7	21.6	2.8	67.9	7.7	24.4	2.44	35.9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0.0	50.0	0.0	0.0	2.50	37.5	24.859
	상하	6	0.0	100.0	0.0	0.0	0.0	100.0	0.0	0.0	2.00	25.0	
	중상	198	15.2	57.1	10.1	16.7	1.0	72.2	10.1	17.7	2.31	32.8	
	중하	545	15.4	57.4	9.7	15.6	1.8	72.8	9.7	17.4	2.31	32.8	
	하상	191	11.0	58.6	10.5	15.7	4.2	69.6	10.5	19.9	2.43	35.9	
	하하	58	24.1	41.4	13.8	20.7	0.0	65.5	13.8	20.7	2.31	32.8	

문17)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1) 북한이탈주민		사례수 (명)	매우 감소 해야 한다	다소 감소 해야 한다	다소 증가해 야 한다	매우 증가해 야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 ² -test
							감소해 야 함	증가해 야 함			
2015년		1,000	8.5	51.8	35.2	4.5	60.3	39.7	2.36	45.2	
성별	남성	496	6.7	51.2	36.3	5.8	57.9	42.1	2.41	47.1	8.314 *
	여성	504	10.3	52.4	34.1	3.2	62.7	37.3	2.30	43.4	
연령	19세~29세	177	8.5	52.0	36.2	3.4	60.5	39.5	2.34	44.8	7.404
	30대	184	7.6	56.5	31.5	4.3	64.1	35.9	2.33	44.2	
	40대	212	6.1	51.4	37.3	5.2	57.5	42.5	2.42	47.2	
	50대	200	11.5	47.0	36.5	5.0	58.5	41.5	2.35	45.0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8.8	52.4	34.4	4.4	61.2	38.8	2.34	44.8	24.794 ***
	대도시	459	12.4	47.3	35.9	4.4	59.7	40.3	2.32	44.1	
	중소도시	457	4.2	56.9	33.9	5.0	61.1	38.9	2.40	46.6	
권역	읍면	84	10.7	48.8	38.1	2.4	59.5	40.5	2.32	44.0	51.784 ***
	서울	203	13.3	39.9	40.4	6.4	53.2	46.8	2.40	46.6	
	인천/경기	290	6.9	58.6	29.0	5.5	65.5	34.5	2.33	44.4	
	대전/충청	103	10.7	50.5	35.9	2.9	61.2	38.8	2.31	43.7	
	광주/호남	102	1.0	48.0	49.0	2.0	49.0	51.0	2.52	50.7	
	대구/경북	102	13.7	50.0	32.4	3.9	63.7	36.3	2.26	42.2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41	14.6	41.5	39.0	4.9	56.1	43.9	2.34	44.7	8.607
	미혼	238	11.8	52.1	33.6	2.5	63.9	36.1	2.27	42.3	
	기혼	732	7.4	52.2	35.4	5.1	59.6	40.4	2.38	46.0	
결혼 상태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0.0	40.0	43.3	6.7	50.0	50.0	2.47	48.9	18.433
	초졸 이하	35	20.0	42.9	31.4	5.7	62.9	37.1	2.23	41.0	
	중졸	113	11.5	46.9	35.4	6.2	58.4	41.6	2.36	45.4	
	고졸	466	7.5	53.6	36.3	2.6	61.2	38.8	2.34	44.6	
	대졸	371	8.1	51.2	34.5	6.2	59.3	40.7	2.39	46.3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66.7	26.7	6.7	66.7	33.3	2.40	46.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7.5	53.6	35.4	3.5	61.1	38.9	2.35	45.0	11.734 **
	긍정	255	11.4	46.7	34.5	7.5	58.0	42.0	2.38	46.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4	39.2	36.2	9.2	54.6	45.4	2.39	46.4	25.427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9.2	53.0	34.2	3.5	62.2	37.8	2.32	44.0	
	400만 원 이상	386	5.2	54.4	36.5	3.9	59.6	40.4	2.39	46.4	
	무응답	5	20.0	60.0	0.0	20.0	80.0	20.0	2.20	40.0	
이념 성향	진보	273	13.6	47.3	36.3	2.9	60.8	39.2	2.29	42.9	21.088 **
	중도	440	4.5	55.0	35.2	5.2	59.5	40.5	2.41	47.0	
	보수	287	9.8	51.2	34.1	4.9	61.0	39.0	2.34	44.7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7	24.085
	상하	6	16.7	66.7	16.7	0.0	83.3	16.7	2.00	33.3	
	중상	198	9.6	49.0	35.9	5.6	58.6	41.4	2.37	45.8	
	중하	545	8.1	53.2	34.9	3.9	61.3	38.7	2.34	44.8	
	하상	191	5.2	56.5	33.5	4.7	61.8	38.2	2.38	45.9	
하하	58	17.2	31.0	44.8	6.9	48.3	51.7	2.41	47.1		

(단위: %)

(2) 결혼이주자		사례수 (명)	매우 감소 해야 한다	다소 감소 해야 한다	다소 증가 해야 한다	매우 증가 해야 한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감소 해야 함	증가 해야 함			
2015년		1,000	6.2	58.5	32.2	3.1	64.7	35.3	2.32	44.1	
성별	남성	496	6.3	56.3	33.7	3.8	62.5	37.5	2.35	45.0	3.210
	여성	504	6.2	60.7	30.8	2.4	66.9	33.1	2.29	43.1	
연령	19세~29세	177	5.6	57.1	33.3	4.0	62.7	37.3	2.36	45.2	3.466
	30대	184	6.5	59.2	32.1	2.2	65.8	34.2	2.30	43.3	
	40대	212	6.6	58.0	32.5	2.8	64.6	35.4	2.32	43.9	
	50대	200	7.5	57.5	31.0	4.0	65.0	35.0	2.32	43.8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4.8	60.4	32.2	2.6	65.2	34.8	2.33	44.2	7.020
	대도시	459	6.8	55.6	34.9	2.8	62.3	37.7	2.34	44.6	
	중소도시	457	5.7	62.4	28.4	3.5	68.1	31.9	2.30	43.3	
지역 크기	읍면	84	6.0	53.6	38.1	2.4	59.5	40.5	2.37	45.6	74.979 ***
	서울	203	6.4	50.2	38.9	4.4	56.7	43.3	2.41	47.1	
	인천/경기	290	7.9	69.0	20.7	2.4	76.9	23.1	2.18	39.2	
	대전/충청	103	5.8	50.5	39.8	3.9	56.3	43.7	2.42	47.2	
	광주/호남	102	0.0	52.0	39.2	8.8	52.0	48.0	2.57	52.3	
	대구/경북	102	12.7	47.1	38.2	2.0	59.8	40.2	2.29	43.1	
지역 크기	부산/울산/경남	159	1.9	68.6	29.6	0.0	70.4	29.6	2.28	42.6	74.979 ***
	강원/제주	41	9.8	51.2	39.0	0.0	61.0	39.0	2.29	43.1	
	미혼	238	6.3	58.0	32.8	2.9	64.3	35.7	2.32	44.1	
결혼 상태	기혼	732	5.9	59.3	31.8	3.0	65.2	34.8	2.32	44.0	5.373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3.3	43.3	36.7	6.7	56.7	43.3	2.37	45.6	
	초졸 이하	35	8.6	54.3	34.3	2.9	62.9	37.1	2.31	43.8	
학력	중졸	113	5.3	61.1	31.0	2.7	66.4	33.6	2.31	43.7	6.182
	고졸	466	5.6	60.5	31.3	2.6	66.1	33.9	2.31	43.7	
	대졸	371	7.3	55.3	33.4	4.0	62.5	37.5	2.34	44.7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66.7	33.3	0.0	66.7	33.3	2.33	44.4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5.8	59.1	32.2	3.0	64.8	35.2	2.32	44.1	1.225
	긍정	255	7.5	56.9	32.2	3.5	64.3	35.7	2.32	43.9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7.7	48.5	39.2	4.6	56.2	43.8	2.41	46.9	8.43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6.7	60.5	30.3	2.5	67.2	32.8	2.29	42.9	
	400만 원 이상	386	4.9	59.3	32.4	3.4	64.2	35.8	2.34	44.7	
	무응답	5	20.0	60.0	20.0	0.0	80.0	20.0	2.00	33.3	
이념 성향	진보	273	7.0	54.2	35.2	3.7	61.2	38.8	2.36	45.2	9.374
	중도	440	4.1	60.9	32.0	3.0	65.0	35.0	2.34	44.6	
	보수	287	8.7	58.9	29.6	2.8	67.6	32.4	2.26	42.2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7	26.359 *
	상하	6	16.7	50.0	33.3	0.0	66.7	33.3	2.17	38.9	
	중상	198	8.1	52.0	34.3	5.6	60.1	39.9	2.37	45.8	
	중하	545	5.0	61.3	31.2	2.6	66.2	33.8	2.31	43.8	
	하상	191	4.7	61.3	31.9	2.1	66.0	34.0	2.31	43.8	
	하하	58	13.8	46.6	36.2	3.4	60.3	39.7	2.29	43.1	

(단위: %)

(3) 외국인 노동자		사례수 (명)	매우 감소 해야 한다	다소 감소 해야 한다	다소 증가 해야 한다	매우 증가 해야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감소 해야함	증가 해야함			
2015년		1,000	14.5	46.0	35.1	4.4	60.5	39.5	2.29	43.1	
성별	남성	496	12.3	47.2	34.9	5.6	59.5	40.5	2.34	44.6	7.068
	여성	504	16.7	44.8	35.3	3.2	61.5	38.5	2.25	41.7	
연령	19세~29세	177	17.5	46.3	32.2	4.0	63.8	36.2	2.23	40.9	9.151
	30대	184	13.0	47.8	32.6	6.5	60.9	39.1	2.33	44.2	
	40대	212	14.2	43.4	38.7	3.8	57.5	42.5	2.32	44.0	
	50대	200	12.5	44.0	40.0	3.5	56.5	43.5	2.35	44.8	
	60세 이상	227	15.4	48.5	31.7	4.4	63.9	36.1	2.25	41.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4.8	46.4	34.6	4.1	61.2	38.8	2.28	42.7	11.257
	중소도시	457	15.3	47.5	33.0	4.2	62.8	37.2	2.26	42.0	
	읍면	84	8.3	35.7	48.8	7.1	44.0	56.0	2.55	51.6	
권역	서울	203	16.7	46.3	32.0	4.9	63.1	36.9	2.25	41.7	107.373 ***
	인천/경기	290	24.8	50.3	21.7	3.1	75.2	24.8	2.03	34.4	
	대전/충청	103	10.7	41.7	41.7	5.8	52.4	47.6	2.43	47.6	
	광주/호남	102	3.9	34.3	50.0	11.8	38.2	61.8	2.70	56.5	
	대구/경북	102	14.7	48.0	36.3	1.0	62.7	37.3	2.24	41.2	
	부산/울산/경남	159	1.9	44.0	50.9	3.1	45.9	54.1	2.55	51.8	
	강원/제주	41	14.6	56.1	26.8	2.4	70.7	29.3	2.17	39.0	
결혼 상태	미혼	238	18.1	44.5	33.6	3.8	62.6	37.4	2.23	41.0	3.737
	기혼	732	13.4	46.6	35.5	4.5	60.0	40.0	2.31	43.7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3.3	43.3	36.7	6.7	56.7	43.3	2.37	45.6	
학력	초졸 이하	35	11.4	45.7	37.1	5.7	57.1	42.9	2.37	45.7	5.133
	중졸	113	10.6	46.0	38.9	4.4	56.6	43.4	2.37	45.7	
	고졸	466	14.8	47.0	34.1	4.1	61.8	38.2	2.27	42.5	
	대졸	371	15.9	44.7	34.5	4.9	60.6	39.4	2.28	42.8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6.7	46.7	0.0	53.3	46.7	2.40	46.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2.8	47.5	35.7	4.0	60.3	39.7	2.31	43.7	8.849 *
	긍정	255	19.6	41.6	33.3	5.5	61.2	38.8	2.25	41.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6.2	44.6	33.8	5.4	60.8	39.2	2.28	42.8	10.14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5.0	49.7	30.7	4.6	64.7	35.3	2.25	41.6	
	400만 원 이상	386	13.5	42.0	40.7	3.9	55.4	44.6	2.35	45.0	
	무응답	5	0.0	40.0	60.0	0.0	40.0	60.0	2.60	53.3	
이념 성향	진보	273	11.4	45.4	37.7	5.5	56.8	43.2	2.37	45.8	8.451
	중도	440	14.1	46.4	36.1	3.4	60.5	39.5	2.29	43.0	
	보수	287	18.1	46.0	31.0	4.9	64.1	35.9	2.23	40.9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	12.383
	상하	6	16.7	66.7	16.7	0.0	83.3	16.7	2.00	33.3	
	중상	198	15.7	38.4	40.9	5.1	54.0	46.0	2.35	45.1	
	중하	545	14.7	47.5	33.0	4.8	62.2	37.8	2.28	42.6	
	하상	191	13.1	48.7	34.6	3.7	61.8	38.2	2.29	42.9	
	하하	58	12.1	48.3	37.9	1.7	60.3	39.7	2.29	43.1	

(단위: %)

(4) 조선족		사례수 (명)	매우 감소 해야 한다	다소 감소 해야 한다	다소 증가 해야 한다	매우 증가 해야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감소 해야함	증가 해야함			
2015년		1,000	16.5	52.1	28.8	2.6	68.6	31.4	2.18	39.2	
성별	남성	496	15.7	51.8	29.4	3.0	67.5	32.5	2.20	39.9	1.192
	여성	504	17.3	52.4	28.2	2.2	69.6	30.4	2.15	38.4	
연령	19세~29세	177	18.1	53.1	26.6	2.3	71.2	28.8	2.13	37.7	8.411
	30대	184	13.6	56.5	26.1	3.8	70.1	29.9	2.20	40.0	
	40대	212	18.4	50.0	30.2	1.4	68.4	31.6	2.15	38.2	
	50대	200	14.5	49.5	32.5	3.5	64.0	36.0	2.25	41.7	
	60세 이상	227	17.6	52.0	28.2	2.2	69.6	30.4	2.15	38.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9.6	47.7	30.1	2.6	67.3	32.7	2.16	38.6	9.201
	중소도시	457	13.6	56.2	27.8	2.4	69.8	30.2	2.19	39.7	
	읍면	84	15.5	53.6	27.4	3.6	69.0	31.0	2.19	39.7	
권역	서울	203	24.1	42.4	29.6	3.9	66.5	33.5	2.13	37.8	48.445 ***
	인천/경기	290	20.0	56.9	20.7	2.4	76.9	23.1	2.06	35.2	
	대전/충청	103	19.4	50.5	28.2	1.9	69.9	30.1	2.13	37.5	
	광주/호남	102	3.9	53.9	39.2	2.9	57.8	42.2	2.41	47.1	
	대구/경북	102	10.8	52.0	36.3	1.0	62.7	37.3	2.27	42.5	
	부산/울산/경남	159	9.4	55.3	32.7	2.5	64.8	35.2	2.28	42.8	
	강원/제주	41	19.5	53.7	24.4	2.4	73.2	26.8	2.10	36.6	
결혼 상태	미혼	238	18.9	53.4	26.1	1.7	72.3	27.7	2.11	36.8	3.366
	기혼	732	15.7	51.9	29.5	2.9	67.6	32.4	2.20	39.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6.7	46.7	33.3	3.3	63.3	36.7	2.23	41.1	
학력	초졸 이하	35	17.1	54.3	25.7	2.9	71.4	28.6	2.14	38.1	14.551
	중졸	113	19.5	49.6	29.2	1.8	69.0	31.0	2.13	37.8	
	고졸	466	16.1	48.5	33.0	2.4	64.6	35.4	2.22	40.6	
	대졸	371	16.4	56.1	24.3	3.2	72.5	27.5	2.14	38.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80.0	13.3	0.0	86.7	13.3	2.07	35.6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5.3	53.6	29.0	2.1	68.9	31.1	2.18	39.3	6.069
	긍정	255	20.0	47.8	28.2	3.9	67.8	32.2	2.16	38.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7.7	50.8	29.2	2.3	68.5	31.5	2.16	38.7	3.32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7.7	50.9	28.2	3.1	68.7	31.3	2.17	38.9	
	400만 원 이상	386	14.2	53.9	29.8	2.1	68.1	31.9	2.20	39.9	
	무응답	5	40.0	60.0	0.0	0.0	100.0	0.0	1.6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14.3	55.7	29.7	0.4	70.0	30.0	2.16	38.7	13.762 *
	중도	440	15.5	53.4	27.5	3.6	68.9	31.1	2.19	39.8	
	보수	287	20.2	46.7	30.0	3.1	66.9	33.1	2.16	38.7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11.373
	상하	6	16.7	83.3	0.0	0.0	100.0	0.0	1.83	27.8	
	중상	198	16.7	53.0	26.8	3.5	69.7	30.3	2.17	39.1	
	중하	545	15.6	52.8	29.4	2.2	68.4	31.6	2.18	39.4	
	하상	191	17.3	51.8	28.3	2.6	69.1	30.9	2.16	38.7	
	하하	58	22.4	37.9	36.2	3.4	60.3	39.7	2.21	40.2	

(단위: %)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사례수 (명)	매우 감소 해야 한다	다소 감소 해야 한다	다소 증가 해야 한다	매우 증가 해야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감소 해야함	증가 해야함			
2015년		1,000	3.2	24.2	55.8	16.8	27.4	72.6	2.86	62.1	
성별	남성	496	3.2	22.4	55.4	19.0	25.6	74.4	2.90	63.4	4.085
	여성	504	3.2	26.0	56.2	14.7	29.2	70.8	2.82	60.8	
연령	19세~29세	177	2.8	22.6	59.9	14.7	25.4	74.6	2.86	62.1	10.900
	30대	184	2.7	19.6	60.3	17.4	22.3	77.7	2.92	64.1	
	40대	212	2.4	25.5	51.9	20.3	27.8	72.2	2.90	63.4	
	50대	200	3.5	25.0	53.0	18.5	28.5	71.5	2.87	62.2	
	60세 이상	227	4.4	27.3	55.1	13.2	31.7	68.3	2.77	59.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3	25.3	54.2	17.2	28.5	71.5	2.85	61.8	2.344
	중소도시	457	3.3	23.9	56.0	16.8	27.1	72.9	2.86	62.1	
	읍면	84	2.4	20.2	63.1	14.3	22.6	77.4	2.89	63.1	
권역	서울	203	4.4	20.2	49.8	25.6	24.6	75.4	2.97	65.5	60.682 ***
	인천/경기	290	3.1	30.3	56.6	10.0	33.4	66.6	2.73	57.8	
	대전/충청	103	1.9	26.2	46.6	25.2	28.2	71.8	2.95	65.0	
	광주/호남	102	1.0	21.6	62.7	14.7	22.5	77.5	2.91	63.7	
	대구/경북	102	6.9	24.5	48.0	20.6	31.4	68.6	2.82	60.8	
	부산/울산/경남	159	1.9	20.8	69.2	8.2	22.6	77.4	2.84	61.2	
	강원/제주	41	2.4	14.6	53.7	29.3	17.1	82.9	3.10	69.9	
결혼 상태	미혼	238	3.4	17.6	61.3	17.6	21.0	79.0	2.93	64.4	12.407
	기혼	732	3.3	26.2	54.5	16.0	29.5	70.5	2.83	61.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26.7	43.3	30.0	26.7	73.3	3.03	67.8	
학력	초졸 이하	35	5.7	22.9	62.9	8.6	28.6	71.4	2.74	58.1	15.411
	중졸	113	4.4	23.0	58.4	14.2	27.4	72.6	2.82	60.8	
	고졸	466	3.2	28.3	53.2	15.2	31.5	68.5	2.80	60.2	
	대졸	371	2.7	19.4	57.7	20.2	22.1	77.9	2.95	65.1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6.7	53.3	20.0	26.7	73.3	2.93	64.4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0	22.7	57.6	16.8	25.6	74.4	2.88	62.7	4.996
	긍정	255	3.9	28.6	50.6	16.9	32.5	67.5	2.80	60.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4	21.5	56.2	16.9	26.9	73.1	2.85	61.5	9.74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3	27.1	55.1	14.4	30.5	69.5	2.81	60.2	
	400만 원 이상	386	2.3	21.5	56.5	19.7	23.8	76.2	2.94	64.5	
	무응답	5	0.0	20.0	60.0	20.0	20.0	80.0	3.00	66.7	
이념 성향	진보	273	4.0	20.1	59.7	16.1	24.2	75.8	2.88	62.6	8.614
	중도	440	2.3	24.5	54.3	18.9	26.8	73.2	2.90	63.3	
	보수	287	3.8	27.5	54.4	14.3	31.4	68.6	2.79	59.7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17.686
	상하	6	16.7	33.3	33.3	16.7	50.0	50.0	2.50	50.0	
	중상	198	3.0	22.2	55.1	19.7	25.3	74.7	2.91	63.8	
	중하	545	2.9	25.9	54.1	17.1	28.8	71.2	2.85	61.8	
	하상	191	3.1	21.5	64.4	11.0	24.6	75.4	2.83	61.1	
	하하	58	5.2	22.4	48.3	24.1	27.6	72.4	2.91	63.8	

문18)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북한이탈주민	사례수 (명)	전혀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다소 친근 하게 느껴 진다	매우 친근 하게 느껴 진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친근 하지 않음	친근함				
2015년	1,000	8.9	47.1	40.9	3.1	56.0	44.0	2.38	46.1		
2014년	1,000	9.7	48.3	40.5	1.5	58.0	42.0	2.34	44.6		
성별	남성	496	7.3	47.8	41.3	3.6	55.0	45.0	2.41	47.1	4.011
	여성	504	10.5	46.4	40.5	2.6	56.9	43.1	2.35	45.0	
연령	19세~29세	177	8.5	49.2	40.1	2.3	57.6	42.4	2.36	45.4	5.069
	30대	184	8.7	47.3	40.2	3.8	56.0	44.0	2.39	46.4	
	40대	212	8.5	46.2	40.6	4.7	54.7	45.3	2.42	47.2	
	50대	200	9.5	45.5	43.5	1.5	55.0	45.0	2.37	45.7	
	60세 이상	227	9.3	47.6	40.1	3.1	56.8	43.2	2.37	45.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3.7	51.9	30.7	3.7	65.6	34.4	2.24	41.5	51.678 ***
	중소도시	457	4.8	41.6	51.0	2.6	46.4	53.6	2.51	50.5	
	읍면	84	4.8	51.2	41.7	2.4	56.0	44.0	2.42	47.2	
권역	서울	203	14.8	50.7	29.6	4.9	65.5	34.5	2.25	41.5	85.263 ***
	인천/경기	290	7.2	35.9	53.4	3.4	43.1	56.9	2.53	51.0	
	대전/충청	103	13.6	51.5	34.0	1.0	65.0	35.0	2.22	40.8	
	광주/호남	102	0.0	43.1	53.9	2.9	43.1	56.9	2.60	53.3	
	대구/경북	102	15.7	48.0	35.3	1.0	63.7	36.3	2.22	40.5	
	부산/울산/경남	159	4.4	62.9	30.8	1.9	67.3	32.7	2.30	43.4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2.4	43.9	46.3	7.3	46.3	53.7	2.59	52.8	15.139 *
	미혼	238	9.7	49.2	39.5	1.7	58.8	41.2	2.33	44.4	
	기혼	732	8.2	47.4	41.1	3.3	55.6	44.4	2.39	46.5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0.0	23.3	46.7	10.0	43.3	56.7	2.47	48.9	19.090
	초졸 이하	35	14.3	40.0	45.7	0.0	54.3	45.7	2.31	43.8	
	중졸	113	10.6	52.2	34.5	2.7	62.8	37.2	2.29	43.1	
	고졸	466	8.2	44.2	44.8	2.8	52.4	47.6	2.42	47.4	
	대졸	371	8.9	50.9	36.1	4.0	59.8	40.2	2.35	45.1	
국정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20.0	73.3	0.0	26.7	73.3	2.67	55.6	15.148 **
	부정	745	8.9	49.8	39.2	2.1	58.7	41.3	2.35	44.9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9.0	39.2	45.9	5.9	48.2	51.8	2.49	49.5	13.346 *
	200만원 미만	130	14.6	42.3	37.7	5.4	56.9	43.1	2.34	44.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9.6	46.8	40.5	3.1	56.4	43.6	2.37	45.7	
	400만 원 이상	386	6.0	49.0	42.7	2.3	54.9	45.1	2.41	47.2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60.0	20.0	0.0	80.0	20.0	2.00	33.3	13.344 *
	진보	273	13.9	45.4	38.1	2.6	59.3	40.7	2.29	43.1	
	중도	440	7.5	48.4	40.5	3.6	55.9	44.1	2.40	46.7	
계층 소속감	보수	287	6.3	46.7	44.3	2.8	53.0	47.0	2.44	47.9	24.537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16.7	50.0	16.7	16.7	66.7	33.3	2.33	44.4	
	중상	198	7.1	46.0	44.4	2.5	53.0	47.0	2.42	47.5	
	중하	545	8.8	46.6	41.1	3.5	55.4	44.6	2.39	46.4	
	하상	191	6.8	51.3	39.8	2.1	58.1	41.9	2.37	45.7	
하하	58	22.4	39.7	34.5	3.4	62.1	37.9	2.19	39.7		

(단위: %)

(2) 결혼이주자		사례수 (명)	전혀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다소 친근 하게 느껴 진다	매우 친근 하게 느껴 진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 ² -test
							친근 하지 않음	친근함			
2015년		1,000	7.2	52.4	37.4	3.0	59.6	40.4	2.36	45.4	
2014년		1,000	10.3	55.1	33.6	1.0	65.4	34.6	2.25	41.8	
성별	남성	496	7.3	52.0	36.5	4.2	59.3	40.7	2.38	45.9	5.243
	여성	504	7.1	52.8	38.3	1.8	59.9	40.1	2.35	44.9	
연령	19세~29세	177	5.6	52.0	39.5	2.8	57.6	42.4	2.40	46.5	9.106
	30대	184	6.5	53.8	35.3	4.3	60.3	39.7	2.38	45.8	
	40대	212	8.0	53.8	35.4	2.8	61.8	38.2	2.33	44.3	
	50대	200	10.5	47.0	40.0	2.5	57.5	42.5	2.35	44.8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5.3	55.1	37.0	2.6	60.4	39.6	2.37	45.7	17.060 **
	대도시	459	8.5	55.3	34.0	2.2	63.8	36.2	2.30	43.3	
권역	중소도시	457	5.5	47.9	42.9	3.7	53.4	46.6	2.45	48.3	80.956 ***
	읍면	84	9.5	60.7	26.2	3.6	70.2	29.8	2.24	41.3	
	서울	203	8.9	51.2	36.5	3.4	60.1	39.9	2.34	44.8	
	인천/경기	290	6.6	53.8	36.6	3.1	60.3	39.7	2.36	45.4	
	대전/충청	103	4.9	48.5	43.7	2.9	53.4	46.6	2.45	48.2	
	광주/호남	102	0.0	43.1	51.0	5.9	43.1	56.9	2.63	54.2	
결혼 상태	대구/경북	102	22.5	50.0	25.5	2.0	72.5	27.5	2.07	35.6	13.059 *
	부산/울산/경남	159	1.9	65.4	32.7	0.0	67.3	32.7	2.31	43.6	
	강원/제주	41	9.8	36.6	46.3	7.3	46.3	53.7	2.51	50.4	
학력	미혼	238	5.0	50.8	40.3	3.8	55.9	44.1	2.43	47.6	15.304
	기혼	732	7.4	53.6	36.5	2.6	60.9	39.1	2.34	44.8	
	초졸 이하	35	17.1	40.0	40.0	2.9	57.1	42.9	2.29	42.9	
	중졸	113	7.1	48.7	41.6	2.7	55.8	44.2	2.40	46.6	
	고졸	466	5.6	56.2	35.6	2.6	61.8	38.2	2.35	45.1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8.6	50.4	37.5	3.5	59.0	41.0	2.36	45.3	4.230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40.0	53.3	6.7	40.0	60.0	2.67	55.6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6.7	52.1	38.7	2.6	58.8	41.2	2.37	45.7	8.054
	긍정	255	8.6	53.3	33.7	4.3	62.0	38.0	2.34	44.6	
	200만원 미만	130	12.3	46.2	37.7	3.8	58.5	41.5	2.33	44.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8	52.2	39.0	2.9	58.0	42.0	2.39	46.3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7.3	54.1	35.8	2.8	61.4	38.6	2.34	44.7	6.889
	무응답	5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진보	273	7.7	47.6	40.7	4.0	55.3	44.7	2.41	47.0	
계층 소속감	중도	440	7.0	53.0	36.6	3.4	60.0	40.0	2.36	45.5	41.957 ***
	보수	287	7.0	56.1	35.5	1.4	63.1	36.9	2.31	43.8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0.0	66.7	16.7	16.7	66.7	33.3	2.50	50.0	
	중상	198	7.1	49.0	41.9	2.0	56.1	43.9	2.39	46.3	
계층 소속감	중하	545	6.4	54.7	35.4	3.5	61.1	38.9	2.36	45.3	41.957 ***
	하상	191	4.7	55.0	38.2	2.1	59.7	40.3	2.38	45.9	
계층 소속감	하하	58	24.1	31.0	41.4	3.4	55.2	44.8	2.24	41.4	

(단위: %)

(3) 외국인 노동자		사례수 (명)	전혀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다소 친근 하게 느껴 진다	매우 친근 하게 느껴 진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친근 하지 않음	친근함			
2015년		1,000	16.4	49.9	29.8	3.9	66.3	33.7	2.21	40.4	
2014년		1,000	16.5	57.2	25.7	0.6	73.7	26.3	2.10	36.8	
성별	남성	496	14.5	49.6	30.4	5.4	64.1	35.9	2.27	42.3	8.297 *
	여성	504	18.3	50.2	29.2	2.4	68.5	31.5	2.16	38.6	
연령	19세~29세	177	17.5	53.7	26.0	2.8	71.2	28.8	2.14	38.0	12.129
	30대	184	20.1	45.1	28.3	6.5	65.2	34.8	2.21	40.4	
	40대	212	15.6	47.6	33.0	3.8	63.2	36.8	2.25	41.7	
	50대	200	13.5	51.0	31.0	4.5	64.5	35.5	2.27	42.2	
	60세 이상	227	15.9	52.0	30.0	2.2	67.8	32.2	2.19	39.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7.4	51.4	27.9	3.3	68.8	31.2	2.17	39.0	10.182
	중소도시	457	16.8	48.6	30.9	3.7	65.4	34.6	2.21	40.5	
	읍면	84	8.3	48.8	34.5	8.3	57.1	42.9	2.43	47.6	
권역	서울	203	22.2	46.3	26.6	4.9	68.5	31.5	2.14	38.1	69.971 ***
	인천/경기	290	22.1	51.4	22.8	3.8	73.4	26.6	2.08	36.1	
	대전/충청	103	12.6	45.6	37.9	3.9	58.3	41.7	2.33	44.3	
	광주/호남	102	2.9	47.1	42.2	7.8	50.0	50.0	2.55	51.6	
	대구/경북	102	24.5	52.9	21.6	1.0	77.5	22.5	1.99	33.0	
	부산/울산/경남	159	5.7	55.3	37.7	1.3	61.0	39.0	2.35	44.9	
결혼 상태	미혼	238	19.3	49.2	27.7	3.8	68.5	31.5	2.16	38.7	5.95
	기혼	732	15.2	50.0	31.0	3.8	65.2	34.8	2.23	41.2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3.3	53.3	16.7	6.7	76.7	23.3	2.07	35.6	
학력	초졸 이하	35	20.0	45.7	34.3	0.0	65.7	34.3	2.14	38.1	17.036
	중졸	113	15.0	49.6	31.0	4.4	64.6	35.4	2.25	41.6	
	고졸	466	14.4	54.3	27.9	3.4	68.7	31.3	2.20	40.1	
	대졸	371	19.7	45.0	30.5	4.9	64.7	35.3	2.20	40.2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46.7	53.3	0.0	46.7	53.3	2.53	51.1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5.6	50.2	30.9	3.4	65.8	34.2	2.22	40.7	4.626
	긍정	255	18.8	49.0	26.7	5.5	67.8	32.2	2.19	39.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2.3	44.6	28.5	4.6	66.9	33.1	2.15	38.5	6.74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6.1	49.9	29.4	4.6	66.0	34.0	2.23	40.8	
	400만 원 이상	386	14.5	51.6	31.1	2.8	66.1	33.9	2.22	40.8	
	무응답	5	40.0	60.0	0.0	0.0	100.0	0.0	1.6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14.7	48.7	31.1	5.5	63.4	36.6	2.27	42.5	4.609
	중도	440	16.6	49.3	30.7	3.4	65.9	34.1	2.21	40.3	
	보수	287	17.8	51.9	27.2	3.1	69.7	30.3	2.16	38.6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7.423
	상하	6	0.0	66.7	33.3	0.0	66.7	33.3	2.33	44.4	
	중상	198	15.2	49.0	32.3	3.5	64.1	35.9	2.24	41.4	
	중하	545	16.7	50.5	28.1	4.8	67.2	32.8	2.21	40.3	
	하상	191	16.2	50.3	31.4	2.1	66.5	33.5	2.19	39.8	
하하	58	20.7	44.8	31.0	3.4	65.5	34.5	2.17	39.1		

(단위: %)

(4) 조선족		사레수 (명)	전혀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다소 친근 하게 느껴 진다	매우 친근 하게 느껴 진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친근 하지 않음	친근함			
2015년		1,000	15.2	48.6	32.8	3.4	63.8	36.2	2.24	41.5	
2014년		1,000	18.1	47.4	32.9	1.6	65.5	34.5	2.18	39.3	
성별	남성	496	14.9	48.8	32.5	3.8	63.7	36.3	2.25	41.7	0.630
	여성	504	15.5	48.4	33.1	3.0	63.9	36.1	2.24	41.2	
연령	19세~29세	177	15.3	52.5	29.9	2.3	67.8	32.2	2.19	39.7	10.414
	30대	184	19.0	45.7	30.4	4.9	64.7	35.3	2.21	40.4	
	40대	212	14.6	44.3	37.7	3.3	59.0	41.0	2.30	43.2	
	50대	200	15.5	47.0	34.0	3.5	62.5	37.5	2.26	41.8	
	60세 이상	227	12.3	53.3	31.3	3.1	65.6	34.4	2.25	41.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0.3	46.4	29.6	3.7	66.7	33.3	2.17	38.9	26.660 ***
	중소도시	457	9.8	49.0	37.6	3.5	58.9	41.1	2.35	44.9	
	읍면	84	16.7	58.3	23.8	1.2	75.0	25.0	2.10	36.5	
권역	서울	203	25.6	39.9	30.5	3.9	65.5	34.5	2.13	37.6	61.132 ***
	인천/경기	290	16.6	43.1	35.9	4.5	59.7	40.3	2.28	42.8	
	대전/충청	103	15.5	60.2	21.4	2.9	75.7	24.3	2.12	37.2	
	광주/호남	102	2.0	59.8	38.2	0.0	61.8	38.2	2.36	45.4	
	대구/경북	102	16.7	51.0	28.4	3.9	67.6	32.4	2.20	39.9	
	부산/울산/경남	159	5.7	54.7	36.5	3.1	60.4	39.6	2.37	45.7	
결혼 상태	미혼	238	16.0	52.1	29.0	2.9	68.1	31.9	2.19	39.6	4.75
	기혼	732	14.6	48.0	33.9	3.6	62.6	37.4	2.26	42.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3.3	36.7	36.7	3.3	60.0	40.0	2.20	40.0	
학력	초졸 이하	35	11.4	60.0	28.6	0.0	71.4	28.6	2.17	39.0	9.551
	중졸	113	11.5	56.6	29.2	2.7	68.1	31.9	2.23	41.0	
	고졸	466	15.2	47.0	34.3	3.4	62.2	37.8	2.26	42.0	
	대졸	371	17.0	46.6	32.3	4.0	63.6	36.4	2.23	41.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60.0	33.3	0.0	66.7	33.3	2.27	42.2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4.6	50.1	32.2	3.1	64.7	35.3	2.24	41.3	3.062
	긍정	255	16.9	44.3	34.5	4.3	61.2	38.8	2.26	42.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9.2	53.1	25.4	2.3	72.3	27.7	2.11	36.9	8.88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5.7	45.3	34.9	4.2	61.0	39.0	2.28	42.5	
	400만 원 이상	386	13.2	50.8	33.2	2.8	64.0	36.0	2.26	41.9	
	무응답	5	20.0	80.0	0.0	0.0	100.0	0.0	1.80	26.7	
이념 성향	진보	273	14.3	49.5	34.1	2.2	63.7	36.3	2.24	41.4	7.553
	중도	440	14.1	51.4	31.4	3.2	65.5	34.5	2.24	41.2	
	보수	287	17.8	43.6	33.8	4.9	61.3	38.7	2.26	41.9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18.815
	상하	6	0.0	83.3	16.7	0.0	83.3	16.7	2.17	38.9	
	중상	198	15.7	50.5	30.8	3.0	66.2	33.8	2.21	40.4	
	중하	545	12.7	49.4	34.5	3.5	62.0	38.0	2.29	42.9	
	하상	191	18.8	46.6	31.4	3.1	65.4	34.6	2.19	39.6	
	하하	58	27.6	36.2	31.0	5.2	63.8	36.2	2.14	37.9	

(단위: %)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사례수 (명)	전혀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다소 친근 하게 느껴 진다	매우 친근 하게 느껴 진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친근 하지 않음	친근함			
2015년		1,000	4.2	37.3	50.1	8.4	41.5	58.5	2.63	54.2	
2014년		1,000	7.1	44.5	44.5	3.9	51.6	48.4	2.45	48.4	
성별	남성	496	3.2	37.5	50.2	9.1	40.7	59.3	2.65	55.0	2.766
	여성	504	5.2	37.1	50.0	7.7	42.3	57.7	2.60	53.4	
연령	19세~29세	177	3.4	37.9	53.1	5.6	41.2	58.8	2.61	53.7	9.096
	30대	184	6.0	35.9	47.3	10.9	41.8	58.2	2.63	54.3	
	40대	212	4.7	41.0	46.2	8.0	45.8	54.2	2.58	52.5	
	50대	200	3.0	36.0	51.0	10.0	39.0	61.0	2.68	56.0	
	60세 이상	227	4.0	35.7	52.9	7.5	39.6	60.4	2.64	54.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8	35.7	49.5	10.0	40.5	59.5	2.65	54.9	4.143
	중소도시	457	3.7	38.9	50.3	7.0	42.7	57.3	2.61	53.5	
	읍면	84	3.6	36.9	52.4	7.1	40.5	59.5	2.63	54.4	
권역	서울	203	5.9	34.5	45.3	14.3	40.4	59.6	2.68	56.0	73.722 ***
	인천/경기	290	4.5	41.4	47.6	6.6	45.9	54.1	2.56	52.1	
	대전/충청	103	1.0	43.7	45.6	9.7	44.7	55.3	2.64	54.7	
	광주/호남	102	1.0	26.5	62.7	9.8	27.5	72.5	2.81	60.5	
	대구/경북	102	11.8	49.0	34.3	4.9	60.8	39.2	2.32	44.1	
	부산/울산/경남	159	0.6	30.8	65.4	3.1	31.4	68.6	2.71	57.0	
강원/제주	41	4.9	29.3	51.2	14.6	34.1	65.9	2.76	58.5		
결혼 상태	미혼	238	2.9	39.1	49.2	8.8	42.0	58.0	2.64	54.6	5.543
	기혼	732	4.4	37.2	50.4	8.1	41.5	58.5	2.62	54.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0.0	26.7	50.0	13.3	36.7	63.3	2.67	55.6	
학력	초졸 이하	35	5.7	45.7	45.7	2.9	51.4	48.6	2.46	48.6	13.852
	중졸	113	5.3	31.0	56.6	7.1	36.3	63.7	2.65	55.2	
	고졸	466	4.7	37.6	51.1	6.7	42.3	57.7	2.60	53.2	
	대졸	371	3.2	38.0	47.2	11.6	41.2	58.8	2.67	55.7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40.0	53.3	6.7	40.0	60.0	2.67	55.6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8	36.1	51.9	8.2	39.9	60.1	2.65	54.9	4.615
	긍정	255	5.5	40.8	44.7	9.0	46.3	53.7	2.57	52.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8.5	32.3	50.0	9.2	40.8	59.2	2.60	53.3	8.199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8	38.8	48.9	8.6	42.6	57.4	2.62	54.1	
	400만 원 이상	386	3.4	36.8	51.8	8.0	40.2	59.8	2.65	54.8	
	무응답	5	0.0	60.0	40.0	0.0	60.0	40.0	2.40	46.7	
이념 성향	진보	273	2.9	34.8	49.8	12.5	37.7	62.3	2.72	57.3	10.669
	중도	440	4.3	37.3	50.9	7.5	41.6	58.4	2.62	53.9	
	보수	287	5.2	39.7	49.1	5.9	44.9	55.1	2.56	51.9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14.322
	상하	6	0.0	50.0	33.3	16.7	50.0	50.0	2.67	55.6	
	중상	198	3.0	36.9	52.0	8.1	39.9	60.1	2.65	55.1	
	중하	545	4.0	39.1	47.7	9.2	43.1	56.9	2.62	54.0	
	하상	191	4.2	33.0	57.1	5.8	37.2	62.8	2.64	54.8	
	하하	58	10.3	34.5	44.8	10.3	44.8	55.2	2.55	51.7	

문19)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북한이탈주민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9.2	40.9	46.3	3.6	50.1	49.9	2.44	48.1	
2014년		1,000	9.3	43.7	44.7	2.3	53.0	47.0	2.40	46.7	
성별	남성	496	8.9	40.3	46.4	4.4	49.2	50.8	2.46	48.8	2.105
	여성	504	9.5	41.5	46.2	2.8	51.0	49.0	2.42	47.4	
연령	19세~29세	177	6.8	46.9	44.6	1.7	53.7	46.3	2.41	47.1	16.675
	30대	184	9.2	35.3	49.5	6.0	44.6	55.4	2.52	50.7	
	40대	212	8.5	42.9	44.8	3.8	51.4	48.6	2.44	48.0	
	50대	200	11.0	34.5	52.0	2.5	45.5	54.5	2.46	48.7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0.1	44.5	41.4	4.0	54.6	45.4	2.39	46.4	43.330 ***
	대도시	459	12.0	47.9	36.2	3.9	59.9	40.1	2.32	44.0	
지역 크기	중소도시	457	5.7	34.4	56.2	3.7	40.0	60.0	2.58	52.7	43.330 ***
	읍면	84	13.1	38.1	47.6	1.2	51.2	48.8	2.37	45.6	
	서울	203	15.3	44.8	34.5	5.4	60.1	39.9	2.30	43.3	
권역	인천/경기	290	7.2	33.1	56.6	3.1	40.3	59.7	2.56	51.8	97.147 ***
	대전/충청	103	10.7	43.7	42.7	2.9	54.4	45.6	2.38	46.0	
	광주/호남	102	0.0	30.4	67.6	2.0	30.4	69.6	2.72	57.2	
	대구/경북	102	16.7	36.3	45.1	2.0	52.9	47.1	2.32	44.1	
	부산/울산/경남	159	5.0	61.0	31.4	2.5	66.0	34.0	2.31	43.8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9.8	29.3	48.8	12.2	39.0	61.0	2.63	54.5	7.760
	미혼	238	10.1	43.3	43.3	3.4	53.4	46.6	2.40	46.6	
	기혼	732	8.6	40.6	47.4	3.4	49.2	50.8	2.46	48.5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6.7	30.0	43.3	10.0	46.7	53.3	2.47	48.9	16.395
	초졸 이하	35	22.9	37.1	40.0	0.0	60.0	40.0	2.17	39.0	
	중졸	113	10.6	44.2	41.6	3.5	54.9	45.1	2.38	46.0	
	고졸	466	7.9	41.6	47.2	3.2	49.6	50.4	2.46	48.6	
	대졸	371	8.9	40.4	46.4	4.3	49.3	50.7	2.46	48.7	
국정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13.3	66.7	6.7	26.7	73.3	2.67	55.6	5.225
	부정	745	9.1	41.2	46.8	2.8	50.3	49.7	2.43	47.8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9.4	40.0	44.7	5.9	49.4	50.6	2.47	49.0	28.618 ***
	200만원 미만	130	19.2	38.5	36.9	5.4	57.7	42.3	2.28	42.8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9.0	40.7	45.7	4.6	49.7	50.3	2.46	48.6	
	400만 원 이상	386	6.0	42.2	50.0	1.8	48.2	51.8	2.48	49.2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20.0	60.0	0.0	40.0	60.0	2.40	46.7	10.579
	진보	273	13.2	37.0	46.5	3.3	50.2	49.8	2.40	46.6	
	중도	440	8.9	41.8	46.1	3.2	50.7	49.3	2.44	47.9	
계층 소속감	보수	287	5.9	43.2	46.3	4.5	49.1	50.9	2.49	49.8	26.245 *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33.3	33.3	33.3	0.0	66.7	33.3	2.00	33.3	
	중상	198	8.6	36.4	52.5	2.5	44.9	55.1	2.49	49.7	
	중하	545	8.1	41.3	46.8	3.9	49.4	50.6	2.46	48.8	
	하상	191	8.4	45.5	42.4	3.7	53.9	46.1	2.41	47.1	
	하하	58	22.4	36.2	36.2	5.2	58.6	41.4	2.24	41.4	

(단위: %)

(2) 결혼이주자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6.8	43.3	45.4	4.5	50.1	49.9	2.48	49.2	
2014년		1,000	9.3	41.4	47.2	2.1	50.7	49.3	2.42	47.4	
성별	남성	496	7.1	41.9	45.4	5.6	49.0	51.0	2.50	49.9	3.387
	여성	504	6.5	44.6	45.4	3.4	51.2	48.8	2.46	48.5	
연령	19세~29세	177	2.8	45.8	46.9	4.5	48.6	51.4	2.53	51.0	18.042
	30대	184	6.0	43.5	42.4	8.2	49.5	50.5	2.53	50.9	
	40대	212	8.5	42.5	45.8	3.3	50.9	49.1	2.44	48.0	
	50대	200	10.0	38.5	48.0	3.5	48.5	51.5	2.45	48.3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6.2	46.3	44.1	3.5	52.4	47.6	2.45	48.3	32.781 ***
	대도시	459	7.6	50.5	37.9	3.9	58.2	41.8	2.38	46.0	
	중소도시	457	5.0	35.7	54.3	5.0	40.7	59.3	2.59	53.1	
권역	읍면	84	11.9	45.2	38.1	4.8	57.1	42.9	2.36	45.2	96.764 ***
	서울	203	7.9	48.8	38.4	4.9	56.7	43.3	2.40	46.8	
	인천/경기	290	5.2	47.9	44.1	2.8	53.1	46.9	2.44	48.2	
	대전/충청	103	3.9	35.0	57.3	3.9	38.8	61.2	2.61	53.7	
	광주/호남	102	0.0	39.2	49.0	11.8	39.2	60.8	2.73	57.5	
	대구/경북	102	23.5	32.4	39.2	4.9	55.9	44.1	2.25	41.8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4.4	47.2	47.8	0.6	51.6	48.4	2.45	48.2	17.808 **
	강원/제주	41	4.9	26.8	56.1	12.2	31.7	68.3	2.76	58.5	
	미혼	238	2.9	43.3	47.5	6.3	46.2	53.8	2.57	52.4	
학력	기혼	732	7.5	43.9	44.8	3.8	51.4	48.6	2.45	48.3	17.915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0.0	30.0	43.3	6.7	50.0	50.0	2.37	45.6	
	초졸 이하	35	20.0	34.3	45.7	0.0	54.3	45.7	2.26	41.9	
	중졸	113	3.5	44.2	46.9	5.3	47.8	52.2	2.54	51.3	
	고졸	466	6.7	44.8	45.3	3.2	51.5	48.5	2.45	48.4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6.7	42.0	45.0	6.2	48.8	51.2	2.51	50.2	11.968 **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0.0	46.7	6.7	46.7	53.3	2.53	51.1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5.4	42.7	47.5	4.4	48.1	51.9	2.51	50.3	11.946
	긍정	255	11.0	45.1	39.2	4.7	56.1	43.9	2.38	45.9	
	200만원 미만	130	13.1	43.1	37.7	6.2	56.2	43.8	2.37	45.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8	42.8	47.0	4.4	48.6	51.4	2.50	50.0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5.7	44.3	45.9	4.1	50.0	50.0	2.48	49.5	3.402
	무응답	5	20.0	20.0	60.0	0.0	40.0	60.0	2.40	46.7	
	진보	273	7.0	40.3	46.9	5.9	47.3	52.7	2.52	50.5	
계층 소속감	중도	440	6.1	44.5	45.0	4.3	50.7	49.3	2.48	49.2	17.218
	보수	287	7.7	44.3	44.6	3.5	51.9	48.1	2.44	48.0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16.7	50.0	33.3	0.0	66.7	33.3	2.17	38.9	
	중상	198	6.1	43.4	46.0	4.5	49.5	50.5	2.49	49.7	
	중하	545	6.6	43.5	45.3	4.6	50.1	49.9	2.48	49.3	
계층 소속감	하상	191	4.7	44.5	47.1	3.7	49.2	50.8	2.50	49.9	17.218
	하하	58	17.2	34.5	41.4	6.9	51.7	48.3	2.38	46.0	

(단위: %)

(3) 외국인 노동자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16.7	46.6	33.7	3.0	63.3	36.7	2.23	41.0	
2014년		1,000	13.3	51.4	34.2	1.1	64.7	35.3	2.23	41.0	
성별	남성	496	15.5	44.8	36.5	3.2	60.3	39.7	2.27	42.5	3.975
	여성	504	17.9	48.4	31.0	2.8	66.3	33.7	2.19	39.5	
연령	19세~29세	177	18.1	48.0	31.6	2.3	66.1	33.9	2.18	39.4	14.745
	30대	184	18.5	41.3	34.2	6.0	59.8	40.2	2.28	42.6	
	40대	212	17.5	49.5	30.2	2.8	67.0	33.0	2.18	39.5	
	50대	200	14.0	45.0	37.5	3.5	59.0	41.0	2.31	43.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0.0	47.3	29.4	3.3	67.3	32.7	2.16	38.6	14.789 *
	중소도시	457	15.1	44.6	37.6	2.6	59.7	40.3	2.28	42.6	
	읍면	84	7.1	53.6	35.7	3.6	60.7	39.3	2.36	45.2	
권역	서울	203	26.1	43.3	25.6	4.9	69.5	30.5	2.09	36.5	91.422 ***
	인천/경기	290	20.3	52.8	24.8	2.1	73.1	26.9	2.09	36.2	
	대전/충청	103	11.7	36.9	46.6	4.9	48.5	51.5	2.45	48.2	
	광주/호남	102	2.0	47.1	47.1	3.9	49.0	51.0	2.53	51.0	
	대구/경북	102	25.5	46.1	27.5	1.0	71.6	28.4	2.04	34.6	
	부산/울산/경남	159	5.7	48.4	45.3	0.6	54.1	45.9	2.41	47.0	
결혼 상태	미혼	238	18.9	47.1	31.1	2.9	66.0	34.0	2.18	39.4	3.608
	기혼	732	16.0	46.3	34.8	2.9	62.3	37.7	2.25	41.5	
학력	초졸 이하	35	28.6	37.1	34.3	0.0	65.7	34.3	2.06	35.2	16.940
	중졸	113	9.7	47.8	39.8	2.7	57.5	42.5	2.35	45.1	
	고졸	466	16.1	48.7	33.0	2.1	64.8	35.2	2.21	40.4	
	대졸	371	18.6	44.7	32.1	4.6	63.3	36.7	2.23	40.9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40.0	46.7	0.0	53.3	46.7	2.33	44.4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6.0	45.5	35.4	3.1	61.5	38.5	2.26	41.9	4.366
	긍정	255	18.8	49.8	28.6	2.7	68.6	31.4	2.15	38.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4.6	40.8	31.5	3.1	65.4	34.6	2.13	37.7	9.27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5.9	45.7	34.9	3.5	61.6	38.4	2.26	42.0	
	400만 원 이상	386	14.8	49.7	33.2	2.3	64.5	35.5	2.23	41.0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40.0	20.0	0.0	80.0	20.0	1.80	26.7	11.011
	진보	273	17.9	42.1	34.4	5.5	60.1	39.9	2.27	42.5	
	중도	440	15.9	47.0	34.8	2.3	63.0	37.0	2.23	41.1	
	보수	287	16.7	50.2	31.4	1.7	66.9	33.1	2.18	39.4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16.722
	상하	6	16.7	66.7	16.7	0.0	83.3	16.7	2.00	33.3	
	중상	198	15.7	51.0	30.8	2.5	66.7	33.3	2.20	40.1	
	중하	545	17.1	47.0	32.3	3.7	64.0	36.0	2.23	40.9	
	하상	191	14.1	44.5	40.3	1.0	58.6	41.4	2.28	42.8	
	하하	58	25.9	32.8	36.2	5.2	58.6	41.4	2.21	40.2	

(단위: %)

(4) 조선족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15.2	45.4	36.0	3.4	60.6	39.4	2.28	42.5	
2014년		1,000	15.8	44.7	37.2	2.3	60.5	39.5	2.26	42.0	
성별	남성	496	13.7	46.0	36.7	3.6	59.7	40.3	2.30	43.4	1.791
	여성	504	16.7	44.8	35.3	3.2	61.5	38.5	2.25	41.7	
연령	19세~29세	177	15.3	52.0	31.1	1.7	67.2	32.8	2.19	39.7	17.006
	30대	184	15.2	42.9	37.5	4.3	58.2	41.8	2.31	43.7	
	40대	212	16.0	43.4	37.3	3.3	59.4	40.6	2.28	42.6	
	50대	200	16.5	37.0	43.5	3.0	53.5	46.5	2.33	44.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9.0	45.5	31.8	3.7	64.5	35.5	2.20	40.1	23.775 **
	중소도시	457	10.1	45.1	41.8	3.1	55.1	44.9	2.38	46.0	
	읍면	84	22.6	46.4	27.4	3.6	69.0	31.0	2.12	37.3	
권역	서울	203	25.6	40.4	29.1	4.9	66.0	34.0	2.13	37.8	58.067 ***
	인천/경기	290	14.8	46.2	35.2	3.8	61.0	39.0	2.28	42.6	
	대전/충청	103	13.6	57.3	26.2	2.9	70.9	29.1	2.18	39.5	
	광주/호남	102	0.0	50.0	48.0	2.0	50.0	50.0	2.52	50.7	
	대구/경북	102	15.7	40.2	40.2	3.9	55.9	44.1	2.32	44.1	
	부산/울산/경남	159	10.7	46.5	41.5	1.3	57.2	42.8	2.33	44.4	
결혼 상태	미혼	238	16.4	46.2	35.7	1.7	62.6	37.4	2.23	40.9	3.826
	기혼	732	14.6	45.4	36.1	4.0	60.0	40.0	2.29	43.1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0.0	40.0	36.7	3.3	60.0	40.0	2.23	41.1	9.254
	초졸 이하	35	25.7	40.0	31.4	2.9	65.7	34.3	2.11	37.1	
	중졸	113	10.6	50.4	35.4	3.5	61.1	38.9	2.32	44.0	
	고졸	466	14.4	45.7	36.7	3.2	60.1	39.9	2.29	42.9	
	대졸	371	17.0	44.2	35.0	3.8	61.2	38.8	2.26	41.9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0.0	53.3	0.0	46.7	53.3	2.47	48.9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4.5	45.9	36.5	3.1	60.4	39.6	2.28	42.7	2.167
	긍정	255	17.3	43.9	34.5	4.3	61.2	38.8	2.26	42.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0.8	44.6	29.2	5.4	65.4	34.6	2.19	39.7	9.32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5.4	44.5	36.5	3.5	59.9	40.1	2.28	42.7	
	400만 원 이상	386	12.4	47.2	37.8	2.6	59.6	40.4	2.31	43.5	
이념 성향	무응답	5	60.0	20.0	20.0	0.0	80.0	20.0	1.60	20.0	2.942
	진보	273	16.8	47.3	32.6	3.3	64.1	35.9	2.22	40.8	
	중도	440	14.3	45.9	36.6	3.2	60.2	39.8	2.29	42.9	
	보수	287	15.0	42.9	38.3	3.8	57.8	42.2	2.31	43.7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7	20.897
	상하	6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중상	198	14.6	45.5	37.4	2.5	60.1	39.9	2.28	42.6	
	중하	545	13.4	47.0	36.7	2.9	60.4	39.6	2.29	43.1	
	하상	191	18.8	42.4	34.0	4.7	61.3	38.7	2.25	41.5	
하하	58	22.4	34.5	36.2	6.9	56.9	43.1	2.28	42.5		

(단위: %)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3.6	29.2	56.6	10.6	32.8	67.2	2.74	58.1	
2014년		1,000	6.8	32.1	53.8	7.3	38.9	61.1	2.62	53.9	
성별	남성	496	3.4	27.8	56.7	12.1	31.3	68.8	2.77	59.1	2.801
	여성	504	3.8	30.6	56.5	9.1	34.3	65.7	2.71	57.0	
연령	19세~29세	177	1.7	31.6	56.5	10.2	33.3	66.7	2.75	58.4	12.511
	30대	184	3.8	23.4	59.2	13.6	27.2	72.8	2.83	60.9	
	40대	212	3.8	30.2	54.7	11.3	34.0	66.0	2.74	57.9	
	50대	200	5.0	25.5	60.5	9.0	30.5	69.5	2.74	57.8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0	31.2	50.1	13.7	36.2	63.8	2.73	57.5	25.452 ***
	중소도시	457	2.4	25.6	63.9	8.1	28.0	72.0	2.78	59.2	
	읍면	84	2.4	38.1	52.4	7.1	40.5	59.5	2.64	54.8	
권역	서울	203	5.9	23.6	49.8	20.7	29.6	70.4	2.85	61.7	76.288 ***
	인천/경기	290	3.1	31.0	60.0	5.9	34.1	65.9	2.69	56.2	
	대전/충청	103	1.0	32.0	58.3	8.7	33.0	67.0	2.75	58.3	
	광주/호남	102	0.0	28.4	56.9	14.7	28.4	71.6	2.86	62.1	
	대구/경북	102	11.8	35.3	46.1	6.9	47.1	52.9	2.48	49.3	
	부산/울산/경남	159	0.6	30.8	62.3	6.3	31.4	68.6	2.74	58.1	
강원/제주	41	2.4	17.1	65.9	14.6	19.5	80.5	2.93	64.2		
결혼 상태	미혼	238	2.5	28.2	58.4	10.9	30.7	69.3	2.78	59.2	5.809
	기혼	732	3.7	29.4	56.6	10.4	33.1	66.9	2.74	57.9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0.0	33.3	43.3	13.3	43.3	56.7	2.60	53.3	
학력	초졸 이하	35	8.6	42.9	42.9	5.7	51.4	48.6	2.46	48.6	20.463
	중졸	113	5.3	28.3	57.5	8.8	33.6	66.4	2.70	56.6	
	고졸	466	2.8	32.8	55.2	9.2	35.6	64.4	2.71	56.9	
	대졸	371	3.8	24.0	58.8	13.5	27.8	72.2	2.82	60.6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0.0	73.3	6.7	20.0	80.0	2.87	62.2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5	27.7	59.3	9.5	31.1	68.9	2.75	58.3	9.497 *
	긍정	255	3.9	33.7	48.6	13.7	37.6	62.4	2.72	57.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9.2	32.3	45.4	13.1	41.5	58.5	2.62	54.1	28.756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3	33.0	54.3	10.4	35.3	64.7	2.73	57.6	
	400만 원 이상	386	3.1	23.6	63.5	9.8	26.7	73.3	2.80	60.0	
	무응답	5	20.0	20.0	40.0	20.0	40.0	60.0	2.60	53.3	
이념 성향	진보	273	4.4	26.7	55.3	13.6	31.1	68.9	2.78	59.3	5.596
	중도	440	3.4	29.1	58.4	9.1	32.5	67.5	2.73	57.7	
	보수	287	3.1	31.7	55.1	10.1	34.8	65.2	2.72	57.4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19.966
	상하	6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중상	198	3.5	24.2	59.1	13.1	27.8	72.2	2.82	60.6	
	중하	545	3.3	30.3	56.0	10.5	33.6	66.4	2.74	57.9	
	하상	191	2.1	31.4	57.6	8.9	33.5	66.5	2.73	57.8	
하하	58	12.1	25.9	51.7	10.3	37.9	62.1	2.60	53.4		

문20)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직장 동료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북한이탈주민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8.8	38.6	47.7	4.9	47.4	52.6	2.49	49.6	
2014년		1,000	8.5	38.7	51.0	1.8	47.2	52.8	2.46	48.7	
성별	남성	496	7.7	36.9	50.0	5.4	44.6	55.4	2.53	51.1	3.876
	여성	504	9.9	40.3	45.4	4.4	50.2	49.8	2.44	48.1	
연령	19세~29세	177	5.1	45.2	44.6	5.1	50.3	49.7	2.50	49.9	13.214
	30대	184	8.7	35.3	50.0	6.0	44.0	56.0	2.53	51.1	
	40대	212	8.0	40.1	46.2	5.7	48.1	51.9	2.50	49.8	
	50대	200	11.5	32.5	52.5	3.5	44.0	56.0	2.48	49.3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0.1	40.1	45.4	4.4	50.2	49.8	2.44	48.0	54.390 ***
	대도시	459	11.8	46.0	36.8	5.4	57.7	42.3	2.36	45.3	
	중소도시	457	5.3	30.9	60.0	3.9	36.1	63.9	2.63	54.2	
권역	읍면	84	11.9	40.5	40.5	7.1	52.4	47.6	2.43	47.6	122.51 ***
	서울	203	14.8	44.3	32.0	8.9	59.1	40.9	2.35	45.0	
	인천/경기	290	5.9	29.0	60.3	4.8	34.8	65.2	2.64	54.7	
	대전/충청	103	10.7	39.8	47.6	1.9	50.5	49.5	2.41	46.9	
	광주/호남	102	0.0	23.5	69.6	6.9	23.5	76.5	2.83	61.1	
	대구/경북	102	16.7	38.2	43.1	2.0	54.9	45.1	2.30	43.5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5.0	59.7	34.6	0.6	64.8	35.2	2.31	43.6	12.813 *
	강원/제주	41	12.2	31.7	43.9	12.2	43.9	56.1	2.56	52.0	
	미혼	238	7.1	43.3	44.1	5.5	50.4	49.6	2.48	49.3	
학력	기혼	732	9.0	37.8	48.8	4.4	46.9	53.1	2.48	49.5	22.039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6.7	20.0	50.0	13.3	36.7	63.3	2.60	53.3	
	초졸 이하	35	20.0	40.0	40.0	0.0	60.0	40.0	2.20	40.0	
	중졸	113	12.4	38.1	43.4	6.2	50.4	49.6	2.43	47.8	
	고졸	466	8.8	39.7	48.5	3.0	48.5	51.5	2.46	48.6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6.7	38.0	48.0	7.3	44.7	55.3	2.56	51.9	4.685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20.0	66.7	6.7	26.7	73.3	2.73	57.8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8.3	38.8	48.7	4.2	47.1	52.9	2.49	49.6	27.432 ***
	긍정	255	10.2	38.0	44.7	7.1	48.2	51.8	2.49	49.5	
	200만원 미만	130	19.2	38.5	36.2	6.2	57.7	42.3	2.29	43.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7.7	40.7	46.3	5.2	48.4	51.6	2.49	49.7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6.5	36.3	53.1	4.1	42.7	57.3	2.55	51.6	13.260 *
	무응답	5	20.0	20.0	60.0	0.0	40.0	60.0	2.40	46.7	
	진보	273	13.9	34.4	47.3	4.4	48.4	51.6	2.42	47.4	
계층 소속감	중도	440	6.6	40.5	47.7	5.2	47.0	53.0	2.52	50.5	39.933 ***
	보수	287	7.3	39.7	48.1	4.9	47.0	53.0	2.51	50.2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33.3	33.3	33.3	0.0	66.7	33.3	2.00	33.3	
	중상	198	6.6	35.9	54.5	3.0	42.4	57.6	2.54	51.3	
	중하	545	8.6	36.7	49.0	5.7	45.3	54.7	2.52	50.6	
계층 소속감	하상	191	6.3	48.7	40.3	4.7	55.0	45.0	2.43	47.8	39.933 ***
	하하	58	24.1	31.0	39.7	5.2	55.2	44.8	2.26	42.0	

(단위: %)

(2) 결혼이주자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6.2	42.4	47.2	4.2	48.6	51.4	2.49	49.8	
2014년		1,000	8.4	38.6	51.3	1.7	47.0	53.0	2.46	48.8	
성별	남성	496	6.3	41.3	47.6	4.8	47.6	52.4	2.51	50.3	1.255
	여성	504	6.2	43.5	46.8	3.6	49.6	50.4	2.48	49.3	
연령	19세~29세	177	4.5	45.2	45.8	4.5	49.7	50.3	2.50	50.1	12.292
	30대	184	5.4	45.1	42.9	6.5	50.5	49.5	2.51	50.2	
	40대	212	5.7	41.0	49.5	3.8	46.7	53.3	2.51	50.5	
	50대	200	9.0	36.5	52.0	2.5	45.5	54.5	2.48	49.3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6.2	44.5	45.4	4.0	50.7	49.3	2.47	49.0	28.706 ***
	대도시	459	6.5	49.5	40.1	3.9	56.0	44.0	2.41	47.1	
	중소도시	457	5.0	34.8	55.4	4.8	39.8	60.2	2.60	53.3	
권역	읍면	84	10.7	45.2	41.7	2.4	56.0	44.0	2.36	45.2	53.108 ***
	서울	203	7.4	46.8	40.4	5.4	54.2	45.8	2.44	47.9	
	인천/경기	290	4.8	43.1	48.6	3.4	47.9	52.1	2.51	50.2	
	대전/충청	103	4.9	35.0	55.3	4.9	39.8	60.2	2.60	53.4	
	광주/호남	102	0.0	39.2	52.9	7.8	39.2	60.8	2.69	56.2	
	대구/경북	102	16.7	40.2	40.2	2.9	56.9	43.1	2.29	43.1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5.0	45.3	49.7	0.0	50.3	49.7	2.45	48.2	12.245
	강원/제주	41	7.3	36.6	43.9	12.2	43.9	56.1	2.61	53.7	
	미혼	238	3.8	46.2	45.8	4.2	50.0	50.0	2.50	50.1	
학력	기혼	732	6.6	41.5	48.0	4.0	48.1	51.9	2.49	49.8	14.694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6.7	33.3	40.0	10.0	50.0	50.0	2.43	47.8	
	초졸 이하	35	14.3	37.1	45.7	2.9	51.4	48.6	2.37	45.7	
	중졸	113	6.2	39.8	49.6	4.4	46.0	54.0	2.52	50.7	
	고졸	466	6.7	42.5	48.3	2.6	49.1	50.9	2.47	48.9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4.6	43.7	45.6	6.2	48.2	51.8	2.53	51.1	3.528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40.0	40.0	6.7	53.3	46.7	2.40	46.7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5.6	41.5	48.7	4.2	47.1	52.9	2.51	50.5	12.359
	긍정	255	7.8	45.1	42.7	4.3	52.9	47.1	2.44	47.8	
	200만원 미만	130	11.5	43.1	39.2	6.2	54.6	45.4	2.40	46.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8	42.2	47.4	4.6	48.0	52.0	2.51	50.2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4.7	42.5	49.7	3.1	47.2	52.8	2.51	50.4	6.742
	무응답	5	20.0	40.0	40.0	0.0	60.0	40.0	2.20	40.0	
	진보	273	8.8	38.8	47.3	5.1	47.6	52.4	2.49	49.6	
계층 소속감	중도	440	4.8	44.5	46.6	4.1	49.3	50.7	2.50	50.0	16.012
	보수	287	5.9	42.5	48.1	3.5	48.4	51.6	2.49	49.7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16.7	50.0	33.3	0.0	66.7	33.3	2.17	38.9	
	중상	198	5.6	39.9	52.0	2.5	45.5	54.5	2.52	50.5	
	중하	545	5.9	43.3	46.8	4.0	49.2	50.8	2.49	49.7	
계층 소속감	하상	191	5.2	43.5	45.5	5.8	48.7	51.3	2.52	50.6	16.012
	하하	58	13.8	36.2	43.1	6.9	50.0	50.0	2.43	47.7	

(단위: %)

(3) 외국인 노동자		사레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12.3	44.3	39.3	4.1	56.6	43.4	2.35	45.1	
2014년		1,000	10.8	46.7	40.3	2.2	57.5	42.5	2.34	44.6	
성별	남성	496	10.1	44.2	40.1	5.6	54.2	45.8	2.41	47.1	9.845 *
	여성	504	14.5	44.4	38.5	2.6	58.9	41.1	2.29	43.1	
연령	19세~29세	177	11.3	50.3	35.6	2.8	61.6	38.4	2.30	43.3	16.550
	30대	184	12.5	37.5	43.5	6.5	50.0	50.0	2.44	48.0	
	40대	212	13.2	41.5	41.5	3.8	54.7	45.3	2.36	45.3	
	50대	200	13.5	39.5	42.5	4.5	53.0	47.0	2.38	46.0	
	60세 이상	227	11.0	52.0	33.9	3.1	63.0	37.0	2.29	43.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6.1	44.9	33.8	5.2	61.0	39.0	2.28	42.7	25.759 ***
	중소도시	457	9.6	41.8	45.7	2.8	51.4	48.6	2.42	47.3	
	읍면	84	6.0	54.8	34.5	4.8	60.7	39.3	2.38	46.0	
권역	서울	203	21.7	40.4	31.5	6.4	62.1	37.9	2.23	40.9	75.354 ***
	인천/경기	290	13.8	44.8	38.6	2.8	58.6	41.4	2.30	43.4	
	대전/충청	103	10.7	44.7	39.8	4.9	55.3	44.7	2.39	46.3	
	광주/호남	102	1.0	44.1	51.0	3.9	45.1	54.9	2.58	52.6	
	대구/경북	102	16.7	52.0	27.5	3.9	68.6	31.4	2.19	39.5	
	부산/울산/경남	159	1.9	45.3	51.6	1.3	47.2	52.8	2.52	50.7	
강원/제주	41	17.1	36.6	34.1	12.2	53.7	46.3	2.41	47.2		
결혼 상태	미혼	238	12.2	47.1	37.0	3.8	59.2	40.8	2.32	44.1	3.801
	기혼	732	12.0	43.4	40.4	4.1	55.5	44.5	2.37	45.5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0.0	43.3	30.0	6.7	63.3	36.7	2.23	41.1	
학력	초졸 이하	35	14.3	54.3	28.6	2.9	68.6	31.4	2.20	40.0	8.818
	중졸	113	12.4	45.1	38.1	4.4	57.5	42.5	2.35	44.8	
	고졸	466	13.1	45.5	38.6	2.8	58.6	41.4	2.31	43.7	
	대졸	371	11.3	41.8	41.2	5.7	53.1	46.9	2.41	47.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0.0	46.7	6.7	46.7	53.3	2.53	51.1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1.4	42.6	42.4	3.6	54.0	46.0	2.38	46.1	12.735 **
	긍정	255	14.9	49.4	30.2	5.5	64.3	35.7	2.26	42.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9.2	46.2	28.5	6.2	65.4	34.6	2.22	40.5	13.451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2.1	44.3	39.7	4.0	56.4	43.6	2.35	45.2	
	400만 원 이상	386	9.8	44.3	42.2	3.6	54.1	45.9	2.40	46.5	
	무응답	5	40.0	0.0	60.0	0.0	40.0	60.0	2.20	40.0	
이념 성향	진보	273	13.6	42.5	38.5	5.5	56.0	44.0	2.36	45.3	2.980
	중도	440	11.6	44.5	40.5	3.4	56.1	43.9	2.36	45.2	
	보수	287	12.2	45.6	38.3	3.8	57.8	42.2	2.34	44.6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	20.437
	상하	6	0.0	66.7	33.3	0.0	66.7	33.3	2.33	44.4	
	중상	198	9.6	42.4	42.9	5.1	52.0	48.0	2.43	47.8	
	중하	545	12.7	46.2	37.1	4.0	58.9	41.1	2.32	44.2	
	하상	191	10.5	43.5	43.5	2.6	53.9	46.1	2.38	46.1	
	하하	58	24.1	34.5	34.5	6.9	58.6	41.4	2.24	41.4	

(단위: %)

(4) 조선족		사레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13.2	42.5	40.1	4.2	55.7	44.3	2.35	45.1	
2014년		1,000	14.9	39.5	44.0	1.6	54.4	45.6	2.32	44.1	
성별	남성	496	13.1	41.5	40.5	4.8	54.6	45.4	2.37	45.7	1.224
	여성	504	13.3	43.5	39.7	3.6	56.7	43.3	2.34	44.5	
연령	19세~29세	177	15.8	48.6	32.2	3.4	64.4	35.6	2.23	41.1	13.261
	30대	184	13.6	39.1	41.3	6.0	52.7	47.3	2.40	46.6	
	40대	212	13.2	39.6	43.4	3.8	52.8	47.2	2.38	45.9	
	50대	200	14.0	38.0	44.0	4.0	52.0	48.0	2.38	46.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9.0	42.3	33.3	5.4	61.2	38.8	2.25	41.8	53.591 ***
	중소도시	457	6.8	40.5	49.7	3.1	47.3	52.7	2.49	49.7	
	읍면	84	16.7	54.8	25.0	3.6	71.4	28.6	2.15	38.5	
권역	서울	203	25.6	36.9	30.0	7.4	62.6	37.4	2.19	39.7	73.593 ***
	인천/경기	290	10.7	36.9	49.0	3.4	47.6	52.4	2.45	48.4	
	대전/충청	103	16.5	49.5	28.2	5.8	66.0	34.0	2.23	41.1	
	광주/호남	102	1.0	55.9	41.2	2.0	56.9	43.1	2.44	48.0	
	대구/경북	102	9.8	46.1	40.2	3.9	55.9	44.1	2.38	46.1	
	부산/울산/경남	159	10.1	45.3	42.8	1.9	55.3	44.7	2.36	45.5	
결혼 상태	미혼	238	14.7	47.1	34.9	3.4	61.8	38.2	2.27	42.3	5.208
	기혼	732	12.6	41.1	41.8	4.5	53.7	46.3	2.38	46.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6.7	40.0	40.0	3.3	56.7	43.3	2.30	43.3	
학력	초졸 이하	35	11.4	54.3	34.3	0.0	65.7	34.3	2.23	41.0	10.395
	중졸	113	10.6	50.4	34.5	4.4	61.1	38.9	2.33	44.2	
	고졸	466	13.1	41.4	41.4	4.1	54.5	45.5	2.36	45.5	
	대졸	371	14.3	41.0	39.9	4.9	55.3	44.7	2.35	45.1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26.7	60.0	0.0	40.0	60.0	2.47	48.9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2.8	44.6	38.9	3.8	57.3	42.7	2.34	44.6	5.733
	긍정	255	14.5	36.5	43.5	5.5	51.0	49.0	2.40	46.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4	48.5	30.8	5.4	63.8	36.2	2.26	42.1	7.53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3.8	40.7	41.3	4.2	54.5	45.5	2.36	45.3	
	400만 원 이상	386	10.9	43.0	42.2	3.9	53.9	46.1	2.39	46.4	
	무응답	5	80.0	20.0	0.0	0.0	100.0	0.0	1.20	6.7	
이념 성향	진보	273	14.7	43.6	37.7	4.0	58.2	41.8	2.31	43.7	4.879
	중도	440	13.0	44.5	38.6	3.9	57.5	42.5	2.33	44.5	
	보수	287	12.2	38.3	44.6	4.9	50.5	49.5	2.42	47.4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	23.020
	상하	6	16.7	83.3	0.0	0.0	100.0	0.0	1.83	27.8	
	중상	198	12.1	43.4	40.9	3.5	55.6	44.4	2.36	45.3	
	중하	545	12.1	42.4	41.5	4.0	54.5	45.5	2.37	45.8	
	하상	191	14.7	42.4	38.2	4.7	57.1	42.9	2.33	44.3	
	하하	58	19.0	37.9	36.2	6.9	56.9	43.1	2.31	43.7	

(단위: %)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2.5	26.6	59.8	11.1	29.1	70.9	2.80	59.8	
2014년		1,000	5.6	30.7	55.1	8.6	36.3	63.7	2.67	55.6	
성별	남성	496	2.6	25.8	59.3	12.3	28.4	71.6	2.81	60.4	1.609
	여성	504	2.4	27.4	60.3	9.9	29.8	70.2	2.78	59.3	
연령	19세~29세	177	1.1	26.6	61.6	10.7	27.7	72.3	2.82	60.6	15.638
	30대	184	2.2	22.3	60.3	15.2	24.5	75.5	2.89	62.9	
	40대	212	2.4	27.4	57.1	13.2	29.7	70.3	2.81	60.4	
	50대	200	4.5	25.5	59.5	10.5	30.0	70.0	2.76	58.7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2.2	30.4	60.8	6.6	32.6	67.4	2.72	57.3	31.131 ***
	대도시	459	3.7	25.9	54.7	15.7	29.6	70.4	2.82	60.8	
	중소도시	457	1.3	25.4	66.3	7.0	26.7	73.3	2.79	59.7	
지역 크기	읍면	84	2.4	36.9	52.4	8.3	39.3	60.7	2.67	55.6	81.05 ***
	서울	203	4.9	19.2	52.2	23.6	24.1	75.9	2.95	64.9	
	인천/경기	290	2.1	27.2	63.8	6.9	29.3	70.7	2.76	58.5	
	대전/충청	103	2.9	29.1	54.4	13.6	32.0	68.0	2.79	59.5	
	광주/호남	102	0.0	27.5	71.6	1.0	27.5	72.5	2.74	57.8	
	대구/경북	102	3.9	39.2	47.1	9.8	43.1	56.9	2.63	54.2	
지역 크기	부산/울산/경남	159	0.6	25.8	67.3	6.3	26.4	73.6	2.79	59.7	5.309
	강원/제주	41	2.4	22.0	56.1	19.5	24.4	75.6	2.93	64.2	
	미혼	238	1.7	24.4	62.6	11.3	26.1	73.9	2.84	61.2	
결혼 상태	기혼	732	2.6	27.6	59.0	10.8	30.2	69.8	2.78	59.3	21.250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20.0	56.7	16.7	26.7	73.3	2.83	61.1	
지역 크기	초졸 이하	35	2.9	42.9	51.4	2.9	45.7	54.3	2.54	51.4	4.465
	중졸	113	3.5	29.2	60.2	7.1	32.7	67.3	2.71	56.9	
	고졸	466	1.9	27.5	60.9	9.7	29.4	70.6	2.78	59.4	
	대졸	371	2.7	24.0	58.2	15.1	26.7	73.3	2.86	61.9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6.7	80.0	6.7	13.3	86.7	2.87	62.2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2.7	25.2	61.5	10.6	27.9	72.1	2.80	60.0	7.319
	긍정	255	2.0	30.6	54.9	12.5	32.5	67.5	2.78	59.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4.6	31.5	53.1	10.8	36.2	63.8	2.70	56.7	1.51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7	27.3	60.1	10.9	29.0	71.0	2.80	60.1	
	400만 원 이상	386	2.6	24.1	61.7	11.7	26.7	73.3	2.82	60.8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20.0	60.0	0.0	40.0	60.0	2.40	46.7	30.891 **
	진보	273	2.6	24.9	60.4	12.1	27.5	72.5	2.82	60.7	
	중도	440	2.3	28.2	58.6	10.9	30.5	69.5	2.78	59.4	
	보수	287	2.8	25.8	61.0	10.5	28.6	71.4	2.79	59.7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7	30.891 **
	상하	6	16.7	33.3	50.0	0.0	50.0	50.0	2.33	44.4	
	중상	198	3.0	25.3	60.1	11.6	28.3	71.7	2.80	60.1	
	중하	545	2.2	30.1	55.6	12.1	32.3	67.7	2.78	59.2	
	하상	191	1.0	20.9	71.2	6.8	22.0	78.0	2.84	61.3	
계층 소속감	하하	58	6.9	17.2	60.3	15.5	24.1	75.9	2.84	61.5	

문21)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북한이탈주민		사레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21.9	53.5	22.9	1.7	75.4	24.6	2.04	34.8	
2014년		1,000	23.7	52.9	22.3	1.1	76.6	23.4	2.01	33.6	
성별	남성	496	16.7	53.4	28.0	1.8	70.2	29.8	2.15	38.3	23.354 ***
	여성	504	27.0	53.6	17.9	1.6	80.6	19.4	1.94	31.3	
연령	19세~29세	177	25.4	54.8	19.2	0.6	80.2	19.8	1.95	31.6	7.475
	30대	184	23.4	52.2	22.3	2.2	75.5	24.5	2.03	34.4	
	40대	212	21.7	52.4	23.1	2.8	74.1	25.9	2.07	35.7	
	50대	200	19.0	54.0	25.5	1.5	73.0	27.0	2.10	36.5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20.7	54.2	23.8	1.3	74.9	25.1	2.06	35.2	23.423 **
	대도시	459	27.7	48.6	21.1	2.6	76.3	23.7	1.99	32.9	
	중소도시	457	16.2	58.0	24.9	0.9	74.2	25.8	2.11	36.8	
권역	읍면	84	21.4	56.0	21.4	1.2	77.4	22.6	2.02	34.1	114.449 ***
	서울	203	29.6	43.8	23.2	3.4	73.4	26.6	2.00	33.5	
	인천/경기	290	21.0	59.0	19.3	0.7	80.0	20.0	2.00	33.2	
	대전/충청	103	25.2	46.6	26.2	1.9	71.8	28.2	2.05	35.0	
	광주/호남	102	0.0	49.0	51.0	0.0	49.0	51.0	2.51	50.3	
	대구/경북	102	32.4	52.0	13.7	2.0	84.3	15.7	1.85	28.4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20.8	63.5	15.7	0.0	84.3	15.7	1.95	31.7	16.052 *
	강원/제주	41	14.6	56.1	19.5	9.8	70.7	29.3	2.24	41.5	
	미혼	238	24.8	53.8	20.2	1.3	78.6	21.4	1.98	32.6	
학력	기혼	732	20.8	53.8	23.9	1.5	74.6	25.4	2.06	35.4	10.314
	등거/이혼/별거/사별	30	26.7	43.3	20.0	10.0	70.0	30.0	2.13	37.8	
	초졸 이하	35	34.3	42.9	22.9	0.0	77.1	22.9	1.89	29.5	
	중졸	113	23.9	52.2	22.1	1.8	76.1	23.9	2.02	33.9	
	고졸	466	20.6	54.5	23.6	1.3	75.1	24.9	2.06	35.2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22.4	53.6	21.6	2.4	76.0	24.0	2.04	34.7	11.025 *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53.3	40.0	0.0	60.0	40.0	2.33	44.4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21.1	55.7	22.1	1.1	76.8	23.2	2.03	34.4	20.495 **
	긍정	255	24.3	47.1	25.1	3.5	71.4	28.6	2.08	35.9	
	200만원 미만	130	29.2	43.8	22.3	4.6	73.1	26.9	2.02	34.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3.4	52.4	22.5	1.7	75.8	24.2	2.03	34.2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7.1	58.5	23.6	0.8	75.6	24.4	2.08	36.0	7.243
	무응답	5	60.0	20.0	20.0	0.0	80.0	20.0	1.60	20.0	
	진보	273	26.4	47.3	24.9	1.5	73.6	26.4	2.01	33.8	
계층 소속감	중도	440	20.5	55.9	22.0	1.6	76.4	23.6	2.05	34.9	32.622 **
	보수	287	19.9	55.7	22.3	2.1	75.6	24.4	2.07	35.5	
	상상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	
	상하	6	16.7	66.7	16.7	0.0	83.3	16.7	2.00	33.3	
	중상	198	20.2	50.5	27.8	1.5	70.7	29.3	2.11	36.9	
계층 소속감	중하	545	23.3	52.5	22.9	1.3	75.8	24.2	2.02	34.1	32.622 **
	하상	191	15.7	62.3	20.4	1.6	78.0	22.0	2.08	35.9	
	하하	58	32.8	44.8	15.5	6.9	77.6	22.4	1.97	32.2	

(단위: %)

(2) 결혼이주자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19.8	55.0	22.4	2.8	74.8	25.2	2.08	36.1	
2014년		1,000	24.9	49.5	24.3	1.3	74.4	25.6	2.02	34.0	
성별	남성	496	16.5	56.7	24.0	2.8	73.2	26.8	2.13	37.7	6.912
	여성	504	23.0	53.4	20.8	2.8	76.4	23.6	2.03	34.5	
연령	19세~29세	177	27.1	49.7	20.9	2.3	76.8	23.2	1.98	32.8	11.264
	30대	184	17.9	56.5	21.7	3.8	74.5	25.5	2.11	37.1	
	40대	212	18.9	57.1	20.8	3.3	75.9	24.1	2.08	36.2	
	50대	200	18.5	52.5	26.0	3.0	71.0	29.0	2.14	37.8	
	60세 이상	227	17.6	58.1	22.5	1.8	75.8	24.2	2.08	36.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2.2	52.3	23.5	2.0	74.5	25.5	2.05	35.1	8.095
	중소도시	457	16.8	57.8	21.7	3.7	74.6	25.4	2.12	37.4	
	읍면	84	22.6	54.8	20.2	2.4	77.4	22.6	2.02	34.1	
권역	서울	203	22.2	49.3	26.1	2.5	71.4	28.6	2.09	36.3	91.999 ***
	인천/경기	290	19.0	60.3	18.6	2.1	79.3	20.7	2.04	34.6	
	대전/충청	103	22.3	44.7	29.1	3.9	67.0	33.0	2.15	38.2	
	광주/호남	102	0.0	52.9	41.2	5.9	52.9	47.1	2.53	51.0	
	대구/경북	102	37.3	49.0	10.8	2.9	86.3	13.7	1.79	26.5	
	부산/울산/경남	159	18.2	65.4	16.4	0.0	83.6	16.4	1.98	32.7	
결혼 상태	미혼	238	23.9	52.1	21.0	2.9	76.1	23.9	2.03	34.3	10.209
	기혼	732	17.9	56.6	23.0	2.6	74.5	25.5	2.10	36.7	
	등거/이혼/별거/사별	30	33.3	40.0	20.0	6.7	73.3	26.7	2.00	33.3	
학력	초졸 이하	35	34.3	42.9	22.9	0.0	77.1	22.9	1.89	29.5	11.917
	중졸	113	22.1	54.0	20.4	3.5	76.1	23.9	2.05	35.1	
	고졸	466	18.5	56.2	23.0	2.4	74.7	25.3	2.09	36.4	
	대졸	371	19.9	55.0	21.6	3.5	74.9	25.1	2.09	36.2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53.3	40.0	0.0	60.0	40.0	2.33	44.4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9.2	54.9	23.2	2.7	74.1	25.9	2.09	36.5	1.565
	긍정	255	21.6	55.3	20.0	3.1	76.9	23.1	2.05	34.9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6.2	47.7	23.1	3.1	73.8	26.2	2.03	34.4	9.24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9.2	53.4	24.0	3.3	72.7	27.3	2.11	37.2	
	400만 원 이상	386	17.9	59.8	20.2	2.1	77.7	22.3	2.06	35.5	
	무응답	5	60.0	20.0	20.0	0.0	80.0	20.0	1.6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22.3	47.6	26.0	4.0	70.0	30.0	2.12	37.2	11.885
	중도	440	18.9	59.8	19.1	2.3	78.6	21.4	2.05	34.9	
	보수	287	18.8	54.7	24.0	2.4	73.5	26.5	2.10	36.7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	25.013
	상하	6	0.0	83.3	16.7	0.0	83.3	16.7	2.17	38.9	
	중상	198	19.2	53.5	22.7	4.5	72.7	27.3	2.13	37.5	
	중하	545	20.6	55.8	21.3	2.4	76.3	23.7	2.06	35.2	
	하상	191	14.7	57.6	26.2	1.6	72.3	27.7	2.15	38.2	
	하하	58	31.0	43.1	20.7	5.2	74.1	25.9	2.00	33.3	

(단위: %)

(3) 외국인 노동자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33.4	45.3	18.4	2.9	78.7	21.3	1.91	30.3	
2014년		1,000	31.4	53.6	13.9	1.1	85.0	15.0	1.85	28.2	
성별	남성	496	27.4	49.4	20.4	2.8	76.8	23.2	1.99	32.9	16.263 **
	여성	504	39.3	41.3	16.5	3.0	80.6	19.4	1.83	27.7	
연령	19세~29세	177	36.7	40.1	22.0	1.1	76.8	23.2	1.88	29.2	25.958 *
	30대	184	34.2	46.2	16.8	2.7	80.4	19.6	1.88	29.3	
	40대	212	33.0	49.1	11.8	6.1	82.1	17.9	1.91	30.3	
	50대	200	31.0	44.0	21.0	4.0	75.0	25.0	1.98	32.7	
	60세 이상	227	32.6	46.3	20.7	0.4	78.9	21.1	1.89	29.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4.4	44.4	18.3	2.8	78.9	21.1	1.90	29.8	2.077
	중소도시	457	33.3	45.7	18.4	2.6	79.0	21.0	1.90	30.1	
	읍면	84	28.6	47.6	19.0	4.8	76.2	23.8	2.00	33.3	
권역	서울	203	35.0	41.4	20.7	3.0	76.4	23.6	1.92	30.5	104.538 ***
	인천/경기	290	44.5	44.5	9.3	1.7	89.0	11.0	1.68	22.8	
	대전/충청	103	32.0	44.7	19.4	3.9	76.7	23.3	1.95	31.7	
	광주/호남	102	2.9	52.0	38.2	6.9	54.9	45.1	2.49	49.7	
	대구/경북	102	41.2	48.0	9.8	1.0	89.2	10.8	1.71	23.5	
	부산/울산/경남	159	28.9	45.3	24.5	1.3	74.2	25.8	1.98	32.7	
강원/제주	41	24.4	48.8	17.1	9.8	73.2	26.8	2.12	37.4		
결혼 상태	미혼	238	34.5	41.2	21.8	2.5	75.6	24.4	1.92	30.8	5.874
	기혼	732	33.1	46.4	17.6	2.9	79.5	20.5	1.90	30.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3	50.0	10.0	6.7	83.3	16.7	1.90	30.0	
학력	초졸 이하	35	37.1	45.7	17.1	0.0	82.9	17.1	1.80	26.7	10.167
	중졸	113	30.1	41.6	25.7	2.7	71.7	28.3	2.01	33.6	
	고졸	466	33.7	45.3	18.2	2.8	79.0	21.0	1.90	30.0	
	대졸	371	34.2	46.4	15.9	3.5	80.6	19.4	1.89	29.6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46.7	33.3	0.0	66.7	33.3	2.13	37.8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1.7	45.8	19.9	2.7	77.4	22.6	1.94	31.2	6.617
	긍정	255	38.4	43.9	14.1	3.5	82.4	17.6	1.83	27.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6.2	42.3	18.5	3.1	78.5	21.5	1.88	29.5	6.30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4.0	43.6	18.4	4.0	77.7	22.3	1.92	30.8	
	400만 원 이상	386	31.9	48.4	18.1	1.6	80.3	19.7	1.89	29.8	
	무응답	5	20.0	40.0	40.0	0.0	60.0	40.0	2.20	40.0	
이념 성향	진보	273	33.7	40.7	20.9	4.8	74.4	25.6	1.97	32.2	10.223
	중도	440	32.0	48.0	18.4	1.6	80.0	20.0	1.90	29.8	
	보수	287	35.2	45.6	16.0	3.1	80.8	19.2	1.87	29.0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	19.019
	상하	6	0.0	83.3	16.7	0.0	83.3	16.7	2.17	38.9	
	중상	198	28.3	49.0	19.2	3.5	77.3	22.7	1.98	32.7	
	중하	545	36.3	44.2	16.7	2.8	80.6	19.4	1.86	28.6	
	하상	191	29.3	45.0	23.6	2.1	74.3	25.7	1.98	32.8	
	하하	58	37.9	41.4	15.5	5.2	79.3	20.7	1.88	29.3	

(단위: %)

(4) 조선족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27.9	50.4	19.9	1.8	78.3	21.7	1.96	31.9	
2014년		1,000	30.0	47.7	21.5	0.8	77.7	22.3	1.93	31.0	
성별	남성	496	24.8	50.8	22.4	2.0	75.6	24.4	2.02	33.9	6.720
	여성	504	31.0	50.0	17.5	1.6	81.0	19.0	1.90	29.9	
연령	19세~29세	177	35.0	48.6	15.3	1.1	83.6	16.4	1.82	27.5	14.197
	30대	184	28.3	48.9	21.2	1.6	77.2	22.8	1.96	32.1	
	40대	212	27.8	46.7	23.1	2.4	74.5	25.5	2.00	33.3	
	50대	200	26.5	49.0	22.0	2.5	75.5	24.5	2.01	33.5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23.3	57.7	17.6	1.3	81.1	18.9	1.97	32.3	22.435 **
	대도시	459	34.4	44.7	19.6	1.3	79.1	20.9	1.88	29.3	
	중소도시	457	21.0	56.2	20.6	2.2	77.2	22.8	2.04	34.6	
권역	읍면	84	29.8	50.0	17.9	2.4	79.8	20.2	1.93	31.0	59.226 ***
	서울	203	36.5	38.4	23.2	2.0	74.9	25.1	1.91	30.2	
	인천/경기	290	30.0	52.4	16.2	1.4	82.4	17.6	1.89	29.7	
	대전/충청	103	31.1	48.5	18.4	1.9	79.6	20.4	1.91	30.4	
	광주/호남	102	5.9	57.8	32.4	3.9	63.7	36.3	2.34	44.8	
	대구/경북	102	35.3	50.0	13.7	1.0	85.3	14.7	1.80	26.8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22.6	59.1	17.6	0.6	81.8	18.2	1.96	32.1	6.910
	강원/제주	41	19.5	48.8	26.8	4.9	68.3	31.7	2.17	39.0	
	미혼	238	34.0	46.6	18.1	1.3	80.7	19.3	1.87	28.9	
학력	기혼	732	26.1	51.4	20.6	1.9	77.5	22.5	1.98	32.8	14.239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3.3	56.7	16.7	3.3	80.0	20.0	2.00	33.3	
	초졸 이하	35	31.4	54.3	14.3	0.0	85.7	14.3	1.83	27.6	
	중졸	113	25.7	56.6	15.9	1.8	82.3	17.7	1.94	31.3	
	고졸	466	26.8	50.2	20.6	2.4	77.0	23.0	1.98	32.8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30.5	48.5	19.7	1.3	79.0	21.0	1.92	30.6	5.489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6.7	46.7	0.0	53.3	46.7	2.40	46.7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28.3	51.4	18.3	2.0	79.7	20.3	1.94	31.3	10.065
	긍정	255	26.7	47.5	24.7	1.2	74.1	25.9	2.00	33.5	
	200만원 미만	130	31.5	49.2	16.9	2.3	80.8	19.2	1.90	30.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8.8	48.2	20.3	2.7	77.0	23.0	1.97	32.3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24.9	53.9	20.7	0.5	78.8	21.2	1.97	32.3	3.599
	무응답	5	80.0	20.0	0.0	0.0	100.0	0.0	1.20	6.7	
	진보	273	28.9	47.3	21.6	2.2	76.2	23.8	1.97	32.4	
계층 소속감	중도	440	28.2	51.6	19.1	1.1	79.8	20.2	1.93	31.1	13.725
	보수	287	26.5	51.6	19.5	2.4	78.0	22.0	1.98	32.6	
	상상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	
	상하	6	0.0	83.3	16.7	0.0	83.3	16.7	2.17	38.9	
	중상	198	29.3	47.0	21.7	2.0	76.3	23.7	1.96	32.2	
	중하	545	28.1	51.0	19.6	1.3	79.1	20.9	1.94	31.4	
계층 소속감	하상	191	24.6	52.9	19.4	3.1	77.5	22.5	2.01	33.7	13.725
	하하	58	32.8	46.6	19.0	1.7	79.3	20.7	1.90	29.9	

(단위: %)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사례수 (명)	매우 꺼려 진다	다소 꺼려 진다	다소 환영 한다	매우 환영 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꺼려짐	환영함			
2015년		1,000	12.2	43.6	36.9	7.3	55.8	44.2	2.39	46.4	
2014년		1,000	17.1	41.3	36.8	4.8	58.4	41.6	2.29	43.1	
성별	남성	496	10.1	42.7	39.3	7.9	52.8	47.2	2.45	48.3	5.771
	여성	504	14.3	44.4	34.5	6.7	58.7	41.3	2.34	44.6	
연령	19세~29세	177	13.6	42.9	37.3	6.2	56.5	43.5	2.36	45.4	9.130
	30대	184	9.2	46.7	36.4	7.6	56.0	44.0	2.42	47.5	
	40대	212	10.4	43.9	37.3	8.5	54.2	45.8	2.44	48.0	
	50대	200	12.0	39.5	42.0	6.5	51.5	48.5	2.43	47.7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5.4	44.9	32.2	7.5	60.4	39.6	2.32	43.9	24.700 ***
	대도시	459	13.5	36.2	41.4	8.9	49.7	50.3	2.46	48.6	
	중소도시	457	9.8	49.9	34.4	5.9	59.7	40.3	2.36	45.4	
권역	읍면	84	17.9	50.0	26.2	6.0	67.9	32.1	2.20	40.1	107.383 ***
	서울	203	10.3	29.6	48.8	11.3	39.9	60.1	2.61	53.7	
	인천/경기	290	9.0	55.9	29.3	5.9	64.8	35.2	2.32	44.0	
	대전/충청	103	17.5	46.6	29.1	6.8	64.1	35.9	2.25	41.7	
	광주/호남	102	2.0	41.2	47.1	9.8	43.1	56.9	2.65	54.9	
	대구/경북	102	30.4	40.2	21.6	7.8	70.6	29.4	2.07	35.6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13.2	44.7	40.9	1.3	57.9	42.1	2.30	43.4	9.429
	강원/제주	41	7.3	29.3	48.8	14.6	36.6	63.4	2.71	56.9	
	미혼	238	11.8	43.7	35.3	9.2	55.5	44.5	2.42	47.3	
학력	기혼	732	11.9	43.6	38.1	6.4	55.5	44.5	2.39	46.4	22.283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3.3	43.3	20.0	13.3	66.7	33.3	2.23	41.1	
	초졸 이하	35	28.6	42.9	28.6	0.0	71.4	28.6	2.00	33.3	
	중졸	113	17.7	39.8	32.7	9.7	57.5	42.5	2.35	44.8	
	고졸	466	12.2	43.8	36.7	7.3	56.0	44.0	2.39	46.4	
국정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46.7	53.3	0.0	46.7	53.3	2.53	51.1	10.560 *
	부정	745	10.6	43.0	39.2	7.2	53.6	46.4	2.43	47.7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16.9	45.5	30.2	7.5	62.4	37.6	2.28	42.7	14.843 *
	200만원 미만	130	19.2	43.1	26.2	11.5	62.3	37.7	2.30	43.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0.4	44.5	38.4	6.7	54.9	45.1	2.41	47.1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1.9	43.0	38.3	6.7	54.9	45.1	2.40	46.6	15.873 *
	무응답	5	20.0	20.0	60.0	0.0	40.0	60.0	2.40	46.7	
	진보	273	13.6	34.8	41.8	9.9	48.4	51.6	2.48	49.3	
계층 소속감	중도	440	11.4	49.1	33.0	6.6	60.5	39.5	2.35	44.9	35.275 **
	보수	287	12.2	43.6	38.3	5.9	55.7	44.3	2.38	46.0	
	상상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	
	상하	6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중상	198	12.1	38.9	40.4	8.6	51.0	49.0	2.45	48.5	
계층 소속감	중하	545	11.2	47.0	35.2	6.6	58.2	41.8	2.37	45.7	35.275 **
	하상	191	10.5	41.9	40.8	6.8	52.4	47.6	2.44	48.0	
계층 소속감	하하	58	25.9	34.5	27.6	12.1	60.3	39.7	2.26	42.0	35.275 **

문22)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관심 없음	관심 있음				
2015년		1,000	6.3	44.5	39.9	9.3	50.8	49.2	2.52	50.7	
성별	남성	496	6.0	39.3	43.3	11.3	45.4	54.6	2.60	53.3	13.168
	여성	504	6.5	49.6	36.5	7.3	56.2	43.8	2.45	48.2	**
연령	19세~29세	177	9.0	57.6	29.9	3.4	66.7	33.3	2.28	42.6	52.710 ***
	30대	184	9.8	47.8	33.7	8.7	57.6	42.4	2.41	47.1	
	40대	212	2.8	49.1	40.6	7.5	51.9	48.1	2.53	50.9	
	50대	200	6.0	38.5	43.5	12.0	44.5	55.5	2.62	53.8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4.8	32.6	48.9	13.7	37.4	62.6	2.71	57.1	17.090 **
	대도시	459	7.8	45.8	34.4	12.0	53.6	46.4	2.51	50.2	
	중소도시	457	5.0	43.1	44.4	7.4	48.1	51.9	2.54	51.4	
권역	읍면	84	4.8	45.2	45.2	4.8	50.0	50.0	2.50	50.0	63.468 ***
	서울	203	10.3	38.9	36.0	14.8	49.3	50.7	2.55	51.7	
	인천/경기	290	4.1	43.1	42.4	10.3	47.2	52.8	2.59	53.0	
	대전/충청	103	10.7	37.9	38.8	12.6	48.5	51.5	2.53	51.1	
	광주/호남	102	1.0	52.9	46.1	0.0	53.9	46.1	2.45	48.4	
	대구/경북	102	7.8	41.2	39.2	11.8	49.0	51.0	2.55	51.6	
부산/울산/경남	159	4.4	59.1	34.6	1.9	63.5	36.5	2.34	44.7	28.432 ***	
	강원/제주	41	7.3	29.3	51.2	12.2	36.6	63.4	2.68		56.1
결혼 상태	미혼	238	8.8	54.6	32.4	4.2	63.4	36.6	2.32	44.0	12.534
	기혼	732	5.2	41.9	42.1	10.8	47.1	52.9	2.58	52.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3.3	26.7	46.7	13.3	40.0	60.0	2.60	53.3	
학력	초졸 이하	35	11.4	22.9	51.4	14.3	34.3	65.7	2.69	56.2	23.891 ***
	중졸	113	5.3	38.1	46.9	9.7	43.4	56.6	2.61	53.7	
	고졸	466	5.8	45.1	39.9	9.2	50.9	49.1	2.53	50.9	
	대졸	371	6.7	47.7	36.9	8.6	54.4	45.6	2.47	49.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6.7	33.3	13.3	53.3	46.7	2.53	51.1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6.2	48.7	37.3	7.8	54.9	45.1	2.47	48.9	22.782 **
	긍정	255	6.7	32.2	47.5	13.7	38.8	61.2	2.68	56.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8.5	34.6	42.3	14.6	43.1	56.9	2.63	54.4	31.532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7.3	41.3	41.1	10.2	48.6	51.4	2.54	51.4	
	400만 원 이상	386	4.1	52.1	37.6	6.2	56.2	43.8	2.46	48.6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20.0	40.0	20.0	40.0	60.0	2.60	53.3	23.740
	진보	273	6.6	50.2	36.3	7.0	56.8	43.2	2.44	47.9	
	중도	440	5.9	49.3	37.3	7.5	55.2	44.8	2.46	48.8	
계층 소속감	보수	287	6.6	31.7	47.4	14.3	38.3	61.7	2.69	56.4	23.740
	상상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7	
	상하	6	16.7	66.7	16.7	0.0	83.3	16.7	2.00	33.3	
	중상	198	7.1	41.4	45.5	6.1	48.5	51.5	2.51	50.2	
	중하	545	5.7	47.0	38.7	8.6	52.7	47.3	2.50	50.1	
하상	191	6.3	45.5	35.1	13.1	51.8	48.2	2.55	51.7		
하하	58	8.6	27.6	48.3	15.5	36.2	63.8	2.71	56.9		

문23) 귀하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다음 중 어느 매체에 가장 많이 의존하십니까? 1순위와 2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

(단위: %)

1순위		사례 수 (명)	지상파 TV (KBS, MBC, SBS, EBS, 지역 민방)	인터넷 (포털, 블로그)	종편 TV (JTBC, TV조선, 채널A, MBN)	케이블 TV (연합 뉴스, YTN 등)	신문 (중앙지)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	지역 신문 (지방지)	라디오	X ² -test
2015년		1,000	71.0	11.4	7.2	4.6	3.3	1.4	0.6	0.4	0.1	
성별	남성	496	69.2	13.9	6.0	5.0	3.8	1.0	0.4	0.4	0.2	11.716
	여성	504	72.8	8.9	8.3	4.2	2.8	1.8	0.8	0.4	0.0	
연령	19세~29세	177	52.0	29.4	5.6	1.7	4.0	4.5	2.3	0.0	0.6	141.009 ***
	30대	184	69.6	13.0	8.2	4.9	1.6	1.1	1.1	0.5	0.0	
	40대	212	71.2	10.4	9.9	4.2	3.3	0.5	0.0	0.5	0.0	
	50대	200	76.5	6.0	8.5	5.0	2.0	1.5	0.0	0.5	0.0	
	60세 이상	227	81.9	1.8	4.0	6.6	5.3	0.0	0.0	0.4	0.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6.9	9.6	4.8	4.4	2.6	0.9	0.4	0.4	0.0	25.685
	중소도시	457	64.3	14.0	9.8	4.6	3.7	2.0	0.9	0.4	0.2	
	읍면	84	75.0	7.1	6.0	6.0	4.8	1.2	0.0	0.0	0.0	
권역	서울	203	69.5	12.8	7.9	4.4	3.4	1.0	0.5	0.5	0.0	94.906 ***
	인천/경기	290	67.6	13.4	11.7	2.1	2.8	2.1	0.0	0.3	0.0	
	대전/충청	103	77.7	8.7	1.0	4.9	1.9	2.9	2.9	0.0	0.0	
	광주/호남	102	63.7	11.8	8.8	4.9	7.8	0.0	1.0	1.0	1.0	
	대구/경북	102	69.6	18.6	1.0	4.9	2.9	2.0	1.0	0.0	0.0	
	부산/울산/경남	159	82.4	3.8	4.4	6.3	2.5	0.0	0.0	0.6	0.0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63.4	7.3	9.8	14.6	2.4	2.4	0.0	0.0	0.0	88.609 ***
	미혼	238	56.3	24.4	6.3	3.4	3.8	2.9	2.5	0.0	0.4	
학력	기혼	732	75.3	7.5	7.4	5.1	3.3	1.0	0.0	0.5	0.0	77.001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83.3	3.3	10.0	3.3	0.0	0.0	0.0	0.0	0.0	
	초졸 이하	35	85.7	0.0	2.9	8.6	2.9	0.0	0.0	0.0	0.0	
	중졸	113	77.0	2.7	3.5	7.1	7.1	0.9	0.0	1.8	0.0	
	고졸	466	76.4	9.0	6.4	3.4	3.0	1.1	0.2	0.2	0.2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61.2	17.8	9.7	5.1	2.7	2.2	1.1	0.3	0.0	9.486
	대학원 재학 이상	15	66.7	20.0	6.7	0.0	0.0	0.0	6.7	0.0	0.0	
	부정	745	70.1	12.3	7.9	4.6	2.7	1.2	0.7	0.4	0.1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73.7	8.6	5.1	4.7	5.1	2.0	0.4	0.4	0.0	25.048
	200만원 미만	130	74.6	5.4	3.1	8.5	5.4	1.5	0.8	0.8	0.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71.2	11.3	8.1	3.8	4.0	1.0	0.6	0.0	0.0	
	400만 원 이상	386	69.9	13.2	7.5	4.4	1.8	1.6	0.5	0.8	0.3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40.0	0.0	0.0	0.0	20.0	0.0	0.0	0.0	44.823 ***
	진보	273	65.2	15.8	7.0	3.3	4.0	3.3	0.7	0.7	0.0	
	중도	440	72.5	13.0	5.7	3.9	3.2	0.2	0.9	0.5	0.2	
계층 소속감	보수	287	74.2	4.9	9.8	7.0	2.8	1.4	0.0	0.0	0.0	242.070 ***
	상상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상하	6	16.7	33.3	0.0	33.3	0.0	0.0	0.0	0.0	16.7	
	중상	198	70.7	9.6	8.1	3.5	4.0	3.5	0.0	0.5	0.0	
	중하	545	69.2	14.7	8.3	3.1	2.8	0.9	1.1	0.0	0.0	
	하상	191	77.0	5.2	4.2	7.9	4.2	1.0	0.0	0.5	0.0	
하하	58	74.1	5.2	5.2	8.6	3.4	0.0	0.0	3.4	0.0		

문24)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사례수 (명)	경제대상	적대대상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2015년		1,000	6.19	5.66	5.38	5.19	4.04
2014년		1,000	5.96	5.57	5.01	4.82	3.80
성별	남성	496	6.24	5.73	5.47	5.25	4.02
	여성	504	6.15	5.59	5.28	5.13	4.06
연령	19세~29세	177	6.23	5.66	4.99	4.86	3.81
	30대	184	6.05	5.63	5.31	5.25	4.05
	40대	212	6.31	5.69	5.73	5.27	4.03
	50대	200	6.10	5.47	5.58	5.37	3.98
	60세 이상	227	6.25	5.83	5.23	5.16	4.28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83	5.57	5.20	5.19	4.28
	중소도시	457	6.41	5.57	5.64	5.13	3.77
	읍면	84	6.99	6.65	4.89	5.49	4.21
권역	서울	203	5.20	5.01	4.98	5.15	3.67
	인천/경기	290	6.30	5.58	5.80	5.20	3.76
	대전/충청	103	5.43	5.12	5.29	5.23	4.09
	광주/호남	102	5.33	5.08	6.35	6.36	4.80
	대구/경북	102	8.00	7.57	4.89	4.79	3.72
	부산/울산/경남	159	7.16	6.36	4.87	4.58	4.89
	강원/제주	41	6.20	4.85	5.32	5.59	3.39
결혼 상태	미혼	238	6.32	5.76	4.97	4.92	3.96
	기혼	732	6.17	5.61	5.52	5.26	4.1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5.87	6.03	5.07	5.60	3.03
학력	초졸 이하	35	7.29	6.37	4.77	4.34	4.57
	중졸	113	6.35	6.05	5.32	5.19	4.48
	고졸	466	6.18	5.64	5.38	5.17	4.16
	대졸	371	6.04	5.50	5.38	5.24	3.7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53	5.67	6.80	6.13	4.1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6.14	5.52	5.30	5.16	3.96
	긍정	255	6.33	6.06	5.59	5.27	4.28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6.50	6.37	5.14	5.10	4.1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6.15	5.55	5.30	5.17	4.08
	400만 원 이상	386	6.16	5.56	5.59	5.27	3.99
	무응답	5	4.40	5.20	3.00	2.80	2.60
이념 성향	진보	273	5.59	5.19	5.54	5.60	4.00
	중도	440	6.23	5.66	5.31	5.17	4.03
	보수	287	6.70	6.11	5.32	4.82	4.10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6.00	4.00	4.00	5.00
	상하	6	4.33	4.33	5.67	6.83	3.33
	중상	198	5.92	5.60	5.44	5.36	4.03
	중하	545	6.18	5.57	5.60	5.34	4.08
	하상	191	6.52	5.88	4.97	4.69	4.10
	하하	58	6.43	6.16	4.38	4.67	3.57

문25) 다음은 북한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양쪽에 적혀진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의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

(1) 친절하다	사례 수 (명)	불친절하다	2점	3점	4점	친절하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3.4	22.3	54.0	18.0	2.3	25.7	54.0	20.3	2.94	48.4		
2014년	1,000	4.8	25.5	50.3	16.7	2.7	30.3	50.3	19.4	2.87	46.8		
성별	남성	496	2.6	23.0	54.0	17.5	2.8	25.6	54.0	20.4	2.95	48.7	3.247
	여성	504	4.2	21.6	54.0	18.5	1.8	25.8	54.0	20.2	2.92	48.0	
연령	19세~29세	177	2.3	23.7	57.6	15.3	1.1	26.0	57.6	16.4	2.89	47.3	18.833
	30대	184	3.3	19.0	54.3	20.7	2.7	22.3	54.3	23.4	3.01	50.1	
	40대	212	5.7	20.3	54.2	18.4	1.4	25.9	54.2	19.8	2.90	47.4	
	50대	200	4.5	21.0	54.5	16.0	4.0	25.5	54.5	20.0	2.94	48.5	
	60세 이상	227	1.3	26.9	50.2	19.4	2.2	28.2	50.2	21.6	2.94	48.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0	24.0	55.6	13.3	2.2	29.0	55.6	15.5	2.84	45.9	26.316 **
	중소도시	457	2.0	19.7	52.1	23.4	2.8	21.7	52.1	26.3	3.05	51.4	
	읍면	84	2.4	27.4	56.0	14.3	0.0	29.8	56.0	14.3	2.82	45.5	
권역	서울	203	7.9	23.2	55.7	11.8	1.5	31.0	55.7	13.3	2.76	44.0	68.438 ***
	인천/경기	290	4.1	19.3	55.5	18.3	2.8	23.4	55.5	21.0	2.96	49.1	
	대전/충청	103	1.0	16.5	66.0	14.6	1.9	17.5	66.0	16.5	3.00	50.0	
	광주/호남	102	0.0	27.5	48.0	24.5	0.0	27.5	48.0	24.5	2.97	49.3	
	대구/경북	102	0.0	17.6	53.9	24.5	3.9	17.6	53.9	28.4	3.15	53.7	
	부산/울산/경남	159	1.3	28.9	52.8	14.5	2.5	30.2	52.8	17.0	2.88	47.0	
강원/제주	41	7.3	26.8	24.4	36.6	4.9	34.1	24.4	41.5	3.05	51.2		
결혼 상태	미혼	238	3.4	24.8	52.5	17.2	2.1	28.2	52.5	19.3	2.90	47.5	3.491
	기혼	732	3.6	21.6	54.4	18.0	2.5	25.1	54.4	20.5	2.94	48.6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20.0	56.7	23.3	0.0	20.0	56.7	23.3	3.03	50.8	
학력	초졸 이하	35	0.0	37.1	54.3	8.6	0.0	37.1	54.3	8.6	2.71	42.9	19.248
	중졸	113	1.8	26.5	46.0	23.9	1.8	28.3	46.0	25.7	2.97	49.3	
	고졸	466	3.6	22.3	54.1	17.6	2.4	26.0	54.1	20.0	2.93	48.2	
	대졸	371	4.0	19.9	56.6	17.0	2.4	24.0	56.6	19.4	2.94	48.5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13.3	46.7	33.3	6.7	13.3	46.7	40.0	3.33	58.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9	22.0	55.4	16.9	1.7	25.9	55.4	18.7	2.91	47.7	9.141
	긍정	255	2.0	23.1	49.8	21.2	3.9	25.1	49.8	25.1	3.02	50.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29.2	49.2	16.9	2.3	31.5	49.2	19.2	2.88	46.9	4.96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8	21.3	54.9	17.5	2.5	25.1	54.9	20.0	2.94	48.4	
	400만 원 이상	386	3.1	21.5	54.4	18.9	2.1	24.6	54.4	21.0	2.95	48.8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0.0	60.0	20.0	0.0	20.0	60.0	20.0	2.80	45.0	5.439
	진보	273	3.7	21.6	54.6	17.9	2.2	25.3	54.6	20.1	2.93	48.4	
	중도	440	3.4	22.5	55.2	17.5	1.4	25.9	55.2	18.9	2.91	47.7	
	보수	287	3.1	22.6	51.6	18.8	3.8	25.8	51.6	22.6	2.98	49.4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0.0	0.0	50.0	0.0	50.0	0.0	3.50	62.5	40.126 **
	상하	6	0.0	16.7	50.0	16.7	16.7	50.0	33.3	3.33	58.3		
	중상	198	4.0	26.8	50.0	17.7	1.5	30.8	50.0	19.2	2.86	46.5	
	중하	545	3.1	20.2	57.8	16.9	2.0	23.3	57.8	18.9	2.94	48.6	
	하상	191	4.2	20.9	50.8	20.9	3.1	25.1	50.8	24.1	2.98	49.5	
하하	58	1.7	31.0	44.8	20.7	1.7	32.8	44.8	22.4	2.90	47.4		

(단위: %)

(2) 근면하다		사례 수 (명)	게으르다	2점	3점	4점	근면하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4.2	14.8	38.3	32.5	10.2	19.0	38.3	42.7	3.30	57.4	
2014년		1,000	3.3	11.6	30.0	41.8	13.3	14.9	30.0	55.1	3.50	62.6	
성별	남성	496	3.8	13.7	38.7	33.5	10.3	17.5	38.7	43.8	3.33	58.2	1.443
	여성	504	4.6	15.9	37.9	31.5	10.1	20.4	37.9	41.7	3.27	56.7	
연령	19세~29세	177	5.6	13.0	46.9	25.4	9.0	18.6	46.9	34.5	3.19	54.8	21.117
	30대	184	5.4	14.7	33.2	35.3	11.4	20.1	33.2	46.7	3.33	58.2	
	40대	212	3.8	14.2	39.2	32.1	10.8	17.9	39.2	42.9	3.32	58.0	
	50대	200	5.5	13.5	33.0	37.5	10.5	19.0	33.0	48.0	3.34	58.5	
	60세 이상	227	1.3	18.1	39.6	31.7	9.3	19.4	39.6	41.0	3.30	57.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5.9	17.6	39.0	29.8	7.6	23.5	39.0	37.5	3.16	53.9	23.857 **
	중소도시	457	2.8	11.6	38.1	33.9	13.6	14.4	38.1	47.5	3.44	60.9	
	읍면	84	2.4	16.7	35.7	39.3	6.0	19.0	35.7	45.2	3.30	57.4	
권역	서울	203	8.9	17.2	41.9	25.1	6.9	26.1	41.9	32.0	3.04	51.0	64.760 ***
	인천/경기	290	4.5	13.8	36.2	35.2	10.3	18.3	36.2	45.5	3.33	58.3	
	대전/충청	103	0.0	12.6	38.8	35.0	13.6	12.6	38.8	48.5	3.50	62.4	
	광주/호남	102	1.0	17.6	52.0	27.5	2.0	18.6	52.0	29.4	3.12	52.9	
	대구/경북	102	1.0	13.7	42.2	31.4	11.8	14.7	42.2	43.1	3.39	59.8	
	부산/울산/경남	159	3.8	14.5	30.8	39.0	11.9	18.2	30.8	50.9	3.41	60.2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7.3	12.2	19.5	34.1	26.8	19.5	19.5	61.0	3.61	65.2	5.882
	미혼	238	5.5	13.4	42.4	28.2	10.5	18.9	42.4	38.7	3.25	56.2	
	기혼	732	3.8	15.0	36.9	34.2	10.1	18.9	36.9	44.3	3.32	57.9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20.0	40.0	26.7	10.0	23.3	40.0	36.7	3.20	55.0	23.632
	초졸 이하	35	2.9	25.7	40.0	14.3	17.1	28.6	40.0	31.4	3.17	54.3	
	중졸	113	2.7	19.5	37.2	35.4	5.3	22.1	37.2	40.7	3.21	55.3	
	고졸	466	5.4	13.5	37.8	34.8	8.6	18.9	37.8	43.3	3.28	56.9	
	대졸	371	3.5	14.0	38.8	31.0	12.7	17.5	38.8	43.7	3.35	58.8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13.3	46.7	20.0	20.0	13.3	46.7	40.0	3.47	61.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4.6	14.6	38.9	32.6	9.3	19.2	38.9	41.9	3.27	56.8	3.810
	긍정	255	3.1	15.3	36.5	32.2	12.9	18.4	36.5	45.1	3.36	59.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8	17.7	42.3	23.1	13.1	21.5	42.3	36.2	3.24	56.0	10.14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2	15.2	38.2	31.7	10.6	19.4	38.2	42.4	3.29	57.4	
	400만 원 이상	386	3.9	13.2	37.0	37.0	8.8	17.1	37.0	45.9	3.34	58.4	
	무응답	5	40.0	20.0	40.0	0.0	0.0	60.0	40.0	0.0	2.00	25.0	
이념 성향	진보	273	4.8	13.2	33.7	38.5	9.9	17.9	33.7	48.4	3.36	58.9	14.683
	중도	440	5.0	14.5	42.7	28.2	9.5	19.5	42.7	37.7	3.23	55.7	
	보수	287	2.4	16.7	35.9	33.4	11.5	19.2	35.9	44.9	3.35	58.7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50.0	0.0	50.0	0.0	50.0	50.0	4.00	75.0	22.316
	상하	6	0.0	0.0	16.7	50.0	33.3	0.0	16.7	83.3	4.17	79.2	
	중상	198	3.0	13.6	42.9	31.8	8.6	16.7	42.9	40.4	3.29	57.3	
	중하	545	4.2	14.7	36.7	33.6	10.8	18.9	36.7	44.4	3.32	58.0	
	하상	191	5.2	13.1	40.8	31.4	9.4	18.3	40.8	40.8	3.27	56.7	
	하하	58	5.2	27.6	31.0	27.6	8.6	32.8	31.0	36.2	3.07	51.7	

(단위: %)

(3) 온화하다		사례 수 (명)	공격적 이다	2점	3점	4점	온화 하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9.4	34.7	37.6	15.5	2.8	44.1	37.6	18.3	2.68	41.9	
2014년		1,000	12.3	38.0	34.8	13.3	1.6	50.3	34.8	14.9	2.54	38.5	
성별	남성	496	7.5	34.7	38.5	15.5	3.8	42.1	38.5	19.4	2.74	43.4	7.891
	여성	504	11.3	34.7	36.7	15.5	1.8	46.0	36.7	17.3	2.62	40.4	
연령	19세~29세	177	10.2	33.9	42.4	11.9	1.7	44.1	42.4	13.6	2.61	40.3	10.647
	30대	184	9.8	31.5	40.8	14.7	3.3	41.3	40.8	17.9	2.70	42.5	
	40대	212	9.0	35.8	34.4	17.5	3.3	44.8	34.4	20.8	2.70	42.6	
	50대	200	10.5	37.0	31.5	17.5	3.5	47.5	31.5	21.0	2.67	41.6	
	60세 이상	227	7.9	34.8	39.6	15.4	2.2	42.7	39.6	17.6	2.69	42.3	
지역 크기	대도시	459	9.6	39.4	34.2	15.0	1.7	49.0	34.2	16.8	2.60	40.0	16.371 *
	중소도시	457	9.0	30.0	40.0	16.8	4.2	38.9	40.0	21.0	2.77	44.3	
	읍면	84	10.7	34.5	42.9	10.7	1.2	45.2	42.9	11.9	2.57	39.3	
권역	서울	203	12.8	36.5	34.0	14.8	2.0	49.3	34.0	16.7	2.57	39.2	61.996 ***
	인천/경기	290	8.6	31.4	42.8	15.2	2.1	40.0	42.8	17.2	2.71	42.7	
	대전/충청	103	1.9	31.1	49.5	13.6	3.9	33.0	49.5	17.5	2.86	46.6	
	광주/호남	102	5.9	30.4	44.1	16.7	2.9	36.3	44.1	19.6	2.80	45.1	
	대구/경북	102	9.8	29.4	40.2	17.6	2.9	39.2	40.2	20.6	2.75	43.6	
	부산/울산/경남	159	9.4	48.4	25.8	12.6	3.8	57.9	25.8	16.4	2.53	38.2	
강원/제주	41	24.4	29.3	12.2	29.3	4.9	53.7	12.2	34.1	2.61	40.2		
결혼 상태	미혼	238	12.2	38.2	34.5	12.6	2.5	50.4	34.5	15.1	2.55	38.8	8.130
	기혼	732	8.3	33.7	38.5	16.4	3.0	42.1	38.5	19.4	2.72	43.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3.3	30.0	40.0	16.7	0.0	43.3	40.0	16.7	2.60	40.0	
학력	초졸 이하	35	14.3	37.1	34.3	14.3	0.0	51.4	34.3	14.3	2.49	37.1	9.372
	중졸	113	8.8	32.7	43.4	13.3	1.8	41.6	43.4	15.0	2.66	41.6	
	고졸	466	9.0	36.5	35.2	16.3	3.0	45.5	35.2	19.3	2.68	42.0	
	대졸	371	9.4	33.7	38.8	15.1	3.0	43.1	38.8	18.1	2.68	42.1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13.3	46.7	20.0	6.7	26.7	46.7	26.7	2.93	48.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9.5	34.2	38.5	15.7	2.0	43.8	38.5	17.7	2.66	41.6	7.437
	긍정	255	9.0	36.1	34.9	14.9	5.1	45.1	34.9	20.0	2.71	42.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3.1	36.2	38.5	10.8	1.5	49.2	38.5	12.3	2.52	37.9	10.09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9.2	32.6	38.8	15.7	3.8	41.8	38.8	19.4	2.72	43.1	
	400만 원 이상	386	8.0	37.0	35.8	17.1	2.1	45.1	35.8	19.2	2.68	42.0	
	무응답	5	40.0	20.0	40.0	0.0	0.0	60.0	40.0	0.0	2.00	25.0	
이념 성향	진보	273	12.1	30.4	41.0	13.6	2.9	42.5	41.0	16.5	2.65	41.2	12.323
	중도	440	8.9	35.7	38.2	15.5	1.8	44.5	38.2	17.3	2.66	41.4	
	보수	287	7.7	37.3	33.4	17.4	4.2	44.9	33.4	21.6	2.73	43.3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0.0	0.0	50.0	50.0	0.0	50.0	3.50	62.5	47.452 **
	상하	6	16.7	16.7	33.3	0.0	33.3	33.3	33.3	3.17	54.2		
	중상	198	9.6	34.3	36.4	17.2	2.5	43.9	36.4	19.7	2.69	42.2	
	중하	545	9.4	35.0	38.7	14.5	2.4	44.4	38.7	16.9	2.66	41.4	
	하상	191	7.3	33.0	38.2	18.8	2.6	40.3	38.2	21.5	2.76	44.1	
하하	58	15.5	39.7	31.0	10.3	3.4	55.2	31.0	13.8	2.47	36.6		

(단위: %)

(4) 타인을 배려한다		사례 수 (명)	타인 을 배려 하지 않는 다	2점	3점	4점	타인 을 배려 한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6.6	30.6	44.9	15.7	2.2	37.2	44.9	17.9	2.76	44.1	
2014년		1,000	12.3	32.5	40.9	13.1	1.2	44.8	40.9	14.3	2.58	39.6	
성별	남성	496	7.1	29.4	45.8	15.3	2.4	36.5	45.8	17.7	2.77	44.2	1.216
	여성	504	6.2	31.7	44.0	16.1	2.0	37.9	44.0	18.1	2.76	44.0	
연령	19세~29세	177	6.8	33.3	44.1	14.7	1.1	40.1	44.1	15.8	2.70	42.5	10.622
	30대	184	5.4	34.8	44.0	12.5	3.3	40.2	44.0	15.8	2.73	43.3	
	40대	212	5.2	28.8	47.6	17.0	1.4	34.0	47.6	18.4	2.81	45.2	
	50대	200	9.0	28.5	43.0	16.5	3.0	37.5	43.0	19.5	2.76	44.0	
	60세 이상	227	6.6	28.6	45.4	17.2	2.2	35.2	45.4	19.4	2.80	44.9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2	31.4	48.1	11.5	1.7	38.6	48.1	13.3	2.69	42.3	28.538 ***
	중소도시	457	5.0	30.9	40.3	20.8	3.1	35.9	40.3	23.9	2.86	46.5	
	읍면	84	11.9	25.0	52.4	10.7	0.0	36.9	52.4	10.7	2.62	40.5	
권역	서울	203	10.3	30.5	46.3	10.3	2.5	40.9	46.3	12.8	2.64	41.0	92.579 ***
	인천/경기	290	6.2	36.9	35.5	20.7	0.7	43.1	35.5	21.4	2.73	43.2	
	대전/충청	103	4.9	18.4	59.2	14.6	2.9	23.3	59.2	17.5	2.92	48.1	
	광주/호남	102	2.9	29.4	53.9	13.7	0.0	32.4	53.9	13.7	2.78	44.6	
	대구/경북	102	3.9	20.6	46.1	27.5	2.0	24.5	46.1	29.4	3.03	50.7	
	부산/울산/경남	159	5.7	34.0	50.9	4.4	5.0	39.6	50.9	9.4	2.69	42.3	
강원/제주	41	14.6	31.7	19.5	29.3	4.9	46.3	19.5	34.1	2.78	44.5		
결혼 상태	미혼	238	8.4	31.9	42.0	14.7	2.9	40.3	42.0	17.6	2.72	43.0	10.495
	기혼	732	5.6	30.6	46.0	15.8	1.9	36.2	46.0	17.8	2.78	44.5	
	동거/이혼/별거/사별	30	16.7	20.0	40.0	20.0	3.3	36.7	40.0	23.3	2.73	43.3	
학력	초졸 이하	35	14.3	25.7	48.6	11.4	0.0	40.0	48.6	11.4	2.57	39.3	9.518
	중졸	113	7.1	30.1	44.2	16.8	1.8	37.2	44.2	18.6	2.76	44.0	
	고졸	466	6.2	32.4	43.3	15.7	2.4	38.6	43.3	18.0	2.76	43.9	
	대졸	371	6.5	29.4	46.4	15.6	2.2	35.8	46.4	17.8	2.78	44.4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0.0	53.3	20.0	6.7	20.0	53.3	26.7	3.13	53.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6.4	30.3	47.2	14.6	1.3	36.8	47.2	16.0	2.74	43.5	15.661 **
	긍정	255	7.1	31.4	38.0	18.8	4.7	38.4	38.0	23.5	2.83	45.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2.3	30.0	40.8	13.8	3.1	42.3	40.8	16.9	2.65	41.3	12.03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4	31.7	44.5	15.7	2.7	37.2	44.5	18.4	2.78	44.6	
	400만 원 이상	386	5.7	29.8	46.6	16.6	1.3	35.5	46.6	17.9	2.78	44.5	
	무응답	5	40.0	0.0	60.0	0.0	0.0	40.0	60.0	0.0	2.20	30.0	
이념 성향	진보	273	5.9	32.2	45.1	14.7	2.2	38.1	45.1	16.8	2.75	43.8	2.117
	중도	440	6.6	30.7	45.2	15.7	1.8	37.3	45.2	17.5	2.75	43.9	
	보수	287	7.3	28.9	44.3	16.7	2.8	36.2	44.3	19.5	2.79	44.7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50.0	0.0	50.0	0.0	50.0	50.0	4.00	75.0	41.418 **
	상하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33.3	3.00	50.0	
	중상	198	6.6	33.8	42.9	15.7	1.0	40.4	42.9	16.7	2.71	42.7	
	중하	545	5.3	29.9	47.7	14.7	2.4	35.2	47.7	17.1	2.79	44.7	
	하상	191	8.4	29.3	41.4	19.4	1.6	37.7	41.4	20.9	2.76	44.1	
하하	58	12.1	32.8	37.9	13.8	3.4	44.8	37.9	17.2	2.64	40.9		

(단위: %)

(5) 개방적이다		사례 수 (명)	폐쇄적 이다	2점	3점	4점	개방적 이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19.9	46.3	25.7	7.4	0.7	66.2	25.7	8.1	2.23	30.7	
2014년		1,000	32.5	39.0	20.5	6.7	1.3	71.5	20.5	8.0	2.05	26.3	
성별	남성	496	19.4	45.6	25.2	8.9	1.0	64.9	25.2	9.9	2.27	31.7	4.569
	여성	504	20.4	47.0	26.2	6.0	0.4	67.5	26.2	6.3	2.19	29.7	
연령	19세~29세	177	19.8	43.5	27.1	9.6	0.0	63.3	27.1	9.6	2.27	31.6	16.748
	30대	184	21.7	44.6	25.0	7.1	1.6	66.3	25.0	8.7	2.22	30.6	
	40대	212	19.8	46.7	28.3	4.2	0.9	66.5	28.3	5.2	2.20	30.0	
	50대	200	23.5	43.0	25.5	7.5	0.5	66.5	25.5	8.0	2.19	29.6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5.4	52.4	22.9	8.8	0.4	67.8	22.9	9.3	2.26	31.6	11.306
	대도시	459	21.4	44.9	26.1	6.8	0.9	66.2	26.1	7.6	2.21	30.2	
	중소도시	457	19.0	49.7	23.6	7.2	0.4	68.7	23.6	7.7	2.20	30.1	
지역 크기	읍면	84	16.7	35.7	34.5	11.9	1.2	52.4	34.5	13.1	2.45	36.3	125.764 ***
	서울	203	27.6	35.0	26.1	10.3	1.0	62.6	26.1	11.3	2.22	30.5	
	인천/경기	290	13.8	63.8	16.9	5.2	0.3	77.6	16.9	5.5	2.14	28.6	
	대전/충청	103	15.5	31.1	41.7	9.7	1.9	46.6	41.7	11.7	2.51	37.9	
	광주/호남	102	10.8	37.3	36.3	15.7	0.0	48.0	36.3	15.7	2.57	39.2	
지역 크기	대구/경북	102	20.6	48.0	25.5	3.9	2.0	68.6	25.5	5.9	2.19	29.7	11.306
	부산/울산/경남	159	23.3	49.7	25.8	1.3	0.0	73.0	25.8	1.3	2.05	26.3	
	강원/제주	41	43.9	22.0	19.5	14.6	0.0	65.9	19.5	14.6	2.05	26.2	
결혼 상태	미혼	238	21.8	45.4	23.9	8.0	0.8	67.2	23.9	8.8	2.21	30.1	8.851
	기혼	732	18.6	47.3	26.1	7.4	0.7	65.8	26.1	8.1	2.24	31.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6.7	30.0	30.0	3.3	0.0	66.7	30.0	3.3	2.00	25.0	
지역 크기	초졸 이하	35	22.9	48.6	22.9	5.7	0.0	71.4	22.9	5.7	2.11	27.9	31.195 *
	중졸	113	15.9	52.2	25.7	5.3	0.9	68.1	25.7	6.2	2.23	30.8	
	고졸	466	19.3	48.1	25.1	7.3	0.2	67.4	25.1	7.5	2.21	30.3	
	대졸	371	21.6	43.1	27.0	7.3	1.1	64.7	27.0	8.4	2.23	30.8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20.0	20.0	33.3	6.7	40.0	20.0	40.0	2.87	46.7	
국경운영 평가	부정	745	20.9	46.3	25.0	7.2	0.5	67.2	25.0	7.8	2.20	30.0	3.399
	긍정	255	16.9	46.3	27.8	7.8	1.2	63.1	27.8	9.0	2.30	32.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0.0	42.3	21.5	4.6	1.5	72.3	21.5	6.2	2.05	26.3	23.319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6.3	44.5	30.3	8.4	0.6	60.8	30.3	9.0	2.33	33.1	
	400만 원 이상	386	20.7	50.3	21.2	7.3	0.5	71.0	21.2	7.8	2.17	29.1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20.0	40.0	0.0	0.0	60.0	40.0	0.0	2.00	25.0	7.176
	진보	273	21.2	44.0	24.2	10.3	0.4	65.2	24.2	10.6	2.25	31.1	
	중도	440	19.5	46.1	27.5	6.1	0.7	65.7	27.5	6.8	2.22	30.6	
계층 소속감	보수	287	19.2	48.8	24.4	6.6	1.0	67.9	24.4	7.7	2.22	30.4	110.965 ***
	상상	2	0.0	0.0	50.0	0.0	50.0	0.0	50.0	50.0	4.00	75.0	
	상하	6	16.7	0.0	50.0	16.7	16.7	16.7	50.0	33.3	3.17	54.2	
	중상	198	19.2	48.0	25.8	7.1	0.0	67.2	25.8	7.1	2.21	30.2	
	중하	545	18.7	45.1	28.1	7.3	0.7	63.9	28.1	8.1	2.26	31.6	
	하상	191	21.5	50.3	18.8	8.9	0.5	71.7	18.8	9.4	2.17	29.2	
계층 소속감	하하	58	29.3	44.8	22.4	3.4	0.0	74.1	22.4	3.4	2.00	25.0	110.965 ***

(단위: %)

(6) 신뢰할 수 있다		사례 수 (명)	신뢰할 수 없다	2점	3점	4점	신뢰할 수 있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 ²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11.6	28.8	44.8	13.4	1.4	40.4	44.8	14.8	2.64	41.1	
2014년		1,000	18.1	33.3	37.6	9.8	1.2	51.4	37.6	11.0	2.43	35.7	
성별	남성	496	10.9	27.6	45.4	14.5	1.6	38.5	45.4	16.1	2.68	42.1	2.209
	여성	504	12.3	30.0	44.2	12.3	1.2	42.3	44.2	13.5	2.60	40.0	
연령	19세~29세	177	11.9	30.5	45.2	11.3	1.1	42.4	45.2	12.4	2.59	39.8	8.888
	30대	184	10.9	27.2	46.7	14.7	0.5	38.0	46.7	15.2	2.67	41.7	
	40대	212	11.3	28.3	42.5	15.6	2.4	39.8	42.5	17.9	2.69	42.3	
	50대	200	12.0	27.5	46.0	12.0	2.5	39.5	46.0	14.5	2.66	41.4	
	60세 이상	227	11.9	30.4	44.1	13.2	0.4	42.3	44.1	13.7	2.60	40.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1.8	31.8	43.1	11.8	1.5	43.6	43.1	13.3	2.59	39.9	12.528
	중소도시	457	11.2	24.9	48.4	14.0	1.5	36.1	48.4	15.5	2.70	42.5	
	읍면	84	13.1	33.3	34.5	19.0	0.0	46.4	34.5	19.0	2.60	39.9	
권역	서울	203	16.3	30.5	39.9	12.3	1.0	46.8	39.9	13.3	2.51	37.8	74.270 ***
	인천/경기	290	10.0	29.7	47.2	12.1	1.0	39.7	47.2	13.1	2.64	41.1	
	대전/충청	103	7.8	14.6	63.1	11.7	2.9	22.3	63.1	14.6	2.87	46.8	
	광주/호남	102	2.9	24.5	51.0	21.6	0.0	27.5	51.0	21.6	2.91	47.8	
	대구/경북	102	12.7	30.4	36.3	16.7	3.9	43.1	36.3	20.6	2.69	42.2	
	부산/울산/경남	159	11.9	35.2	44.0	8.2	0.6	47.2	44.0	8.8	2.50	37.6	
결혼 상태	미혼	238	12.6	31.1	42.4	13.0	0.8	43.7	42.4	13.9	2.58	39.6	8.242
	기혼	732	10.8	28.0	45.9	13.8	1.5	38.8	45.9	15.3	2.67	41.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3.3	30.0	36.7	6.7	3.3	53.3	36.7	10.0	2.37	34.2	
학력	초졸 이하	35	22.9	31.4	37.1	8.6	0.0	54.3	37.1	8.6	2.31	32.9	34.367 **
	중졸	113	14.2	30.1	41.6	13.3	0.9	44.2	41.6	14.2	2.57	39.2	
	고졸	466	9.4	32.4	43.8	12.4	1.9	41.8	43.8	14.4	2.65	41.3	
	대졸	371	12.9	23.5	48.8	13.7	1.1	36.4	48.8	14.8	2.67	41.6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33.3	20.0	46.7	0.0	33.3	20.0	46.7	3.13	53.3	
국경운영 평가	부정	745	11.0	28.2	46.4	13.3	1.1	39.2	46.4	14.4	2.65	41.3	5.274
	긍정	255	13.3	30.6	40.0	13.7	2.4	43.9	40.0	16.1	2.61	40.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0.8	33.1	31.5	10.8	3.8	53.8	31.5	14.6	2.44	36.0	30.087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0.9	29.4	44.1	14.2	1.5	40.3	44.1	15.7	2.66	41.5	
	400만 원 이상	386	9.1	26.4	50.5	13.5	0.5	35.5	50.5	14.0	2.70	42.5	
	무응답	5	40.0	40.0	20.0	0.0	0.0	80.0	20.0	0.0	1.8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11.0	26.4	42.5	18.3	1.8	37.4	42.5	20.1	2.74	43.4	13.360
	중도	440	12.3	28.2	46.1	12.7	0.7	40.5	46.1	13.4	2.61	40.3	
	보수	287	11.1	32.1	44.9	9.8	2.1	43.2	44.9	11.8	2.60	39.9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100.0	0.0	0.0	0.0	100.0	0.0	0.0	2.00	25.0	41.439 **
	상하	6	33.3	0.0	66.7	0.0	0.0	33.3	66.7	0.0	2.33	33.3	
	중상	198	12.6	27.8	46.5	13.1	0.0	40.4	46.5	13.1	2.60	40.0	
	중하	545	9.4	28.1	47.5	14.1	0.9	37.4	47.5	15.0	2.69	42.3	
	하상	191	13.1	29.8	40.8	13.1	3.1	42.9	40.8	16.2	2.63	40.8	
	하하	58	22.4	36.2	25.9	10.3	5.2	58.6	25.9	15.5	2.40	34.9	

문26) 다음은 귀하가 북한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양쪽에 적혀진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의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

(1) 신뢰할 수 있다		사례 수 (명)	신뢰할 수 없다	2점	3점	4점	신뢰할 수 있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34.9	36.6	22.6	4.7	1.2	71.5	22.6	5.9	2.01	25.2	
2014년		1,000	32.4	41.7	18.7	6.1	1.1	74.1	18.7	7.2	2.02	25.5	
성별	남성	496	35.9	35.9	22.4	4.6	1.2	71.8	22.4	5.8	1.99	24.8	0.442
	여성	504	33.9	37.3	22.8	4.8	1.2	71.2	22.8	6.0	2.02	25.5	
연령	19세~29세	177	32.2	35.0	26.6	5.6	0.6	67.2	26.6	6.2	2.07	26.8	11.757
	30대	184	32.6	37.5	22.8	6.0	1.1	70.1	22.8	7.1	2.05	26.4	
	40대	212	39.6	34.0	21.2	3.8	1.4	73.6	21.2	5.2	1.93	23.3	
	50대	200	36.5	37.0	20.5	3.5	2.5	73.5	20.5	6.0	1.99	24.6	
	60세 이상	227	33.0	39.2	22.5	4.8	0.4	72.2	22.5	5.3	2.00	25.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6.6	39.0	26.6	6.3	1.5	65.6	26.6	7.8	2.17	29.3	37.874 ***
	중소도시	457	41.8	36.3	17.3	3.5	1.1	78.1	17.3	4.6	1.86	21.4	
	읍면	84	42.9	25.0	29.8	2.4	0.0	67.9	29.8	2.4	1.92	22.9	
권역	서울	203	33.5	32.0	27.6	5.4	1.5	65.5	27.6	6.9	2.09	27.3	226.993 ***
	인천/경기	290	42.1	40.7	14.1	2.8	0.3	82.8	14.1	3.1	1.79	19.7	
	대전/충청	103	32.0	40.8	22.3	2.9	1.9	72.8	22.3	4.9	2.02	25.5	
	광주/호남	102	1.0	24.5	64.7	9.8	0.0	25.5	64.7	9.8	2.83	45.8	
	대구/경북	102	63.7	26.5	7.8	0.0	2.0	90.2	7.8	2.0	1.50	12.5	
	부산/울산/경남	159	22.6	48.4	17.6	9.4	1.9	71.1	17.6	11.3	2.19	29.9	
강원/제주	41	58.5	29.3	9.8	0.0	2.4	87.8	9.8	2.4	1.59	14.6		
	41	58.5	29.3	9.8	0.0	2.4	87.8	9.8	2.4	1.59	14.6		
결혼 상태	미혼	238	31.1	37.8	23.9	6.3	0.8	68.9	23.9	7.1	2.08	27.0	6.025
	기혼	732	35.9	36.6	22.0	4.2	1.2	72.5	22.0	5.5	1.98	24.6	
	동거/이혼/별거/사별	30	40.0	26.7	26.7	3.3	3.3	66.7	26.7	6.7	2.03	25.8	
학력	초졸 이하	35	54.3	37.1	8.6	0.0	0.0	91.4	8.6	0.0	1.54	13.6	55.525 ***
	중졸	113	36.3	36.3	23.9	3.5	0.0	72.6	23.9	3.5	1.95	23.7	
	고졸	466	32.4	39.3	22.1	5.8	0.4	71.7	22.1	6.2	2.03	25.6	
	대졸	371	36.7	33.4	24.3	3.0	2.7	70.1	24.3	5.7	2.02	25.4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33.3	20.0	33.3	0.0	46.7	20.0	33.3	2.73	43.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3.7	36.6	24.3	4.3	1.1	70.3	24.3	5.4	2.02	25.6	6.346
	긍정	255	38.4	36.5	17.6	5.9	1.6	74.9	17.6	7.5	1.96	23.9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9.2	32.3	25.4	2.3	0.8	71.5	25.4	3.1	1.93	23.3	6.77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3.4	37.2	23.2	5.4	0.8	70.6	23.2	6.3	2.03	25.8	
	400만 원 이상	386	35.2	37.3	21.0	4.7	1.8	72.5	21.0	6.5	2.01	25.1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40.0	20.0	0.0	0.0	80.0	20.0	0.0	1.80	20.0	21.539 **
	진보	273	31.9	30.8	28.2	7.7	1.5	62.6	28.2	9.2	2.16	29.0	
	중도 보수	440	33.9	38.6	22.5	4.1	0.9	72.5	22.5	5.0	2.00	24.9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	18.263
	상하	6	50.0	0.0	50.0	0.0	0.0	50.0	50.0	0.0	2.00	25.0	
	중상	198	32.8	40.9	21.7	3.5	1.0	73.7	21.7	4.5	1.99	24.7	
	중하	545	34.9	35.0	23.9	5.0	1.3	69.9	23.9	6.2	2.03	25.7	
	하상	191	31.9	40.3	20.9	5.8	1.0	72.3	20.9	6.8	2.04	25.9	
	하하	58	48.3	29.3	17.2	3.4	1.7	77.6	17.2	5.2	1.81	20.3	

(단위: %)

(2) 정직하다	사례 수 (명)	정직하지 않다	2점	3점	4점	정직하다	총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27.3	41.8	24.3	5.8	0.8	69.1	24.3	6.6	2.11	27.8		
2014년	1,000	28.4	41.8	20.9	7.1	1.8	70.2	20.9	8.9	2.12	28.0		
성별	남성	496	29.8	37.9	25.0	6.0	1.2	67.7	25.0	7.3	2.11	27.7	8.266
	여성	504	24.8	45.6	23.6	5.6	0.4	70.4	23.6	6.0	2.11	27.8	
연령	19세~29세	177	22.6	44.6	24.9	7.9	0.0	67.2	24.9	7.9	2.18	29.5	22.314
	30대	184	25.5	40.8	28.3	5.4	0.0	66.3	28.3	5.4	2.14	28.4	
	40대	212	30.7	42.0	21.2	4.2	1.9	72.6	21.2	6.1	2.05	26.2	
	50대	200	35.0	38.0	21.0	5.0	1.0	73.0	21.0	6.0	1.99	24.8	
	60세 이상	227	22.5	43.6	26.4	6.6	0.9	66.1	26.4	7.5	2.20	30.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2.0	42.5	29.8	5.2	0.4	64.5	29.8	5.7	2.20	29.9	60.239 ***
	중소도시	457	32.2	44.6	18.2	3.9	1.1	76.8	18.2	5.0	1.97	24.3	
	읍면	84	29.8	22.6	27.4	19.0	1.2	52.4	27.4	20.2	2.39	34.8	
권역	서울	203	28.1	43.3	21.2	6.9	0.5	71.4	21.2	7.4	2.08	27.1	160.910 ***
	인천/경기	290	29.3	49.7	16.9	4.1	0.0	79.0	16.9	4.1	1.96	24.0	
	대전/충청	103	31.1	35.9	30.1	1.9	1.0	67.0	30.1	2.9	2.06	26.5	
	광주/호남	102	2.9	26.5	51.0	18.6	1.0	29.4	51.0	19.6	2.88	47.1	
	대구/경북	102	42.2	43.1	13.7	0.0	1.0	85.3	13.7	1.0	1.75	18.6	
	부산/울산/경남	159	18.9	40.3	32.1	6.3	2.5	59.1	32.1	8.8	2.33	33.3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56.1	34.1	7.3	2.4	0.0	90.2	7.3	2.4	1.56	14.0	6.719
	미혼	238	22.3	45.8	25.6	5.9	0.4	68.1	25.6	6.3	2.16	29.1	
	기혼	732	28.6	40.8	23.8	5.9	1.0	69.4	23.8	6.8	2.10	27.5	
학력	등거/이혼/별거/사별	30	36.7	33.3	26.7	3.3	0.0	70.0	26.7	3.3	1.97	24.2	18.275
	초졸 이하	35	40.0	45.7	11.4	2.9	0.0	85.7	11.4	2.9	1.77	19.3	
	중졸	113	26.5	39.8	26.5	5.3	1.8	66.4	26.5	7.1	2.16	29.0	
	고졸	466	24.7	43.3	24.7	6.7	0.6	68.0	24.7	7.3	2.15	28.8	
	대졸	371	29.9	40.7	24.0	4.6	0.8	70.6	24.0	5.4	2.06	26.4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26.7	33.3	20.0	0.0	46.7	33.3	20.0	2.53	38.3		
국경운영 평가	부정	745	27.4	40.8	25.9	5.2	0.7	68.2	25.9	5.9	2.11	27.8	6.015
	긍정	255	27.1	44.7	19.6	7.5	1.2	71.8	19.6	8.6	2.11	27.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0.0	35.4	29.2	5.4	0.0	65.4	29.2	5.4	2.10	27.5	8.63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7.1	42.4	23.2	5.8	1.5	69.5	23.2	7.3	2.12	28.0	
	400만 원 이상	386	26.4	43.3	24.1	6.0	0.3	69.7	24.1	6.2	2.10	27.6	
	무응답	5	40.0	40.0	20.0	0.0	0.0	80.0	20.0	0.0	1.8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23.1	38.5	28.9	8.4	1.1	61.5	28.9	9.5	2.26	31.5	19.020 *
	중도	440	26.8	44.1	23.0	5.9	0.2	70.9	23.0	6.1	2.09	27.2	
	보수	287	32.1	41.5	22.0	3.1	1.4	73.5	22.0	4.5	2.00	25.1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100.0	0.0	0.0	0.0	100.0	0.0	0.0	2.00	25.0	15.544
	상하	6	50.0	0.0	50.0	0.0	0.0	50.0	50.0	0.0	2.00	25.0	
	중상	198	27.8	41.9	25.8	4.0	0.5	69.7	25.8	4.5	2.08	26.9	
	중하	545	26.2	41.8	24.6	6.6	0.7	68.1	24.6	7.3	2.14	28.4	
	하상	191	27.7	40.8	23.6	6.3	1.6	68.6	23.6	7.9	2.13	28.3	
	하하	58	32.8	46.6	17.2	3.4	0.0	79.3	17.2	3.4	1.91	22.8	

(단위: %)

(3) 자유롭다		사례수 (명)	역압 적 이다	2점	3점	4점	자유 롭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45.3	36.0	13.1	5.3	0.3	81.3	13.1	5.6	1.79	19.8	
2014년		1,000	48.7	35.2	11.9	2.8	1.4	83.9	11.9	4.2	1.73	18.3	
성별	남성	496	45.4	34.7	13.1	6.3	0.6	80.0	13.1	6.9	1.82	20.5	5.203
	여성	504	45.2	37.3	13.1	4.4	0.0	82.5	13.1	4.4	1.77	19.1	
연령	19세~29세	177	48.6	32.2	15.3	4.0	0.0	80.8	15.3	4.0	1.75	18.6	17.532
	30대	184	47.8	31.0	14.7	6.5	0.0	78.8	14.7	6.5	1.80	20.0	
	40대	212	42.0	40.6	12.7	3.8	0.9	82.5	12.7	4.7	1.81	20.3	
	50대	200	47.0	37.0	11.5	4.0	0.5	84.0	11.5	4.5	1.74	18.5	
	60세 이상	227	42.3	37.9	11.9	7.9	0.0	80.2	11.9	7.9	1.85	21.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1.4	37.9	14.2	6.1	0.4	79.3	14.2	6.5	1.86	21.6	31.224 ***
	중소도시	457	49.2	36.1	11.8	2.6	0.2	85.3	11.8	2.8	1.68	17.1	
	읍면	84	45.2	25.0	14.3	15.5	0.0	70.2	14.3	15.5	2.00	25.0	
권역	서울	203	42.4	34.5	14.3	8.4	0.5	76.8	14.3	8.9	1.90	22.5	197.980 ***
	인천/경기	290	43.4	48.6	7.2	0.7	0.0	92.1	7.2	0.7	1.65	16.3	
	대전/충청	103	48.5	28.2	15.5	6.8	1.0	76.7	15.5	7.8	1.83	20.9	
	광주/호남	102	15.7	30.4	32.4	21.6	0.0	46.1	32.4	21.6	2.60	40.0	
	대구/경북	102	71.6	20.6	5.9	1.0	1.0	92.2	5.9	2.0	1.39	9.8	
	부산/울산/경남	159	44.0	40.3	13.8	1.9	0.0	84.3	13.8	1.9	1.74	18.4	
강원/제주	41	78.0	9.8	9.8	2.4	0.0	87.8	9.8	2.4	1.37	9.1		
결혼 상태	미혼	238	45.4	35.7	14.7	4.2	0.0	81.1	14.7	4.2	1.78	19.4	5.422
	기혼	732	44.9	36.6	12.6	5.5	0.4	81.6	12.6	5.9	1.80	19.9	
	동거/이혼/별거/사별	30	53.3	23.3	13.3	10.0	0.0	76.7	13.3	10.0	1.80	20.0	
학력	초졸 이하	35	68.6	25.7	5.7	0.0	0.0	94.3	5.7	0.0	1.37	9.3	41.563 ***
	중졸	113	42.5	36.3	13.3	8.0	0.0	78.8	13.3	8.0	1.87	21.7	
	고졸	466	40.8	41.2	13.5	4.5	0.0	82.0	13.5	4.5	1.82	20.4	
	대졸	371	50.4	30.7	12.9	5.1	0.8	81.1	12.9	5.9	1.75	18.8	
	대학원 재학 이상	15	26.7	26.7	20.0	26.7	0.0	53.3	20.0	26.7	2.47	36.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44.8	35.8	13.0	5.9	0.4	80.7	13.0	6.3	1.81	20.3	3.228
	긍정	255	46.7	36.5	13.3	3.5	0.0	83.1	13.3	3.5	1.74	18.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3.8	29.2	10.8	6.2	0.0	83.1	10.8	6.2	1.69	17.3	13.92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5.9	35.5	14.6	3.5	0.4	81.4	14.6	4.0	1.77	19.3	
	400만 원 이상	386	41.7	38.9	11.9	7.3	0.3	80.6	11.9	7.5	1.85	21.4	
	무응답	5	40.0	40.0	20.0	0.0	0.0	80.0	20.0	0.0	1.8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42.1	34.8	12.5	9.9	0.7	76.9	12.5	10.6	1.92	23.1	21.523 **
	중도	440	46.4	35.0	14.5	4.1	0.0	81.4	14.5	4.1	1.76	19.1	
	보수	287	46.7	38.7	11.5	2.8	0.3	85.4	11.5	3.1	1.71	17.9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	22.767
	상하	6	33.3	16.7	16.7	33.3	0.0	50.0	16.7	33.3	2.50	37.5	
	중상	198	43.9	34.8	15.7	5.6	0.0	78.8	15.7	5.6	1.83	20.7	
	중하	545	45.7	36.0	12.3	5.7	0.4	81.7	12.3	6.1	1.79	19.8	
	하상	191	41.4	40.8	12.6	4.7	0.5	82.2	12.6	5.2	1.82	20.5	
하하	58	60.3	25.9	13.8	0.0	0.0	86.2	13.8	0.0	1.53	13.4		

(단위: %)

(4) 친구다		사레 수 (명)	적이다	2점	3점	4점	친구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22.5	35.3	32.7	8.1	1.4	57.8	32.7	9.5	2.31	32.7	
2014년		1,000	15.5	33.1	35.5	13.3	2.6	48.6	35.5	15.9	2.54	38.6	
성별	남성	496	24.2	35.9	29.6	8.5	1.8	60.1	29.6	10.3	2.28	32.0	5.546
	여성	504	20.8	34.7	35.7	7.7	1.0	55.6	35.7	8.7	2.33	33.3	
연령	19세~29세	177	20.3	39.0	33.3	6.8	0.6	59.3	33.3	7.3	2.28	32.1	11.323
	30대	184	21.7	39.1	29.9	7.6	1.6	60.9	29.9	9.2	2.28	32.1	
	40대	212	23.6	30.7	35.8	9.0	0.9	54.2	35.8	9.9	2.33	33.3	
	50대	200	24.5	33.5	30.5	8.5	3.0	58.0	30.5	11.5	2.32	33.0	
	60세 이상	227	22.0	35.2	33.5	8.4	0.9	57.3	33.5	9.3	2.31	32.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9.2	34.6	35.5	8.9	1.7	53.8	35.5	10.7	2.39	34.9	22.296 **
	중소도시	457	23.2	38.1	31.3	6.6	0.9	61.3	31.3	7.4	2.24	31.0	
	읍면	84	36.9	23.8	25.0	11.9	2.4	60.7	25.0	14.3	2.19	29.8	
권역	서울	203	16.3	31.5	39.9	9.4	3.0	47.8	39.9	12.3	2.51	37.8	128.931 ***
	인천/경기	290	19.7	39.0	36.9	4.5	0.0	58.6	36.9	4.5	2.26	31.6	
	대전/충청	103	25.2	34.0	36.9	2.9	1.0	59.2	36.9	3.9	2.20	30.1	
	광주/호남	102	6.9	28.4	41.2	21.6	2.0	35.3	41.2	23.5	2.83	45.8	
	대구/경북	102	48.0	34.3	14.7	1.0	2.0	82.4	14.7	2.9	1.75	18.6	
	부산/울산/경남	159	24.5	37.1	23.9	12.6	1.9	61.6	23.9	14.5	2.30	32.5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34.1	43.9	14.6	7.3	0.0	78.0	14.6	7.3	1.95	23.8	13.620
	미혼	238	21.4	40.3	28.6	8.0	1.7	61.8	28.6	9.7	2.28	32.0	
	기혼	732	22.4	34.0	34.2	8.3	1.1	56.4	34.2	9.4	2.32	32.9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3	26.7	30.0	3.3	6.7	60.0	30.0	10.0	2.23	30.8	26.158
	초졸 이하	35	45.7	34.3	11.4	8.6	0.0	80.0	11.4	8.6	1.83	20.7	
	중졸	113	23.0	34.5	31.0	10.6	0.9	57.5	31.0	11.5	2.32	33.0	
	고졸	466	20.8	35.8	33.9	8.2	1.3	56.7	33.9	9.4	2.33	33.3	
	대졸	371	22.6	35.6	33.4	6.5	1.9	58.2	33.4	8.4	2.29	32.3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20.0	40.0	26.7	0.0	33.3	40.0	26.7	2.80	45.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20.4	36.0	34.4	8.3	0.9	56.4	34.4	9.3	2.33	33.4	13.157 *
	긍정	255	28.6	33.3	27.8	7.5	2.7	62.0	27.8	10.2	2.22	30.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4.6	25.4	30.0	6.9	3.1	60.0	30.0	10.0	2.18	29.6	19.069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0.3	37.4	33.8	7.5	1.0	57.6	33.8	8.6	2.32	32.9	
	400만 원 이상	386	21.0	36.5	31.9	9.3	1.3	57.5	31.9	10.6	2.33	33.4	
	무응답	5	40.0	0.0	60.0	0.0	0.0	40.0	60.0	0.0	2.20	30.0	
이념 성향	진보	273	17.2	37.4	34.1	9.2	2.2	54.6	34.1	11.4	2.42	35.4	21.066 **
	중도	440	20.5	34.1	35.7	8.4	1.4	54.5	35.7	9.8	2.36	34.0	
	보수	287	30.7	35.2	26.8	6.6	0.7	65.9	26.8	7.3	2.11	27.9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	31.685 *
	상하	6	33.3	16.7	16.7	16.7	16.7	50.0	16.7	33.3	2.67	41.7	
	중상	198	23.2	30.8	35.4	10.1	0.5	54.0	35.4	10.6	2.34	33.5	
	중하	545	19.8	37.8	33.2	7.5	1.7	57.6	33.2	9.2	2.33	33.3	
	하상	191	24.6	35.6	30.4	8.9	0.5	60.2	30.4	9.4	2.25	31.3	
	하하	58	36.2	27.6	29.3	3.4	3.4	63.8	29.3	6.9	2.10	27.6	

(단위: %)

(5) 책임감이 있다		사례 수 (명)	무책임 하다	2점	3점	4점	책임 감이 있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26.2	38.8	28.6	5.5	0.9	65.0	28.6	6.4	2.16	29.0	
2014년		1,000	25.0	33.0	27.9	11.9	2.2	58.0	27.9	14.1	2.33	33.3	
성별	남성	496	29.0	36.5	27.4	5.6	1.4	65.5	27.4	7.1	2.14	28.5	7.740
	여성	504	23.4	41.1	29.8	5.4	0.4	64.5	29.8	5.8	2.18	29.6	
연령	19세~29세	177	24.3	40.1	28.2	6.8	0.6	64.4	28.2	7.3	2.19	29.8	12.608
	30대	184	24.5	42.4	29.9	2.7	0.5	66.8	29.9	3.3	2.13	28.1	
	40대	212	27.8	37.3	28.8	5.2	0.9	65.1	28.8	6.1	2.14	28.5	
	50대	200	28.5	41.0	22.5	6.5	1.5	69.5	22.5	8.0	2.12	27.9	
	60세 이상	227	25.6	34.4	33.0	6.2	0.9	59.9	33.0	7.0	2.22	30.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2.4	34.0	36.2	6.5	0.9	56.4	36.2	7.4	2.29	32.4	41.942 ***
	중소도시	457	30.0	44.4	21.2	3.3	1.1	74.4	21.2	4.4	2.01	25.3	
	읍면	84	26.2	34.5	27.4	11.9	0.0	60.7	27.4	11.9	2.25	31.3	
권역	서울	203	30.0	29.6	31.5	7.9	1.0	59.6	31.5	8.9	2.20	30.0	178.638 ***
	인천/경기	290	27.6	55.2	14.5	2.1	0.7	82.8	14.5	2.8	1.93	23.3	
	대전/충청	103	27.2	34.0	33.0	4.9	1.0	61.2	33.0	5.8	2.18	29.6	
	광주/호남	102	3.9	25.5	53.9	16.7	0.0	29.4	53.9	16.7	2.83	45.8	
	대구/경북	102	43.1	33.3	21.6	0.0	2.0	76.5	21.6	2.0	1.84	21.1	
	부산/울산/경남	159	17.0	34.6	42.1	5.7	0.6	51.6	42.1	6.3	2.38	34.6	
결혼 상태	미혼	238	25.6	38.7	28.2	6.3	1.3	64.3	28.2	7.6	2.19	29.7	7.673
	기혼	732	25.5	39.2	29.1	5.3	0.8	64.8	29.1	6.1	2.17	29.2	
	동거/이혼/별거/사별	30	46.7	30.0	20.0	3.3	0.0	76.7	20.0	3.3	1.80	20.0	
학력	초졸 이하	35	42.9	34.3	20.0	0.0	2.9	77.1	20.0	2.9	1.86	21.4	21.289
	중졸	113	22.1	34.5	35.4	7.1	0.9	56.6	35.4	8.0	2.30	32.5	
	고졸	466	24.9	39.5	28.3	6.9	0.4	64.4	28.3	7.3	2.18	29.6	
	대졸	371	27.8	40.2	27.0	3.8	1.3	67.9	27.0	5.1	2.11	27.7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26.7	46.7	6.7	0.0	46.7	46.7	6.7	2.40	35.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26.8	37.0	30.1	5.5	0.5	63.9	30.1	6.0	2.16	29.0	9.257
	긍정	255	24.3	43.9	24.3	5.5	2.0	68.2	24.3	7.5	2.17	29.2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1.5	27.7	34.6	5.4	0.8	59.2	34.6	6.2	2.16	29.0	11.31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5.9	42.0	25.5	5.6	1.0	67.8	25.5	6.7	2.14	28.5	
	400만 원 이상	386	24.4	38.9	30.6	5.4	0.8	63.2	30.6	6.2	2.19	29.9	
	무응답	5	60.0	20.0	20.0	0.0	0.0	80.0	20.0	0.0	1.60	15.0	
이념 성향	진보	273	20.5	37.7	31.1	9.5	1.1	58.2	31.1	10.6	2.33	33.2	23.721 **
	중도	440	26.8	37.3	31.1	3.9	0.9	64.1	31.1	4.8	2.15	28.7	
	보수	287	30.7	42.2	22.3	4.2	0.7	72.8	22.3	4.9	2.02	25.5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100.0	0.0	0.0	0.0	100.0	0.0	0.0	2.00	25.0	26.987
	상하	6	33.3	0.0	66.7	0.0	0.0	33.3	66.7	0.0	2.33	33.3	
	중상	198	26.8	42.9	24.2	5.1	1.0	69.7	24.2	6.1	2.11	27.7	
	중하	545	25.1	40.6	28.1	5.3	0.9	65.7	28.1	6.2	2.16	29.1	
	하상	191	25.7	30.4	34.6	8.4	1.0	56.0	34.6	9.4	2.29	32.2	
	하하	58	36.2	37.9	25.9	0.0	0.0	74.1	25.9	0.0	1.90	22.4	

(단위: %)

(6) 평화적이다		사레 수 (명)	공격 적이다	2점	3점	4점	평화 적이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 ²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45.8	33.3	15.2	4.9	0.8	79.1	15.2	5.7	1.82	20.4	
2014년		1,000	46.8	37.2	9.3	4.3	2.4	84.0	9.3	6.7	1.78	19.6	
성별	남성	496	47.0	30.8	15.3	6.0	0.8	77.8	15.3	6.9	1.83	20.7	4.735
	여성	504	44.6	35.7	15.1	3.8	0.8	80.4	15.1	4.6	1.80	20.1	
연령	19세~29세	177	44.6	28.8	18.6	6.2	1.7	73.4	18.6	7.9	1.92	22.9	18.986
	30대	184	46.2	29.3	17.9	4.9	1.6	75.5	17.9	6.5	1.86	21.6	
	40대	212	49.5	30.2	14.2	5.2	0.9	79.7	14.2	6.1	1.78	19.5	
	50대	200	46.0	38.0	12.0	4.0	0.0	84.0	12.0	4.0	1.74	18.5	
	60세 이상	227	42.7	38.8	14.1	4.4	0.0	81.5	14.1	4.4	1.80	20.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9.0	37.7	17.0	5.0	1.3	76.7	17.0	6.3	1.92	23.0	43.984 ***
	중소도시	457	51.9	31.3	13.6	2.8	0.4	83.2	13.6	3.3	1.69	17.2	
	읍면	84	50.0	20.2	14.3	15.5	0.0	70.2	14.3	15.5	1.95	23.8	
권역	서울	203	41.4	32.5	18.2	6.9	1.0	73.9	18.2	7.9	1.94	23.4	193.907 ***
	인천/경기	290	53.8	35.2	7.6	3.1	0.3	89.0	7.6	3.4	1.61	15.3	
	대전/충청	103	41.7	33.0	23.3	1.0	1.0	74.8	23.3	1.9	1.86	21.6	
	광주/호남	102	13.7	30.4	32.4	21.6	2.0	44.1	32.4	23.5	2.68	41.9	
	대구/경북	102	70.6	19.6	7.8	0.0	2.0	90.2	7.8	2.0	1.43	10.8	
	부산/울산/경남	159	37.7	45.3	17.0	0.0	0.0	83.0	17.0	0.0	1.79	19.8	
결혼 상태	미혼	238	46.6	29.0	16.8	5.5	2.1	75.6	16.8	7.6	1.87	21.8	11.511
	기혼	732	45.1	35.1	14.8	4.6	0.4	80.2	14.8	5.1	1.80	20.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56.7	23.3	13.3	6.7	0.0	80.0	13.3	6.7	1.70	17.5	
학력	초졸 이하	35	57.1	34.3	5.7	2.9	0.0	91.4	5.7	2.9	1.54	13.6	38.379 **
	중졸	113	38.1	40.7	16.8	4.4	0.0	78.8	16.8	4.4	1.88	21.9	
	고졸	466	43.1	35.6	15.7	5.2	0.4	78.8	15.7	5.6	1.84	21.0	
	대졸	371	51.8	28.3	14.3	4.3	1.3	80.1	14.3	5.7	1.75	18.8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26.7	33.3	20.0	6.7	40.0	33.3	26.7	2.80	45.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45.5	34.0	15.0	4.7	0.8	79.5	15.0	5.5	1.81	20.3	0.736
	긍정	255	46.7	31.4	15.7	5.5	0.8	78.0	15.7	6.3	1.82	20.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48.5	33.8	14.6	3.1	0.0	82.3	14.6	3.1	1.72	18.1	7.43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4.9	33.4	16.5	4.8	0.4	78.3	16.5	5.2	1.82	20.6	
	400만 원 이상	386	45.9	33.2	13.7	5.7	1.6	79.0	13.7	7.3	1.84	21.0	
	무응답	5	60.0	20.0	20.0	0.0	0.0	80.0	20.0	0.0	1.60	15.0	
이념 성향	진보	273	39.9	36.3	12.8	10.3	0.7	76.2	12.8	11.0	1.96	23.9	36.366 ***
	중도	440	44.8	32.3	17.7	4.1	1.1	77.0	17.7	5.2	1.85	21.1	
	보수	287	53.0	32.1	13.6	1.0	0.3	85.0	13.6	1.4	1.64	15.9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	14.608
	상하	6	33.3	33.3	16.7	16.7	0.0	66.7	16.7	16.7	2.17	29.2	
	중상	198	43.4	34.3	16.7	4.5	1.0	77.8	16.7	5.6	1.85	21.3	
	중하	545	46.4	31.7	15.6	5.3	0.9	78.2	15.6	6.2	1.83	20.6	
	하상	191	41.9	38.2	14.1	5.2	0.5	80.1	14.1	5.8	1.84	21.1	
	하하	58	62.1	27.6	10.3	0.0	0.0	89.7	10.3	0.0	1.48	12.1	

(단위: %)

(7) 선하다		사례 수 (명)	악하다	2점	3점	4점	선하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 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27.0	38.8	27.8	5.9	0.5	65.8	27.8	6.4	2.14	28.5	
2014년		1,000	21.3	36.8	31.1	9.3	1.5	58.1	31.1	10.8	2.33	33.2	
성별	남성	496	27.6	36.7	28.2	7.1	0.4	64.3	28.2	7.5	2.16	29.0	3.745
	여성	504	26.4	40.9	27.4	4.8	0.6	67.3	27.4	5.4	2.12	28.1	
연령	19세~29세	177	24.9	36.7	31.6	6.2	0.6	61.6	31.6	6.8	2.21	30.2	6.584
	30대	184	26.6	41.3	25.0	6.0	1.1	67.9	25.0	7.1	2.14	28.4	
	40대	212	26.9	40.1	27.4	5.2	0.5	67.0	27.4	5.7	2.12	28.1	
	50대	200	30.5	36.5	27.0	5.5	0.5	67.0	27.0	6.0	2.09	27.3	
	60세 이상	227	26.0	39.2	28.2	6.6	0.0	65.2	28.2	6.6	2.15	28.9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3.5	38.1	31.4	6.3	0.7	61.7	31.4	7.0	2.22	30.6	14.128
	중소도시	457	28.4	40.5	25.6	5.0	0.4	68.9	25.6	5.5	2.09	27.1	
	읍면	84	38.1	33.3	20.2	8.3	0.0	71.4	20.2	8.3	1.99	24.7	
권역	서울	203	26.6	34.0	30.5	8.4	0.5	60.6	30.5	8.9	2.22	30.5	139.486 ***
	인천/경기	290	26.6	45.5	22.1	5.9	0.0	72.1	22.1	5.9	2.07	26.8	
	대전/충청	103	31.1	32.0	34.0	1.9	1.0	63.1	34.0	2.9	2.10	27.4	
	광주/호남	102	2.0	30.4	52.0	14.7	1.0	32.4	52.0	15.7	2.82	45.6	
	대구/경북	102	52.0	26.5	18.6	1.0	2.0	78.4	18.6	2.9	1.75	18.6	
	부산/울산/경남	159	21.4	50.3	25.8	2.5	0.0	71.7	25.8	2.5	2.09	27.4	
결혼 상태	미혼	238	25.2	36.1	32.4	5.5	0.8	61.3	32.4	6.3	2.21	30.1	16.510 *
	기혼	732	26.5	40.6	26.4	6.1	0.4	67.1	26.4	6.6	2.13	28.3	
	동거/이혼/별거/사별	30	53.3	16.7	26.7	3.3	0.0	70.0	26.7	3.3	1.80	20.0	
학력	초졸 이하	35	54.3	34.3	11.4	0.0	0.0	88.6	11.4	0.0	1.57	14.3	37.915 **
	중졸	113	24.8	43.4	23.9	8.0	0.0	68.1	23.9	8.0	2.15	28.8	
	고졸	466	25.8	39.1	28.8	6.4	0.0	64.8	28.8	6.4	2.16	29.0	
	대졸	371	27.2	38.5	28.0	4.9	1.3	65.8	28.0	6.2	2.15	28.6	
	대학원 재학 이상	15	13.3	13.3	60.0	13.3	0.0	26.7	60.0	13.3	2.73	43.3	
국경운영 평가	부정	745	25.6	38.7	30.1	5.1	0.5	64.3	30.1	5.6	2.16	29.1	10.689 *
	긍정	255	31.0	39.2	21.2	8.2	0.4	70.2	21.2	8.6	2.08	27.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2.3	34.6	27.7	4.6	0.8	66.9	27.7	5.4	2.07	26.7	3.68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6.7	39.9	27.3	5.6	0.4	66.6	27.3	6.1	2.13	28.3	
	400만 원 이상	386	25.4	39.1	28.2	6.7	0.5	64.5	28.2	7.3	2.18	29.5	
	무응답	5	40.0	20.0	40.0	0.0	0.0	60.0	40.0	0.0	2.00	25.0	
이념 성향	진보	273	20.5	41.0	30.4	7.3	0.7	61.5	30.4	8.1	2.27	31.7	22.278 **
	중도	440	26.1	38.2	27.7	7.3	0.7	64.3	27.7	8.0	2.18	29.5	
	보수	287	34.5	37.6	25.4	2.4	0.0	72.1	25.4	2.4	1.96	24.0	
계층 소속감	상상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	21.829
	상하	6	33.3	16.7	33.3	16.7	0.0	50.0	33.3	16.7	2.33	33.3	
	중상	198	24.7	36.4	31.3	7.1	0.5	61.1	31.3	7.6	2.22	30.6	
	중하	545	25.5	40.2	27.9	5.7	0.7	65.7	27.9	6.4	2.16	29.0	
	하상	191	28.3	40.3	24.6	6.8	0.0	68.6	24.6	6.8	2.10	27.5	
	하하	58	41.4	32.8	25.9	0.0	0.0	74.1	25.9	0.0	1.84	21.1	

(단위: %)

(8) 민주적이다		사례 수 (명)	권위 적이다	2점	3점	4점	민주 적이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38.1	35.6	21.4	4.5	0.4	73.7	21.4	4.9	1.94	23.4	
2014년		1,000	46.1	36.7	13.1	3.1	1.0	82.8	13.1	4.1	1.76	19.1	
성별	남성	496	39.7	31.0	23.2	5.4	0.6	70.8	23.2	6.0	1.96	24.0	10.848 *
	여성	504	36.5	40.1	19.6	3.6	0.2	76.6	19.6	3.8	1.91	22.7	
연령	19세~29세	177	40.1	32.8	22.6	4.0	0.6	72.9	22.6	4.5	1.92	23.0	13.994
	30대	184	40.2	29.3	25.0	5.4	0.0	69.6	25.0	5.4	1.96	23.9	
	40대	212	39.2	39.2	16.5	4.7	0.5	78.3	16.5	5.2	1.88	22.1	
	50대	200	38.0	37.5	20.0	3.5	1.0	75.5	20.0	4.5	1.92	23.0	
	60세 이상	227	33.9	37.9	23.3	4.8	0.0	71.8	23.3	4.8	1.99	24.8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1.6	36.8	25.5	5.7	0.4	68.4	25.5	6.1	2.07	26.6	30.581 ***
	중소도시	457	45.5	35.0	16.4	2.6	0.4	80.5	16.4	3.1	1.77	19.4	
	읍면	84	33.3	32.1	26.2	8.3	0.0	65.5	26.2	8.3	2.10	27.4	
권역	서울	203	42.4	26.6	22.2	8.4	0.5	69.0	22.2	8.9	1.98	24.5	188.247 ***
	인천/경기	290	48.6	37.9	11.4	2.1	0.0	86.6	11.4	2.1	1.67	16.7	
	대전/충청	103	27.2	42.7	25.2	3.9	1.0	69.9	25.2	4.9	2.09	27.2	
	광주/호남	102	5.9	34.3	47.1	12.7	0.0	40.2	47.1	12.7	2.67	41.7	
	대구/경북	102	50.0	28.4	20.6	0.0	1.0	78.4	20.6	1.0	1.74	18.4	
	부산/울산/경남	159	23.9	49.1	25.8	1.3	0.0	73.0	25.8	1.3	2.04	26.1	
결혼 상태	미혼	238	41.6	29.0	25.2	3.8	0.4	70.6	25.2	4.2	1.92	23.1	8.373
	기혼	732	36.7	37.8	20.4	4.6	0.4	74.6	20.4	5.1	1.94	23.5	
	동거/이혼/별거/사별	30	43.3	33.3	16.7	6.7	0.0	76.7	16.7	6.7	1.87	21.7	
학력	초졸 이하	35	45.7	40.0	14.3	0.0	0.0	85.7	14.3	0.0	1.69	17.1	30.706 *
	중졸	113	24.8	48.7	20.4	6.2	0.0	73.5	20.4	6.2	2.08	27.0	
	고졸	466	37.3	34.8	23.6	4.1	0.2	72.1	23.6	4.3	1.95	23.8	
	대졸	371	42.3	32.9	19.7	4.3	0.8	75.2	19.7	5.1	1.88	22.1	
	대학원 재학 이상	15	40.0	20.0	20.0	20.0	0.0	60.0	20.0	20.0	2.20	3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8.5	33.6	23.2	4.4	0.3	72.1	23.2	4.7	1.94	23.6	9.388
	긍정	255	36.9	41.6	16.1	4.7	0.8	78.4	16.1	5.5	1.91	22.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40.0	34.6	21.5	3.8	0.0	74.6	21.5	3.8	1.89	22.3	1.95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7.0	37.2	20.9	4.6	0.4	74.1	20.9	5.0	1.94	23.6	
	400만 원 이상	386	38.9	33.9	22.0	4.7	0.5	72.8	22.0	5.2	1.94	23.5	
	무응답	5	40.0	40.0	20.0	0.0	0.0	80.0	20.0	0.0	1.8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36.3	34.1	22.7	6.2	0.7	70.3	22.7	7.0	2.01	25.3	16.137 *
	중도	440	37.7	33.0	24.5	4.5	0.2	70.7	24.5	4.8	1.97	24.1	
	보수	287	40.4	41.1	15.3	2.8	0.3	81.5	15.3	3.1	1.82	20.4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	10.376
	상하	6	33.3	33.3	16.7	16.7	0.0	66.7	16.7	16.7	2.17	29.2	
	중상	198	40.9	32.8	20.2	5.6	0.5	73.7	20.2	6.1	1.92	23.0	
	중하	545	37.6	36.5	20.9	4.4	0.6	74.1	20.9	5.0	1.94	23.4	
	하상	191	34.0	37.7	24.1	4.2	0.0	71.7	24.1	4.2	1.98	24.6	
	하하	58	46.6	29.3	22.4	1.7	0.0	75.9	22.4	1.7	1.79	19.8	

(단위: %)

(9) 위협적이지 않다		사례수 (명)	위협 적이지 다	2점	3점	4점	위협 적이지 않다	종합			5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부정	보통	긍정			
2015년		1,000	49.5	27.3	18.7	3.7	0.8	76.8	18.7	4.5	1.79	19.8	
2014년		1,000	41.3	37.6	12.8	6.1	2.2	78.9	12.8	8.3	1.90	22.6	
성별	남성	496	48.0	27.2	20.0	4.2	0.6	75.2	20.0	4.8	1.82	20.6	2.521
	여성	504	51.0	27.4	17.5	3.2	1.0	78.4	17.5	4.2	1.76	18.9	
연령	19세~29세	177	46.3	26.6	20.9	5.1	1.1	72.9	20.9	6.2	1.88	22.0	6.152
	30대	184	52.7	26.6	16.8	2.7	1.1	79.3	16.8	3.8	1.73	18.2	
	40대	212	47.2	29.7	19.3	3.3	0.5	76.9	19.3	3.8	1.80	20.0	
	50대	200	51.0	28.0	16.5	3.5	1.0	79.0	16.5	4.5	1.76	18.9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50.2	25.6	19.8	4.0	0.4	75.8	19.8	4.4	1.79	19.7	43.98 ***
	대도시	459	41.2	29.2	24.8	3.7	1.1	70.4	24.8	4.8	1.94	23.6	
지역 크기	중소도시	457	56.5	27.4	12.9	2.6	0.7	83.8	12.9	3.3	1.64	15.9	43.98 ***
	읍면	84	57.1	16.7	16.7	9.5	0.0	73.8	16.7	9.5	1.79	19.6	
권역	서울	203	40.4	25.6	27.1	5.4	1.5	66.0	27.1	6.9	2.02	25.5	216.426 ***
	인천/경기	290	56.2	32.1	9.3	2.1	0.3	88.3	9.3	2.4	1.58	14.6	
	대전/충청	103	51.5	17.5	27.2	2.9	1.0	68.9	27.2	3.9	1.84	21.1	
	광주/호남	102	8.8	31.4	46.1	12.7	1.0	40.2	46.1	13.7	2.66	41.4	
	대구/경북	102	83.3	9.8	4.9	1.0	1.0	93.1	4.9	2.0	1.26	6.6	
권역	부산/울산/경남	159	47.2	37.7	15.1	0.0	0.0	84.9	15.1	0.0	1.68	17.0	216.426 ***
	강원/제주	41	68.3	19.5	2.4	7.3	2.4	87.8	2.4	9.8	1.56	14.0	
	미혼	238	45.4	26.9	22.3	4.2	1.3	72.3	22.3	5.5	1.89	22.3	
결혼 상태	기혼	732	50.4	28.0	17.3	3.6	0.7	78.4	17.3	4.2	1.76	19.0	7.79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0.0	13.3	23.3	3.3	0.0	73.3	23.3	3.3	1.70	17.5	
학력	초졸 이하	35	77.1	17.1	5.7	0.0	0.0	94.3	5.7	0.0	1.29	7.1	30.281*
	중졸	113	50.4	24.8	19.5	5.3	0.0	75.2	19.5	5.3	1.80	19.9	
	고졸	466	45.3	31.5	19.3	3.2	0.6	76.8	19.3	3.9	1.82	20.6	
	대졸	371	53.1	23.5	18.1	4.0	1.3	76.5	18.1	5.4	1.77	19.3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33.3	40.0	6.7	0.0	53.3	40.0	6.7	2.33	33.3	
국경운영 평가	부정	745	47.0	28.5	20.3	3.8	0.5	75.4	20.3	4.3	1.82	20.6	11.578 *
	긍정	255	56.9	23.9	14.1	3.5	1.6	80.8	14.1	5.1	1.69	17.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3.8	24.6	16.2	3.8	1.5	78.5	16.2	5.4	1.75	18.7	3.80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50.3	27.1	18.0	4.0	0.6	77.5	18.0	4.6	1.77	19.4	
	400만 원 이상	386	47.2	28.8	19.9	3.4	0.8	75.9	19.9	4.1	1.82	20.5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0.0	60.0	0.0	0.0	40.0	60.0	0.0	2.20	30.0	24.032 **
	진보	273	44.0	27.5	20.5	7.0	1.1	71.4	20.5	8.1	1.94	23.4	
	중도	440	47.3	28.4	20.2	3.2	0.9	75.7	20.2	4.1	1.82	20.5	
계층 소속감	보수	287	58.2	25.4	14.6	1.4	0.3	83.6	14.6	1.7	1.60	15.1	21.964
	상상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	
	상하	6	50.0	0.0	33.3	16.7	0.0	50.0	33.3	16.7	2.17	29.2	
	중상	198	41.9	31.8	20.7	4.5	1.0	73.7	20.7	5.6	1.91	22.7	
	중하	545	49.5	27.0	18.7	3.9	0.9	76.5	18.7	4.8	1.80	19.9	
계층 소속감	하상	191	51.8	27.2	17.8	3.1	0.0	79.1	17.8	3.1	1.72	18.1	21.964
	하하	58	65.5	19.0	13.8	0.0	1.7	84.5	13.8	1.7	1.53	13.4	

문27)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불필요 하다	필요 하다				
2015년		1,000	5.1	26.4	45.5	23.0	31.5	68.5	2.86	62.1	
2014년		1,000	4.5	26.2	53.7	15.6	30.7	69.3	2.80	60.1	
성별	남성	496	5.0	21.6	46.2	27.2	26.6	73.4	2.96	65.2	16.403 **
	여성	504	5.2	31.2	44.8	18.8	36.3	63.7	2.77	59.1	
연령	19세~29세	177	6.8	36.7	43.5	13.0	43.5	56.5	2.63	54.2	29.452 **
	30대	184	5.4	28.8	45.1	20.7	34.2	65.8	2.81	60.3	
	40대	212	2.8	26.9	46.2	24.1	29.7	70.3	2.92	63.8	
	50대	200	6.5	21.5	44.5	27.5	28.0	72.0	2.93	64.3	
	60세 이상	227	4.4	20.3	47.6	27.8	24.7	75.3	2.99	66.2	
지역 크기	대도시	459	7.2	28.8	37.9	26.1	35.9	64.1	2.83	61.0	29.795 ***
	중소도시	457	2.8	22.8	53.2	21.2	25.6	74.4	2.93	64.3	
	읍면	84	6.0	33.3	45.2	15.5	39.3	60.7	2.70	56.7	
권역	서울	203	7.9	23.6	27.6	40.9	31.5	68.5	3.01	67.2	131.412 ***
	인천/경기	290	4.5	22.1	46.9	26.6	26.6	73.4	2.96	65.2	
	대전/충청	103	2.9	20.4	55.3	21.4	23.3	76.7	2.95	65.0	
	광주/호남	102	1.0	29.4	63.7	5.9	30.4	69.6	2.75	58.2	
	대구/경북	102	9.8	28.4	51.0	10.8	38.2	61.8	2.63	54.2	
	부산/울산/경남	159	4.4	39.6	48.4	7.5	44.0	56.0	2.59	53.0	
결혼 상태	미혼	238	7.1	36.6	42.0	14.3	43.7	56.3	2.63	54.5	26.643 ***
	기혼	732	4.4	23.4	46.7	25.5	27.7	72.3	2.93	64.5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20.0	43.3	30.0	26.7	73.3	2.97	65.6	
학력	초졸 이하	35	8.6	20.0	54.3	17.1	28.6	71.4	2.80	60.0	8.234
	중졸	113	6.2	23.0	50.4	20.4	29.2	70.8	2.85	61.7	
	고졸	466	4.5	27.0	46.4	22.1	31.5	68.5	2.86	62.0	
	대졸	371	5.4	27.2	41.8	25.6	32.6	67.4	2.88	62.5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6.7	53.3	20.0	26.7	73.3	2.93	64.4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5.4	27.9	46.7	20.0	33.3	66.7	2.81	60.4	15.344 **
	긍정	255	4.3	22.0	42.0	31.8	26.3	73.7	3.01	67.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0.8	26.9	40.0	22.3	37.7	62.3	2.74	57.9	12.109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6	25.1	47.0	23.4	29.6	70.4	2.89	63.0	
	400만 원 이상	386	3.6	28.0	45.9	22.5	31.6	68.4	2.87	62.4	
	무응답	5	20.0	20.0	20.0	40.0	40.0	60.0	2.80	60.0	
이념 성향	진보	273	5.9	30.4	41.0	22.7	36.3	63.7	2.81	60.2	24.287 ***
	중도	440	4.1	29.8	47.3	18.9	33.9	66.1	2.81	60.3	
	보수	287	5.9	17.4	47.0	29.6	23.3	76.7	3.00	66.8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17.522
	상하	6	0.0	33.3	66.7	0.0	33.3	66.7	2.67	55.6	
	중상	198	6.6	22.7	46.5	24.2	29.3	70.7	2.88	62.8	
	중하	545	4.2	28.6	45.1	22.0	32.8	67.2	2.85	61.7	
	하상 하하	191 58	4.2 12.1	22.5 29.3	48.7 32.8	24.6 25.9	26.7 41.4	73.3 58.6	2.94 2.72	64.6 57.5	

문28)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같은 민족 이니까	남북 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주민 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χ^2 -test
2015년		1,000	38.7	28.3	13.9	13.7	5.0	0.4	
2014년		1,000	36.9	24.2	15.4	17.9	5.4	0.2	
성별	남성	496	37.5	28.0	17.7	12.1	4.4	0.2	14.285 *
	여성	504	39.9	28.6	10.1	15.3	5.6	0.6	
연령	19세~29세	177	32.2	32.8	16.9	12.4	5.1	0.6	22.017
	30대	184	37.5	32.1	12.5	13.0	4.3	0.5	
	40대	212	39.6	27.4	14.2	13.2	5.2	0.5	
	50대	200	40.5	27.5	15.0	9.5	7.0	0.5	
	60세 이상	227	42.3	23.3	11.5	19.4	3.5	0.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4.2	27.7	13.7	10.5	3.3	0.7	37.233 ***
	중소도시	457	35.0	29.1	14.4	14.0	7.2	0.2	
	읍면	84	28.6	27.4	11.9	29.8	2.4	0.0	
권역	서울	203	45.8	26.1	12.3	11.3	3.4	1.0	175.511 ***
	인천/경기	290	41.0	25.2	14.8	11.7	7.2	0.0	
	대전/충청	103	41.7	32.0	16.5	6.8	2.9	0.0	
	광주/호남	102	32.4	17.6	0.0	45.1	4.9	0.0	
	대구/경북	102	23.5	56.9	11.8	2.0	5.9	0.0	
	부산/울산/경남	159	39.6	23.9	20.1	12.6	3.1	0.6	
강원/제주	41	29.3	24.4	24.4	12.2	7.3	2.4		
결혼 상태	미혼	238	30.3	32.8	17.6	13.0	5.5	0.8	23.730 **
	기혼	732	41.8	26.8	12.6	14.1	4.6	0.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0.0	30.0	16.7	10.0	10.0	3.3	
학력	초졸 이하	35	34.3	34.3	11.4	14.3	5.7	0.0	25.279
	중졸	113	44.2	19.5	10.6	23.0	2.7	0.0	
	고졸	466	40.3	27.3	14.4	12.2	5.4	0.4	
	대졸	371	36.1	31.5	14.8	12.1	4.9	0.5	
	대학원 재학 이상	15	20.0	33.3	6.7	26.7	13.3	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7.9	28.7	14.4	14.1	4.6	0.4	2.622
	긍정	255	41.2	27.1	12.5	12.5	6.3	0.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6.2	30.8	13.1	16.9	2.3	0.8	11.66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2.0	27.3	13.6	11.1	5.8	0.2	
	400만 원 이상	386	35.5	28.8	14.8	15.8	4.9	0.3	
	무응답	5	40.0	20.0	0.0	20.0	0.0	20.0	
이념 성향	진보	273	35.9	30.8	12.5	15.4	4.4	1.1	27.853 **
	중도	440	36.8	30.2	12.7	16.1	3.9	0.2	
	보수	287	44.3	23.0	17.1	8.4	7.3	0.0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0.0	0.0	21.080
	상하	6	16.7	50.0	16.7	16.7	0.0	0.0	
	중상	198	40.9	26.8	11.1	14.6	5.6	1.0	
	중하	545	36.7	29.9	13.2	14.7	5.3	0.2	
	하상	191	40.3	26.2	19.4	10.5	3.7	0.0	
	하하	58	46.6	22.4	12.1	12.1	5.2	1.7	

문29) 귀하는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2015년	1,000	7.9	35.2	46.5	10.4	43.1	56.9	2.59	53.1		
2014년	1,000	5.1	34.4	49.7	10.8	39.5	60.5	2.66	55.4		
성별	남성	496	6.3	30.8	48.2	14.7	37.1	62.9	2.71	57.1	26.932 ***
	여성	504	9.5	39.5	44.8	6.2	49.0	51.0	2.48	49.2	
연령	19세~29세	177	8.5	41.8	43.5	6.2	50.3	49.7	2.47	49.2	18.838
	30대	184	8.2	38.6	42.9	10.3	46.7	53.3	2.55	51.8	
	40대	212	8.0	34.0	46.2	11.8	42.0	58.0	2.62	53.9	
	50대	200	8.0	29.0	47.0	16.0	37.0	63.0	2.71	57.0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7.0	33.9	51.5	7.5	41.0	59.0	2.59	53.2	32.118 ***
	대도시	459	10.9	34.6	41.8	12.6	45.5	54.5	2.56	52.1	
	중소도시	457	5.5	32.4	53.0	9.2	37.9	62.1	2.66	55.3	
권역	읍면	84	4.8	53.6	36.9	4.8	58.3	41.7	2.42	47.2	99.465 ***
	서울	203	15.8	28.6	38.9	16.7	44.3	55.7	2.57	52.2	
	인천/경기	290	5.5	38.3	45.9	10.3	43.8	56.2	2.61	53.7	
	대전/충청	103	5.8	33.0	43.7	17.5	38.8	61.2	2.73	57.6	
	광주/호남	102	2.9	48.0	49.0	0.0	51.0	49.0	2.46	48.7	
결혼 상태	대구/경북	102	16.7	40.2	35.3	7.8	56.9	43.1	2.34	44.8	10.421
	부산/울산/경남	159	1.9	33.3	60.4	4.4	35.2	64.8	2.67	55.8	
	강원/제주	41	4.9	14.6	63.4	17.1	19.5	80.5	2.93	64.2	
학력	미혼	238	10.1	41.2	41.6	7.1	51.3	48.7	2.46	48.6	24.803 *
	기혼	732	7.1	33.3	48.2	11.3	40.4	59.6	2.64	54.6	
	초졸 이하	35	14.3	34.3	45.7	5.7	48.6	51.4	2.43	47.6	
	중졸	113	9.7	36.3	49.6	4.4	46.0	54.0	2.49	49.6	
	고졸	466	6.7	33.0	51.5	8.8	39.7	60.3	2.62	54.1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8.6	37.5	39.4	14.6	46.1	53.9	2.60	53.3	2.169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40.0	46.7	13.3	40.0	60.0	2.73	57.8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7.7	36.2	46.3	9.8	43.9	56.1	2.58	52.8	14.743 *
	긍정	255	8.6	32.2	47.1	12.2	40.8	59.2	2.63	54.2	
	200만원 미만	130	14.6	34.6	40.8	10.0	49.2	50.8	2.46	48.7	
이념 성향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7.3	32.8	50.1	9.8	40.1	59.9	2.62	54.1	24.904 ***
	400만 원 이상	386	6.0	38.6	44.3	11.1	44.6	55.4	2.61	53.5	
계층 소속감	무응답	5	40.0	20.0	20.0	20.0	60.0	40.0	2.20	40.0	29.060 *
	진보	273	9.2	37.7	41.0	12.1	46.9	53.1	2.56	52.0	
	중도	440	7.7	39.8	45.5	7.0	47.5	52.5	2.52	50.6	
	보수	287	7.0	25.8	53.3	13.9	32.8	67.2	2.74	58.1	
	상상	2	0.0	100.0	0.0	0.0	100.0	0.0	2.00	33.3	
	상하	6	0.0	66.7	33.3	0.0	66.7	33.3	2.33	44.4	
계층 소속감	중상	198	4.5	35.9	48.0	11.6	40.4	59.6	2.67	55.6	29.060 *
	중하	545	9.0	36.9	44.6	9.5	45.9	54.1	2.55	51.6	
	하상	191	5.8	29.3	55.0	9.9	35.1	64.9	2.69	56.4	
	하하	58	17.2	31.0	34.5	17.2	48.3	51.7	2.52	50.6	

문30)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2015년		1,000	14.6	51.7	27.7	6.0	66.3	33.7	2.25	41.7	
2014년		1,000	11.0	55.0	30.5	3.5	66.0	34.0	2.27	42.2	
성별	남성	496	11.5	50.4	29.0	9.1	61.9	38.1	2.36	45.2	22.947 ***
	여성	504	17.7	53.0	26.4	3.0	70.6	29.4	2.15	38.2	
연령	19세 ~ 29세	177	14.1	58.8	22.6	4.5	72.9	27.1	2.18	39.2	11.059
	30대	184	16.8	48.9	28.3	6.0	65.8	34.2	2.23	41.1	
	40대	212	13.7	50.0	29.7	6.6	63.7	36.3	2.29	43.1	
	50대	200	14.0	48.0	29.0	9.0	62.0	38.0	2.33	44.3	
	60세 이상	227	14.5	53.3	28.2	4.0	67.8	32.2	2.22	40.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8.5	48.4	25.5	7.6	66.9	33.1	2.22	40.7	23.672 **
	중소도시	457	11.8	52.1	30.9	5.3	63.9	36.1	2.30	43.2	
	읍면	84	8.3	67.9	22.6	1.2	76.2	23.8	2.17	38.9	
권역	서울	203	21.2	38.4	30.0	10.3	59.6	40.4	2.30	43.2	84.988 ***
	인천/경기	290	13.8	46.2	33.8	6.2	60.0	40.0	2.32	44.1	
	대전/충청	103	7.8	58.3	27.2	6.8	66.0	34.0	2.33	44.3	
	광주/호남	102	2.0	61.8	35.3	1.0	63.7	36.3	2.35	45.1	
	대구/경북	102	26.5	54.9	16.7	2.0	81.4	18.6	1.94	31.4	
	부산/울산/경남	159	13.8	66.0	16.4	3.8	79.9	20.1	2.10	36.7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9.8	51.2	26.8	12.2	61.0	39.0	2.41	47.2	5.479
	미혼	238	16.4	55.5	23.1	5.0	71.8	28.2	2.17	38.9	
	기혼	732	13.8	50.8	29.1	6.3	64.6	35.4	2.28	42.6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0.0	43.3	30.0	6.7	63.3	36.7	2.23	41.1	24.724 *
	초졸 이하	35	28.6	57.1	14.3	0.0	85.7	14.3	1.86	28.6	
	중졸	113	17.7	54.0	23.0	5.3	71.7	28.3	2.16	38.6	
	고졸	466	12.2	50.2	32.6	4.9	62.4	37.6	2.30	43.4	
	대졸	371	15.6	52.6	23.7	8.1	68.2	31.8	2.24	41.4	
국정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46.7	40.0	6.7	53.3	46.7	2.47	48.9	16.168 **
	부정	745	14.4	55.2	25.2	5.2	69.5	30.5	2.21	40.4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15.3	41.6	34.9	8.2	56.9	43.1	2.36	45.4	18.888 **
	200만원 미만	130	24.6	48.5	20.0	6.9	73.1	26.9	2.09	36.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2.9	49.5	31.1	6.5	62.4	37.6	2.31	43.7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2.7	56.0	26.2	5.2	68.7	31.3	2.24	41.3	14.391 *
	무응답	5	60.0	20.0	20.0	0.0	80.0	20.0	1.60	20.0	
	진보	273	14.3	50.9	27.8	7.0	65.2	34.8	2.27	42.5	
계층 소속감	중도	440	14.8	56.6	24.8	3.9	71.4	28.6	2.18	39.2	29.080 *
	보수	287	14.6	44.9	32.1	8.4	59.6	40.4	2.34	44.7	
	상상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7	
	상하	6	16.7	66.7	16.7	0.0	83.3	16.7	2.00	33.3	
	중상	198	13.1	53.0	29.3	4.5	66.2	33.8	2.25	41.8	
	중하	545	14.1	50.6	29.2	6.1	64.8	35.2	2.27	42.4	
하상	하상	191	11.5	59.2	22.5	6.8	70.7	29.3	2.25	41.5	29.080 *
	하하	58	32.8	31.0	27.6	8.6	63.8	36.2	2.12	37.4	

문31)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	정부와 시민 단체 간 협력강화	통일교육 확대	언론의 민족 회합 지향적 보도	기타	χ^2 -test
2015년		1,000	35.1	24.7	19.0	13.6	7.5	0.1	
2014년		1,000	43.7	20.7	20.5	14.0	0.9	0.2	
성별	남성	496	33.5	25.8	18.8	13.9	7.9	0.2	2.526
	여성	504	36.7	23.6	19.2	13.3	7.1	0.0	
연령	19세~29세	177	37.3	18.1	22.0	14.7	7.9	0.0	18.804
	30대	184	41.3	26.1	17.4	10.3	4.9	0.0	
	40대	212	34.0	24.5	17.0	14.6	9.9	0.0	
	50대	200	34.0	27.5	18.5	13.5	6.5	0.0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30.4	26.4	20.3	14.5	7.9	0.4	59.57 ***
	대도시	459	42.9	24.4	16.1	9.6	7.0	0.0	
	중소도시	457	30.2	20.8	21.9	17.9	9.0	0.2	
권역	읍면	84	19.0	47.6	19.0	11.9	2.4	0.0	135.184 ***
	서울	203	47.8	18.2	17.2	9.4	7.4	0.0	
	인천/경기	290	33.1	17.9	23.4	20.7	4.8	0.0	
	대전/충청	103	22.3	38.8	11.7	15.5	11.7	0.0	
	광주/호남	102	12.7	35.3	39.2	8.8	3.9	0.0	
	대구/경북	102	38.2	32.4	9.8	11.8	6.9	1.0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39.0	25.8	13.8	8.8	12.6	0.0	3.826
	강원/제주	41	51.2	19.5	7.3	14.6	7.3	0.0	
	미혼	238	36.1	22.3	19.7	15.1	6.7	0.0	
학력	기혼	732	34.4	25.5	18.7	13.4	7.8	0.1	13.606
	동거/이혼/별거/사별	30	43.3	23.3	20.0	6.7	6.7	0.0	
	초졸 이하	35	42.9	22.9	17.1	14.3	2.9	0.0	
	중졸	113	26.5	27.4	20.4	15.9	9.7	0.0	
	고졸	466	34.3	25.3	19.7	13.3	7.1	0.2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37.2	22.9	18.6	13.5	7.8	0.0	15.36 **
	대학원 재학 이상	15	53.3	33.3	0.0	6.7	6.7	0.0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35.0	22.4	20.9	13.2	8.3	0.1	10.651
	긍정	255	35.3	31.4	13.3	14.9	5.1	0.0	
	200만원 미만	130	40.8	23.1	18.5	12.3	5.4	0.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6.5	25.7	16.5	14.0	7.1	0.2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30.8	24.4	22.3	13.7	8.8	0.0	10.692
	무응답	5	80.0	0.0	20.0	0.0	0.0	0.0	
	진보	273	37.0	25.6	16.1	13.6	7.7	0.0	
계층 소속감	중도	440	34.8	24.3	22.3	12.3	6.4	0.0	38.857 *
	보수	287	33.8	24.4	16.7	15.7	9.1	0.3	
	상상	2	0.0	100.0	0.0	0.0	0.0	0.0	
	상하	6	33.3	0.0	50.0	16.7	0.0	0.0	
	중상	198	28.3	33.8	17.7	14.1	6.1	0.0	
	중하	545	34.9	24.2	19.4	14.3	7.2	0.0	
계층 소속감	하상	191	39.3	17.8	19.9	11.5	11.0	0.5	38.857 *
	하하	58	48.3	20.7	13.8	12.1	5.2	0.0	

문32) 귀하는 통일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1순위		사례수 (명)	경제 성장	안보	사회안 정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화합	복지	민주주의 발전	과거 청산	χ^2 -test
2015년		1,000	36.1	20.2	13.6	10.8	8.3	6.8	2.3	1.9	
2014년		1,000	38.2	19.2	15.0	11.7	7.8	5.3	2.1	0.7	
성별	남성	496	36.7	21.2	13.5	8.5	8.7	6.3	2.6	2.6	9.249
	여성	504	35.5	19.2	13.7	13.1	7.9	7.3	2.0	1.2	
연령	19세~29세	177	35.0	19.2	16.4	7.3	7.9	9.0	2.3	2.8	29.849
	30대	184	36.4	17.4	13.0	12.0	8.2	9.2	2.2	1.6	
	40대	212	33.0	20.8	16.0	10.4	9.9	3.3	4.2	2.4	
	50대	200	38.5	22.5	10.0	11.0	9.5	7.5	1.0	0.0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37.4	20.7	12.8	12.8	6.2	5.7	1.8	2.6	51.756 ***
	대도시	459	45.3	18.5	9.6	8.9	8.3	5.9	2.4	1.1	
	중소도시	457	27.4	20.4	17.5	12.3	9.6	7.4	2.4	3.1	
권역	읍면	84	33.3	28.6	14.3	13.1	1.2	8.3	1.2	0.0	138.794 ***
	서울	203	47.8	18.7	10.8	5.9	8.9	3.4	2.5	2.0	
	인천/경기	290	31.0	21.4	14.8	11.4	9.0	5.5	2.8	4.1	
	대전/충청	103	40.8	17.5	10.7	12.6	6.8	8.7	2.9	0.0	
	광주/호남	102	28.4	22.5	10.8	11.8	1.0	24.5	0.0	1.0	
	대구/경북	102	33.3	12.7	24.5	17.6	6.9	1.0	3.9	0.0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36.5	26.4	8.2	10.7	10.7	5.0	1.3	1.3	11.874
	강원/제주	41	26.8	14.6	26.8	7.3	17.1	4.9	2.4	0.0	
	미혼	238	37.4	17.2	16.0	9.2	7.6	7.6	2.1	2.9	
	기혼	732	35.4	21.3	13.1	11.5	8.2	6.6	2.5	1.5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43.3	16.7	6.7	6.7	16.7	6.7	0.0	3.3	37.534
	초졸 이하	35	31.4	25.7	8.6	25.7	5.7	0.0	0.0	2.9	
	중졸	113	34.5	27.4	13.3	7.1	7.1	7.1	0.9	2.7	
	고졸	466	37.3	19.7	13.5	10.7	6.7	8.2	2.4	1.5	
	대졸	371	35.6	18.6	14.3	10.8	10.8	5.4	2.4	2.2	
국정운영 평가	대학원 재학 이상	15	33.3	6.7	13.3	6.7	13.3	13.3	13.3	0.0	7.274
	부정	745	34.9	20.3	14.2	10.1	8.9	7.5	2.1	2.0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39.6	20.0	11.8	12.9	6.7	4.7	2.7	1.6	7.310
	200만원 미만	130	33.8	23.1	10.8	11.5	7.7	8.5	2.3	2.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6.7	19.6	15.4	10.6	8.1	6.3	2.1	1.0	
	400만 원 이상	386	36.0	19.9	12.4	10.9	8.8	7.0	2.3	2.6	
이념 성향	무응답	5	40.0	20.0	0.0	0.0	0.0	0.0	20.0	20.0	15.678
	진보	273	36.3	18.7	15.4	11.4	7.3	5.9	4.0	1.1	
	중도	440	35.7	21.6	13.4	8.6	8.2	8.0	2.0	2.5	
계층 소속감	보수	287	36.6	19.5	12.2	13.6	9.4	5.9	1.0	1.7	31.686
	상상	2	100.0	0.0	0.0	0.0	0.0	0.0	0.0	0.0	
	상하	6	66.7	33.3	0.0	0.0	0.0	0.0	0.0	0.0	
	중상	198	36.4	19.7	10.6	9.1	10.1	7.1	3.0	4.0	
	중하	545	36.5	17.8	15.2	11.6	7.5	7.5	2.2	1.7	
	하상	191	32.5	25.7	13.6	10.5	7.9	6.3	2.6	1.0	
하하	58	37.9	25.9	10.3	12.1	12.1	1.7	0.0	0.0		

문33) 귀하는 다음 분야의 정책이 남북한 통합을 이루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1) 인도적 대북지원		사례수 (명)	전혀 기여 하지 않는 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5	3.2	6.1	7.4	9.4	18.2	15.3	17.9	15.8	4.7	1.5	5.67	
성별	남성	496	0.4	2.2	6.0	6.7	8.9	19.2	14.5	17.3	17.3	5.2	2.2	5.82	10.720
	여성	504	0.6	4.2	6.2	8.1	9.9	17.3	16.1	18.5	14.3	4.2	0.8	5.52	
연령	19세~29세	177	1.7	4.5	5.1	9.0	13.6	18.1	13.6	15.3	13.6	5.6	0.0	5.34	37.782
	30대	184	0.0	2.7	6.0	7.1	10.3	23.9	15.2	16.3	12.0	4.9	1.6	5.58	
	40대	212	0.0	2.4	6.6	8.5	9.4	15.6	15.6	18.9	15.1	4.7	3.3	5.78	
	50대	200	0.5	3.0	6.5	6.0	8.5	17.5	16.0	18.5	19.0	3.0	1.5	5.75	
	60세 이상	227	0.4	3.5	6.2	6.6	6.2	16.7	15.9	19.8	18.5	5.3	0.9	5.82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1	4.8	8.1	7.2	10.5	20.5	14.2	18.7	10.7	2.8	1.5	5.29	69.183 ***
	중소도시	457	0.0	2.0	4.8	7.4	8.5	14.2	14.7	17.3	22.5	6.8	1.8	6.07	
	읍면	84	0.0	1.2	2.4	8.3	8.3	27.4	25.0	16.7	7.1	3.6	0.0	5.57	
권역	서울	203	1.5	4.4	8.9	8.4	12.8	23.6	8.4	13.8	11.3	4.4	2.5	5.19	199.101 ***
	인천/경기	290	0.3	3.1	5.9	8.3	13.1	13.4	9.3	14.5	24.1	6.6	1.4	5.82	
	대전/충청	103	0.0	2.9	3.9	8.7	9.7	27.2	16.5	15.5	9.7	3.9	1.9	5.51	
	광주/호남	102	0.0	0.0	2.0	2.9	2.9	5.9	33.3	30.4	22.5	0.0	0.0	6.47	
	대구/경북	102	1.0	7.8	7.8	9.8	4.9	28.4	12.7	16.7	8.8	1.0	1.0	4.97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5.7	5.7	6.3	16.4	24.5	25.2	11.3	4.4	0.6	5.95	
강원/제주	41	0.0	7.3	7.3	4.9	4.9	14.6	14.6	12.2	12.2	17.1	4.9	6.02		
결혼 상태	미혼	238	1.7	4.2	4.6	10.5	11.8	18.5	14.7	14.7	13.9	5.5	0.0	5.36	29.017
	기혼	732	0.1	2.9	6.3	6.4	8.7	17.9	15.7	19.1	16.4	4.5	1.9	5.7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3.3	13.3	6.7	6.7	23.3	10.0	13.3	16.7	3.3	3.3	5.43	
학력	초졸 이하	35	0.0	5.7	5.7	14.3	2.9	25.7	17.1	11.4	14.3	2.9	0.0	5.23	33.781
	중졸	113	0.0	3.5	8.0	5.3	7.1	15.0	23.9	20.4	12.4	3.5	0.9	5.65	
	고졸	466	0.6	2.8	6.2	7.1	10.3	16.7	14.4	20.2	16.3	4.5	0.9	5.68	
	대졸	371	0.5	3.5	5.4	7.8	9.7	20.5	13.7	15.1	15.9	5.4	2.4	5.67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6.7	6.7	6.7	13.3	13.3	13.3	26.7	6.7	6.7	6.4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0.7	3.5	6.8	8.3	8.6	15.8	15.6	17.9	16.0	5.4	1.5	5.65	22.477 *
	긍정	255	0.0	2.4	3.9	4.7	11.8	25.1	14.5	18.0	15.3	2.7	1.6	5.7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	4.6	5.4	8.5	9.2	18.5	13.1	16.9	15.4	6.2	0.8	5.53	26.62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4	3.8	6.7	7.5	10.2	18.6	15.2	20.0	12.1	3.8	1.7	5.53	
	400만 원 이상	386	0.0	1.8	5.7	7.0	8.3	17.4	16.3	15.8	20.7	5.4	1.6	5.93	
	무응답	5	20.0	20.0	0.0	0.0	20.0	40.0	0.0	0.0	0.0	0.0	0.0	3.00	
이념 성향	진보	273	0.7	3.7	5.1	5.9	9.9	15.0	12.8	22.3	17.9	5.1	1.5	5.84	24.039
	중도	440	0.7	2.5	6.4	9.3	7.5	19.1	17.5	17.0	15.0	3.9	1.1	5.59	
	보수	287	0.0	3.8	6.6	5.9	11.8	19.9	14.3	15.0	15.0	5.6	2.1	5.63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3.00	90.810 ***
	상하	6	0.0	16.7	0.0	0.0	0.0	33.3	16.7	16.7	16.7	0.0	0.0	5.33	
	중상	198	0.5	5.6	7.1	5.6	7.6	18.7	14.1	20.2	14.6	4.5	1.5	5.60	
	중하	545	0.2	1.8	5.3	7.0	9.0	18.0	15.0	17.4	20.6	4.6	1.1	5.88	
	하상	191	0.5	1.6	6.8	8.9	13.1	17.3	17.3	18.3	7.3	5.8	3.1	5.54	
	하하	58	3.4	10.3	8.6	13.8	8.6	19.0	15.5	13.8	3.4	3.4	0.0	4.47	

(단위: %)

(2)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 수 (명)	전혀 기여 하지 않는 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5	1.2	3.7	5.8	6.9	15.0	15.4	23.4	20.0	5.8	2.3	6.20	
성별	남성	496	0.6	1.6	2.8	5.4	6.3	14.7	13.3	25.0	20.6	7.1	2.6	6.31	11.686
	여성	504	0.4	0.8	4.6	6.2	7.5	15.3	17.5	21.8	19.4	4.6	2.0	6.09	
연령	19세~29세	177	1.1	1.7	3.4	4.0	11.3	15.8	14.7	22.0	20.9	5.1	0.0	6.00	46.125
	30대	184	0.0	1.1	2.7	7.1	7.1	16.8	16.3	25.5	12.5	8.2	2.7	6.17	
	40대	212	0.5	0.9	3.8	7.1	3.3	16.5	14.6	23.1	22.6	4.2	3.3	6.27	
	50대	200	0.5	1.5	3.0	4.5	9.0	13.0	14.5	28.0	17.5	5.0	3.5	6.25	
	60세 이상	227	0.4	0.9	5.3	6.2	4.8	13.2	16.7	18.9	25.1	6.6	1.8	6.26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1	2.0	5.2	8.7	10.5	16.3	14.4	22.2	14.2	3.7	1.7	5.68	75.299 ***
	중소도시	457	0.0	0.4	2.6	3.7	3.9	13.1	14.9	24.9	25.8	7.7	2.8	6.66	
	읍면	84	0.0	1.2	1.2	1.2	3.6	17.9	23.8	21.4	20.2	7.1	2.4	6.54	
권역	서울	203	1.5	3.0	5.9	9.9	14.3	17.7	9.9	16.3	14.8	3.4	3.4	5.47	196.884 ***
	인천/경기	290	0.3	1.0	4.1	4.5	7.9	14.5	11.7	22.4	27.2	5.2	1.0	6.29	
	대전/충청	103	0.0	1.0	3.9	6.8	8.7	22.3	20.4	16.5	9.7	5.8	4.9	5.92	
	광주/호남	102	0.0	0.0	1.0	1.0	1.0	12.7	28.4	40.2	14.7	1.0	0.0	6.51	
	대구/경북	102	1.0	2.0	1.0	2.0	2.9	16.7	12.7	19.6	27.5	11.8	2.9	6.74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2.5	8.2	1.9	9.4	21.4	31.4	18.9	5.7	0.6	6.41	
결혼 상태	미혼	238	1.3	1.7	3.8	8.0	8.0	13.9	16.4	21.8	19.3	5.0	0.8	5.94	33.641
	기혼	732	0.3	1.1	3.4	5.2	6.7	15.2	15.0	24.0	20.6	6.1	2.3	6.2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10.0	3.3	3.3	20.0	16.7	20.0	10.0	3.3	13.3	6.27	
학력	초졸 이하	35	0.0	0.0	8.6	8.6	5.7	14.3	17.1	20.0	20.0	2.9	2.9	5.94	34.761
	중졸	113	0.9	0.9	7.1	2.7	4.4	18.6	18.6	20.4	20.4	6.2	0.0	6.06	
	고졸	466	0.4	1.3	3.2	5.8	7.5	15.5	14.8	23.4	21.5	5.4	1.3	6.18	
	대졸	371	0.5	1.3	3.0	6.7	7.0	13.2	14.6	25.3	17.8	6.5	4.0	6.27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6.7	20.0	26.7	6.7	26.7	6.7	6.7	6.7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0.7	1.6	3.8	6.8	5.9	14.8	14.5	24.4	19.9	5.8	1.9	6.15	20.795 *
	긍정	255	0.0	0.0	3.5	2.7	9.8	15.7	18.0	20.4	20.4	5.9	3.5	6.3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2.3	6.9	5.4	2.3	13.8	16.9	19.2	16.9	10.0	3.8	6.11	36.964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1.0	3.5	6.3	8.4	15.7	15.0	21.9	20.7	5.2	2.1	6.15	
	400만 원 이상	386	0.0	0.8	2.8	5.2	6.7	14.2	15.5	26.9	20.5	5.2	2.1	6.33	
	무응답	5	20.0	20.0	0.0	20.0	0.0	40.0	0.0	0.0	0.0	0.0	0.0	2.80	
이념 성향	진보	273	0.7	2.9	2.6	4.0	6.2	13.9	14.3	24.5	22.3	6.6	1.8	6.29	27.639
	중도	440	0.5	0.9	4.1	6.8	5.5	14.5	16.8	24.8	19.3	4.3	2.5	6.17	
	보수	287	0.3	0.0	4.2	5.9	9.8	16.7	14.3	20.2	18.8	7.3	2.4	6.17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89.963 ***
	상하	6	0.0	0.0	0.0	16.7	0.0	33.3	16.7	33.3	0.0	0.0	0.0	5.50	
	중상	198	0.5	2.0	4.0	5.1	5.1	19.2	10.6	27.8	17.7	6.1	2.0	6.16	
	중하	545	0.0	0.7	3.1	5.0	6.4	14.1	17.1	22.8	23.5	5.1	2.2	6.36	
	하상	191	0.5	0.5	3.1	7.9	9.9	14.1	14.7	23.0	16.2	7.3	2.6	6.12	
	하하	58	5.2	5.2	10.3	8.6	8.6	10.3	15.5	15.5	10.3	6.9	3.4	5.19	

(단위: %)

(3)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사례 수 (명)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8	1.7	3.1	5.4	8.3	17.5	17.1	22.9	14.1	5.2	3.9	6.06	
성별	남성	496	0.6	1.4	2.8	3.6	8.5	16.3	17.9	25.2	13.5	5.0	5.0	6.21	13.974
	여성	504	1.0	2.0	3.4	7.1	8.1	18.7	16.3	20.6	14.7	5.4	2.8	5.91	
연령	19세~29세	177	2.3	0.6	4.5	5.1	10.7	21.5	16.4	19.8	13.6	4.5	1.1	5.72	57.847 *
	30대	184	0.0	1.6	2.7	5.4	8.7	17.4	21.2	23.4	11.4	2.2	6.0	6.07	
	40대	212	0.5	1.4	2.4	5.2	7.1	20.8	21.7	19.8	13.2	4.7	3.3	6.04	
	50대	200	0.5	2.0	3.0	7.0	8.5	14.5	13.5	23.5	18.5	3.5	5.5	6.16	
	60세 이상	227	0.9	2.6	3.1	4.4	7.0	14.1	13.2	27.3	13.7	10.1	3.5	6.2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5	3.1	4.8	6.5	11.8	18.3	14.8	19.6	9.6	5.2	4.8	5.69	79.975 ***
	중소도시	457	0.2	0.4	2.0	4.2	5.5	14.0	19.3	27.8	17.9	5.7	3.1	6.44	
	읍면	84	0.0	1.2	0.0	6.0	4.8	32.1	17.9	14.3	17.9	2.4	3.6	6.06	
권역	서울	203	1.5	3.9	6.9	8.4	16.3	13.3	10.8	16.7	10.3	3.9	7.9	5.54	243.342 ***
	인천/경기	290	0.7	2.1	2.4	3.8	10.3	12.4	15.9	28.6	17.2	4.5	2.1	6.16	
	대전/충청	103	1.0	1.0	3.9	13.6	6.8	27.2	14.6	8.7	10.7	5.8	6.8	5.67	
	광주/호남	102	0.0	0.0	0.0	3.9	4.9	7.8	28.4	44.1	8.8	2.0	0.0	6.38	
	대구/경북	102	2.0	1.0	2.0	3.9	4.9	38.2	15.7	15.7	11.8	2.9	2.0	5.72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1.9	1.3	1.3	20.1	23.9	21.4	18.9	10.1	1.3	6.60	
결혼 상태	미혼	238	2.1	0.8	3.4	6.7	10.1	18.5	17.6	20.2	13.4	3.8	3.4	5.83	39.055 **
	기혼	732	0.4	2.0	2.9	4.9	7.9	17.2	17.1	24.2	14.6	5.2	3.6	6.1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6.7	6.7	3.3	16.7	13.3	13.3	6.7	16.7	16.7	6.73	
학력	초졸 이하	35	0.0	2.9	2.9	5.7	2.9	20.0	17.1	22.9	14.3	8.6	2.9	6.20	45.141
	중졸	113	0.9	3.5	1.8	4.4	9.7	15.0	14.2	21.2	15.9	11.5	1.8	6.17	
	고졸	466	0.9	1.7	3.0	5.8	7.5	19.3	15.2	24.7	14.8	4.1	3.0	6.01	
	대졸	371	0.8	1.1	3.8	5.4	9.4	16.2	19.9	20.8	13.2	3.8	5.7	6.05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6.7	6.7	26.7	33.3	0.0	20.0	6.7	7.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0.9	1.7	3.6	5.2	7.7	17.4	16.9	23.6	14.8	4.4	3.6	6.04	10.521
	긍정	255	0.4	1.6	1.6	5.9	10.2	17.6	17.6	20.8	12.2	7.5	4.7	6.1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3.1	4.6	4.6	6.9	12.3	10.8	20.8	15.4	10.8	8.5	6.30	43.355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1.5	3.1	6.5	8.6	20.3	15.9	24.2	13.2	3.8	2.9	5.96	
	400만 원 이상	386	0.8	1.3	2.6	4.1	8.5	15.5	21.0	22.3	15.0	5.2	3.6	6.16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20.0	0.0	20.0	0.0	40.0	0.0	0.0	0.0	0.0	0.0	2.80	20.026
	진보	273	1.5	2.2	4.0	4.0	8.8	15.8	16.1	25.3	16.8	2.9	2.6	5.97	
	중도	440	0.5	1.6	2.7	5.2	8.4	17.0	18.9	23.0	12.7	5.2	4.8	6.12	
	보수	287	0.7	1.4	2.8	7.0	7.7	19.9	15.3	20.6	13.6	7.3	3.8	6.07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63.628
	상하	6	0.0	0.0	0.0	16.7	0.0	16.7	33.3	33.3	0.0	0.0	0.0	5.67	
	중상	198	1.0	2.5	3.5	5.6	7.6	16.2	20.2	19.7	13.6	7.1	3.0	5.99	
	중하	545	0.4	1.1	3.3	5.7	7.5	16.7	16.1	25.3	16.0	4.2	3.7	6.15	
	하상	191	0.5	2.6	0.5	4.2	11.5	19.4	17.8	20.9	12.0	6.3	4.2	6.07	
	하하	58	5.2	1.7	8.6	5.2	8.6	20.7	12.1	17.2	6.9	5.2	8.6	5.53	

(단위: %)

(4) 통일교육		사례수 (명)	전혀 기여 하지 않는 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1.0	2.1	3.3	5.2	6.2	19.7	16.9	20.8	14.7	7.2	2.9	6.06	
성별	남성	496	1.0	2.4	2.6	4.6	5.6	18.5	18.8	19.2	15.1	8.5	3.6	6.17	11.000
	여성	504	1.0	1.8	4.0	5.8	6.7	20.8	15.1	22.4	14.3	6.0	2.2	5.95	
연령	19세~29세	177	2.3	2.3	3.4	6.2	8.5	20.9	16.9	18.1	13.0	7.3	1.1	5.76	34.879
	30대	184	0.5	2.2	2.7	4.9	8.2	23.4	16.3	17.4	13.6	7.1	3.8	6.02	
	40대	212	0.9	0.9	4.2	4.7	7.1	17.0	13.7	20.3	19.3	7.5	4.2	6.26	
	50대	200	1.0	2.0	3.0	5.0	5.0	22.5	19.0	20.5	12.5	7.0	2.5	6.01	
	60세 이상	227	0.4	3.1	3.1	5.3	3.1	15.9	18.5	26.4	14.5	7.0	2.6	6.19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3	4.1	5.0	7.6	8.1	22.9	13.9	17.2	13.7	3.1	3.1	5.56	94.415 ***
	중소도시	457	0.9	0.2	2.0	3.3	4.8	16.6	16.8	25.2	16.4	11.4	2.4	6.51	
	읍면	84	0.0	1.2	1.2	2.4	3.6	19.0	33.3	16.7	10.7	7.1	4.8	6.35	
권역	서울	203	1.5	5.4	6.4	11.3	8.4	22.7	8.9	10.3	17.7	2.5	4.9	5.38	272.497 ***
	인천/경기	290	1.4	2.4	2.4	3.8	9.3	14.5	12.4	18.6	17.9	15.9	1.4	6.33	
	대전/충청	103	1.0	0.0	2.9	10.7	5.8	27.2	19.4	12.6	8.7	3.9	7.8	5.84	
	광주/호남	102	0.0	0.0	1.0	2.9	4.9	4.9	33.3	36.3	14.7	2.0	0.0	6.44	
	대구/경북	102	1.0	2.9	1.0	0.0	3.9	28.4	14.7	34.3	8.8	2.9	2.0	6.08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3.8	1.9	1.9	27.0	25.2	25.8	10.1	3.8	0.6	6.08	
결혼 상태	미혼	238	2.1	2.1	4.2	6.3	7.1	21.0	15.5	16.4	13.9	8.4	9.8	5.87	23.042
	기혼	732	0.7	2.2	3.0	4.8	6.0	18.4	17.8	22.5	15.0	6.8	2.7	6.12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3.3	6.7	3.3	40.0	6.7	13.3	13.3	6.7	6.7	6.07	
학력	초졸 이하	35	0.0	2.9	2.9	5.7	0.0	11.4	25.7	31.4	11.4	5.7	2.9	6.29	35.111
	중졸	113	0.9	3.5	2.7	7.1	3.5	20.4	21.2	23.9	8.0	7.1	1.8	5.86	
	고졸	466	1.1	1.9	3.0	3.9	7.1	19.5	18.2	20.6	15.9	6.9	1.9	6.07	
	대졸	371	1.1	1.9	4.0	6.2	6.5	20.8	13.2	18.9	15.1	8.1	4.3	6.06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6.7	6.7	13.3	13.3	26.7	26.7	0.0	6.7	6.6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2	2.4	3.5	4.6	6.0	19.5	15.8	20.9	16.2	7.0	2.8	6.07	12.412
	긍정	255	0.4	1.2	2.7	7.1	6.7	20.4	20.0	20.4	10.2	7.8	3.1	6.03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5.4	2.3	3.1	4.6	17.7	15.4	26.2	12.3	6.2	4.6	6.02	21.91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8	2.1	3.1	5.4	6.3	19.6	17.5	19.8	15.7	7.1	2.5	6.06	
	400만 원 이상	386	0.5	0.8	3.9	5.4	6.7	20.2	16.8	20.5	14.5	7.8	2.8	6.12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20.0	0.0	20.0	0.0	40.0	0.0	0.0	0.0	0.0	0.0	2.80	27.818
	진보	273	1.5	2.9	2.9	4.0	7.0	16.8	17.2	23.4	16.1	4.4	3.7	6.05	
	중도	440	0.9	2.3	3.4	5.2	5.7	24.1	15.2	18.9	15.5	6.6	2.3	5.97	
	보수	287	0.7	1.0	3.5	6.3	6.3	15.7	19.2	21.3	12.2	10.8	3.1	6.20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5.50	53.042
	상하	6	0.0	0.0	0.0	16.7	16.7	16.7	16.7	33.3	0.0	0.0	0.0	5.33	
	중상	198	1.5	2.0	4.0	5.6	6.1	20.2	17.2	20.7	14.1	6.1	2.5	5.93	
	중하	545	0.6	1.3	3.1	4.6	6.6	17.6	16.3	21.3	16.3	9.2	3.1	6.27	
	하상	191	0.5	2.6	2.6	5.8	5.2	23.6	19.9	19.9	13.1	4.2	2.6	5.91	
	하하	58	5.2	8.6	5.2	6.9	5.2	24.1	10.3	19.0	8.6	3.4	3.4	5.10	

(단위: %)

(5) 남북 대화		사례 수 (명)	전혀 기여 하지 않는 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4	1.1	3.6	3.4	5.1	11.7	15.2	19.9	20.4	13.8	5.4	6.69	
성별	남성	496	0.4	1.8	2.6	2.6	5.6	10.9	15.7	18.5	19.8	14.5	7.5	6.79	19.452 *
	여성	504	0.4	0.4	4.6	4.2	4.6	12.5	14.7	21.2	21.0	13.1	3.4	6.59	
연령	19세~29세	177	0.6	0.6	4.5	6.2	4.5	11.3	16.9	22.0	20.3	11.3	1.7	6.40	39.790
	30대	184	0.0	0.5	4.3	3.8	4.9	10.3	22.3	16.8	19.0	12.5	5.4	6.63	
	40대	212	0.5	0.5	2.8	3.3	6.6	13.7	11.8	21.2	17.5	15.6	6.6	6.76	
	50대	200	0.5	2.0	2.5	1.5	6.0	13.0	13.0	18.0	22.5	13.5	7.5	6.81	
	60세 이상	227	0.4	1.8	4.0	2.6	3.5	10.1	13.2	21.1	22.5	15.4	5.3	6.8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0.9	2.2	5.7	5.2	6.8	15.7	15.7	20.3	15.7	6.5	5.4	6.09	102.069 ***
	중소도시	457	0.0	0.0	1.5	2.2	2.8	7.7	14.4	19.5	25.8	20.6	5.5	7.29	
	읍면	84	0.0	1.2	3.6	0.0	8.3	11.9	16.7	20.2	16.7	16.7	4.8	6.74	
권역	서울	203	1.0	3.9	6.4	7.9	9.4	17.2	11.8	11.8	15.3	9.4	5.9	5.83	258.734 ***
	인천/경기	290	0.3	0.3	3.4	2.1	4.5	9.3	10.0	16.9	27.2	22.1	3.8	7.11	
	대전/충청	103	0.0	0.0	3.9	5.8	10.7	16.5	19.4	15.5	10.7	4.9	12.6	6.31	
	광주/호남	102	0.0	0.0	2.0	1.0	2.9	9.8	21.6	36.3	23.5	2.9	0.0	6.66	
	대구/경북	102	1.0	2.0	1.0	0.0	0.0	4.9	12.7	17.6	29.4	23.5	7.8	7.54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3.1	1.9	1.9	12.6	24.5	31.4	15.1	8.8	0.6	6.56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0.0	2.4	4.9	4.9	7.3	12.2	12.2	12.2	22.0	22.0	7.49	23.558
	미혼	238	0.8	0.8	3.4	6.3	5.5	10.1	18.1	19.3	21.0	11.3	3.4	6.46	
	기혼	732	0.3	1.2	3.7	2.3	5.2	12.3	14.2	20.4	20.2	14.5	5.7	6.75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3.3	6.7	0.0	10.0	16.7	13.3	20.0	16.7	13.3	7.13	29.676
	초졸 이하	35	0.0	0.0	5.7	2.9	5.7	5.7	14.3	28.6	20.0	14.3	2.9	6.74	
	중졸	113	0.9	1.8	5.3	1.8	1.8	12.4	15.9	23.9	23.0	9.7	3.5	6.57	
	고졸	466	0.2	1.3	3.4	3.6	5.6	12.7	13.5	20.6	20.6	14.2	4.3	6.65	
	대졸	371	0.5	0.8	3.2	3.8	5.4	10.8	17.8	16.7	18.9	14.6	7.5	6.75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0.0	6.7	13.3	0.0	26.7	33.3	13.3	6.7	7.3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0.5	1.3	3.6	3.4	4.8	11.4	15.6	20.5	21.3	12.6	4.8	6.65	10.407
	긍정	255	0.0	0.4	3.5	3.5	5.9	12.5	14.1	18.0	17.6	17.3	7.1	6.82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0.8	3.8	2.3	3.8	12.3	13.1	20.0	17.7	16.2	7.7	6.75	25.380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1.5	3.5	3.5	5.2	12.1	14.8	20.5	21.1	14.0	3.5	6.63	
	400만 원 이상	386	0.0	0.5	3.6	3.4	5.2	10.9	16.6	19.4	20.5	13.0	7.0	6.79	
이념 성향	무응답	5	0.0	20.0	0.0	20.0	20.0	20.0	0.0	0.0	20.0	0.0	0.0	4.20	34.140 *
	진보	273	0.7	1.5	4.4	3.7	4.8	13.2	11.4	20.1	24.5	10.3	5.5	6.59	
	중도	440	0.2	1.1	3.4	3.4	5.0	9.3	19.1	22.7	18.9	12.3	4.5	6.65	
	보수	287	0.3	0.7	3.1	3.1	5.6	13.9	12.9	15.3	18.8	19.5	6.6	6.85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50.0	0.0	0.0	0.0	50.0	0.0	0.0	6.00	87.206 **
	상하	6	0.0	0.0	0.0	16.7	0.0	33.3	16.7	16.7	16.7	0.0	0.0	5.67	
	중상	198	0.0	1.5	3.0	4.0	4.0	14.1	12.1	26.3	19.7	9.6	5.6	6.63	
	중하	545	0.0	0.6	3.9	3.5	5.1	9.9	16.1	17.2	21.1	16.9	5.7	6.84	
	하상	191	0.5	1.6	3.1	2.1	5.2	12.6	18.3	19.4	20.9	11.5	4.7	6.62	
하하	58	5.2	3.4	5.2	3.4	6.9	15.5	6.9	25.9	13.8	8.6	5.2	5.91		

(단위: %)

(6) 핵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		사례 수 (명)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4	1.3	2.8	4.8	5.1	12.4	14.3	19.6	20.8	12.6	5.9	6.66	
성별	남성	496	0.6	1.4	2.4	4.6	4.0	11.5	12.7	20.4	20.6	13.9	7.9	6.81	14.391
	여성	504	0.2	1.2	3.2	5.0	6.2	13.3	15.9	18.8	21.0	11.3	4.0	6.50	
연령	19세~29세	177	0.6	1.7	2.3	6.2	6.2	15.8	10.2	21.5	22.0	11.3	2.3	6.41	30.493
	30대	184	0.0	1.6	2.2	4.9	6.0	14.1	13.6	19.0	19.0	13.0	6.5	6.65	
	40대	212	0.5	0.9	2.4	5.7	2.8	12.7	17.5	15.6	21.2	14.2	6.6	6.75	
	50대	200	0.5	1.0	3.5	5.0	4.0	12.5	14.5	22.0	20.0	10.0	7.0	6.63	
	60세 이상	227	0.4	1.3	3.5	2.6	6.6	7.9	15.0	20.3	21.6	14.1	6.6	6.8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0.9	2.6	5.0	6.8	6.8	14.2	15.7	18.5	17.6	5.9	6.1	6.10	101.736 ***
	중소도시	457	0.0	0.0	0.9	3.7	3.7	9.6	11.6	21.7	25.6	17.5	5.7	7.16	
	읍면	84	0.0	1.2	1.2	0.0	3.6	17.9	21.4	14.3	11.9	22.6	6.0	6.94	
권역	서울	203	1.0	3.0	6.9	9.4	8.4	16.3	10.3	14.8	15.8	6.9	7.4	5.87	238.810 ***
	인천/경기	290	0.3	1.4	2.1	3.4	5.2	14.5	7.9	20.0	23.4	18.6	3.1	6.83	
	대전/충청	103	0.0	0.0	3.9	8.7	8.7	15.5	17.5	17.5	6.8	5.8	15.5	6.36	
	광주/호남	102	0.0	0.0	1.0	0.0	2.9	9.8	35.3	29.4	16.7	4.9	0.0	6.58	
	대구/경북	102	1.0	2.0	1.0	0.0	1.0	4.9	11.8	13.7	30.4	25.5	8.8	7.60	
	부산/울산/경남	159	0.0	0.6	0.6	4.4	3.8	8.2	17.0	27.7	25.8	9.4	2.5	6.83	
결혼 상태	미혼	238	0.8	2.1	0.8	8.0	6.3	12.6	12.2	20.6	21.4	9.7	5.5	6.46	27.632
	기혼	732	0.3	1.1	3.1	3.8	4.8	12.4	15.2	19.4	20.8	13.4	5.7	6.7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10.0	3.3	3.3	10.0	10.0	16.7	16.7	16.7	13.3	6.87	
학력	초졸 이하	35	0.0	0.0	5.7	2.9	5.7	11.4	14.3	20.0	20.0	17.1	2.9	6.69	28.313
	중졸	113	0.9	1.8	3.5	2.7	8.8	9.7	19.5	20.4	19.5	8.8	4.4	6.40	
	고졸	466	0.4	1.5	2.4	5.8	5.2	11.8	13.9	20.0	21.5	12.0	5.6	6.62	
	대졸	371	0.3	0.8	3.0	4.3	4.0	14.0	13.5	19.1	19.7	14.3	7.0	6.77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6.7	0.0	6.7	0.0	13.3	6.7	13.3	40.0	6.7	6.7	6.7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0.5	1.6	2.8	4.3	4.4	11.8	14.4	21.6	21.5	11.8	5.2	6.65	18.700 *
	긍정	255	0.0	0.4	2.7	6.3	7.1	14.1	14.1	13.7	18.8	14.9	7.8	6.6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	0.0	6.9	5.4	2.3	12.3	15.4	22.3	10.8	14.6	8.5	6.52	38.066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1.7	1.9	5.2	5.6	13.6	12.5	18.6	23.0	12.9	4.8	6.65	
	400만 원 이상	386	0.0	1.0	2.6	4.1	5.2	10.6	16.3	20.2	21.8	11.7	6.5	6.76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20.0	0.0	0.0	20.0	40.0	0.0	0.0	0.0	0.0	0.0	3.00	18.844
	진보	273	0.4	1.8	2.2	5.5	5.1	13.9	11.7	18.7	21.6	13.2	5.9	6.64	
	중도	440	0.5	1.6	3.0	4.3	4.5	12.7	14.5	23.0	20.2	10.0	5.7	6.59	
계층 소속감	보수	287	0.3	0.3	3.1	4.9	5.9	10.5	16.4	15.3	20.9	16.0	6.3	6.77	85.822 **
	상상	2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5.50	
	상하	6	0.0	0.0	0.0	16.7	0.0	33.3	16.7	16.7	16.7	0.0	0.0	5.67	
	중상	198	0.5	2.5	3.5	1.5	7.1	12.1	17.7	19.2	23.2	7.1	5.6	6.48	
	중하	545	0.0	0.7	2.2	5.5	4.4	12.1	13.8	17.1	22.2	16.1	5.9	6.83	
계층 소속감	하상	191	0.5	1.6	1.6	5.2	5.8	12.0	13.1	27.7	16.8	9.4	6.3	6.58	85.822 **
	하하	58	3.4	1.7	10.3	6.9	1.7	15.5	12.1	17.2	13.8	10.3	6.9	5.93	

(단위: %)

(7)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		사례 수 (명)	전혀 기여 하지 않는 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7	1.7	3.1	4.2	5.0	16.9	16.7	23.4	20.3	4.5	3.5	6.27	
성별	남성	496	1.0	1.4	2.8	3.8	4.4	18.5	14.9	21.0	23.0	5.4	3.6	6.34	14.433
	여성	504	0.4	2.0	3.4	4.6	5.6	15.3	18.5	25.8	17.7	3.6	3.4	6.19	
연령	19세~29세	177	1.1	1.1	4.0	5.1	10.2	14.7	15.8	23.7	20.3	2.8	1.1	5.99	50.003
	30대	184	0.0	2.2	3.8	4.9	4.9	16.3	20.7	17.9	21.7	3.3	4.3	6.22	
	40대	212	1.4	0.5	2.8	5.2	2.4	17.0	17.5	23.1	19.8	6.1	4.2	6.39	
	50대	200	0.5	1.5	3.5	3.0	6.5	15.5	17.0	22.5	20.5	4.5	5.0	6.35	
	60세 이상	227	0.4	3.1	1.8	3.1	2.2	20.3	13.2	28.6	19.4	5.3	2.6	6.3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5	3.5	5.0	7.2	6.8	22.0	14.6	21.6	11.3	2.6	3.9	5.64	124.855 ***
	중소도시	457	0.0	0.0	1.5	2.0	3.7	11.2	17.7	25.2	28.7	6.8	3.3	6.85	
	읍면	84	0.0	1.2	1.2	0.0	2.4	20.2	22.6	23.8	23.8	2.4	2.4	6.52	
권역	서울	203	2.5	3.9	8.4	9.4	6.4	20.2	9.9	17.2	11.8	3.9	6.4	5.49	240.586 ***
	인천/경기	290	0.3	2.1	1.4	3.1	6.9	13.1	12.4	20.7	32.1	5.9	2.1	6.57	
	대전/충청	103	0.0	1.0	2.9	8.7	6.8	31.1	16.5	15.5	8.7	2.9	5.8	5.78	
	광주/호남	102	0.0	0.0	1.0	0.0	1.0	11.8	36.3	33.3	11.8	4.9	0.0	6.54	
	대구/경북	102	1.0	2.0	1.0	0.0	2.9	13.7	17.6	24.5	35.3	0.0	2.0	6.64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1.9	3.1	2.5	17.6	20.8	34.0	11.9	5.7	2.5	6.45	
결혼 상태	미혼	238	1.3	1.7	3.8	5.5	7.1	16.4	17.6	22.4	24.4	7.3	9.8	6.95	17.267
	기혼	732	0.5	1.8	2.7	3.8	4.2	16.9	16.5	23.9	20.8	5.1	3.7	6.35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6.7	3.3	6.7	20.0	13.3	20.0	13.3	10.0	6.7	6.33	
학력	초졸 이하	35	0.0	2.9	5.7	0.0	0.0	14.3	17.1	28.6	25.7	2.9	2.9	6.49	55.388
	중졸	113	0.9	4.4	0.0	2.7	7.1	23.0	17.7	23.0	16.8	3.5	0.9	5.98	
	고졸	466	0.6	1.3	3.4	2.8	5.4	17.0	17.4	27.0	17.8	4.5	2.8	6.27	
	대졸	371	0.8	1.3	3.5	6.7	4.0	15.1	16.2	19.1	23.2	4.9	5.1	6.32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6.7	13.3	20.0	0.0	6.7	40.0	6.7	6.7	6.6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0.9	1.7	3.2	3.9	4.3	17.2	17.3	23.4	20.3	4.6	3.2	6.26	7.606
	긍정	255	0.0	1.6	2.7	5.1	7.1	16.1	14.9	23.5	20.4	4.3	4.3	6.3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2.3	3.1	3.8	6.2	12.3	18.5	21.5	19.2	6.2	4.6	6.23	20.48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2	1.9	3.5	3.3	4.6	19.6	15.0	23.2	20.9	4.2	3.5	6.28	
	400만 원 이상	386	0.5	1.0	2.6	5.2	5.2	14.8	18.4	24.6	20.2	4.4	3.1	6.31	
	무응답	5	20.0	20.0	0.0	20.0	0.0	40.0	0.0	0.0	0.0	0.0	0.0	2.80	
이념 성향	진보	273	0.7	3.3	3.7	2.2	7.0	13.6	15.8	23.4	20.9	5.5	4.0	6.28	26.001
	중도	440	0.7	1.6	3.2	4.5	3.2	19.1	18.9	23.0	19.1	3.4	3.4	6.21	
	보수	287	0.7	0.3	2.4	5.6	5.9	16.7	14.3	24.0	21.6	5.2	3.1	6.34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6.00	63.981
	상하	6	0.0	0.0	16.7	0.0	0.0	33.3	16.7	16.7	16.7	0.0	0.0	5.50	
	중상	198	0.5	2.5	2.5	4.0	6.6	16.7	15.2	25.3	18.2	4.5	4.0	6.24	
	중하	545	0.2	0.9	3.7	3.9	4.0	17.6	17.4	20.7	23.7	4.8	3.1	6.37	
	하상	191	1.0	2.1	1.0	4.2	6.8	15.2	16.8	30.4	14.7	4.7	3.1	6.24	
	하하	58	5.2	5.2	8.6	3.4	13.8	15.5	19.0	15.5	1.7	6.9	5.59		

(단위: %)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례 수 (명)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기여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6	1.8	4.7	4.1	5.9	18.8	18.5	20.5	17.8	4.4	2.9	6.07	
성별	남성	496	0.6	1.6	3.6	3.8	6.5	18.3	18.5	20.4	17.9	4.8	3.8	6.17	6.774
	여성	504	0.6	2.0	5.8	4.4	5.4	19.2	18.5	20.6	17.7	4.0	2.0	5.96	
연령	19세~29세	177	0.6	1.1	4.0	6.8	8.5	18.1	19.8	16.9	19.8	4.0	0.6	5.90	36.044
	30대	184	0.5	2.2	5.4	2.7	7.1	23.4	16.8	18.5	15.2	4.3	3.8	5.96	
	40대	212	0.5	1.4	8.0	4.7	4.2	16.5	18.4	20.3	18.4	4.2	3.3	6.02	
	50대	200	1.0	2.0	3.0	4.0	6.0	18.0	20.5	19.0	17.5	4.5	4.5	6.16	
	60세 이상	227	0.4	2.2	3.1	2.6	4.4	18.5	17.2	26.4	18.1	4.8	2.2	6.2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1	3.1	8.1	6.3	8.9	24.4	14.6	17.9	10.5	2.8	2.4	5.42	131.988 ***
	중소도시	457	0.2	0.4	2.0	2.6	3.7	11.4	21.2	24.1	24.5	5.9	3.9	6.68	
	읍면	84	0.0	2.4	1.2	0.0	1.2	28.6	25.0	15.5	21.4	4.8	0.0	6.25	
권역	서울	203	2.0	4.9	8.9	9.9	9.9	22.7	10.8	10.3	13.3	3.4	3.9	5.19	225.652 ***
	인천/경기	290	0.7	1.0	4.5	3.4	7.9	6.6	15.9	23.4	28.3	4.5	3.8	6.49	
	대전/충청	103	0.0	1.0	5.8	4.9	5.8	32.0	12.6	23.3	8.7	2.9	2.9	5.75	
	광주/호남	102	0.0	0.0	1.0	0.0	2.0	17.6	31.4	26.5	16.7	4.9	0.0	6.49	
	대구/경북	102	0.0	2.0	2.9	0.0	2.0	30.4	17.6	28.4	14.7	1.0	1.0	6.09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2.5	3.8	2.5	22.6	28.3	20.8	10.7	6.9	1.9	6.21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4.9	4.9	0.0	4.9	12.2	22.0	7.3	26.8	9.8	7.3	6.54	24.420
	미혼	238	0.8	1.7	4.6	6.7	8.0	18.5	18.5	15.5	20.2	2.9	2.5	5.88	
	기혼	732	0.4	1.9	4.6	3.3	5.3	18.6	18.9	22.0	17.3	4.6	3.0	6.13	
학력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0.0	6.7	3.3	3.3	26.7	10.0	23.3	10.0	10.0	3.3	5.97	47.839
	초졸 이하	35	0.0	0.0	5.7	0.0	0.0	25.7	11.4	28.6	22.9	5.7	0.0	6.43	
	중졸	113	0.0	4.4	4.4	0.9	7.1	20.4	23.0	25.7	8.0	3.5	2.7	5.86	
	고졸	466	0.6	1.7	5.4	3.4	6.7	17.8	17.8	20.2	20.8	3.9	1.7	6.05	
	대졸	371	0.8	1.3	3.8	6.5	5.1	18.6	18.9	18.6	16.7	5.1	4.6	6.11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6.7	0.0	6.7	26.7	13.3	20.0	13.3	6.7	6.7	6.2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0.7	2.1	4.7	4.0	5.1	19.3	18.3	20.5	18.5	4.0	2.7	6.05	8.193
	긍정	255	0.4	0.8	4.7	4.3	8.2	17.3	19.2	20.4	15.7	5.5	3.5	6.1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3.1	6.9	3.8	1.5	19.2	17.7	22.3	12.3	5.4	5.4	5.94	31.775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4	1.9	5.0	3.1	7.7	18.6	17.7	21.3	16.7	4.6	2.9	6.05	
	400만 원 이상	386	0.3	1.0	3.6	4.9	5.2	18.7	19.9	19.2	21.2	3.9	2.1	6.17	
이념 성향	무응답	5	0.0	20.0	0.0	40.0	0.0	40.0	0.0	0.0	0.0	0.0	0.0	3.40	12.439
	진보	273	1.1	2.6	5.1	3.7	6.2	17.9	15.4	21.2	20.1	4.4	2.2	6.02	
	중도	440	0.7	1.4	4.3	4.3	6.4	18.6	20.7	18.4	17.5	4.3	3.4	6.08	
계층 소속감	보수	287	0.0	1.7	4.9	4.2	4.9	19.9	18.1	23.0	16.0	4.5	2.8	6.09	72.882 *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00	
	상하	6	0.0	0.0	16.7	0.0	0.0	33.3	16.7	16.7	16.7	0.0	0.0	5.50	
	중상	198	0.0	3.0	4.0	3.5	4.5	21.7	16.7	22.7	15.2	6.6	2.0	6.08	
	중하	545	0.4	0.9	4.0	5.1	5.9	19.1	17.6	19.1	21.1	3.9	2.9	6.15	
하상	191	0.5	2.1	4.7	2.6	7.3	15.7	23.0	22.5	13.6	4.7	3.1	6.06		
하하	58	5.2	5.2	12.1	1.7	6.9	15.5	19.0	17.2	10.3	1.7	5.2	5.24		

문34) 귀하는 박근혜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1) 인도적 대북지원	사례 수 (명)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점										10점 평균 (점)	χ^2 -test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잘 대처하고 있다			
2015년		1,000	2.8	4.1	7.9	10.7	14.4	23.7	13.8	12.3	7.9	1.4	1.0	4.83	
성별	남성	496	3.8	4.0	7.5	10.9	12.9	23.4	13.1	14.1	8.1	1.0	1.2	4.83	10.110
	여성	504	1.8	4.2	8.3	10.5	15.9	24.0	14.5	10.5	7.7	1.8	0.8	4.82	
연령	19세~29세	177	4.5	7.9	7.9	11.3	15.3	23.2	10.2	11.3	6.2	1.7	0.6	4.45	64.897 **
	30대	184	3.3	3.8	13.0	11.4	17.4	24.5	10.3	9.2	6.0	0.5	0.5	4.41	
	40대	212	3.3	3.3	2.8	13.2	16.5	26.4	15.6	12.3	5.7	0.0	0.9	4.81	
	50대	200	2.0	2.0	9.5	11.0	8.5	22.0	15.5	16.5	9.0	2.5	1.5	5.16	
	60세 이상	227	1.3	4.0	7.0	7.0	14.5	22.5	16.3	11.9	11.9	2.2	1.3	5.19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5	6.3	10.7	8.9	15.9	26.1	13.3	8.7	4.6	1.1	0.9	4.45	58.850 ***
	중소도시	457	2.6	2.0	5.7	11.4	13.1	21.4	13.8	15.3	12.0	1.5	1.1	5.18	
	읍면	84	0.0	3.6	4.8	16.7	13.1	22.6	16.7	15.5	3.6	2.4	1.2	4.99	
권역	서울	203	4.4	8.4	15.3	9.4	17.2	28.1	7.9	4.9	3.0	0.5	1.0	3.96	242.742 ***
	인천/경기	290	1.0	1.7	5.2	10.0	19.7	17.6	13.4	15.5	13.8	1.4	0.7	5.28	
	대전/충청	103	2.9	4.9	6.8	10.7	10.7	33.0	13.6	9.7	2.9	1.0	3.9	4.79	
	광주/호남	102	0.0	2.0	9.8	26.5	14.7	12.7	18.6	8.8	4.9	2.0	0.0	4.54	
	대구/경북	102	6.9	6.9	7.8	14.7	13.7	27.5	7.8	7.8	4.9	1.0	1.0	4.19	
	부산/울산/경남	159	1.3	0.0	2.5	2.5	6.3	30.8	24.5	19.5	10.1	2.5	0.0	5.79	
결혼 상태	미혼	238	4.6	8.4	9.7	10.9	13.0	22.3	10.5	10.9	6.7	2.5	0.4	4.44	43.018 **
	기혼	732	2.2	2.9	7.1	10.5	15.3	23.9	15.0	12.7	8.3	1.1	1.0	4.95	
학력	초졸 이하	35	0.0	2.9	2.9	0.0	8.6	28.6	20.0	17.1	8.6	8.6	2.9	6.00	65.136 **
	중졸	113	0.9	2.7	6.2	8.0	14.2	19.5	18.6	15.9	10.6	0.9	2.7	5.35	
	고졸	466	2.6	2.6	6.4	11.4	15.7	23.4	13.9	12.4	9.7	1.3	0.6	4.95	
	대졸	371	3.8	6.7	10.2	11.6	13.5	25.3	11.6	10.5	4.9	1.1	0.8	4.42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0.0	20.0	13.3	13.3	13.3	13.3	13.3	6.7	0.0	0.0	4.2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6	5.0	9.4	12.8	14.4	22.7	11.9	11.9	6.6	1.2	0.5	4.57	54.558 ***
	긍정	255	0.4	1.6	3.5	4.7	14.5	26.7	19.2	13.3	11.8	2.0	2.4	5.58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1	3.8	11.5	13.1	10.8	23.8	13.1	11.5	4.6	2.3	2.3	4.68	19.826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7	4.4	5.8	9.8	15.9	23.6	12.5	13.8	9.4	1.0	1.0	4.94	
	400만 원 이상	386	2.6	3.6	9.1	11.1	14.0	23.6	15.8	10.9	7.3	1.6	0.5	4.77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20.0	20.0	0.0	0.0	40.0	0.0	0.0	0.0	0.0	0.0	2.60	48.302 ***
	진보	273	4.4	4.8	11.7	13.9	16.8	21.6	10.6	9.9	4.4	1.5	0.4	4.30	
	중도	440	2.3	4.1	8.4	11.8	14.3	22.0	13.6	13.2	8.4	0.9	0.9	4.83	
	보수	287	2.1	3.5	3.5	5.9	12.2	28.2	17.1	13.2	10.5	2.1	1.7	5.33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0	
계층 소속감	상하	6	16.7	0.0	0.0	50.0	0.0	0.0	16.7	16.7	0.0	0.0	0.0	3.67	76.886 **
	중상	198	4.5	6.1	10.1	7.1	9.1	20.2	15.2	18.2	7.1	2.0	0.5	4.83	
	중하	545	2.2	3.7	7.0	11.4	15.8	24.2	12.5	11.9	8.8	1.3	1.3	4.89	
	하상	191	1.0	2.6	7.3	9.4	15.7	27.2	17.3	9.9	7.9	0.5	1.0	4.96	
	하하	58	6.9	6.9	12.1	17.2	13.8	22.4	10.3	3.4	3.4	3.4	0.0	3.95	

(단위: %)

(2)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 수 (명)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잘 대처하고 있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2.4	3.7	7.9	9.9	14.7	24.5	14.1	14.6	6.8	0.7	0.7	4.85	
성별	남성	496	2.8	4.4	7.5	9.5	15.3	23.4	13.3	15.5	6.9	0.6	0.8	4.83	4.655
	여성	504	2.0	3.0	8.3	10.3	14.1	25.6	14.9	13.7	6.7	0.8	0.6	4.87	
연령	19세~29세	177	4.0	5.1	9.0	13.6	12.4	25.4	11.3	14.7	4.0	0.6	0.0	4.48	41.373
	30대	184	3.3	4.9	12.0	10.3	14.7	22.3	15.2	11.4	4.9	0.5	0.5	4.51	
	40대	212	1.9	3.8	4.2	11.3	17.9	24.5	14.6	13.2	7.5	0.5	0.5	4.90	
	50대	200	2.0	2.0	9.0	8.5	13.0	26.0	11.5	18.0	7.5	1.0	1.5	5.07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1.3	3.1	6.2	6.6	15.0	24.2	17.2	15.4	9.3	0.9	0.9	5.18	52.054 ***
	대도시	459	2.8	5.0	11.1	10.9	18.7	22.7	11.5	11.3	5.0	0.2	0.7	4.45	
	중소도시	457	2.2	2.6	5.5	9.0	11.6	24.1	16.8	17.5	8.8	1.1	0.9	5.19	
권역	읍면	84	1.2	2.4	3.6	9.5	9.5	36.9	13.1	16.7	6.0	1.2	0.0	5.14	203.323 ***
	서울	203	3.4	7.4	16.3	12.8	20.2	20.7	8.9	6.9	3.0	0.0	0.5	3.93	
	인천/경기	290	0.7	1.0	6.6	8.3	11.0	27.6	14.8	18.3	10.0	0.7	1.0	5.34	
	대전/충청	103	4.9	1.9	8.7	10.7	18.4	26.2	12.6	9.7	4.9	1.0	1.0	4.57	
	광주/호남	102	0.0	4.9	4.9	15.7	18.6	19.6	14.7	19.6	2.0	0.0	0.0	4.75	
	대구/경북	102	3.9	5.9	5.9	14.7	19.6	27.5	6.9	7.8	4.9	2.0	1.0	4.40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1.3	0.0	1.9	4.4	8.2	26.4	27.0	19.5	10.7	0.6	0.0	5.72	33.060 *
	강원/제주	41	9.8	14.6	9.8	0.0	7.3	14.6	4.9	24.4	9.8	2.4	2.4	4.61	
	미혼	238	4.2	5.9	11.3	12.6	10.9	23.5	11.8	13.9	4.6	0.8	0.4	4.44	
학력	기혼	732	1.8	3.0	6.7	9.3	16.1	24.2	15.0	15.2	7.4	0.7	0.7	4.98	60.744 *
	등거/이혼/별거/사별	30	3.3	3.3	10.0	3.3	10.0	40.0	10.0	6.7	10.0	0.0	3.3	4.93	
	초졸 이하	35	0.0	2.9	2.9	2.9	14.3	28.6	20.0	17.1	11.4	0.0	0.0	5.49	
	중졸	113	0.0	1.8	5.3	3.5	14.2	24.8	18.6	19.5	10.6	0.9	0.9	5.53	
국정운영 평가	고졸	466	1.9	2.8	6.7	9.7	15.0	23.6	14.8	17.0	7.3	0.9	0.4	5.01	38.283 ***
	대졸	371	3.8	5.7	10.2	12.4	14.3	25.6	11.9	10.2	4.3	0.5	1.1	4.42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0.0	20.0	20.0	20.0	13.3	0.0	6.7	13.3	0.0	0.0	4.00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3.1	4.6	9.5	10.6	14.6	23.4	13.6	14.0	5.8	0.7	0.3	4.65	23.949
	긍정	255	0.4	1.2	3.1	7.8	14.9	27.8	15.7	16.5	9.8	0.8	2.0	5.44	
	200만원 미만	130	1.5	3.1	7.7	10.0	23.8	20.0	13.8	11.5	7.7	0.0	0.8	4.77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3	3.5	7.3	9.6	12.7	24.6	14.8	14.6	7.9	1.3	1.3	5.00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2.6	3.9	8.3	10.4	14.2	25.9	13.5	15.8	5.2	0.3	0.0	4.73	54.971 ***
	무응답	5	20.0	20.0	40.0	0.0	0.0	20.0	0.0	0.0	0.0	0.0	0.0	2.00	
	진보	273	3.7	3.7	13.6	11.7	15.8	22.0	13.2	11.0	4.4	0.4	0.7	4.41	
계층 소속감	중도	440	2.0	4.8	6.8	10.9	14.1	24.5	14.8	13.6	8.2	0.0	0.2	4.82	63.465
	보수	287	1.7	2.1	4.2	6.6	14.6	26.8	13.9	19.5	7.0	2.1	1.4	5.32	
	상상	2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4.50	
	상하	6	16.7	0.0	0.0	50.0	0.0	0.0	16.7	16.7	0.0	0.0	0.0	3.67	
	중상	198	4.0	5.1	11.6	4.5	12.6	22.2	12.1	20.2	6.6	0.5	0.5	4.80	
계층 소속감	중하	545	2.0	3.3	6.8	11.4	14.1	26.6	14.1	12.8	7.5	0.6	0.7	4.88	63.465
	하상	191	1.0	2.6	5.8	9.4	16.8	24.1	16.2	15.7	5.8	1.6	1.0	5.08	
	하하	58	3.4	6.9	13.8	12.1	20.7	15.5	13.8	8.6	5.2	0.0	0.0	4.16	

(단위: %)

(3)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사례 수 (명)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잘 대처하고 있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2.7	4.7	8.2	12.1	14.6	22.3	15.7	14.7	4.2	0.5	0.3	4.66	
성별	남성	496	3.2	4.8	8.5	11.7	14.7	21.6	15.5	13.7	5.6	0.4	0.2	4.64	7.583
	여성	504	2.2	4.6	7.9	12.5	14.5	23.0	15.9	15.7	2.8	0.6	0.4	4.67	
연령	19세~29세	177	4.0	5.6	9.0	12.4	16.4	19.8	14.7	15.8	1.7	0.0	0.6	4.44	56.892 *
	30대	184	3.3	4.3	12.0	16.3	11.4	25.0	13.0	10.9	3.3	0.5	0.0	4.33	
	40대	212	3.3	4.2	5.7	13.7	11.8	26.9	16.0	14.6	3.3	0.0	0.5	4.68	
	50대	200	2.0	3.0	10.5	11.0	15.5	16.5	17.5	16.5	7.0	0.0	0.5	4.83	
	60세 이상	227	1.3	6.2	4.8	7.9	17.6	22.9	16.7	15.4	5.3	1.8	0.0	4.9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5	7.2	10.5	12.4	14.4	24.4	10.9	11.3	4.6	0.4	0.4	4.34	55.257 ***
	중소도시	457	2.2	2.8	6.1	12.5	15.1	19.5	18.2	19.3	3.7	0.4	0.2	4.90	
	읍면	84	1.2	1.2	7.1	8.3	13.1	26.2	28.6	8.3	4.8	1.2	0.0	5.02	
권역	서울	203	4.9	8.4	14.8	14.3	18.2	21.7	9.9	4.4	2.0	1.0	0.5	3.82	204.296 ***
	인천/경기	290	0.7	2.1	5.9	14.1	16.2	16.6	20.0	20.0	3.8	0.3	0.3	5.01	
	대전/충청	103	4.9	10.7	5.8	8.7	13.6	31.1	14.6	6.8	2.9	1.0	0.0	4.25	
	광주/호남	102	0.0	2.9	12.7	15.7	13.7	13.7	19.6	17.6	3.9	0.0	0.0	4.72	
	대구/경북	102	3.9	3.9	7.8	14.7	17.6	35.3	3.9	9.8	2.0	0.0	1.0	4.28	
	부산/울산/경남	159	0.6	0.6	2.5	5.7	7.5	27.0	22.6	23.9	8.8	0.6	0.0	5.67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12.2	12.2	9.8	4.9	9.8	14.6	9.8	17.1	9.8	0.0	0.0	4.15	20.920
	미혼	238	4.2	7.1	9.7	13.0	12.6	21.0	14.7	15.1	1.7	0.4	0.4	4.37	
학력	기혼	732	2.2	3.8	7.7	11.9	15.3	22.4	16.5	14.6	4.8	0.5	0.3	4.75	68.309 **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6.7	10.0	10.0	13.3	30.0	3.3	13.3	10.0	0.0	0.0	4.53	
	초졸 이하	35	0.0	5.7	0.0	2.9	25.7	25.7	11.4	22.9	2.9	2.9	0.0	5.23	
	중졸	113	0.0	2.7	4.4	5.3	17.7	23.0	19.5	18.6	8.0	0.9	0.0	5.32	
	고졸	466	2.1	3.9	7.9	12.4	12.7	20.8	18.5	17.2	4.1	0.0	0.4	4.80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4.3	6.5	10.2	14.3	15.1	23.7	11.9	9.7	3.2	0.8	0.3	4.24	38.686 ***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0.0	13.3	20.0	13.3	20.0	6.7	13.3	6.7	0.0	0.0	4.27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3.5	5.6	9.7	13.4	13.3	20.7	15.3	14.4	3.8	0.3	0.1	4.48	17.102
	긍정	255	0.4	2.0	3.9	8.2	18.4	27.1	16.9	15.7	5.5	1.2	0.8	5.17	
	200만원 미만	130	2.3	5.4	9.2	10.8	18.5	21.5	13.1	12.3	4.6	1.5	0.8	4.6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1	4.2	8.1	12.9	11.7	23.4	16.9	15.2	4.6	0.6	0.2	4.76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3.4	4.9	7.5	11.7	17.1	21.2	15.3	15.0	3.6	0.0	0.3	4.58	36.844 *
	무응답	5	20.0	20.0	40.0	0.0	0.0	20.0	0.0	0.0	0.0	0.0	0.0	2.00	
	진보	273	4.0	5.5	12.8	13.2	18.3	17.6	13.9	11.4	2.9	0.4	0.0	4.22	
계층 소속감	중도	440	2.3	5.2	7.3	13.2	12.7	24.3	15.5	15.2	3.6	0.5	0.2	4.67	51.007
	보수	287	2.1	3.1	5.2	9.4	13.9	23.7	17.8	17.1	6.3	0.7	0.7	5.06	
	상상	2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4.00	
	상하	6	16.7	0.0	0.0	16.7	33.3	0.0	16.7	16.7	0.0	0.0	0.0	4.00	
	중상	198	4.0	6.1	10.1	7.6	10.6	23.2	19.2	16.2	2.5	0.5	0.0	4.61	
	중하	545	2.4	4.6	7.7	11.9	16.9	21.5	15.0	14.7	4.8	0.2	0.4	4.67	
계층 소속감	하상	191	1.0	3.1	7.9	14.7	11.0	26.7	16.2	12.6	4.7	1.6	0.5	4.83	51.007
	하하	58	5.2	6.9	8.6	19.0	17.2	13.8	8.6	17.2	3.4	0.0	0.0	4.19	

(단위: %)

(4) 남북 대화		사례 수 (명)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잘 대처하고 있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2.8	4.3	7.4	10.5	13.5	22.9	16.7	14.3	6.4	0.8	0.4	4.82	
성별	남성	496	3.4	4.6	8.5	9.1	13.1	23.6	15.9	15.3	5.4	0.8	0.2	4.75	8.834
	여성	504	2.2	4.0	6.3	11.9	13.9	22.2	17.5	13.3	7.3	0.8	0.6	4.89	
연령	19세~29세	177	3.4	6.8	7.9	9.6	12.4	26.6	11.9	15.8	5.1	0.6	0.0	4.62	61.480 *
	30대	184	4.3	3.3	10.9	13.0	15.2	23.4	15.2	8.7	5.4	0.5	0.0	4.42	
	40대	212	3.3	2.8	4.7	12.3	12.7	25.9	19.3	14.2	3.3	0.9	0.5	4.84	
	50대	200	2.0	4.5	9.5	10.5	11.5	15.0	19.0	19.0	7.0	0.5	1.5	4.99	
	60세 이상	227	1.3	4.4	4.8	7.5	15.4	23.8	17.2	13.7	10.6	1.3	0.0	5.12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9	5.9	8.1	13.1	13.5	24.6	13.9	10.2	5.9	0.7	0.2	4.49	40.673 **
	중소도시	457	2.2	2.8	6.8	7.4	12.9	21.2	19.9	18.2	7.2	0.7	0.7	5.13	
	읍면	84	0.0	3.6	7.1	13.1	16.7	22.6	14.3	15.5	4.8	2.4	0.0	4.90	
권역	서울	203	5.4	8.9	11.8	15.3	11.8	27.6	9.9	6.4	2.0	1.0	0.0	3.92	214.213 ***
	인천/경기	290	0.7	1.0	4.5	7.2	15.5	22.1	19.7	18.3	9.3	1.0	0.7	5.41	
	대전/충청	103	4.9	7.8	3.9	10.7	16.5	29.1	15.5	9.7	1.9	0.0	0.0	4.36	
	광주/호남	102	0.0	5.9	16.7	8.8	14.7	15.7	19.6	11.8	4.9	2.0	0.0	4.60	
	대구/경북	102	4.9	2.9	6.9	15.7	22.5	21.6	11.8	8.8	2.9	1.0	1.0	4.36	
	부산/울산/경남	159	0.6	0.6	1.3	7.5	4.4	23.3	25.2	24.5	12.6	0.0	0.0	5.83	
	강원/제주	41	9.8	9.8	17.1	12.2	9.8	9.8	4.9	17.1	7.3	0.0	2.4	4.00	
결혼 상태	미혼	238	4.6	6.7	8.4	10.1	13.4	21.0	14.7	14.7	5.0	1.3	0.0	4.55	29.170
	기혼	732	2.2	3.6	6.7	10.8	13.8	23.2	17.6	14.3	6.8	0.5	0.4	4.9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3.3	16.7	6.7	6.7	30.0	10.0	10.0	6.7	3.3	3.3	4.80	
학력	초졸 이하	35	0.0	2.9	0.0	5.7	20.0	25.7	11.4	25.7	8.6	0.0	0.0	5.46	57.075 *
	중졸	113	0.9	3.5	4.4	7.1	14.2	21.2	19.5	13.3	15.0	0.9	0.0	5.35	
	고졸	466	2.4	2.8	7.1	11.2	13.3	21.5	18.0	16.3	6.4	0.9	0.2	4.95	
	대졸	371	4.0	6.5	9.4	11.3	13.2	25.1	14.3	11.1	3.5	0.8	0.8	4.44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6.7	6.7	6.7	20.0	26.7	13.3	6.7	0.0	0.0	4.7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8	5.2	9.1	11.7	13.6	19.7	16.8	14.2	5.1	0.5	0.3	4.60	55.499 ***
	긍정	255	0.0	1.6	2.4	7.1	13.3	32.2	16.5	14.5	10.2	1.6	0.8	5.4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8	3.8	6.2	13.8	16.2	23.8	11.5	13.8	6.9	0.0	0.0	4.63	15.081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5	4.4	7.7	10.0	12.9	21.9	15.9	15.2	7.7	1.3	0.4	4.90	
	400만 원 이상	386	2.6	4.1	7.5	10.1	13.2	23.6	19.7	13.5	4.7	0.5	0.5	4.80	
	무응답	5	20.0	0.0	0.0	20.0	40.0	0.0	0.0	0.0	0.0	0.0	0.0	3.00	
이념 성향	진보	273	4.0	6.6	11.4	9.9	16.1	23.1	12.8	12.8	2.6	0.7	0.0	4.33	52.360 ***
	중도	440	2.7	3.9	7.3	11.4	14.5	21.8	17.5	14.3	6.1	0.2	0.2	4.78	
	보수	287	1.7	2.8	3.8	9.8	9.4	24.4	19.2	15.7	10.5	1.7	1.0	5.34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0	69.939 *
	상하	6	16.7	0.0	33.3	0.0	0.0	16.7	16.7	16.7	0.0	0.0	0.0	3.67	
	중상	198	3.0	6.6	5.6	10.1	8.6	25.8	19.2	15.2	5.6	0.5	0.0	4.81	
	중하	545	2.8	4.0	7.5	9.2	15.2	24.0	14.5	14.1	7.3	0.7	0.6	4.84	
	하상	191	1.0	1.6	7.9	13.1	12.6	17.8	22.5	16.8	4.7	1.6	0.5	5.05	
	하하	58	6.9	8.6	8.6	17.2	15.5	20.7	10.3	5.2	6.9	0.0	0.0	3.97	

(단위: %)

(5) 핵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		사례 수 (명)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잘 대처하고 있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3.0	4.5	6.8	10.2	15.8	20.8	18.0	13.2	6.2	0.9	0.6	4.80	
성별	남성	496	3.6	4.6	6.5	10.1	15.3	19.2	20.8	11.1	7.1	1.0	0.8	4.81	12.451
	여성	504	2.4	4.4	7.1	10.3	16.3	22.4	15.3	15.3	5.4	0.8	0.4	4.79	
연령	19세~29세	177	4.5	5.6	9.0	13.0	14.7	20.3	15.3	8.5	7.3	1.7	0.0	4.48	57.051 *
	30대	184	3.8	4.3	11.4	12.5	16.3	21.7	17.4	7.1	4.3	1.1	0.0	4.37	
	40대	212	3.3	4.2	3.8	10.8	17.5	22.2	19.8	12.7	4.7	0.5	0.5	4.80	
	50대	200	2.0	4.0	6.5	7.0	15.5	18.0	19.0	20.0	5.5	0.5	2.0	5.13	
	60세 이상	227	1.8	4.4	4.4	8.4	15.0	21.6	18.1	16.3	8.8	0.9	0.4	5.1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1	7.0	8.1	9.4	18.3	21.8	13.9	10.5	5.7	0.9	0.4	4.48	45.661 **
	중소도시	457	2.2	2.6	5.7	10.3	14.7	18.2	22.1	15.8	6.6	1.1	0.9	5.08	
	읍면	84	1.2	1.2	6.0	14.3	8.3	29.8	17.9	14.3	7.1	0.0	0.0	5.02	
권역	서울	203	6.4	8.9	11.3	10.8	16.3	24.1	10.8	4.9	4.4	1.5	0.5	4.03	177.025 ***
	인천/경기	290	1.0	2.4	3.8	11.7	18.3	16.2	21.7	15.5	7.9	1.0	0.3	5.14	
	대전/충청	103	3.9	6.8	6.8	6.8	22.3	24.3	13.6	9.7	2.9	1.0	1.9	4.52	
	광주/호남	102	0.0	2.0	8.8	17.6	15.7	16.7	16.7	11.8	9.8	1.0	0.0	4.88	
	대구/경북	102	4.9	5.9	8.8	13.7	15.7	26.5	7.8	11.8	3.9	0.0	1.0	4.30	
	부산/울산/경남	159	0.6	0.6	2.5	2.5	9.4	23.3	31.4	23.3	5.7	0.6	0.0	5.70	
강원/제주	강원/제주	41	9.8	9.8	12.2	7.3	4.9	14.6	14.6	14.6	9.8	0.0	2.4	4.41	
	미혼	238	4.6	7.6	8.8	11.8	12.6	20.2	16.0	10.5	5.5	2.1	0.4	4.48	47.648 ***
	기혼	732	2.3	3.6	6.1	9.7	17.1	20.9	19.0	14.2	6.1	0.5	0.4	4.89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3.3	6.7	10.0	10.0	23.3	10.0	10.0	13.3	0.0	6.7	5.07		
학력	초졸 이하	35	0.0	2.9	2.9	5.7	17.1	28.6	8.6	22.9	11.4	0.0	0.0	5.40	58.659 *
	중졸	113	1.8	3.5	2.7	10.6	13.3	23.9	17.7	17.7	7.1	1.8	0.0	5.16	
	고졸	466	3.0	3.2	5.4	9.4	17.2	18.0	19.7	14.8	7.7	1.1	0.4	4.99	
	대졸	371	3.5	6.7	9.7	11.6	15.4	22.4	16.4	9.2	3.5	0.5	1.1	4.41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0.0	20.0	6.7	0.0	26.7	26.7	6.7	6.7	0.0	0.0	4.5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8	5.8	7.9	10.6	15.4	20.8	17.4	11.7	5.6	0.7	0.3	4.59	36.362 ***
	긍정	255	0.8	0.8	3.5	9.0	16.9	20.8	19.6	17.6	7.8	1.6	1.6	5.4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5.4	3.1	5.4	16.2	18.5	20.0	10.0	13.8	6.2	1.5	0.0	4.56	23.52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3	5.0	6.5	8.4	14.2	21.7	19.6	13.8	6.5	1.0	1.0	4.94	
	400만 원 이상	386	2.8	4.1	7.5	10.6	16.8	19.9	18.9	12.4	6.0	0.5	0.3	4.74	
	무응답	5	20.0	20.0	20.0	0.0	20.0	20.0	0.0	0.0	0.0	0.0	0.0	2.40	
이념 성향	진보	273	4.0	6.6	9.9	10.6	19.4	19.4	16.1	7.3	6.6	0.0	0.0	4.34	56.979 ***
	중도	440	3.0	4.1	5.9	11.4	16.6	22.3	16.4	13.2	6.1	1.1	0.0	4.78	
	보수	287	2.1	3.1	5.2	8.0	11.1	19.9	22.3	18.8	5.9	1.4	2.1	5.28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5.50	63.511
	상하	6	16.7	0.0	0.0	33.3	0.0	16.7	16.7	0.0	16.7	0.0	0.0	4.17	
	중상	198	3.0	6.1	8.1	8.6	12.1	23.7	15.7	14.6	6.6	0.5	1.0	4.79	
	중하	545	2.8	3.5	6.6	9.4	18.0	19.3	19.3	12.5	7.3	0.9	0.6	4.88	
	하상	191	1.6	4.7	5.8	8.9	16.8	23.0	19.9	14.1	3.7	1.0	0.5	4.87	
하하	58	8.6	8.6	8.6	25.9	6.9	17.2	6.9	13.8	1.7	1.7	0.0	3.84		

(단위: %)

(6)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		사례 수 (명)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잘 대처하고 있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2.8	4.5	7.1	10.3	15.5	22.3	15.7	15.5	5.1	0.7	0.5	4.78	
성별	남성	496	3.0	4.2	7.1	10.7	14.9	21.4	15.9	16.9	4.4	1.0	0.4	4.80	4.783
	여성	504	2.6	4.8	7.1	9.9	16.1	23.2	15.5	14.1	5.8	0.4	0.6	4.76	
연령	19세~29세	177	4.5	5.1	10.2	14.1	13.6	17.5	17.5	12.4	4.0	1.1	0.0	4.44	58.650 *
	30대	184	2.7	5.4	11.4	10.9	14.7	26.6	14.7	9.8	2.2	1.1	0.5	4.42	
	40대	212	3.3	4.2	3.3	10.4	15.6	26.9	12.3	17.5	5.7	0.5	0.5	4.89	
	50대	200	2.5	3.0	8.0	8.5	16.0	19.0	15.5	20.5	5.5	0.0	1.5	4.99	
	60세 이상	227	1.3	4.8	4.0	8.4	17.2	21.1	18.5	16.3	7.5	0.9	0.0	5.0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4.4	6.5	10.5	11.3	13.9	23.3	12.9	9.5	3.5	0.4	0.4	4.37	49.603 ***
	중소도시	457	1.5	3.1	4.6	9.6	16.0	21.0	18.6	17.3	6.8	0.9	0.7	5.11	
	읍면	84	1.2	1.2	2.4	8.3	21.4	23.8	15.5	20.2	4.8	1.2	0.0	5.19	
권역	서울	203	6.9	8.4	15.8	13.3	12.3	25.1	8.9	6.4	2.5	0.5	0.0	3.77	206.230 ***
	인천/경기	290	0.7	2.8	5.5	11.7	14.8	16.9	15.9	22.1	7.2	1.4	1.0	5.23	
	대전/충청	103	4.9	3.9	5.8	10.7	16.5	31.1	14.6	7.8	3.9	0.0	1.0	4.51	
	광주/호남	102	0.0	5.9	2.9	8.8	26.5	15.7	17.6	15.7	5.9	1.0	0.0	4.94	
	대구/경북	102	3.9	3.9	7.8	14.7	22.5	26.5	10.8	4.9	3.9	0.0	1.0	4.26	
	부산/울산/경남	159	0.0	0.6	1.9	3.1	8.8	27.0	26.4	27.0	4.4	0.6	0.0	5.73	
결혼 상태	미혼	238	4.6	8.0	9.7	12.6	11.3	18.5	16.0	14.3	3.4	1.3	0.4	4.41	33.280 *
	기혼	732	2.2	3.4	6.1	9.8	16.9	23.4	15.7	15.8	5.6	0.5	0.4	4.89	
학력	초졸 이하	35	0.0	5.7	0.0	5.7	22.9	22.9	14.3	20.0	8.6	0.0	0.0	5.23	50.166
	중졸	113	0.9	2.7	4.4	11.5	15.0	21.2	19.5	15.0	8.8	0.0	0.9	5.14	
	고졸	466	2.6	3.4	5.8	10.7	15.0	20.2	17.4	18.2	5.4	0.9	0.4	4.95	
	대졸	371	4.0	6.5	10.0	10.0	15.6	25.6	12.1	11.9	3.0	0.8	0.5	4.39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13.3	6.7	13.3	13.3	26.7	13.3	13.3	0.0	0.0	5.2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3.6	5.5	8.6	10.3	15.0	21.5	15.2	15.4	3.9	0.7	0.3	4.60	36.121 ***
	긍정	255	0.4	1.6	2.7	10.2	16.9	24.7	17.3	15.7	8.6	0.8	1.2	5.3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8	4.6	8.5	13.1	21.5	16.2	13.1	12.3	6.9	0.0	0.0	4.48	22.099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3	4.4	6.7	9.0	14.6	23.6	14.0	18.4	5.6	0.8	0.6	4.92	
	400만 원 이상	386	2.8	4.4	7.0	10.9	14.8	22.8	18.9	13.2	3.9	0.8	0.5	4.73	
	무응답	5	20.0	20.0	20.0	20.0	0.0	20.0	0.0	0.0	0.0	0.0	0.0	2.20	
이념 성향	진보	273	5.1	6.2	9.5	11.7	19.0	21.6	11.4	11.7	2.9	0.4	0.4	4.25	40.860 **
	중도	440	2.0	5.2	7.0	9.3	15.2	22.5	15.9	15.7	6.1	0.5	0.5	4.84	
	보수	287	1.7	1.7	4.9	10.5	12.5	22.6	19.5	18.8	5.6	1.4	0.7	5.19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5.50	53.445
	상하	6	16.7	0.0	0.0	16.7	16.7	16.7	16.7	16.7	0.0	0.0	0.0	4.17	
	중상	198	3.5	6.1	8.6	7.1	14.6	24.7	13.1	17.7	4.0	0.5	0.0	4.66	
	중하	545	2.4	3.3	6.1	9.7	16.9	22.0	16.3	16.1	5.7	0.7	0.7	4.93	
	하상	191	1.0	4.7	7.3	12.0	14.1	23.6	17.3	14.1	4.2	1.0	0.5	4.81	
	하하	58	8.6	10.3	12.1	20.7	10.3	12.1	12.1	6.9	6.9	0.0	0.0	3.74	

문35) 귀하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장완화와 북한의 진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		사례 수 (명)	매우 반대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찬성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1.1	0.9	2.9	5.1	7.0	14.3	15.1	24.3	22.5	4.3	2.5	6.26	
성별	남성	496	1.6	1.0	3.2	4.6	6.9	12.9	16.1	23.8	21.8	4.8	3.2	6.27	8.391
	여성	504	0.6	0.8	2.6	5.6	7.1	15.7	14.1	24.8	23.2	3.8	1.8	6.25	
연령	19세~29세	177	2.3	1.1	2.8	6.2	9.0	18.6	14.7	24.3	17.5	2.8	0.6	5.84	43.206
	30대	184	1.6	0.5	3.3	4.9	6.0	15.8	20.1	20.1	22.8	2.7	2.2	6.15	
	40대	212	0.9	0.9	2.4	5.2	7.1	13.7	15.6	21.2	23.1	5.2	4.7	6.39	
	50대	200	1.0	1.0	3.5	3.5	9.0	9.5	11.0	28.5	23.5	6.0	3.5	6.45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0	0.9	2.6	5.7	4.4	14.5	14.5	26.9	24.7	4.4	1.3	6.39	72.183 ***
	대도시	459	1.7	1.7	4.6	4.8	7.8	19.2	16.6	20.5	16.1	3.5	3.5	5.90	
	중소도시	457	0.7	0.2	1.5	6.3	6.3	11.2	12.7	26.5	27.6	5.3	1.8	6.50	
권역	읍면	84	0.0	0.0	1.2	0.0	6.0	4.8	20.2	33.3	29.8	3.6	1.2	6.87	216.220 ***
	서울	203	3.0	3.4	5.4	6.9	5.4	23.2	12.3	15.3	16.3	3.9	4.9	5.68	
	인천/경기	290	1.4	0.0	3.1	7.6	12.1	13.1	10.7	20.7	25.5	4.5	1.4	6.10	
	대전/충청	103	0.0	0.0	1.0	4.9	7.8	19.4	18.4	23.3	16.5	5.8	2.9	6.32	
	광주/호남	102	0.0	0.0	0.0	0.0	2.9	2.0	17.6	46.1	29.4	2.0	0.0	7.03	
	대구/경북	102	0.0	1.0	6.9	2.0	2.9	19.6	16.7	20.6	23.5	4.9	2.0	6.26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0.6	3.8	5.0	9.4	22.6	32.7	23.3	2.5	0.0	6.53	27.609
	강원/제주	41	2.4	2.4	0.0	4.9	4.9	2.4	12.2	19.5	24.4	12.2	14.6	7.10	
	미혼	238	1.7	1.7	4.6	6.3	6.7	17.6	18.9	20.2	16.4	4.6	1.3	5.85	
학력	기혼	732	1.0	0.7	2.5	4.6	7.2	13.1	13.9	25.4	24.7	4.0	2.9	6.38	50.184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6.7	3.3	16.7	13.3	30.0	16.7	10.0	6.7	6.63	
	초졸 이하	35	0.0	0.0	2.9	8.6	8.6	8.6	11.4	25.7	31.4	2.9	0.0	6.34	
	중졸	113	0.0	0.9	0.9	2.7	5.3	13.3	22.1	31.0	18.6	4.4	0.9	6.45	
국정운영 평가	고졸	466	0.9	0.6	3.4	6.2	8.2	12.4	14.2	25.8	23.2	3.6	1.5	6.20	16.145
	대학원 대학 이상	15	0.0	0.0	0.0	0.0	6.7	0.0	33.3	26.7	26.7	0.0	6.7	6.93	
	부정	745	1.3	1.2	3.5	5.1	7.9	14.0	14.6	24.7	21.2	4.3	2.1	6.15	
월 평균 소득	긍정	255	0.4	0.0	1.2	5.1	4.3	15.3	16.5	23.1	26.3	4.3	3.5	6.56	12.608
	200만원 미만	130	1.5	2.3	2.3	3.8	8.5	14.6	16.2	23.1	20.8	3.8	3.1	6.1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8	0.8	3.1	6.1	8.1	14.2	13.6	23.8	22.5	4.0	2.9	6.22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0	0.5	2.8	4.4	5.2	14.0	16.6	25.6	23.3	4.7	1.8	6.36	17.122
	무응답	5	20.0	0.0	0.0	0.0	0.0	40.0	20.0	0.0	0.0	20.0	0.0	5.00	
	진보	273	1.8	0.7	2.9	2.9	7.7	11.4	17.6	23.8	23.1	4.8	3.3	6.36	
계층 소속감	중도	440	1.1	1.1	2.7	5.2	7.3	15.7	14.8	23.4	23.4	3.4	1.8	6.18	60.769
	보수	287	0.3	0.7	3.1	7.0	5.9	15.0	13.2	26.1	20.6	5.2	2.8	6.28	
	상상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상하	6	0.0	0.0	0.0	16.7	0.0	33.3	33.3	16.7	0.0	0.0	0.0	5.33	
	중상	198	1.0	1.0	3.5	3.5	6.1	14.6	12.1	22.2	27.8	4.5	3.5	6.43	
계층 소속감	중하	545	0.6	0.4	2.0	5.7	6.2	13.9	16.3	24.6	23.3	4.6	2.4	6.38	60.769
	하상	191	1.6	1.0	4.2	3.7	10.5	14.7	13.1	28.3	17.8	3.7	1.6	6.03	
	하하	58	5.2	5.2	5.2	8.6	6.9	12.1	19.0	17.2	13.8	3.4	3.4	5.40	

(단위: %)

(2)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면 남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 수 (명)	매우 반대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찬성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0.5	1.1	2.2	3.5	7.0	11.5	16.7	24.5	20.1	8.3	4.6	6.55	
성별	남성	496	0.6	0.6	2.2	3.8	6.9	11.5	14.1	25.0	21.8	8.5	5.0	6.62	8.614
	여성	504	0.4	1.6	2.2	3.2	7.1	11.5	19.2	24.0	18.5	8.1	4.2	6.48	
연령	19세~29세	177	0.6	1.1	0.6	5.6	9.0	14.7	20.3	21.5	16.9	8.5	1.1	6.24	57.636 *
	30대	184	1.1	1.1	1.6	2.7	7.6	12.5	17.4	28.3	16.8	4.9	6.0	6.46	
	40대	212	0.0	1.9	3.8	1.4	4.7	9.9	19.3	24.1	19.3	10.4	5.2	6.67	
	50대	200	1.0	1.0	3.5	2.5	7.5	9.5	14.5	24.0	22.5	6.0	8.0	6.62	
	60세 이상	227	0.0	0.4	1.3	5.3	6.6	11.5	12.8	24.7	23.8	11.0	2.6	6.68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1	2.0	3.5	4.8	10.9	13.5	13.9	22.4	17.6	5.4	4.8	6.13	64.113 ***
	중소도시	457	0.0	0.2	1.1	2.6	3.9	10.5	19.5	26.0	21.2	10.5	4.4	6.86	
	읍면	84	0.0	1.2	1.2	1.2	2.4	6.0	16.7	27.4	27.4	11.9	4.8	7.12	
권역	서울	203	1.5	3.0	3.4	5.9	12.8	16.7	9.9	15.3	19.2	5.4	6.9	6.00	217.012 ***
	인천/경기	290	0.7	0.3	1.7	4.5	8.6	13.4	19.0	24.8	18.6	6.6	1.7	6.32	
	대전/충청	103	0.0	1.0	2.9	2.9	8.7	14.6	19.4	13.6	18.4	10.7	7.8	6.56	
	광주/호남	102	0.0	0.0	0.0	0.0	0.0	3.9	13.7	44.1	33.3	4.9	0.0	7.22	
	대구/경북	102	0.0	1.0	3.9	1.0	3.9	9.8	14.7	18.6	18.6	19.6	8.8	7.09	
	부산/울산/경남	159	0.0	0.6	1.9	1.9	3.1	6.3	24.5	38.4	15.1	6.9	1.3	6.65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2.4	0.0	7.3	2.4	7.3	9.8	7.3	29.3	14.6	19.5	7.41	44.193 **
	미혼	238	0.4	2.1	2.1	4.6	8.4	13.4	19.7	22.7	17.6	6.3	2.5	6.21	
학력	기혼	732	0.5	0.8	2.3	3.1	6.8	10.8	15.6	25.8	20.9	8.7	4.5	6.61	39.63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3.3	0.0	13.3	20.0	6.7	20.0	13.3	23.3	7.57	
	초졸 이하	35	0.0	0.0	2.9	8.6	8.6	5.7	14.3	20.0	17.1	20.0	2.9	6.66	
	중졸	113	0.0	0.0	0.0	0.9	6.2	13.3	16.8	23.0	25.7	10.6	3.5	6.92	
	고졸	466	0.6	1.3	2.6	2.8	8.6	10.1	17.4	26.2	19.3	7.3	3.9	6.46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0.5	1.3	2.4	4.9	5.4	12.9	15.6	23.2	19.4	8.1	6.2	6.53	14.208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0.0	20.0	26.7	26.7	26.7	0.0	0.0	6.60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0.7	1.3	2.4	3.6	6.4	11.1	17.4	25.9	18.9	8.2	3.9	6.49	17.701
	긍정	255	0.0	0.4	1.6	3.1	8.6	12.5	14.5	20.4	23.5	8.6	6.7	6.73	
	200만원 미만	130	1.5	2.3	3.1	2.3	8.5	10.0	15.4	21.5	18.5	10.8	6.2	6.48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6	1.0	1.9	4.2	7.5	12.3	15.0	25.9	19.4	7.3	4.8	6.49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0.0	0.8	2.3	2.8	6.0	10.9	19.2	24.1	21.5	8.5	3.9	6.64	38.954 **
	무응답	5	0.0	0.0	0.0	20.0	0.0	20.0	20.0	0.0	20.0	20.0	0.0	6.20	
	상상	2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6.50	
계층 소속감	상하	6	0.0	0.0	0.0	16.7	0.0	33.3	33.3	16.7	0.0	0.0	0.0	5.33	68.844 *
	중상	198	0.0	1.5	2.5	2.5	5.1	14.6	12.6	28.8	19.7	8.1	4.5	6.61	
	중하	545	0.2	1.1	1.7	2.8	7.2	9.7	17.2	26.4	20.9	7.9	5.0	6.66	
	하상	191	1.0	0.0	2.6	6.8	8.4	12.0	17.8	18.8	21.5	7.9	3.1	6.32	
	하하	58	3.4	3.4	5.2	1.7	8.6	12.1	20.7	12.1	10.3	15.5	6.9	6.14	

(단위: %)

(3)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		사례 수 (명)	매우 반대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찬성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2.5	4.4	9.6	13.8	15.9	18.8	13.7	12.5	5.9	2.0	0.9	4.67	
성별	남성	496	2.8	5.4	8.5	12.7	14.7	19.0	14.1	13.3	6.0	2.0	1.4	4.73	9.428
	여성	504	2.2	3.4	10.7	14.9	17.1	18.7	13.3	11.7	5.8	2.0	0.4	4.61	
연령	19세 ~29세	177	4.0	4.0	11.9	14.1	12.4	15.8	11.3	14.1	7.3	2.8	2.3	4.72	34.961
	30대	184	2.2	2.7	10.3	13.6	20.7	20.1	12.5	9.2	6.5	2.2	0.0	4.59	
	40대	212	2.8	5.2	9.9	12.7	15.6	19.8	14.2	12.3	4.2	1.9	1.4	4.60	
	50대	200	3.5	6.0	7.0	14.5	15.0	16.5	13.5	15.5	5.5	2.5	0.5	4.67	
	60세 이상	227	0.4	4.0	9.3	14.1	15.9	21.1	16.3	11.5	6.2	0.9	0.4	4.7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5	4.4	8.5	12.9	17.9	19.6	11.3	12.6	6.8	2.0	0.7	4.64	34.083 *
	중소도시	457	2.0	4.8	10.9	15.3	13.8	17.5	16.2	11.6	5.3	2.2	0.4	4.60	
	읍면	84	0.0	2.4	8.3	10.7	16.7	21.4	13.1	16.7	4.8	1.2	4.8	5.17	
권역	서울	203	5.9	6.4	9.9	14.3	24.1	21.7	7.9	3.9	3.9	1.0	1.0	3.99	266.607 ***
	인천/경기	290	0.7	2.1	10.7	15.9	18.6	15.9	19.0	10.7	4.8	1.0	0.7	4.68	
	대전/충청	103	2.9	1.9	9.7	15.5	16.5	29.1	10.7	6.8	1.9	2.9	1.9	4.52	
	광주/호남	102	0.0	0.0	3.9	7.8	3.9	9.8	21.6	34.3	13.7	4.9	0.0	6.20	
	대구/경북	102	2.0	7.8	10.8	21.6	10.8	27.5	6.9	7.8	2.9	2.0	0.0	4.12	
	부산/울산/경남	159	1.3	4.4	8.8	6.9	14.5	16.4	13.2	21.4	10.7	2.5	0.0	5.19	
결혼 상태	미혼	238	2.9	6.3	11.8	13.4	11.3	18.1	11.3	13.9	6.7	2.5	1.7	4.64	24.408
	기혼	732	2.3	3.6	8.7	13.9	17.8	18.4	14.6	12.3	5.7	1.9	0.7	4.7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10.0	13.3	13.3	6.7	33.3	10.0	6.7	3.3	0.0	0.0	4.03	
학력	초졸 이하	35	0.0	8.6	11.4	17.1	11.4	25.7	14.3	8.6	2.9	0.0	0.0	4.26	52.686
	중졸	113	0.0	1.8	8.8	13.3	12.4	23.0	20.4	14.2	4.4	0.9	0.9	4.97	
	고졸	466	1.7	4.5	7.7	13.1	17.8	15.7	13.9	14.6	6.9	2.8	1.3	4.88	
	대졸	371	4.3	4.9	12.1	14.3	15.1	21.6	10.8	9.7	5.1	1.6	0.5	4.34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0.0	6.7	20.0	13.3	0.0	26.7	13.3	13.3	0.0	0.0	4.8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2.8	4.4	10.5	13.3	14.9	18.1	13.2	13.8	6.4	1.7	0.8	4.66	14.048
	긍정	255	1.6	4.3	7.1	15.3	18.8	20.8	15.3	8.6	4.3	2.7	1.2	4.6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8	6.9	13.1	11.5	11.5	20.8	15.4	10.8	4.6	0.8	0.8	4.37	28.074
	200만원 ~400만원 미만	479	2.5	5.0	9.8	13.2	19.8	18.4	12.1	11.3	5.6	1.7	0.6	4.53	
	400만 원 이상	386	1.8	2.8	8.3	15.5	12.2	18.7	15.3	14.8	6.7	2.6	1.3	4.93	
	무응답	5	20.0	0.0	0.0	0.0	40.0	20.0	0.0	0.0	0.0	20.0	0.0	4.40	
이념 성향	진보	273	4.4	5.1	9.2	18.3	16.1	15.0	12.1	11.4	5.9	2.6	0.0	4.40	24.600
	중도	440	1.8	3.6	10.0	10.9	16.4	20.5	13.4	13.6	6.1	2.0	1.6	4.83	
	보수	287	1.7	4.9	9.4	13.9	15.0	19.9	15.7	11.8	5.6	1.4	0.7	4.66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4.50	54.079
	상하	6	0.0	0.0	0.0	33.3	0.0	33.3	16.7	16.7	0.0	0.0	0.0	4.83	
	중상	198	2.0	3.5	10.1	14.1	10.6	18.7	11.6	13.6	11.1	4.0	0.5	4.97	
	중하	545	3.1	3.7	9.0	14.1	18.0	17.6	15.6	11.7	4.4	1.7	1.1	4.61	
	하상	191	0.5	5.2	11.0	12.0	17.3	20.9	11.5	14.1	5.2	1.0	1.0	4.67	
	하하	58	5.2	12.1	10.3	13.8	10.3	20.7	10.3	10.3	5.2	1.7	0.0	4.10	

(단위: %)

(4) 꾸준히 스포츠나 문화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사례 수 (명)	매우 반대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찬성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1.1	0.7	1.5	4.2	6.2	13.4	17.2	23.4	20.1	7.1	5.1	6.51	
성별	남성	496	1.0	1.2	1.8	5.0	5.4	12.1	17.7	20.6	22.2	7.5	5.4	6.52	14.256
	여성	504	1.2	0.2	1.2	3.4	6.9	14.7	16.7	26.2	18.1	6.7	4.8	6.50	
연령	19세 ~29세	177	1.7	0.6	1.7	6.2	4.0	18.1	17.5	22.6	18.1	6.2	3.4	6.27	37.811
	30대	184	1.1	1.1	1.1	2.7	9.2	15.8	15.2	23.9	19.6	4.9	5.4	6.41	
	40대	212	0.9	1.4	1.4	5.2	3.8	12.7	20.3	20.8	20.8	7.1	5.7	6.52	
	50대	200	1.5	0.5	1.0	3.0	7.0	12.5	15.0	21.0	22.0	9.0	7.5	6.71	
	60세 이상	227	0.4	0.0	2.2	4.0	7.0	9.3	17.6	28.2	19.8	7.9	3.5	6.59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2	1.1	2.4	5.7	8.1	18.3	17.0	21.6	15.9	3.7	4.1	6.02	79.334 ***
	중소도시	457	0.2	0.4	0.7	3.5	4.6	9.6	19.0	23.0	24.1	9.6	5.3	6.86	
	읍면	84	0.0	0.0	1.2	0.0	4.8	7.1	8.3	35.7	21.4	11.9	9.5	7.31	
권역	서울	203	3.9	2.0	2.5	7.9	9.9	16.3	9.9	19.7	14.8	6.9	6.4	5.93	235.672 ***
	인천/경기	290	0.7	0.7	2.1	4.8	7.9	13.8	17.2	22.4	22.4	5.5	2.4	6.33	
	대전/충청	103	1.0	0.0	1.0	5.8	9.7	14.6	12.6	15.5	21.4	3.9	14.6	6.67	
	광주/호남	102	0.0	0.0	0.0	0.0	2.0	5.9	25.5	44.1	18.6	3.9	0.0	6.83	
	대구/경북	102	0.0	0.0	2.0	1.0	2.9	11.8	18.6	12.7	25.5	20.6	4.9	7.17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0.6	2.5	1.3	15.1	25.8	31.4	19.5	2.5	1.3	6.55	
결혼 상태	미혼	238	1.3	0.4	2.5	5.5	5.9	20.2	16.4	21.0	17.6	5.9	3.4	6.19	30.206
	기혼	732	1.1	0.8	1.2	3.8	6.6	11.2	17.6	24.0	21.0	7.4	5.2	6.58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0.0	3.3	0.0	13.3	13.3	26.7	16.7	10.0	16.7	7.33		
학력	초졸 이하	35	0.0	0.0	2.9	2.9	2.9	11.4	20.0	28.6	20.0	8.6	2.9	6.69	42.728
	중졸	113	0.0	0.0	1.8	3.5	3.5	8.0	22.1	32.7	17.7	7.1	3.5	6.71	
	고졸	466	0.9	1.1	1.5	4.1	5.4	14.2	16.1	23.2	22.7	7.7	3.2	6.51	
	대졸	371	1.9	0.5	1.3	4.9	8.4	14.6	16.7	19.9	17.3	6.5	8.1	6.41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6.7	6.7	20.0	33.3	26.7	0.0	6.7	6.9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3	0.9	1.7	4.7	5.9	13.0	18.0	23.2	20.1	7.0	4.0	6.42	15.320
	긍정	255	0.4	0.0	0.8	2.7	7.1	14.5	14.9	23.9	20.0	7.5	8.2	6.7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3	1.5	0.8	3.8	3.8	12.3	16.9	30.0	11.5	10.0	6.9	6.55	20.595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0.6	0.6	1.7	4.4	6.9	14.4	17.1	21.7	21.9	5.6	5.0	6.48	
	400만 원 이상	386	1.0	0.5	1.6	4.1	6.0	12.2	17.4	23.6	21.0	8.0	4.7	6.57	
이념 성향	무응답	5	20.0	0.0	0.0	0.0	20.0	40.0	20.0	0.0	0.0	0.0	0.0	4.00	23.487
	진보	273	2.2	0.4	0.4	4.4	5.1	12.5	16.8	29.7	18.7	5.1	4.8	6.49	
	중도	440	0.7	0.7	2.3	3.6	6.1	14.3	17.5	22.7	20.2	6.8	5.0	6.50	
	보수	287	0.7	1.0	1.4	4.9	7.3	12.9	17.1	18.5	21.3	9.4	5.6	6.54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0.0	7.00	60.960
	상하	6	0.0	0.0	0.0	16.7	0.0	16.7	33.3	0.0	16.7	16.7	0.0	6.17	
	중상	198	1.5	1.0	1.5	3.0	7.1	11.1	11.6	26.3	24.7	7.1	5.1	6.63	
	중하	545	0.4	0.6	1.5	3.9	6.2	13.8	18.2	22.0	20.9	6.6	6.1	6.59	
	하상	191	1.0	0.5	2.1	4.7	6.3	14.1	20.9	25.1	16.2	6.8	2.1	6.28	
	하하	58	6.9	1.7	0.0	8.6	3.4	15.5	12.1	24.1	8.6	12.1	6.9	6.07	

(단위: %)

(5)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사례 수 (명)	매우 반대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찬성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2.2	2.1	3.5	6.2	7.8	16.6	16.0	25.2	16.0	2.9	1.5	5.83	
성별	남성	496	2.8	1.8	4.0	5.0	7.9	16.7	15.1	26.0	15.5	3.2	1.8	5.84	6.941
	여성	504	1.6	2.4	3.0	7.3	7.7	16.5	16.9	24.4	16.5	2.6	1.2	5.83	
연령	19세 ~29세	177	2.8	2.8	0.6	4.5	11.3	18.1	15.8	28.2	13.6	0.6	1.7	5.76	31.453
	30대	184	1.6	2.2	3.8	6.5	9.8	18.5	14.7	21.7	15.8	3.8	1.6	5.78	
	40대	212	1.4	1.4	4.2	6.1	7.5	16.0	17.0	24.5	16.0	3.8	1.9	5.93	
	50대	200	3.0	2.0	3.5	6.0	8.0	15.0	14.5	25.0	18.5	2.5	2.0	5.87	
	60세 이상	227	2.2	2.2	4.8	7.5	3.5	15.9	17.6	26.4	15.9	3.5	0.4	5.81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7	3.7	5.9	9.4	8.9	17.6	14.6	20.0	11.5	2.8	1.7	5.31	75.974 ***
	중소도시	457	1.1	0.9	1.5	3.7	6.8	15.3	18.2	30.0	18.6	2.8	1.1	6.23	
	읍면	84	0.0	0.0	1.2	2.4	7.1	17.9	11.9	27.4	26.2	3.6	2.4	6.56	
권역	서울	203	5.9	6.9	6.9	12.3	7.9	20.2	4.9	16.7	10.3	4.9	3.0	4.94	281.810 ***
	인천/경기	290	1.0	1.0	1.0	5.5	11.4	12.1	14.1	31.7	19.0	2.4	0.7	6.13	
	대전/충청	103	3.9	1.9	6.8	5.8	12.6	33.0	13.6	11.7	8.7	1.0	1.0	5.00	
	광주/호남	102	0.0	0.0	0.0	0.0	2.9	7.8	18.6	38.2	28.4	3.9	0.0	6.93	
	대구/경북	102	1.0	1.0	2.9	2.9	2.9	23.5	26.5	20.6	16.7	1.0	1.0	6.00	
	부산/울산/경남	159	0.6	0.0	1.9	6.3	5.0	12.6	27.0	30.2	14.5	1.9	0.0	6.12	
	강원/제주	41	2.4	2.4	12.2	4.9	4.9	9.8	14.6	14.6	14.6	7.3	12.2	6.05	
결혼 상태	미혼	238	1.7	2.1	2.1	4.2	10.1	20.6	16.8	24.4	13.4	2.1	2.5	5.85	25.211
	기혼	732	2.2	1.9	3.8	6.7	7.1	15.3	15.8	26.1	16.8	3.0	1.2	5.86	
	동거/이혼/별거/사별	30	6.7	6.7	6.7	10.0	6.7	16.7	13.3	10.0	16.7	6.7	0.0	5.03	
학력	초졸 이하	35	0.0	0.0	0.0	11.4	2.9	14.3	20.0	31.4	14.3	5.7	0.0	6.23	36.374
	중졸	113	0.0	3.5	1.8	5.3	8.0	15.9	23.0	23.0	16.8	2.7	0.0	5.92	
	고졸	466	1.5	1.7	3.2	6.2	7.5	16.1	15.5	27.3	16.3	3.0	1.7	5.95	
	대졸	371	4.0	2.4	4.6	6.2	8.6	17.8	14.3	22.6	15.4	2.4	1.6	5.59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6.7	0.0	6.7	13.3	13.3	26.7	20.0	6.7	6.7	6.6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2.6	2.1	3.5	6.0	8.5	16.1	15.8	25.4	15.7	3.2	1.1	5.80	8.642
	긍정	255	1.2	2.0	3.5	6.7	5.9	18.0	16.5	24.7	16.9	2.0	2.7	5.95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	4.6	5.4	8.5	6.9	15.4	15.4	21.5	14.6	3.8	2.3	5.63	26.082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2.3	2.3	1.7	5.2	8.1	18.4	15.2	25.7	15.9	3.8	1.5	5.92	
	400만 원 이상	386	2.1	1.0	5.2	6.5	7.8	14.8	17.4	26.2	16.6	1.6	1.0	5.80	
	무응답	5	20.0	0.0	0.0	20.0	0.0	20.0	0.0	0.0	20.0	0.0	20.0	5.20	
이념 성향	진보	273	4.0	2.6	4.4	6.6	5.5	11.4	18.3	25.6	16.8	3.3	1.5	5.78	24.830
	중도	440	1.1	2.0	2.7	6.1	8.6	20.0	14.5	26.6	13.9	2.5	1.8	5.85	
	보수	287	2.1	1.7	3.8	5.9	8.7	16.4	16.0	22.6	18.5	3.1	1.0	5.85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5.00	63.730
	상하	6	0.0	0.0	0.0	16.7	0.0	33.3	33.3	16.7	0.0	0.0	0.0	5.33	
	중상	198	3.0	3.5	5.6	5.1	7.6	14.6	11.1	25.3	21.2	2.0	1.0	5.75	
	중하	545	1.8	1.1	2.9	6.2	7.5	17.6	15.0	27.0	16.0	3.1	1.7	5.95	
	하상	191	1.6	1.6	2.1	6.8	8.9	16.2	22.0	24.6	12.6	2.1	1.6	5.82	
	하하	58	5.2	8.6	6.9	6.9	6.9	13.8	19.0	12.1	12.1	6.9	1.7	5.14	

(단위: %)

(6)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수 (명)	매우 반대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매우 찬성 한다	10점 평균 (점)	χ^2 -test
2015년		1,000	1.0	0.8	1.4	1.9	4.8	11.9	12.5	21.0	17.4	15.3	12.0	7.07	
성별	남성	496	0.8	1.4	1.4	0.8	5.0	11.7	10.7	20.4	17.7	16.7	13.3	7.18	16.885
	여성	504	1.2	0.2	1.4	3.0	4.6	12.1	14.3	21.6	17.1	13.9	10.7	6.96	
연령	19세 ~29세	177	1.1	0.0	1.1	2.8	5.6	15.8	11.3	19.8	16.4	18.1	7.9	6.92	31.654
	30대	184	1.6	0.5	1.1	2.7	4.3	15.8	12.5	22.3	15.2	13.6	10.3	6.85	
	40대	212	0.5	1.4	1.4	1.4	3.8	10.8	12.3	20.3	18.4	16.0	13.7	7.22	
	50대	200	1.5	1.0	2.0	1.0	5.0	7.5	11.5	19.0	18.0	16.5	17.0	7.30	
	60세 이상	227	0.4	0.9	1.3	1.8	5.3	10.6	14.5	23.3	18.5	12.8	10.6	7.02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7	1.5	2.2	3.9	7.0	14.8	13.7	21.4	14.8	7.4	11.5	6.52	92.454 ***
	중소도시	457	0.4	0.2	0.9	0.2	3.1	9.4	11.8	19.5	18.8	23.2	12.5	7.53	
	읍면	84	0.0	0.0	0.0	0.0	2.4	9.5	9.5	27.4	23.8	15.5	11.9	7.55	
권역	서울	203	3.0	2.5	3.9	5.9	8.4	16.3	6.9	13.3	12.3	9.4	18.2	6.42	270.160 ***
	인천/경기	290	0.7	0.7	0.3	0.7	4.8	13.4	14.5	15.9	14.1	24.1	10.7	7.25	
	대전/충청	103	1.0	1.0	1.9	1.9	6.8	12.6	7.8	18.4	19.4	12.6	16.5	7.11	
	광주/호남	102	0.0	0.0	0.0	0.0	1.0	5.9	11.8	48.0	29.4	3.9	0.0	7.11	
	대구/경북	102	0.0	0.0	2.0	2.0	1.0	5.9	9.8	15.7	13.7	28.4	21.6	7.93	
	부산/울산/경남	159	0.0	0.0	0.6	0.0	4.4	10.1	21.4	32.1	20.8	7.5	3.1	6.87	
결혼 상태	미혼	238	0.8	0.0	1.3	2.1	6.3	17.2	10.9	19.3	16.0	15.5	10.5	6.94	22.334
	기혼	732	1.1	1.1	1.4	1.8	4.5	9.8	13.3	21.9	17.6	15.3	12.3	7.1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0.0	3.3	3.3	0.0	20.0	6.7	13.3	23.3	13.3	16.7	7.23		
학력	초졸 이하	35	0.0	0.0	0.0	2.9	0.0	8.6	14.3	22.9	22.9	17.1	11.4	7.49	41.616
	중졸	113	0.0	0.9	0.0	0.0	3.5	13.3	13.3	20.4	22.1	8.8	17.7	7.37	
	고졸	466	0.9	0.6	0.9	1.7	5.2	9.9	13.7	23.8	15.7	16.3	11.4	7.12	
	대졸	371	1.6	1.1	2.7	2.7	5.1	14.3	10.8	17.0	17.8	16.2	10.8	6.86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0.0	0.0	0.0	6.7	13.3	6.7	33.3	13.3	6.7	20.0	7.33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2	0.8	1.7	1.9	4.8	11.8	12.8	21.7	17.9	15.0	10.3	6.99	11.925
	긍정	255	0.4	0.8	0.4	2.0	4.7	12.2	11.8	18.8	16.1	16.1	16.9	7.3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	2.3	0.8	0.8	3.8	15.4	10.8	18.5	18.5	8.5	19.2	7.08	27.911
	200만원 ~400만원 미만	479	0.8	0.2	1.5	1.7	5.8	10.6	12.1	20.5	18.4	16.5	11.9	7.15	
	400만 원 이상	386	0.8	1.0	1.6	2.6	3.9	11.7	13.7	22.8	16.1	16.3	9.6	6.99	
	무응답	5	20.0	0.0	0.0	0.0	0.0	60.0	0.0	0.0	0.0	0.0	20.0	5.00	
이념 성향	진보	273	2.2	0.7	1.5	1.5	3.7	11.0	12.5	29.7	13.2	13.6	10.6	6.94	34.526 *
	중도	440	0.7	0.9	1.6	2.3	5.5	12.5	11.6	20.0	18.0	13.9	13.2	7.05	
	보수	287	0.3	0.7	1.0	1.7	4.9	11.8	13.9	14.3	20.6	19.2	11.5	7.22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7.50	95.139 ***
	상하	6	0.0	0.0	0.0	16.7	0.0	33.3	0.0	33.3	16.7	0.0	0.0	5.83	
	중상	198	1.5	1.0	2.0	1.0	4.0	13.6	9.1	20.2	18.2	16.2	13.1	7.11	
	중하	545	0.4	0.4	1.7	2.2	5.0	10.3	11.7	21.8	16.7	18.0	11.9	7.19	
	하상	191	1.0	0.0	0.5	1.6	6.3	14.7	17.8	22.5	17.8	8.9	8.9	6.80	
	하하	58	5.2	6.9	0.0	1.7	1.7	10.3	13.8	10.3	20.7	8.6	20.7	6.76	

문36)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1순위		사례수 (명)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	취업문제 해결	신체 및 정신적 상흔 치유	문화적응 어려움 해소	(북한이탈 주민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기타	X ² -test
2015년		1,000	41.9	31.4	13.0	10.4	3.3	0.0	
2014년		1,000	48.9	30.6	8.9	7.0	4.5	0.1	
성별	남성	496	42.7	33.7	12.3	8.5	2.8	0.0	6.366
	여성	504	41.1	29.2	13.7	12.3	3.8	0.0	
연령	19세~29세	177	43.5	31.1	13.0	10.2	2.3	0.0	12.476
	30대	184	42.4	28.8	12.0	13.0	3.8	0.0	
	40대	212	42.9	32.5	11.3	9.9	3.3	0.0	
	50대	200	47.0	31.0	11.5	7.5	3.0	0.0	
	60세 이상	227	34.8	33.0	16.7	11.5	4.0	0.0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6.6	43.1	7.2	10.5	2.6	0.0	73.719 ***
	중소도시	457	47.7	21.0	18.2	9.0	4.2	0.0	
	읍면	84	39.3	23.8	16.7	17.9	2.4	0.0	
권역	서울	203	36.9	41.9	6.9	11.3	3.0	0.0	114.053 ***
	인천/경기	290	41.4	25.2	17.6	11.4	4.5	0.0	
	대전/충청	103	33.0	29.1	20.4	11.7	5.8	0.0	
	광주/호남	102	65.7	10.8	19.6	2.0	2.0	0.0	
	대구/경북	102	36.3	53.9	2.9	4.9	2.0	0.0	
	부산/울산/경남	159	40.9	34.6	10.1	13.2	1.3	0.0	
강원/제주	강원/제주	41	51.2	12.2	12.2	19.5	4.9	0.0	
	미혼	238	43.7	29.4	13.0	11.3	2.5	0.0	7.477
	기혼	732	42.1	31.4	13.1	10.0	3.4	0.0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3.3	46.7	10.0	13.3	6.7	0.0		
학력	초졸 이하	35	20.0	48.6	17.1	8.6	5.7	0.0	21.208
	중졸	113	42.5	29.2	15.9	6.2	6.2	0.0	
	고졸	466	40.8	30.5	14.2	11.4	3.2	0.0	
	대졸	371	45.3	31.8	10.0	10.5	2.4	0.0	
	대학원 재학 이상	15	40.0	26.7	20.0	13.3	0.0	0.0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43.8	29.1	13.8	10.7	2.6	0.0	14.041 **
	긍정	255	36.5	38.0	10.6	9.4	5.5	0.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3.8	37.7	10.8	11.5	6.2	0.0	12.594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42.6	32.4	11.7	10.9	2.5	0.0	
	400만 원 이상	386	44.0	28.2	15.0	9.6	3.1	0.0	
	무응답	5	20.0	20.0	40.0	0.0	20.0	0.0	
이념 성향	진보	273	42.9	30.4	13.2	9.9	3.7	0.0	12.187
	중도	440	45.9	29.5	11.4	10.9	2.3	0.0	
	보수	287	34.8	35.2	15.3	10.1	4.5	0.0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0.0	0.0	37.798 **
	상하	6	83.3	16.7	0.0	0.0	0.0	0.0	
	중상	198	43.9	29.3	10.1	9.6	7.1	0.0	
	중하	545	43.1	28.1	16.1	10.6	2.0	0.0	
	하상	191	35.1	41.9	8.4	11.5	3.1	0.0	
	하하	58	41.4	36.2	10.3	8.6	3.4	0.0	

문37) 귀하는 통일 후 남북한주민들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음
 사안들이 얼마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단위: %)

(1)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례수 (명)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소 장애가 된다	매우 장애가 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된다				
2015년	1,000	12.2	43.3	39.3	5.2	55.5	44.5	2.38	45.8		
2014년	1,000	8.7	41.2	45.5	4.6	49.9	50.1	2.46	48.7		
성별	남성	496	12.5	45.0	36.9	5.6	57.5	42.5	2.36	45.2	2.522
	여성	504	11.9	41.7	41.7	4.8	53.6	46.4	2.39	46.4	
연령	19세~29세	177	13.0	41.2	42.9	2.8	54.2	45.8	2.36	45.2	12.891
	30대	184	12.0	45.1	35.9	7.1	57.1	42.9	2.38	46.0	
	40대	212	14.2	46.7	35.8	3.3	60.8	39.2	2.28	42.8	
	50대	200	12.0	42.0	41.5	4.5	54.0	46.0	2.39	46.2	
	60세 이상	227	10.1	41.4	40.5	7.9	51.5	48.5	2.46	48.8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2.2	38.8	43.4	5.7	51.0	49.0	2.42	47.5	23.943 **
	중소도시	457	13.1	48.1	35.4	3.3	61.3	38.7	2.29	43.0	
	읍면	84	7.1	41.7	38.1	13.1	48.8	51.2	2.57	52.4	
권역	서울	203	12.8	40.9	40.4	5.9	53.7	46.3	2.39	46.5	79.726 ***
	인천/경기	290	19.0	50.7	25.5	4.8	69.7	30.3	2.16	38.7	
	대전/충청	103	12.6	53.4	30.1	3.9	66.0	34.0	2.25	41.7	
	광주/호남	102	1.0	31.4	64.7	2.9	32.4	67.6	2.70	56.5	
	대구/경북	102	12.7	40.2	42.2	4.9	52.9	47.1	2.39	46.4	
	부산/울산/경남	159	7.5	35.2	49.7	7.5	42.8	57.2	2.57	52.4	
	강원/제주	41	4.9	46.3	43.9	4.9	51.2	48.8	2.49	49.6	
결혼 상태	미혼	238	13.9	42.4	39.9	3.8	56.3	43.7	2.34	44.5	5.088
	기혼	732	12.0	43.6	38.9	5.5	55.6	44.4	2.38	45.9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43.3	43.3	10.0	46.7	53.3	2.60	53.3	
학력	초졸 이하	35	8.6	40.0	40.0	11.4	48.6	51.4	2.54	51.4	17.861
	중졸	113	7.1	41.6	45.1	6.2	48.7	51.3	2.50	50.1	
	고졸	466	13.3	39.3	42.5	4.9	52.6	47.4	2.39	46.4	
	대졸	371	12.9	48.8	33.4	4.9	61.7	38.3	2.30	43.4	
	대학원 재학 이상	15	6.7	53.3	40.0	0.0	60.0	40.0	2.33	44.4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1.9	41.7	42.7	3.6	53.7	46.3	2.38	46.0	24.254 ***
	긍정	255	12.9	47.8	29.4	9.8	60.8	39.2	2.36	45.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5.4	35.4	40.0	9.2	50.8	49.2	2.43	47.7	12.731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2.7	41.5	40.5	5.2	54.3	45.7	2.38	46.1	
	400만 원 이상	386	10.4	48.4	37.3	3.9	58.8	41.2	2.35	44.9	
	무응답	5	20.0	20.0	60.0	0.0	40.0	60.0	2.40	46.7	
이념 성향	진보	273	13.6	41.0	40.3	5.1	54.6	45.4	2.37	45.7	2.224
	중도	440	11.4	43.2	40.5	5.0	54.5	45.5	2.39	46.4	
	보수	287	12.2	45.6	36.6	5.6	57.8	42.2	2.36	45.2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	17.186
	상하	6	16.7	16.7	66.7	0.0	33.3	66.7	2.50	50.0	
	중상	198	10.6	43.9	40.4	5.1	54.5	45.5	2.40	46.6	
	중하	545	12.7	45.7	36.0	5.7	58.3	41.7	2.35	44.9	
	하상	191	9.4	40.3	45.5	4.7	49.7	50.3	2.46	48.5	
	하하	58	22.4	31.0	43.1	3.4	53.4	46.6	2.28	42.5	

(단위: %)

(2) 소득수준의 차이		사례수 (명)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소 장애가 된다	매우 장애가 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된다			
2015년		1,000	2.2	21.8	51.8	24.2	24.0	76.0	2.98	66.0	
성별	남성	496	2.4	22.4	49.8	25.4	24.8	75.2	2.98	66.1	1.717
	여성	504	2.0	21.2	53.8	23.0	23.2	76.8	2.98	65.9	
연령	19세~29세	177	3.4	22.0	50.3	24.3	25.4	74.6	2.95	65.2	12.379
	30대	184	4.3	23.4	45.1	27.2	27.7	72.3	2.95	65.0	
	40대	212	0.9	20.3	56.1	22.6	21.2	78.8	3.00	66.8	
	50대	200	2.0	21.5	52.5	24.0	23.5	76.5	2.99	66.2	
	60세 이상	227	0.9	22.0	53.7	23.3	22.9	77.1	3.00	66.5	
지역 크기	대도시	459	3.3	20.7	48.4	27.7	24.0	76.0	3.00	66.8	13.991 *
	중소도시	457	1.3	21.4	55.8	21.4	22.8	77.2	2.97	65.8	
	읍면	84	1.2	29.8	48.8	20.2	31.0	69.0	2.88	62.7	
권역	서울	203	4.9	21.2	50.2	23.6	26.1	73.9	2.93	64.2	36.356 **
	인천/경기	290	2.1	17.9	59.3	20.7	20.0	80.0	2.99	66.2	
	대전/충청	103	1.0	24.3	45.6	29.1	25.2	74.8	3.03	67.6	
	광주/호남	102	0.0	29.4	52.0	18.6	29.4	70.6	2.89	63.1	
	대구/경북	102	2.9	29.4	43.1	24.5	32.4	67.6	2.89	63.1	
	부산/울산/경남	159	1.3	20.8	50.9	27.0	22.0	78.0	3.04	67.9	
강원/제주	41	0.0	12.2	46.3	41.5	12.2	87.8	3.29	76.4		
결혼 상태	미혼	238	3.8	22.7	49.2	24.4	26.5	73.5	2.94	64.7	7.173
	기혼	732	1.8	22.0	52.3	23.9	23.8	76.2	2.98	66.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10.0	60.0	30.0	10.0	90.0	3.20	73.3	
학력	초졸 이하	35	0.0	31.4	48.6	20.0	31.4	68.6	2.89	62.9	6.594
	중졸	113	1.8	19.5	54.0	24.8	21.2	78.8	3.02	67.3	
	고졸	466	2.1	22.7	52.8	22.3	24.9	75.1	2.95	65.1	
	대졸	371	2.7	20.5	50.4	26.4	23.2	76.8	3.01	66.8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0.0	46.7	33.3	20.0	80.0	3.13	71.1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2.4	20.7	53.2	23.8	23.1	76.9	2.98	66.1	3.596
	긍정	255	1.6	25.1	47.8	25.5	26.7	73.3	2.97	65.8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3.8	23.8	46.9	25.4	27.7	72.3	2.94	64.6	9.98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3.1	21.9	51.8	23.2	25.1	74.9	2.95	65.0	
	400만 원 이상	386	0.5	21.0	53.4	25.1	21.5	78.5	3.03	67.7	
	무응답	5	0.0	20.0	60.0	20.0	20.0	80.0	3.00	66.7	
이념 성향	진보	273	3.7	22.0	48.7	25.6	25.6	74.4	2.96	65.4	7.260
	중도	440	2.3	22.5	52.3	23.0	24.8	75.2	2.96	65.3	
	보수	287	0.7	20.6	54.0	24.7	21.3	78.7	3.03	67.6	
계층 소속감	상상	2	0.0	50.0	0.0	50.0	50.0	50.0	3.00	66.7	5.103
	상하	6	0.0	16.7	50.0	33.3	16.7	83.3	3.17	72.2	
	중상	198	1.5	20.2	52.5	25.8	21.7	78.3	3.03	67.5	
	중하	545	2.2	21.8	51.7	24.2	24.0	76.0	2.98	66.0	
	하상	191	2.6	22.0	52.4	23.0	24.6	75.4	2.96	65.3	
하하	58	3.4	25.9	50.0	20.7	29.3	70.7	2.88	62.6		

(단위: %)

(3)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사례수 (명)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소 장애가 된다	매우 장애가 된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된다			
2015년		1,000	1.6	12.0	44.9	41.5	13.6	86.4	3.26	75.4	
2014년		1,000	3.3	16.7	50.9	29.1	20.0	80.0	3.06	68.6	
성별	남성	496	2.6	12.5	45.6	39.3	15.1	84.9	3.22	73.9	7.846 *
	여성	504	0.6	11.5	44.2	43.7	12.1	87.9	3.31	77.0	
연령	19세 ~29세	177	1.1	14.7	41.8	42.4	15.8	84.2	3.25	75.1	14.415
	30대	184	2.7	12.5	40.2	44.6	15.2	84.8	3.27	75.5	
	40대	212	0.5	11.3	48.6	39.6	11.8	88.2	3.27	75.8	
	50대	200	3.5	11.5	45.5	39.5	15.0	85.0	3.21	73.7	
지역 크기	60세 이상	227	0.4	10.6	47.1	41.9	11.0	89.0	3.30	76.8	13.278 *
	대도시	459	2.6	13.9	44.9	38.6	16.6	83.4	3.19	73.1	
	중소도시	457	0.7	9.6	44.2	45.5	10.3	89.7	3.35	78.2	
권역	읍면	84	1.2	14.3	48.8	35.7	15.5	84.5	3.19	73.0	89.400 ***
	서울	203	3.4	13.8	42.9	39.9	17.2	82.8	3.19	73.1	
	인천/경기	290	1.4	6.6	39.0	53.1	7.9	92.1	3.44	81.3	
	대전/충청	103	1.9	14.6	43.7	39.8	16.5	83.5	3.21	73.8	
	광주/호남	102	1.0	23.5	67.6	7.8	24.5	75.5	2.82	60.8	
	대구/경북	102	1.0	5.9	40.2	52.9	6.9	93.1	3.45	81.7	
결혼 상태	부산/울산/경남	159	0.6	15.7	47.8	35.8	16.4	83.6	3.19	73.0	4.173
	강원/제주	41	0.0	7.3	43.9	48.8	7.3	92.7	3.41	80.5	
	미혼	238	2.1	13.9	43.7	40.3	16.0	84.0	3.22	74.1	
학력	기혼	732	1.5	11.7	44.9	41.8	13.3	86.7	3.27	75.0	8.334
	동거/이혼/별거/사별	30	0.0	3.3	53.3	43.3	3.3	96.7	3.40	80.7	
	초졸 이하	35	0.0	5.7	37.1	57.1	5.7	94.3	3.51	83.8	
	중졸	113	0.9	13.3	49.6	36.3	14.2	85.8	3.21	73.7	
	고졸	466	1.9	12.7	43.3	42.1	14.6	85.4	3.26	75.2	
국정운영 평가	대졸	371	1.6	11.6	46.4	40.4	13.2	86.8	3.26	75.2	3.571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6.7	40.0	53.3	6.7	93.3	3.47	82.2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1.7	12.1	46.3	39.9	13.8	86.2	3.24	74.8	2.573
	긍정	255	1.2	11.8	40.8	46.3	12.9	87.1	3.32	77.4	
	200만원 미만	130	0.8	10.0	45.4	43.8	10.8	89.2	3.32	77.4	
	200만원 ~400만원 미만	479	1.9	13.2	45.1	39.9	15.0	85.0	3.23	74.3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6	11.1	44.8	42.5	12.7	87.3	3.28	76.1	9.079
	무응답	5	0.0	20.0	20.0	60.0	20.0	80.0	3.40	80.0	
	진보	273	2.6	13.2	44.0	40.3	15.8	84.2	3.22	74.0	
계층 소속감	중도	440	1.6	13.0	46.8	38.6	14.5	85.5	3.23	74.2	7.913
	보수	287	0.7	9.4	42.9	47.0	10.1	89.9	3.36	78.7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상하	6	0.0	16.7	50.0	33.3	16.7	83.3	3.17	72.2	
	중상	198	1.5	15.7	40.9	41.9	17.2	82.8	3.23	74.4	
계층 소속감	중하	545	1.3	11.4	46.2	41.1	12.7	87.3	3.27	75.7	7.913
	하상	191	2.1	10.5	47.1	40.3	12.6	87.4	3.26	75.2	
	하하	58	3.4	10.3	37.9	48.3	13.8	86.2	3.31	77.0	

(단위: %)

(4)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사례수 (명)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소 장애가 된다	매우 장애가 된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χ^2 -test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된다			
2015년		1,000	1.4	14.0	53.0	31.6	15.4	84.6	3.15	71.6	
2014년		1,000	4.2	24.6	50.9	20.3	28.8	71.2	2.87	62.4	
성별	남성	496	1.6	16.9	51.4	30.0	18.5	81.5	3.10	70.0	7.602
	여성	504	1.2	11.1	54.6	33.1	12.3	87.7	3.20	73.2	
연령	19세 ~29세	177	0.6	19.2	48.6	31.6	19.8	80.2	3.11	70.4	15.801
	30대	184	1.1	14.7	52.7	31.5	15.8	84.2	3.15	71.6	
	40대	212	1.4	11.8	52.8	34.0	13.2	86.8	3.19	73.1	
	50대	200	3.5	11.5	56.0	29.0	15.0	85.0	3.11	70.2	
	60세 이상	227	0.4	13.7	54.2	31.7	14.1	85.9	3.17	72.4	
지역 크기	대도시	459	1.5	15.5	51.2	31.8	17.0	83.0	3.13	71.1	4.006
	중소도시	457	1.3	12.9	55.6	30.2	14.2	85.8	3.15	71.6	
	읍면	84	1.2	11.9	48.8	38.1	13.1	86.9	3.24	74.6	
권역	서울	203	2.0	16.7	57.6	23.6	18.7	81.3	3.03	67.7	66.511 ***
	인천/경기	290	1.7	8.3	53.1	36.9	10.0	90.0	3.25	75.1	
	대전/충청	103	1.0	19.4	51.5	28.2	20.4	79.6	3.07	68.9	
	광주/호남	102	1.0	31.4	54.9	12.7	32.4	67.6	2.79	59.8	
	대구/경북	102	1.0	13.7	43.1	42.2	14.7	85.3	3.26	75.5	
	부산/울산/경남	159	1.3	7.5	52.8	38.4	8.8	91.2	3.28	76.1	
결혼 상태	강원/제주	41	0.0	9.8	53.7	36.6	9.8	90.2	3.27	75.6	16.876 *
	미혼	238	1.3	21.0	45.8	31.9	22.3	77.7	3.08	69.5	
학력	기혼	732	1.4	12.2	54.9	31.6	13.5	86.5	3.17	72.2	14.94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3.3	3.3	63.3	30.0	6.7	93.3	3.20	73.3	
	초졸 이하	35	0.0	8.6	40.0	51.4	8.6	91.4	3.43	81.0	
	중졸	113	0.0	11.5	60.2	28.3	11.5	88.5	3.17	72.3	
국정운영 평가	고졸	466	1.7	14.4	51.7	32.2	16.1	83.9	3.14	71.5	5.467
	대졸	371	1.6	14.3	54.4	29.6	15.9	84.1	3.12	70.7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26.7	33.3	40.0	26.7	73.3	3.13	71.1	
월 평균 소득	부정	745	1.5	14.8	54.1	29.7	16.2	83.8	3.12	70.7	2.430
	긍정	255	1.2	11.8	49.8	37.3	12.9	87.1	3.23	74.4	
	200만원 미만	130	0.8	11.5	54.6	33.1	12.3	87.7	3.20	73.3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9	14.2	52.6	31.3	16.1	83.9	3.13	71.1	
이념 성향	400만 원 이상	386	1.0	14.8	52.8	31.3	15.8	84.2	3.15	71.5	17.599 **
	무응답	5	0.0	0.0	60.0	40.0	0.0	100.0	3.40	80.0	
	진보	273	1.1	20.5	49.1	29.3	21.6	78.4	3.07	68.9	
계층 소속감	중도	440	1.6	13.6	53.6	31.1	15.2	84.8	3.14	71.4	14.026
	보수	287	1.4	8.4	55.7	34.5	9.8	90.2	3.23	74.4	
	상상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	
	상하	6	0.0	33.3	16.7	50.0	33.3	66.7	3.17	72.2	
	중상	198	0.5	14.6	54.0	30.8	15.2	84.8	3.15	71.7	
계층 소속감	중하	545	1.5	15.8	51.4	31.4	17.2	82.8	3.13	70.9	14.026
	하상	191	2.1	8.9	58.6	30.4	11.0	89.0	3.17	72.4	
	하하	58	1.7	10.3	50.0	37.9	12.1	87.9	3.24	74.7	

문38) 귀하는 만약 통일이 될 경우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절대 이사 하지 않는다	가급적 이전 이사 하지 않는다	불가피 한 경우 이사한 다	기꺼이 이사한 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X ² -test	
						이사 하지 않는다	이사한 다				
2015년	1,000	17.5	42.4	31.4	8.7	59.9	40.1	2.31	43.8		
2014년	1,000	20.8	41.7	31.0	6.5	62.5	37.5	2.23	41.1		
성별	남성	496	14.1	41.9	34.5	9.5	56.0	44.0	2.39	46.4	10.148 *
	여성	504	20.8	42.9	28.4	7.9	63.7	36.3	2.23	41.1	
연령	19세~29세	177	18.1	44.1	32.2	5.6	62.1	37.9	2.25	41.8	13.026
	30대	184	14.1	46.2	31.0	8.7	60.3	39.7	2.34	44.7	
	40대	212	15.1	40.6	36.8	7.5	55.7	44.3	2.37	45.6	
	50대	200	18.5	41.0	31.0	9.5	59.5	40.5	2.32	43.8	
	60세 이상	227	21.1	41.0	26.4	11.5	62.1	37.9	2.28	42.7	
지역 크기	대도시	459	22.0	41.6	29.6	6.8	63.6	36.4	2.21	40.4	33.691 ***
	중소도시	457	12.0	40.9	36.3	10.7	53.0	47.0	2.46	48.6	
	읍면	84	22.6	54.8	14.3	8.3	77.4	22.6	2.08	36.1	
권역	서울	203	22.7	33.0	33.0	11.3	55.7	44.3	2.33	44.3	127.016 ***
	인천/경기	290	13.8	34.1	40.7	11.4	47.9	52.1	2.50	49.9	
	대전/충청	103	14.6	45.6	29.1	10.7	60.2	39.8	2.36	45.3	
	광주/호남	102	10.8	78.4	10.8	0.0	89.2	10.8	2.00	33.3	
	대구/경북	102	32.4	43.1	12.7	11.8	75.5	24.5	2.04	34.6	
	부산/울산/경남	159	13.8	46.5	38.4	1.3	60.4	39.6	2.27	42.3	
강원/제주	41	19.5	31.7	34.1	14.6	51.2	48.8	2.44	48.0		
결혼 상태	미혼	238	19.7	41.6	31.9	6.7	61.3	38.7	2.26	41.9	6.678
	기혼	732	16.7	43.3	31.0	9.0	60.0	40.0	2.32	44.1	
	동거/이혼/별거/사별	30	20.0	26.7	36.7	16.7	46.7	53.3	2.50	50.0	
학력	초졸 이하	35	28.6	42.9	11.4	17.1	71.4	28.6	2.17	39.0	25.429 *
	중졸	113	20.4	45.1	24.8	9.7	65.5	34.5	2.24	41.3	
	고졸	466	18.9	41.2	33.5	6.4	60.1	39.9	2.27	42.5	
	대졸	371	14.6	42.3	32.3	10.8	56.9	43.1	2.39	46.5	
	대학원 재학 이상	15	0.0	60.0	40.0	0.0	60.0	40.0	2.40	46.7	
국정운영 평가	부정	745	16.0	45.0	32.2	6.8	60.9	39.1	2.30	43.3	20.596 ***
	긍정	255	22.0	34.9	29.0	14.1	56.9	43.1	2.35	45.1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26.9	36.9	22.3	13.8	63.8	36.2	2.23	41.0	35.606 ***
	200만원~400만원 미만	479	19.0	44.1	27.8	9.2	63.0	37.0	2.27	42.4	
	400만 원 이상	386	11.7	42.5	39.4	6.5	54.1	45.9	2.41	46.9	
	무응답	5	80.0	20.0	0.0	0.0	100.0	0.0	1.20	6.7	
이념 성향	진보	273	15.8	46.5	27.8	9.9	62.3	37.7	2.32	44.0	24.373 ***
	중도	440	14.1	45.5	33.9	6.6	59.5	40.5	2.33	44.3	
	보수	287	24.4	33.8	31.0	10.8	58.2	41.8	2.28	42.7	
계층 소속감	상상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7	13.551
	상하	6	33.3	50.0	16.7	0.0	83.3	16.7	1.83	27.8	
	중상	198	13.6	47.5	31.3	7.6	61.1	38.9	2.33	44.3	
	중하	545	17.2	42.9	31.4	8.4	60.2	39.8	2.31	43.7	
	하상	191	18.8	37.2	34.0	9.9	56.0	44.0	2.35	45.0	
	하하	58	25.9	36.2	25.9	12.1	62.1	37.9	2.24	41.4	

3. 설문지

현대리서치연구소	남북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은 통일 후 남북한통합에 관한 조사연구를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남북 통합 과정과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학술적 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표집절차에 따라 선정되었기에 저희 면접원이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조사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면접원의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 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7.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연구주관기관 통일연구원	조사대행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	------------------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통일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종철 선임연구원 연락처 : 02-2023-8109
 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연구원: 박종빈 연구원 연락처 : 02-3218-9652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응답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지역</td> <td style="width: 7.5%;">01) 서울</td> <td style="width: 7.5%;">02) 부산</td> <td style="width: 7.5%;">03) 대구</td> <td style="width: 7.5%;">04) 인천</td> <td style="width: 7.5%;">05) 광주</td> <td style="width: 7.5%;">06) 대전</td> <td style="width: 7.5%;">07) 울산</td> <td style="width: 7.5%;">08) 경기</td> <td style="width: 7.5%;">09) 강원</td> <td style="width: 7.5%;">10) 충북</td> <td style="width: 7.5%;">11) 충남</td> <td style="width: 7.5%;">12) 전북</td> <td style="width: 7.5%;">13) 전남</td> <td style="width: 7.5%;">14) 경북</td> <td style="width: 7.5%;">15) 경남</td> <td style="width: 7.5%;">16) 제주</td> <td></td> </tr> <tr> <td>지역크기</td> <td colspan="2">1) 대도시</td> <td colspan="3">2) 중소도시</td> <td colspan="3">3) 읍/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별</td> <td colspan="5">1) 남성</td> <td colspan="5">2) 여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만()세</td> <td colspan="2">1) 19세~29세</td> <td colspan="2">2) 30대</td> <td colspan="2">3) 40대</td> <td colspan="2">4) 50대</td> <td colspan="2">5) 60세 이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지역크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만()세	1) 19세~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 이상									
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지역크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만()세	1) 19세~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 이상																																																																		

응답자	연락처	() - () - ()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 조사원은 <보기카드>를 제시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지침사항이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피면접자에게 질문과 선택지를 읽어주고, 피면접자의 응답을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2)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3) 다소 자랑스럽다 4) 매우 자랑스럽다

문2. 귀하는 다음의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기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다소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럽다
	1	2	3	4

	응답칸		응답칸
01) 민주주의 발전	□	06) 스포츠	□
02) 국제사회에서 위상	□	07) 예술과 문화	□
03) 경제성장	□	08) 군사력	□
04) 사회보장	□	09) 역사	□
05) 과학기술의 발전	□	10) 공정한 사회적 대우	□

문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매우 믿을 수 없다' 가 0점, '매우 믿을 수 있다' 가 10점)

보기	매우 믿을 수 없다 ◀-----▶ -----▶ 매우 믿을 수 있다
	0.....1.....2.....3.....4.....5.....6.....7.....8.....9.....10

문4. 귀하는 한국 사회의 다음 각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1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점: 중간, 10점: 매우 신뢰한다)

	응답칸		응답칸		응답칸
01) 대통령	점	05) 정당	점	09) 종교단체	점
02) 행정부	점	06) 언론	점	10) 노동조합	점
03) 사법부	점	07) 시민단체	점	11) 대기업	점
04) 국회	점	08) 군대	점		

문5. <보기카드 1>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 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5-1	1) 높은 경제성장 3) 방위력 증강	2) 직장,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 4) 환경개선	□	□
5-2	1) 언론자유 보장 3)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의견 반영	2) 물가 억제 4) 사회 질서 유지	□	□
5-3	1) 경제안정 3) 범죄 소탕	2)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4)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	□	□

문6. 귀하는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2)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7. 귀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한다
- 2) 다소 불만족한다
- 3) 다소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사회 갈등과 통합에 대한 인식

문8.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별로 심각하지 않다 2	약간 심각하다 3	매우 심각하다 4
--------	-----------------	-----------------	--------------	--------------

	응답칸		응답칸
1) 지역갈등		4) 세대갈등	
2) 계층갈등		5) 대북·통일관련 남북갈등	
3) 이념갈등			

문9. <보기카드 2>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
- 2) 개인 이익 추구
- 3) 정보 부족과 오해
- 4) 정부의 대처 부족
-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0.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4)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11.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1	별로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2	지금과 마찬가지로 것이다 3	약간 심각할 것이다 4	매우 심각할 것이다 5
--------	---------------------	---------------------	-----------------------	-----------------	-----------------

	응답칸		응답칸
1) 계층갈등		3) 세대갈등	
2) 이념갈등		4) 남북 지역 간 갈등	

문12. 현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적이지 않다'가 0점, '매우 민주적이다'가 10점입니다.

보 기	민주적이지 않다	◀-----▶	매우 민주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13. 귀하는 다음의 진술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
 '민주주의의 기본요소가 전혀 아니다'가 0점,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이다'가 10점입니다.

보 기	민주주의의 기본요소가 아니다	←-----	-----→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이다
	0.....1.....2.....3.....4.....5.....6.....7.....8.....9.....10			

1)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응답칸
2)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4) 정부는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5) 언론은 정부가 하는 일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6) 국민은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문14.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응답칸
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3)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 질서이다	
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6)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문15. 귀하는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2) 다소 반대한다 3) 다소 지지한다 4) 매우 지지한다

문16. 귀하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약화된다 2) 다소 약화된다 3) 별 차이가 없다
 4) 다소 강화된다 5) 매우 강화된다

문17.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매우 감소해야 한다 1	다소 감소해야 한다 2	다소 증가해야 한다 3	매우 증가해야 한다 4
--------	-----------------	-----------------	-----------------	-----------------

		응답칸			응답칸
1) 북한이탈주민			4) 조선족		
2) 결혼이주자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3) 외국인 노동자					

문18.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4
--------	--------------------------	--------------------------	----------------------	----------------------

		응답칸			응답칸
1) 북한이탈주민			4) 조선족		
2) 결혼이주자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3) 외국인 노동자					

문19.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매우 꺼려진다 1	다소 꺼려진다 2	다소 환영한다 3	매우 환영한다 4
--------	--------------	--------------	--------------	--------------

		응답칸			응답칸
1) 북한이탈주민			4) 조선족		
2) 결혼이주자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3) 외국인 노동자					

문20.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직장 동료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매우 꺼려진다 1	다소 꺼려진다 2	다소 환영한다 3	매우 환영한다 4
--------	--------------	--------------	--------------	--------------

		응답칸			응답칸
1) 북한이탈주민			4) 조선족		
2) 결혼이주자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3) 외국인 노동자					

문21.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매우 꺼려진다	다소 꺼려진다	다소 환영한다	매우 환영한다
기	1	2	3	4

1) 북한이탈주민	응답칸	4) 조선족	응답칸
2) 결혼이주자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3) 외국인 노동자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22.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1) 전혀 관심이 없다
- 2) 별로 관심이 없다
- 3) 다소 관심이 있다
- 4) 매우 관심이 있다

문23. 귀하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다음 중 어느 매체에 가장 많이 의존하십니까? 1순위와 2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지상파 TV(KBS, MBC, SBS, EBS, 지역민방)
- 2) 종편 TV(JTBC, TV조선, 채널A, MBN)
- 3) 케이블 TV(연합뉴스, YTN 등)
- 4) 신문(중앙지)
- 5) 지역신문(지방지)
- 6) 잡지
- 7) 인터넷(포털, 블로그)
- 8) 라디오
- 9) SNS(트위터, 페이스북)
- 10) 매신지(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
- 11)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24.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 지원대상	응답칸	3) 경쟁대상	응답칸	5) 적대대상	응답칸
2) 협력대상	점	4) 경제대상	점		점

문25. 다음은 북한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양쪽에 적혀진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의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불친절하다	◀-----▶	친절하다	응답칸
	1.....2.....3.....4.....5			
2)	게으르다	◀-----▶	근면하다	응답칸
	1.....2.....3.....4.....5			
3)	공격적이다	◀-----▶	온화하다	응답칸
	1.....2.....3.....4.....5			
4)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	타인을 배려한다	응답칸
	1.....2.....3.....4.....5			
5)	폐쇄적이다	◀-----▶	개방적이다	응답칸
	1.....2.....3.....4.....5			
6)	신뢰할 수 없다	◀-----▶	신뢰할 수 있다	응답칸
	1.....2.....3.....4.....5			

문26. 다음은 귀하가 북한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양쪽에 적혀진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의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신뢰할 수 없다	◀-----▶	신뢰할 수 있다	응답칸
	1.....2.....3.....4.....5			
2)	정직하지 않다	◀-----▶	정직하다	응답칸
	1.....2.....3.....4.....5			
3)	억압적이다	◀-----▶	자유롭다	응답칸
	1.....2.....3.....4.....5			
4)	적(敵)이다	◀-----▶	친구다	응답칸
	1.....2.....3.....4.....5			
5)	무책임하다	◀-----▶	책임감이 있다	응답칸
	1.....2.....3.....4.....5			
6)	공격적이다	◀-----▶	평화적이다	응답칸
	1.....2.....3.....4.....5			
7)	악하다	◀-----▶	선하다	응답칸
	1.....2.....3.....4.....5			
8)	권위적이다	◀-----▶	민주적이다	응답칸
	1.....2.....3.....4.....5			
9)	위협적이다	◀-----▶	위협적이지 않다	응답칸
	1.....2.....3.....4.....5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27.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약간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

문28. <보기카드 3>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3) 남북 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문29. 귀하는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문30.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문31. <보기카드 4>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2)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
 3) 정부와 시민 단체 간 협력 강화
 4) 통일교육 확대 5) 언론의 민족 화합 지향적 보도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문32. <보기카드 5> 귀하는 통일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경제성장 2) 안보 3) 복지 4) 지역 균형 발전 5) 사회 안정
 6) 민주주의 발전 7) 국민 화합 8) 과거 청산 9) 기타 (구체적으로_____)

문33. 귀하는 다음 분야의 정책이 남북한 통합을 이루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	매우 기여한다
	0.....1.....2.....3.....4.....5.....6.....7.....8.....9.....10		

	응답간		응답간
1) 인도적 대북지원	<input type="checkbox"/>	5) 남북 대화	<input type="checkbox"/>
2) 남북한 교류협력	<input type="checkbox"/>	6) 핵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	<input type="checkbox"/>
3)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input type="checkbox"/>	7)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	<input type="checkbox"/>
4) 통일교육	<input type="checkbox"/>	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input type="checkbox"/>

문34. 귀하는 박근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	잘 대처하고 있다
		0.....1.....2.....3.....4.....5.....6.....7.....8.....9.....10		

	응답칸		응답칸
1) 인도적 대북지원		4) 남북 대화	
2) 남북한 교류협력		5) 핵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	
3)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6)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	

문35. 귀하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매우 반대한다	←-----	-----→	매우 찬성한다
		0.....1.....2.....3.....4.....5.....6.....7.....8.....9.....10		

	응답칸
1)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장완화와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	
2)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면 남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	
4) 꾸준한 스포츠나 문화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5)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6)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36. <보기카드 6>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1) 취업문제 해결 | 2)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 | 3) 신적 및 정신적 상흔 치유 |
| 4) (북한이탈주민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 5) 문화적응 어려움 해소 | 6) 기타 (구체적으로.....) |

문37. 귀하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음 사안들이 얼마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소 장애가 된다	매우 장애가 된다
	1.....	2.....	3.....	4.....

	응답칸		응답칸
1) 의사소통의 어려움		3) 이념과 이태올로기의 차이	
2) 소득 수준의 차이		4)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문38. 귀하는 만약 통일이 될 경우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
| 1) 절대 이사하지 않는다 | 2) 가끔적이면 이사하지 않는다 | 3) 불가피한 경우 이사한다 | 4) 기꺼이 이사한다 |
|----------------|-------------------|-----------------|-------------|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DQ1. 귀하의 결혼 상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1) 미혼 2) 기혼 3) 동거 4) 이혼/별거 5) 사별

DQ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 재학 이상

DQ3. 귀하의 종교나 신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종교 없음
5) 기타 (구체적으로_____)

DQ3-1. 귀하는 얼마나 자주 종교 행사에 참석하십니까?

- 1) 일주일에 여러 번 2) 일주일에 한번 3) 한 달에 한두 번
4) 일 년에 여러 번 5) 일 년에 한번 이하 6)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DQ4.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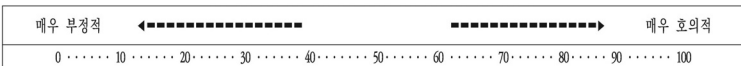
- 1)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 다소 잘 못하고 있다
4) 다소 잘하고 있다 4) 매우 잘하고 있다

DQ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4) 기타 (_____당) 5)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

DQ6. 귀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은 0점,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은 50점, ‘매우 호의적’은 100점입니다.)



1) 새누리당	응답칸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DQ7.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진보적이다 2) 다소 진보적이다 3) 중도이다
4) 다소 보수적이다 5) 매우 보수적이다

DQ8. 귀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만원

DQ9.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 가정의 소득 수준은 평균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평균보다 훨씬 낮다
- 2) 평균보다 약간 낮다
- 3) 평균과 비슷하다
- 4) 평균보다 약간 높다
- 5) 평균보다 훨씬 높다

DQ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고 해당번호를 골라주세요) _____

- 01) 농업/수산업/축산업
- 02)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사 등)
- 0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0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기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 05)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06)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 07)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 08) 전업주부
- 09)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10) 군인/경찰
- 11) 무직, 정년, 휴직
-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DQ11. 한국 사회의 계층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하층의 하
- 2) 하층의 상
- 3) 중간층의 하
- 4) 중간층의 상
- 5) 상류층의 하
- 6) 상류층의 상

DQ12.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동안 사셨던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01) 서울
- 02) 부산
- 03) 대구
- 04) 인천
- 05) 광주
- 06) 대전
- 07) 울산
- 08) 경기
- 0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17) 북한
- 18) 외국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인식조사 설문지>

문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매우 믿을 수 없다'가 0점, '매우 믿을 수 있다'가 10점입니다

매우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0.....1.....2.....3.....4.....5.....6.....7.....8.....9.....10	

문2.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기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1	2	3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1) 남한주민</td><td style="width: 50%;">응답칸</td></tr> <tr><td>2) 결혼이주자</td><td></td></tr> <tr><td>3) 외국인 노동자</td><td></td></tr> </table>	1) 남한주민	응답칸	2) 결혼이주자		3) 외국인 노동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4) 조선족</td><td style="width: 50%;">응답칸</td></tr> <tr><td>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td><td></td></tr> </table>	4) 조선족	응답칸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1) 남한주민	응답칸										
2) 결혼이주자											
3) 외국인 노동자											
4) 조선족	응답칸										
5)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문3.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결혼상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기	매우 꺼려진다	다소 꺼려진다	다소 환영한다	매우 환영한다
	1	2	3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1) 남한주민</td><td style="width: 50%;">응답칸</td></tr> <tr><td>2) 북한이탈주민</td><td></td></tr> <tr><td>3) 결혼이주자</td><td></td></tr> </table>	1) 남한주민	응답칸	2) 북한이탈주민		3) 결혼이주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4) 외국인 노동자</td><td style="width: 50%;">응답칸</td></tr> <tr><td>5) 조선족</td><td></td></tr> <tr><td>6)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td><td></td></tr> </table>	4) 외국인 노동자	응답칸	5) 조선족		6)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1) 남한주민	응답칸												
2) 북한이탈주민													
3) 결혼이주자													
4) 외국인 노동자	응답칸												
5) 조선족													
6)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문4.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약간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

문5.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문6. 귀하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기	매우 장애가 된다	다소 장애가 된다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1	2	3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1) 의사소통의 어려움</td><td style="width: 50%;">응답칸</td></tr> <tr><td>2) 소득 수준의 차이</td><td></td></tr> </table>	1) 의사소통의 어려움	응답칸	2) 소득 수준의 차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3) 가치관 및 사고방식의 차이</td><td style="width: 50%;">응답칸</td></tr> <tr><td>4) 생활습관의 차이</td><td></td></tr> </table>	3) 가치관 및 사고방식의 차이	응답칸	4) 생활습관의 차이	
1) 의사소통의 어려움	응답칸								
2) 소득 수준의 차이									
3) 가치관 및 사고방식의 차이	응답칸								
4) 생활습관의 차이									

문7. <보기카드 1> 다음은 남한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양쪽에 적혀진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의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불친절하다	◀=====	=====▶	친절하다	응답칸
	1. 2. 3. 4. 5				
2)	게으르다	◀=====	=====▶	근면하다	응답칸
	1. 2. 3. 4. 5				
3)	공격적이다	◀=====	=====▶	온화하다	응답칸
	1. 2. 3. 4. 5				
4)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	=====▶	친절하다	응답칸
	1. 2. 3. 4. 5				
5)	폐쇄적이다	◀=====	=====▶	친절하다	응답칸
	1. 2. 3. 4. 5				
6)	신뢰할 수 없다	◀=====	=====▶	신뢰할 수 있다	응답칸
	1. 2. 3. 4. 5				

문8. <보기카드 2> 다음은 북한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양쪽에 적혀진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의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불친절하다	◀=====	=====▶	친절하다	응답칸
	1. 2. 3. 4. 5				
2)	게으르다	◀=====	=====▶	근면하다	응답칸
	1. 2. 3. 4. 5				
3)	공격적이다	◀=====	=====▶	온화하다	응답칸
	1. 2. 3. 4. 5				
4)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	=====▶	친절하다	응답칸
	1. 2. 3. 4. 5				
5)	폐쇄적이다	◀=====	=====▶	친절하다	응답칸
	1. 2. 3. 4. 5				
6)	신뢰할 수 없다	◀=====	=====▶	신뢰할 수 있다	응답칸
	1. 2. 3. 4. 5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근 외	10,000원
2015	길립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명*			입금일자*		
소속*			입금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전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 788984 798328

9 3340

ISBN 978-89-8479-832-8